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③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③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년 인천정명 600년, 인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언젠가 ‘과거’가 되었을 때, 과거의 기록을 살필으로써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을 미리 발견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세계 최고의 기록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총 11개의 세계기록 유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등재된 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일성록’의 9건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기도 했고,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일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려는 노력, 그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시는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973년 제1차 시사 편찬사업을 시작으로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류 백제 2000년, 인천정명 600년, 근대 개항 130년’을 맞은 이 뜻 깊은 해에 그 5번째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시사편찬의 토대가 되는 각종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편찬위원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 인천광역시시는 우리 시의 역사와 기록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연구와 배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가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사연구재단인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와 기록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읽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바탕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 일입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 UN본부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입주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토대로 미래로 성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인천광역시사』가 이러한 때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발간에 열정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사』가 인천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사는 시사의 증보는 물론 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송 영 길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인천광역시사』 발간을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성만입니다.

탐스러운 과실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인천광역시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올해만큼 우리 인천이 약진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유치한 미래 UN의 핵심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입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제·환경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천은 연비어약(鸞飛魚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분야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1등을 기록하였고,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자유구역 중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의 600년이 도약을 위한 오랜 인고의 세월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천 600년은 찬란한 변영의 시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천광역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의 편찬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인천의 역동성을 후세에 남기는 매우 뜻 깊은 작업으로, 우리들의 의무이자 당당한 권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간 인천에 대한 애정으로 작업에 몰두해 주신 43명의 집필위원 및 편찬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의 무궁한 발전과 291만 인천 시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 성 만**

● 일러두기

1. 편찬 기본 방침

- 2013년 『인천광역시사』는 조선 태종 13년(1413) 인천 이름 탄생 600년이 된 시점을 기념하면서, 앞서 진행된 4차례의 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맞는 『시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서술체제 및 방법에서, 기왕의 시대사 서술 중심에서 벗어나 각 테마별 구성을 통한 기사본말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동시대적으로 정리하였다. 동시에 각 군구의 역사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최근 지역사 연구 경향인 ‘구술사’를 적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인천의 도시변화를 담을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규격과 판형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과 가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편찬의 효율성을 위해 일시에 다량의 책자를 한꺼번에 발간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출판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의 체육’, ‘인천의 인물’ 등 주제를 달리해서 매년 2권의 『시사』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편찬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2. 집필 원칙

- 그간의 연구업적을 반영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지양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이 서술되면서 최근의 변화 발전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서술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하였으나, 편찬과정에서 수렴된 최근의 상황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 문장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고등학교 교재 수준으로 하였고,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으나, 인용문과 각주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 등을 부기하였다.
- 용어는 국정교과서의 용례에 따랐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의 명칭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자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 』: 문헌이나 저서명 『 』: 논문명
- 〈 〉: 총서명이나 관보, 신문 < >: 신문, 잡지 기사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3. 내용

○ 제1권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은 인천 역사를 기사본말체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천 역사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를 정하고 이를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동시대적으로 고찰하였다. 전근대는 인천 역사의 출발인 ‘미추홀에서 인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근대 시기 인천지역의 각종 현황을 찾아 볼 수 있는 ‘읍지로 보는 인천’에 이르기까지 5가지 주제를, 근현대에는 ‘제물포 개항장의 공간구조’로부터 ‘근대 이행기 인천의 도시 경관 변화’에 이르기까지 5가지 주제를 모아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권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성격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제2권 『끓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은 최근 인천의 도시발전과 변화상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와 행정’, ‘경제’, ‘교육과 복지’, ‘문화와 시민사회 운동’,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화로 보는 인천’의 모습 등 총 7가지 주제를 각 2인의 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엮은 것이다. 특히, 인천이 지향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이 시대 과제들이 도출되어 있어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제3권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는 ‘구술’을 통해 인천의 도시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보다 대중적 관점에서 인천의 변화상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전에 정착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중에 현재 적어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각 방면에서의 경험과 삶을 도시변화라는 주제에 맞춰 정리하였다. ‘강화도가 육지라면’, ‘인천 체육과 도시발전’, ‘화교사회와 인천’ 등 총 13명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인천 도시 이야기 13가지 주제를 통해 인천의 변화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차 례

서설

서	15
해제	18

제1장 강화도가 육지라면

황원준

고종 임금께서 학교이름을 지어내리시다.	37
8·15 광복과 5·10 선거	41
6·25전쟁 -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 오다.	47
강화도가 육지라면	54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58
강화도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니?	64

제2장 인천체육과 도시 발전

고철호

용동 큰 우물의 추억과 가난한 야구선수 생활	71
모교 야구 감독으로	79
경기도야구협회 전무이사가 되다	84
아웅산 테러사건과 제64회 전국체전	90
종합경기장 신축 계획 수립	96
아쉬움 많은 인천 체육 현실	103

제3장 화교 사회와 한국사회의 소통 메신저

곡창신

용현동에서 태어난 중국인	109
친가는 해로로, 외가는 육로로 한국 땅으로	111
고난과 역경의 초기 정착 생활	116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 교육은 빼 놓을 수 없어	118
취업이 어려워 대학을 나와도 배달통을 들 수밖에 없어	122
화교들의 주업이 되었던 짜장면 집과 버스업	125
일본에서 시작한 요리 인생	131
차이나타운의 여러 변화	134

제4장 인천의 경제계와 정치계를 한 손에

심정구

시험(?)을 보고 들어 간 국민학교	142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한 인천상업학교 시절	145
상업학교에서 상대(商大)로의 진학	147
6·25전쟁, 소래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	149
창고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선포	150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통관도 선포에서	154
우연히 그러나 어렵게 들어 선 정치 발걸음	158
서울에서 태어나 형님따라 인천으로	164

차 례

제5장 인천 언론사의 증인

오종원

전기 공급하는 데가 상전이지	171
해남 땅끝 마을에서 인천 송화동으로	173
일 주일 만에 경인일보에서 경기매일로 전직	176
채호 선생과의 각별한 인연	178
주유종탄(主油從炭)의 일화	183
경기매일 시절의 일화	184
사이비 기자들	186
신혼 시기에 주변 풍경에 대한 기억	187

제6장 코리아 슈베르트의 끝나지 않은 여정

최영섭

코리아 슈베르트	193
고향에서 품은 산과 강과 바다	195
시인 한상익 선생과의 추억	196
김상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SP레코드	199
창영초등학교 시절 만난 미세스 헤시 부인	202
피아노를 경험한 소년	203
인천 시절 도시풍경의 변화와 예술인들에 대한 기억	211
인천의 랜드마크와 월미도	216

제7장 지난날 인천 교육은 최고였어

심재갑

인증 제고는 김영희 교장 혼자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223
초등학교 시절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워야 했지	232
보도진 나무를 건너서 내달려 학교에 갔다	238
청년기에 맞은 한국동란 그리고 국민방위군 입대	241
가좌농민학교와 서곶의 전기, 전화	248

제8장 옛날 인천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지

정인표

계양산에 떠돌 돌렀던 회양목이 멸종했어.	261
서곶의 신앙 도당굿과 연희교회	265
인천에 마문 개성사범학교	272
창영국민학교는 대단했지, 공부나 특활이나.	280
남부지방 교대 출신들의 전입이 인천의 정체성을 약화시켰어.	295

제9장 정의구현을 위해 인천에서 사제로서 걸어온 한평생 김병상

일평생을 돌아보며	303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하다	307
형들을 따라 인천 배다리로	308
전쟁 직후의 인천과 대학 입학	311
사제의 길과 함께 민주화에 몸을 던져	316
인천 시민사회운동의 후견인으로 남고 싶다	322

차 례

제10장 여우실에서 지켜본 인천의 변천과 언론수난사 김상봉

인천의 여우실, 명문가에서 출생하다	329
인천의 옛마을과 지명유래	332
여우실 경주김씨 6남매의 성장과정	341
전쟁 직후 인천언론계와 기자의 길	347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활동 회고	353
6·25전쟁과 언론인들에 대한 기억들	359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을 고대함	370

제11장 교육자의 한 길로 이성구

추억 속의 옛 생활터전	375
혼란 속의 학창시절	378
교육현장의 보람	385
교육행정의 길	395
인천 교육에 대한 전망	404

제12장 ‘현대문학’ 평론가 1세대 김양수

개항 50주년 때, 축현역에서 풍물놀이도 해	415
애관극장 다니며 문학의 싹을 틔워	418
‘인중’에서 조병화 선생의 제자가 돼	422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청탁’과 ‘유토피야’	425
6·25전쟁 중 ‘문총 시대’의 회상	432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란 인식 절실해	434

제13장 인천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곽재영

1947년 제1회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	439
비 때문에 고생한 1964년 인천 최초의 전국체육대회	442
‘봉봉남매’가 점화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444
인천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엮시다!	446
대학은 체육과가 아닌 국문과를 나왔어	448
인천의 분노는 마차로 실어 날랐어	450
연안부두 어시장을 만들다	451

서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략 10년 주기로 당해 자치단체 사(史)를 간행해 온 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1993년 『인천시사』(전 3권), 2002년 『인천광역시사』(전 6권)를 세상에 내 놓아 인천문화의 총체적 보고(寶庫)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사료(史料)의 발굴 없이 이전 간행한 “인천시사”들의 기술 내용에 얼마간의 첨삭(添削)을 통하여 안이한 방법으로 재판(再版)했다는 혹평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은 충분한 소요 예산, 다수의 전문·전담 필진의 확보, 국내 외에 산재해 있을 새로운 기초자료의 발굴과 함께 충분한 연구·집필 기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자료관〉에서는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기초 사료” 성격의 『역사문화총서』를 매년 평균 10여 권 내외로 간행해 온 결과, 2012년 말까지 총 71권이 빛을 보게 되었고, 광역시 차원에서는 2012년 6월부터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수도 25명으로 증원하여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2013년 〈시민의 날〉 발간 예정의 『인천광역시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관련 사업인 가칭 〈인천의 인물〉, 〈인천의 체육〉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조선조 태종은 태조의 창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왕 13년(1413)에 고려조로부터 당대까지 운용해오던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한 바, 경원부(慶源府)에서 인주(仁州)로 편제가 변경되어 온 인주(仁州)를 인천군(仁川郡)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금년 2013년은 〈인천(仁川)〉이란 행정구역 명칭이 정해진 〈인천정명(仁川定名)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인간, 지역 또는 사물은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당당히



구술사 회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며, 그것이 행정구역일 때는 그 명칭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존엄한 순간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인천(仁川)>이란 명칭은 조선조 말까지 읍격(邑格)의 부침(浮沈)을 겪었으나, 광복과 함께 인천시(仁川市),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로 시세

가 확장, 승격될 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력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인천정명(仁川 定名) 600년>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동시에,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의 긍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우리 당대에는 다시 맞이할 수 없는 100년 단위의 <인천정명(仁川定名)>의 해를 경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 하에 2011년부터 <인천정명 600년 기념> 『인천광역시사』의 발간을 의결하고, 제1 과업 ‘역사 편’ (제1권 ; 역사-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제2권 ; 현대사- 『끊임없는 개척정신, 경제수도로의 도약』, 제3권 ; 구술로 보는 인천-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제2 과업 ‘사진 자료집’ (제1권 ; 『선구지 인천의 근대 풍경, 1883~1945, 제2권 ;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 변화, 1945~2012』)의 간행에 수반되는 제반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중에 ‘역사 편’의 한 분야로 제3권 ‘구술 자료집’ 『인천인의 삶-도시의 변화』란 표제로 1413년 10월 15일 <인천>이란 이름으로 고고성(呱呱聲)이 울려 퍼진 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시민의 날>에 이 책을 상재(上梓)하게 되었다.

『구술 자료집』의 구술 내용은 ‘구술자 개인의 생활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척(貶斥)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사료(史料)가 된다. 어느 시대나 역사의 주인공은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땀 흘리면서

치열하게 살아 온 우리 이웃들이다. 더구나, 이 『구술 자료집』의 구술자 개개인은 필박과 궁핍으로 점철된 난세를 감내해 온 인천의 원로들이시며 인천역사의 산 증인들이시다. 이 분들의 진솔한 삶의 궤적(軌跡)은 인천의 거대담론(巨大談論)이 되기에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만에 하나, 내용 중에 구술자 개인의 치적(治績) 또는 선행,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구술자 개인의 공명심(功名心)의 소산, 또는 당해 인사를 매도(罵倒)하기 위함이 아니요,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赤裸裸)하게 회고한 결과임을 해량(海量)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우리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장차 새로운 주제로 계속 『구술 자료집』을 간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 관련 역사자료가 될 만한 마공개 사실(事實)이나 실물, 사진 자료와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연 등을 알고 계시면, 인천 시민의 자부심으로 우리 <시사편찬위원회>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올린다.

구술에 응해주신 원로 여러분과 채록·정리하신 채록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김 병 욱

해 제(解題)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경문대왕(景文大王) 편의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여이설화(驢耳說話); 여러 나라에 전승되어 온 ‘당나귀 귀’ 설화) 설화는 그 사실을 발설하면 성명(性命)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극비 사항일지언정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건딜 수 없는 〈폭로증후군〉이 우리들 인간의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다는 은유(隱喻)이다. 또한 인간은 남의 비밀스런 속내를 캐내어 듣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안달증후군〉 환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사의 보고(寶庫)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삼국의 역사와 함께 건국신화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한편, 57편의 설화적 기사가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부식은 임금께 올리는 글 「진삼국사표(進三國史表)」에 “만세에 이르도록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마땅(萬世炳若日星)할 것입니다.”라 한 진언을 통해 동서(同書)는 왕명에 의해 정사(正史)로 편찬한 것이므로 설화일지라도 정사를 보족(補足)하기 위한 기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 나아가 문화는 군주나 소수의 신료(臣僚)들만의 것이 아니고 나라를, 민족을 굳건히 지탱해 온 민초(民草)들의 것이다.

우리의 찬연한 역사 속에서 천부(天賦)의 〈이야기꾼(storyteller)〉 몇 분을 만날 수 있거니와, 그 이야기꾼들의 예지(叡智)로 말미암아 사장(死藏)되었던 고대사를 재구(再構)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분들이 남긴 은유와 상징과 해학(諧謔)과 골계(滑稽)로써 찌든 삶조차 감내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자(撰者) 선사(禪師) 일연(一然)은 청사(靑史)에 빛나는 걸출(傑出)한 〈이야기꾼〉이었다. 그는 동서(同書)의 서문(序文)적인 「기이(紀異)」에 “그런 즉 삼국의 시조가 다 신비하고 기이한 데서 나온 것을 어찌 기이

하다 하겠는가. 이것이 「기이」 편을 첫머리로 삼는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 있다.”(然則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何足怪哉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意在斯焉)고 설파(說破)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연의 이야기꾼 기질이 <괴력난신(怪力亂神)>이란 평설(評說)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전설 향가 등 140여 편의 주옥같은 <이야기보따리>를 유산으로 전해 우리를 문화민족의 반열에 들게 하였다. 그가 아니었다라면, 예컨대 당대의 동요, 민중의 애환, 주술적 기원 등의 콘텐츠(contents)로 당시인의 가치관, 우주관을 투영한 신라의 <향가> 14수를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겠는가. 고려 때 세모(歲暮)에 벽사진경(辟邪進慶)의 궁중제仪인 <나례(儺禮)>에서 연희(演戲)된 <처용무>, 조선의 『악학궤범』 소재의 <잡처용>, 세시풍속(歲時風俗)으로 정월 열나흘에 자녀 액막이를 위한 <제용> 전승(傳承) 등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모두 향가 <처용가>의 근원설화 중 “맹세코 이후로 공의 얼굴 그림을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붙여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誓今已後見畫公之形容不入其門矣因此國人門帖處容之形以辟邪進慶; 一處容郎 望海寺)에 연원(淵源)함을 어찌 알 수 있었으랴.

육당(六堂)은 그가 편(編)한 『신정삼국유사(新訂三國遺事)』(1944) 해제[解題; 9~10쪽]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대하여 “불후(不朽)할 가치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구원(久遠)한 복리(福利)라 할 것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여령 교수는 그의 『삼국유사 이야기』(2006) ‘머리말’ <한 번 끝낸 작품은 다시 돌아다보지 않는다>에서 “희랍신화를 읽거나 심지어 식민지 교실에서 일본신화를 들을 때에도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이 없는가 불만이 쌓였다. 그러다가 삼국유사를 알고부터 나는 그 한을 풀었던 것이다.”라 하여 젊은 시절 ‘고유의 담론(談論)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일소(一消)해준 일연 선사께 외경(畏敬)을 표하고 있다. 일찍이 1957년 발표한 <경향신문> 칼럼에서는 “한국에는 신화가 없다. 신화가 없다는 것은 한국민족이 민족적 자아(自我)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슬픈 증거”라고 하며 민족적 열등감으로 비탄을 금치 못

했던 그였다.

우리는 또한 『제왕운기(帝王韻紀)』를 편찬한 이승휴, <동명왕편>의 작자 이규보, 영·정조 수많은 고전소설을 창작한 무명의 작가들, <바리공주> 등의 서사무가(敍事巫歌)를 전승한 무속인들, 조선조 후기 광대들의 열정적인 패트론(patron) 오위장(五衛將; 정삼품의 무관직) 신재효(申在孝) 등의 선인들은 장르만 다를 뿐 우리 민족문화를 튼실하게 가꾸어온 불출세(不出世)의 스토리텔러들인 바, 이 분들은 다른 시대, 다양한 토양 속에서 개성 있는 삶의 궤적(軌跡)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장르와 콘텐츠를 통해 우리민족을 집단무의식(集團無意識)으로 통섭(統攝-최재천 교수가 『Consilience』를 번역한 신조어(新造語), ‘攝’은 불교에서 인용한 중국의 성운학(聲韻學; 漢字 음운학)의 용어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음’의 뜻)하여 우리문화의 원형(archetype)을 창출(創出)했고, 민족적 자아(自我)를 일깨운 선구자들이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련된 스토리텔러였던 할머니로부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다양한 신화, 특별한 지역, 자연물 관련 설화(說話)나 민담, 나무타령과 같은 서사적 타령, “새야새야 파랑새야…….” 불렀던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동반한 전래 동요, 속담 등의 수많은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언어예절을 배웠고, 지혜를 터득했고, 꿈을 키웠고, 가치관을 정립했거니와, 이것이 곧 우리네 삶의 패러다임이며 담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가족제도, TV, 컴퓨터가 우리의 스토리텔러 할머니를 앗아감으로써 흥흥해진 세태를 한탄하고 절망하며, 할머니의 대역 <이야기꾼>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시대의 이야기꾼, 곧 굴절된 시대를 살면서 겪은 내면의 이야기를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하고 목청껏 외치지 못한 분들[<구술자(口述者)>]과 그 분들의 비밀스런 속내를 궁금해 하는 청자(聽者)[<채록자(採錄者)>]의 의기투합(意氣投合)으로 <구술·채록>이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채록된 <구술자료>들이 정사(正史)와 상보적(相補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앞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옛 문헌, 작품 등을 통해 실증(實證)할 수 있었다.

우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인천정명(仁川定名) 600년 기념>

“구술로 보는 인천 『인천인의 삶-도시의 변화』”를 발간하기 위하여 우리 시대 인천의 이야기꾼으로 모신 구술자들, 곧 우리 인천의 덕망 높으신 원로들께서 살아오신 근·현대에 관한 못 다한 이야기를 채록·정리하였다. 이 분들께서는 온갖 모순이 착종(錯綜)된 질곡(桎梏)의 시대에 질풍노도(疾風怒濤)처럼, 때로 감내할 수 없는 모멸감(侮蔑感), 주체할 수 없는 환희, 뼈를 깎는 고통, 가슴 벅찬 성취감 등으로 점철된 역정(歷程)을 걸어왔다. 이 분들께서 토로하는 자전적 이야기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재현한 <서사적 정체성>을 갖는 구술된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의 개요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화자의 입장도 말해준다. 화자의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감정적 평가, 또는 감정이나 욕구, 동기, 교훈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용익 옮김; 『이야기분석』(2006; 34~5)에서 요약]는 암시를 통해, 채록된 자료가 <서사적 정체성>을 갖지만 사건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행간(行間)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우리인천 원로 여러분의 구술 자료집인 “<인천정명(仁川定名) 600년 기념> 구술로 보는 인천 『인천인의 삶-도시의 변화』” 속의 여러 스토리텔링은 인천사람들의 집단무의식(集團無意識)으로 축적되어 우리 인천의 정체성의 견고한 축이 되고, 나아가 인천사람의 자아(自我)를 일깨워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 구술 자료집에는 1955년생인 화교 곡창신 선생과, 1930년 전후에 출생하신 원로 열두 분의 증언이 실린 바, 기록·녹취하여 전사(轉寫)한 초고(草稿)를 여러 번 교정한 후, 구술자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완성하였다.

일제강점기말 암울한 시대에 출생해,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다 맞이한 광복, 남북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4·19, 5·16의 모진 세월에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형국(荊棘)의 길을 걸어온 분들이 내심으로 절규(絕叫)하며 담담(淡淡)히 반추(反芻)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에 대당(對當)하는 구술 자료집 “구술로 보는 인천-『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를 우리 시대 인천의 『삼국유사(三國遺事)』로 시민 여러분 앞에 펼쳐 놓는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 보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

〈강화도가 육지라면〉

황원준

표제가 강화 섬주민의 꿈과 애환을 담고 있다. 1969년 완공한 김포의 성동나무와 강화의 감꽃나무를 잇는 〈강화대교〉를 건설하기 전까지는 차량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선에 의존해 염하를 건너다녔다. 1962년에 당시 박정희대통령까지 참석하여 염하를 매립하는 기공식을 했으나,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공사 착공 전의 당연한 사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인력거 200대로 거센 손돌목 물길의 연장인 염하의 매립에 도전했던 당시 강화도 섬 주민들의 의욕은 하늘을 찌르기도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력 강하기로는 강화사람을 어느 누가 당하겠는가.

“고종 임금께서 학교이름을 지어내리시다”란 소제목으로 1893년 강화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기독교를 통한 국민계몽, 국권회복 운동이 전개된 이야기를 엮어간다. 후에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동휘 참령이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업을 도와 학교를 세웠다. 그 학교에 대하여 고종황제로부터 보창학교(普昌學校)로 사명(賜名)받고 이동휘는 교육에 열정을 쏟으므로 강화도에 한 때 사립학교가 72개에 달했다. 강화가 일찍 개화된 연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8·15광복과 5·10선거” 담이 이어진다. 구술자가 불행한 시대에 출생하여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받다가 광복을 맞아 신교육을 받은 청년학생들을 따라 Auldlang syne 곡조에 맞춰 목청껏 부른 감격의 애국가에 대한 술회와 일본인 교장, 순사에게 분풀이한 대목은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또한 광복 후 1948년 혼란기에 시행된 5·10선거 사전 방해공작에 혈안이 되었던 좌익의 발호를 막은 교회, 마을 청년들의 애국행동을 떠올린다.

“6·25전쟁” 때 군번 없는 용사-‘국민방위군’에 편성되어 바다가 닳아 없어진 신발에 주먹밥으로 연명하며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가 9·28수복으로 20여 일 걸려 되돌아온 처절한 상황은 당시 모든 자유민이 겪은 공동의 아픔이었다.

서두의 〈강화도가 육지라면〉이 실감나게 전개된다. 강화주민의 그 때의 염원

이 현재의 강화대교, 초지대교를 지어 강화를 육지로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의 회고담으로, 전력이 부족했던 당시 “잘 살아 보세” 외치며 댐과 발전소를 만들었으나, 의욕뿐 얼마나 무계획, 무모했단가를 실감하게 하는 한바탕 꿈같은 과거이다.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을까. 주민들 표정이 눈에 어른 거린다. 이어 강화의 기후에 얽힌 회고담이다. 강화는 유독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은 혹한인 기후이다. 기록적 강우량 600mm로 인해 강화 섬이 사라지는 듯했던 당시의 다급한 정황과 교회가 앞장서서 구호활동을 시작한 신선한 이야기이다.

〈인천 체육과 도시발전〉

고철호

인천 야구계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의 회고는 일반 시민이 처음 접하는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구슬자의 어린 시절 추억 ‘용동큰우물’ 등에 얽힌 일화와, 미군부대에서 얻은 야구공이 닳아 실 뭉텅이가 켜져 나오면 반새워 꺾매 쓰던 눈물겹던 초년병 야구선수시절, 송의운동장에서 인고-동산고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운동장은 만원이었다. 인천야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업으로 인천이 야도(野都)의 별칭을 얻게 된 것이다.

선수 생활이 여의치 않아 군대를 다녀온 후 모교인 인고 야구감독 시절의 추억으로 일본 야구의 거목 장훈 선수가 제일동포 야구단의 일원으로 와 인고와 경기한 흐뭇한 내용, 그 시절 우수한 선수들의 식사가 돈가스 한 쪽이었다.

5~60년대 경기도와 인천이 하나의 체육회 산하에 있던 시절에 야구 발전을 위해 진력한 구슬자의 노고, 당시 체육계의 어려운 재정상태가 눈물겹다.

1983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기간 중에 북한의 ‘아웅산테러’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체전을 마치고, 폐회식장이 ‘북한규탄궐기대회’가 되었

던 일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떠 올린다. ‘종합경기장-문학경기장’ 신축 관련 담과 미추홀기 전국야구대회를 본부석 없이 컨테이너 놓고 치른 후일담도 오늘 와서는 추억거리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300만인 인천 체육시설의 낙후성과 체육계 원로로서 체육 발전에 대한 염원을 피력한다.

〈화교사회와 한국사회의 소통의 메신저〉

곡창신

구술자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사람으로 살아온 화교 3세로 인천의 유일한 차이나타운에서 화교들이 외국인으로 겪은 애환을 술회한다. 화교 곡선생이 인 하대 부근 용현동에서 태어나 보고 자란 어린 시절 가난했던 마을에 관한 추억 이다.

선대 조부, 외조부의 1930년대 한국 이주 경위와 부모의 결혼, 6·25전쟁 시절 부모의 피난살이, 인천 귀환 등 우리가 겪었던 전란을 화교들도 같이 한 고 생담이다. 이어서, 전란 뒤 농사지으면서 힘겹게 연명하던 시절, 한국인들의 텃 세로 목숨까지 잃은 이웃 화교로 인하여 자체방어교육이 필요했던 절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다.

타국에서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 망국의 설움을 달래고, 학력의 필요로 한 때 인천의 화교학교에 1,300명이 재학했던 열정의 세월도 있었다.

구술자가 본격 요리 수업을 위해 일본 유학 다녀온 뒤 송의동에 자장면 집을 개업해 생활의 기반을 잡아갔고, 그 무렵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 사는 화교들과 대만,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살길 찾아 나감으로 인천의 화교 인구가 대폭 감소 했음을 술회한다.

〈인천의 경제계와 정계를 한 손에 쥐다〉

심정구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신흥학교에 입학시험 치르고 입학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린 시절 창영·축현학교 이야기, 일인들이 다니던 인중, 창씨까지 강요당했던 민족적 수치, 월미도·송도로 소풍간 일, 개성·수원으로 수학여행 갔던 시절을 떠올린다.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하에서 어린애들도 열을 지어 등교하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만학도들의 향학열은 그 때나 지금이나 배고플지언정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광복 후 상고 졸업, 서울상대 입학, 6·25로 허술한 행정 처리로 졸업이 늦어진 이야기다. 6·25전쟁으로 소래에서 배타고 부산으로 피란 가 미군부대에서 식당일 했던 고난의 시절을 추억한다. 한편으로는 “선광”으로 창고업을 출범한다. 창고업이 번창하자 드디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던 시절의 회고이다.

선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작업을 통해 통관 업무를 시작한 금지를 토로하는 한편 컴퓨터 잘 가동하게 해달라고 고사지낸 이야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사업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어렵사리 정계에 입문한 내력은 당시 정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천 언론사의 증인〉

오종원

광복 직후 북한에서 전기를 공급받던 시기에 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북한이 단전하면 돌아가던 윤전기가 멈춰 서고 가정의 전기 공급은 감질나 견디기 어려웠던 시절의 회고담으로 시작된다.

1960년대 후반 언론사 통폐합이란 소용돌이 속에 신문사를 전전하던 옛 모습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어, 1970년대 초 경제개발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인수출공단, 경기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인천 경제가 활력을 찾는 모습과 그런 일들을 정렬적으로 이끌었던 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천 경제발전의 역사를 조감하게 한다.

1970년대 경제개발, 나라발전이 가속되면서 공해 많은 연탄 소비를 줄이고 유류 사용을 장려했던 시절로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생겼던 일화들도 흥밋거리이다.

어렵던 시절 언론사가 사건을 소신껏 기사화할 수 없었던 원시시대 이야기이다. 언론사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던 시절, 한 때 언론사를 휩쓴 소위 사이비 기자 소탕령으로 흥흥하던 언론계의 분위기는 이제 와서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마지막으로 인천사람으로 살면서 겪은 어렵던 시절 인천을 지키고 빛낸 사람들에게 대한 회고이다.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천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코리아 슈베르트의 끝나지 않은 여정〉

최영섭

강화군 사기리 출생으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면서 음악에 심취해 음악 외길로 80 중반에 이르도록 음악으로 살면서 300곡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음악인생 역정과 음악으로 맺은 여러 가지 인연, 인천 관련 추억 등이 읽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아! “그라운 금강산”

출생과 성장과정, 한국의 작곡가로 슈베르트를 능가한 300편 이상을 작곡한 음악가로서의 솔희로 시작된다. 이어 피 흘려 나라 지킨 조상의 얼과 마리산 정

기 받아 조국의 강산을 노래하게 된 DNA의 발산이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잠재 의식임을 밝히고 있다.

강화 동향의 선배 시인 한상익을 만나 그의 시에 40여 곡을 작곡했던 일, 가곡작곡가로 팬레터를 받았던 추억담이 신선하다.

강화 길상초등학교 시절 의사 댁에서 처음 레코드로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음악에의 소망을 키웠던 추억과 오르간을 연주하던 선생님과 노래를 익히던 시절의 이야기와, 인천으로 이주해 창영초등학교 시절 만난 선교사 Mrs. 헤시가 음악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어진다.

개구쟁이 시절 놀이에 정신 팔려 성적이 떨어졌다가 피아노를 배우게 되어 공부까지 전념하여 1등까지 되고 광복을 맞아 피아노, 작곡에 전념하게 된 시절로 남다른 복을 타고난 과거에 대한 술회이다. 이어 전후의 어렵던 시절, 인천에서의 연주활동과 인천의 유명 예술인들의 상황,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회고하면서 서 인천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준다.

그 시절 인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던 건물들이 포연으로 사라지고, 인천의 명소 월미도, 대형 여객선의 이름을 떠 올리면서 인천에 대한 아련한 추억에 잠긴다.

〈지난날 인천교육은 최고였어〉

심재갑

제물포고교는 인천교육의 수준을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인천의 자랑이다. 정성의전 학생 시절 학생대표로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겪은 애국자였고, “학식은 민족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란 탁월한 교육철학을 실천궁행했던 길영희 교장은,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 곧, 변영태, 현상윤, 설의식, 백낙준, 유진오, 함석헌, 박종홍, 장이육 등을 초청해 학생들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품은 대기(大器)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또한 또한 그가 초빙한 교사진 중에는 피천득, 박충집, 조병화, 선우휘 등 훗날 교수, 문인이 된 분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국인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당신도 학생들과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같이 지내며 사랑을 실천한 천부(天賦)의 교육자였다.

제고 설립 과정과 길영희 교장, 제고가 1961년 서울대학 전체 수석입학자를 배출하자 <조선일보> 만화에 “서울에서 못된 것만 배우지 말고 제고로 가자”라는 일화 등 광복 직후의 제고 관련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 일제 강점기 말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고, 초등학교까지 근로 동원되었던 치욕의 세월에 대한 회고와,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맨발로 등교했던 일제강점기 말의 실상과, 인천교가 가설되기 전 한 시간 반이나 거려 서곶에서 나루 건너 등교하던 추억의 등갓길 회고이다.

구술자가 청년기에 겪은 6·25전쟁담이 이어지는 바, ‘국민방위군’으로 제주도 동원되고, 1·4후퇴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시에 피난 대학 다닌 이아가 끝이 없다. 전란 중에도 인재를 아끼기 위해 대학생의 군대징집을 면제했지만, 수복 후 구술자 동기생들은 1/3이 행방불명이다.

인천에서도 낙후된 변방 가좌 지역에서 처음 전기, 전화 등의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지역을 사랑한 분들에 대한 회고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옛날 인천 아이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정인표

일제강점기, 광복, 남북분단,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혼란기에 피난학교 개성사 범을 졸업하고 어렵던 시절 코흘리개들을 직접 가르쳤던 교사, 훗날 교장이 되어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한 회고담이다.

구술자는 서구 연희동에서 출생, 성장하면서 보고 자란 산천의 추억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계양산에 희귀 수목이 멸종한 데 대한 안타까움, 또한 서곶 지

역의 마을 전통으로 ‘도당굿, 동제’ 등의 토속신앙, 교회들의 성장, 생활에 쏙 들리면서도 대단했던 교육열 등에 대한 애착을 토로한다.

6·25전쟁으로 피난 와서 송의동에 눌러앉은 개성사범까지 연희동에서 걸어 다녔고, 졸업 후 초년병 교사시절 병역 단축혜택을 받았던 당시의 제도, 중견 교사가 되어 고 강재구 소령을 배출한 창영학교 시절의 회고와, 가난했던 당시의 꼬마들이 남의 운동화가 탐나 자기 고무신을 놔두고 바꿔 신고 간 이야기가 미소 짓게 한다.

은퇴한 원로 교육자로서 지역 교육의 낙후성과 시민들의 정체성, 애함심 결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가슴아파하는 모습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정의구현을 위해 인천에서 사제로서 걸어온 한평생〉

김병상

김병상 문시놀 신부는 6·25전쟁 중에 인천에 정착해 신학교 졸업 후 1970년대 이후,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제로 “담동성당 시국농성”, “정의구현사제단” 등의 시국 사건으로 영어(圍囹)의 신세가 되기도 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인천의 대표적 지성, 정신적 지도자로 살고 있는 분이다.

공주에 출생해 인천에 정착하게 된 경위로, 고향 공주에서 6대를 믿어온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서울의 중학교로 유학 와 인천에 사는 형님 댁을 왕래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 온 과거사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천에 살다가 6·25전쟁으로 고향 공주로 피난 가서 겪은 비극으로 당시 고향의 어른들 중에는 9·15인천상륙으로 퇴각하던 괴뢰군에 총살당한 분들이 많으나 자신은 어려서 화를 면했다는 참상을 전한다. 수복 후 형들을 따라 배다리 근처에 정착하여 온전히 인천사람으로 살게 된다.

또한 전후의 인천 사정으로 피란 시절 서울의 대학들이 인천의 부서진 창고 건물을 임시 교사로 쓰면서 개교한 신홍대(경희대)와 본인이 입학했던 인천의

홍익대 등 전쟁 후 어려웠던 인천의 모습, 다른 일면으로 지금의 천주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언급한다.

1977년 이후 사제로서 유신 반대투쟁의 길로 들어서 답동성당, 정의구현사제단 등 여러 시국 사건의 선봉에 섰던 시절의 회고담이 구술지의 면면을 알게 한다.

교황청으로부터 문시놀에 서품, ‘목요회’ 활동과 인천대학교의 시립화 과정,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활동 등 과거 인천관련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고향처럼 40년 이상 살아온 인천, 도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행복의 요소인가 하는 회의를 표한다.

〈인천 언론의 변천과 수난사〉

김상봉

인천 언론사의 산 중인인 구술자는 송의동, 현재의 남구청 일대를 세거지로 누대를 살아온 경주김씨로 인천토박이다. 담담히, 때로는 걱정적으로 털어놓는 옛 인천의 추억, 인천의 언론계, 예술계의 일화,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비화 등은 우리를 감회에 젖게 한다.

구술자는 여우실이라 부르던 송의동의 인천사범-인천(경인)교대가 이전하기 전에 자리 잡고 있던 현재 남구청 일원에 뿌리내린 경주김씨의 집성촌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연과, 인근 마을들에 전해오는 전통적인 지명유래, 송학동 일대에 있던 각국지계에 대한 술회한다.

다음은 가정사와 1944년 인천중학에 입학하였으나 일제가 전쟁 말기에 어린 학생까지 방공호 파기 등의 강제 노역을 시킨 일제의 만행, 1945년 길영희 교장의 인중 부임, 광복 직후 학생 사이의 좌우 갈등들로 이어진다.

또한 전쟁 직후 구술자가 언론계에 투신한 후 인천 지역 신문들의 설립, 전환

등의 부침 과정과, 함세덕의 작품을 공연한 당시의 의욕 넘치는 청년들의 활동, 학자, 문인,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고유섭의 비를 세운 과정, 6·25 당시의 가족의 수난사, 9·15인천상륙작전 때 밤새 귓전을 때리던 함포사격 소리에 대한 공포, <대중일보>, <인천신보>, 피난시절 부산에서 <인천신보> 발행, 유신체제 하에서 문예지 <기서문화> 창간, <인천일보>의 창간 등의 회고가 끊일 줄 모른다.

예술을 사랑하는 토박이 원로로서 인천에 예술대학 하나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시민, 언론계가 모두 나서 인천의 자긍심을 키워 나가기를 당부한다.

〈교육자의 한 길로〉

이성구

1933년 출생한 구술자는 부친 때부터 인천에 살기 시작하여 인천에서 출생해 인천사람으로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행정가로 광복 후 우리나라에 물려들어온 경험주의 교육철학을 교육에 적용하였다. 그러면서 인천의 거주자가 대부분 타지에서의 전입자들이므로 애항심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천사랑운동을 펼친다.

어린 시절 화평동에 살면서 어렵던 시절 이웃들의 모습과 배다리가 빨래터였던 기억을 회상한다. 도시락 반찬은 삶은 달걀이 최고였고, 갯벌이 놀이터였다. 일제는 마지막 발악으로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방공호를 파고,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광복 후 혼란기의 학창시절을 회고한다. 6·25 직전 혼란기에 요인 암살, 학생들의 좌우대립, 중학 6학년엔 터진 6·25, 전쟁 중 동기생 150명 중에 40명만 살아남았던 뼈아픈 과거를 돌아본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술자가 사범학교에 입학해 교사, 교육행정가로 걸어온 일들을 회고하는 바, 전쟁으로 개성사범이 인천에 개교, 인천사범으로 개칭, 교사 부족으로 1년만에 교육현장에 교사로 투입되던 이력의 소개와 교사로 부임해 근무 중, 송림, 도화학교의 화재사

건의 주범이 쥐었다는 사실 등을 회고한다.

이 무렵 새로운 교육철학인 경험주의가 도입되는 교육혁신 사업의 일선에서 실천한 일과, 당시에도 인천의 명문 인증을 가기 위해 과외가 성행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뿌리 깊은 이 땅의 과외의 역사를 한탄한다. 일선 교사의 길을 떠나 교육행정가로 변신하여 정체성 진작을 위해 인천의 뿌리찾기,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동분서주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현재는 대학이 4개밖에 없는 낙후된 도시임을 개탄하고, 경제특구 등의 여건을 살려 인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천 살면 인천사랑”이란 자부심으로 친절, 질서, 청결, 축복의 땅-궁지의 도시로 바꾸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다.

〈현대문학 평론가 1세대〉

김양수

일제 강점기 후반의 궁핍과 억압의 시대를 산 구술자는 조상 때부터 프랑스 신부들과 각별한 인연, 부친의 사업수완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신소설을 애독하던 할머니로부터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웠고, 할머니 따라 애관극장에 가 연극을 보며 예술세계에 눈을 떴다. 광복, 6·25전쟁의 혼란기에 당대 인천의 명사들을 지근에서 모시면서 문학, 예술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행복이었다.

6·25 직후 격동기에도 영화 매니아 몇 분들은 영화를 제작했고, 모 산부인과 병원장이 영화제작으로 파산한 회고담, 술값으로 월급을 다 써버리던 시절의 명사들의 일화가 우리를 흥미의 세계로 이끈다. 인천의 예술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문학, 예술인들이 열정을 토하던 ‘유포피아’, ‘청담’ 다방이 재현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인천상록 때 함선들이 되도록 민가를 피해 함포 사격하여 그나마 극심한 폐

혀를 뻗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다. 전쟁 중에 인천의 대표적 예술인들이 <문충구국대>를 통해 나라 지키기에 떨쳐나선 일도 인천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서두는 구술자의 가족사로 프랑스 신부를 숨겨주다 탄로나 박해 당하고, 홀아저 사는 중에도, 부친의 사업 수완으로 미곡, 피혁, 목재상으로 축재한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할머니와 함께 1살 때 풍물패 공연을 본 놀라운 기억, 애관극장에서 연극 보며 예술혼을 키운 이야기, 일제 강점기말 우리말 말살을 획책한 일제의 만행 등이 펼쳐진다.

또한 1950년대 인천 예술인들의 영화제작 관련 회고담으로 4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모 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영화 제작의 실패로 파산한 이야기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서울 소재의 학교에서 인중으로 전학 와 길영희 교장과 조병화, 선우휘 선생으로부터 문학소년의 꿈을 키워 문인에 이른 옛일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평론가 1호로 등단했던 일, 당시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다방 ‘유토피아·청담’에 얹힌 아련한 추억, 작품 공연 기념 차 애관극장, 인천을 방문한 동량 유치진의 추억 등을 떠올린다.

이어 구술자가 겪은 6·25전쟁 관련 회고로, 밤사이 용동 마루턱에 들이닥친 괴뢰군 탱크, 완장차고 나타난 집안 일꾼, 상륙작전 현장을 피해 탈출한 소름끼치는 밤, 상륙작전 때에 민가를 피해 해안 등에 포격하여 폐허와 참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했던 정황의 목격담, 더불어 전란 중 조병화, 신태범, 이정성, 유희강, 박세림 등의 인천의 예술인들을 도와 <문충구국대> 활동을 벌인 일들을 떠올린다.

에필로그-원로로서 인천 문화예술계의 과제, 전망에 관해 심정을 토로한 바, 인천사람들은 서울의 변두리 인천이라는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인천은 개화의 선구지라는 자부심으로 인천을 세계 속의 인천으로 가꾸자. 지역적인 것이 민족적, 세계적, 인류적인 것이란 자존감으로 인천의 문화예술의 특색을 살리자고 역설한다.

〈인천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

곽재영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고교 시절이던 1947년 3·1절 기념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인연으로 최근까지 육상 외길 인생을 걸어온 구술자는 인천, 한국의 육상을 넘어 아시아 육상의 산 증인이다. 2005년 인천에서 개최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다수의 여성 응원단을 참가시킨 것을 남북화해에 일조한 보람으로 여기며 과거를 회고한다.

1947년 3·1절 기념 제1회 마라톤대회에 고교 3학년 때 참가하여 우승하여 상품으로 시계를 탔던 옛일을 회고한다. 그런 연유로 1981년 이후 육상경기연맹회장, 인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의 구술은 인천의 체육계, 시설, 자신의 사업으로 계속된다. 현재의 제물포고 자리에 있던 옷터골 운동장, 1934년 인천 인구 30만이던 시절 도원 공설운동장 설치 등과 관련 내용, 4·19 무렵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그 후에 인천상공회의소,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 2012년까지 인천육상경기연맹회장, 명예회장 등과 관련된 옛일을 기억하고 감회에 젖는다.

이어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와 북한 선수와 이봉조 선수가 같이 성화 최종 주자를 맡게 된 후일담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마라톤 코스를 인천대교로 정해지는 것이 원로 육상의 마지막 바람이다.

운동선수 출신이 동국대학 국문과에 입학해 양주동 교수의 제자가 된 일, 학도병으로 해병 4기였던 사실에 만년을 자부심으로 보낸다.

제1장



황원준 _____

강화군 양도면 양도초등학교 졸업(15회)

양도면 홍천마을 재건청년회장(1960년 대 초)

현재 농업 종사, 홍천교회 장로

■ 채 록 자 : 김경준(전 강화덕신고등학교 교감)

■ 채록일시 : 2013년 8월 17일, 9월 7일, 10월 11일

■ 채록장소 : 강화 자택, 홍천초등학교, 홍천교회

제1장 강화도가 육지라면 ...

고종 임금께서 학교이름을 지어내리시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삶, 도시의 변화』라는 책을 만드는 작업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죠, 제가 태어난 고장, 강화도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이렇게 작으나마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는 큰 즐거움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아는 대로 잘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는 1893년에 기독교의 감리교와 성공회가 전래되었습니다. 이 때 감리교는 선교와 함께 초등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의 초기 교회와 학교의 하나인 이곳 흥천교회(1906년 창립) 그리고 사립보창학교(현 양도초등학교, 1908년 개교)와 지금도 많은 인연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



흥천교회 (왼쪽에 '선교 백년' 이란 글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양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비(2008)

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글자를 몰랐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기독교 복음이라도 사람들이 무식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부녀자들

을 모아놓고 밤에 야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언문이라고 그랬든 ‘가가거거’ 한글공부를 시킨 것이지요.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이지요?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야학을 시키는 자리에 누가 왔느냐하면 당시에 국권회복운동을 하러 다니는 이동휘¹⁾ 참령이 왔어요.

강화진위대장이었던 이동휘 선생 말이지요.

예, 그 분이 와서 이 야학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온 동네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 그러면서 교육운동을 크게 벌렸지요. 그게 유명한 소위 ‘보창학교²⁾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보창학교는 이곳 양도면 삼흥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

1) 이동휘(1873~1935), 호는 성재(誠齋),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해 한인사회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주도했고,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02년 참령(參領)으로서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전출되어 1907년 군대해산 때까지 근무했다. 진위대장으로 있으면서 강화도에 신식교육기관으로서의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설립·운영했는데, 이 학교의 운영을 본받아 전국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개성보창학교·장단보창학교·안악보창학교 등 7~8개교나 되었다.

화도 여러 곳에도 있었지요.

기독교를 전교하기 위해 한글을 가르치려 한 것이 근대교육으로 발전한 셈이네요. 그런데 그 보창학교와 당시 고종 임금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 때 이동휘 참령이 강화에서 국권회복 운동을 하던 몇몇 분들과 함께 한양으로 가서 고종 임금님을 알현했어요. 궁궐에 들어가 임금님을 뵈는 자리에서 임금님이, ‘참 잘했다’ 하시면서 그 학교 이름을 보창(普昌)이라고 해라’ 그랬대요.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문맹퇴치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수도 가르치고 뭇 일반학과들도 가르치고 그랬지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간 교육이었던 같은데요.

그렇죠. 이곳 학교 사업에 앞장 선 사람이 누구나 하면 흥천교회를 설립한 김용하(金容夏, 1849~1919), 전병규(田炳奎, 1857~1936) 두 사람이었어요. 김용하씨는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우(金用雨)씨의 할아버지이고, 당시 감리교 총리사를 지낸 김종우(金鍾宇) 목사의 아버지가 되는 분으로 후손들을 아주 잘 키운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분을 도와 더 활동적으로 일한 사람이 전병규씨입니다. 『강도지』에 보면 당시의 ‘학자 김용하씨와 지사 전병규씨가 민중교육에 앞장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
- 2) 보창학교에 관한 기록은 『강화기독교백년사』 185쪽의 ‘…… 보창학교 학생들은 모두 단발하였을 뿐 아니라 교복을 입었으며, 교과 과목은 한문, 한글, 일본어, 영어, 산수, 한국사, 한국지리, 기초과학 및 웅변술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 이러한 이동휘의 열성에 감동받은 강화 사람들은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전개하여, 한때 강화 전체에 사립학교만 72개가 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강화사』 606쪽의 ‘…… 1907년 조선의 군대가 해산된 뒤 일본은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보창학교를 접수하는 등 갖은 방해와 탄압을 가하여 3·1 운동 전에 폐교 되고 말았다’ 등이 있다.



홍천교회 한전에 세워져 있는 교회설립 기념비

그래서 홍천교회 앞마당에 그 두 분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군요.

네, 바로 그분들입니다.

강화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189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홍천교회 설립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요?

예, 정식으로 1906년 11

월 첫째 주일이 홍천교회 창립 주일이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 ‘가갸거겨’를 가르치던 것이 뒤에 학교로 발전하였다는데요?

처음에는 야학으로 시작하여 사립보창학교(1908년 설립)가 되었고, 뒤에 사립홍천합일학교, 양도보통학교 등으로 이름을 바꾸다 현재의 양도초등학교가 되었지요. 그래서 2008년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열기도 했는데 제가 이 학교 15회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합일학교(合一學校)란 이름은 이곳 홍천마을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른데도 합일학교란 이름을 가진 학교가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합일’(合一)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기독교정신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과 우리의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때는 일제가 쓰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강화읍에 합일초등학교가 있지요.

강화합일초등학교³⁾가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사립학교죠.

3) 1901년 잠두의숙으로 설립되었다가 1909년 4년제 합일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그런데 강화의 근대교육에 상당히 큰 공을 세운 이동휘 선생이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은 원래 군인으로 이곳 강화도진위대장으로 부임하였어요. 그러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편으

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교회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계몽, 국민국권회복 운동에 매우 열정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 일본에 의해 조선군대가 해산당하자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이곳을 떠난 것이지요. 어쨌든 그분은 강화도의 근대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요.



사립홍천합일학교 제 1회 졸업식(1911년) 졸업생은 7명이다.

8·15 광복과 5·10 선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그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요?

내가 (양도)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었어요. 그 때는 조선말은 아예 하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는 일본말로만 생활을 했지요. 조선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모든 학교생활은 일본말로만 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8월 15일은 방학 중이었어요.

무척 더웠겠습니다.

방학기간이었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른바 식량증산, 일본말로 ‘쇼구료소상’이

라고 크게 타이틀을 써놓고 식량증산을 위한 퇴비 채취 증산운동을 독려하고 있었어요. 그날 8월 15일에도 우리는 학교에 나와서 학교 개간지로 갔어요. 그 개간지가 한 삼천평 이상 되었는데, 그 더운 날 거기서 퇴비할 풀을 깎아야 했어요.

그걸 초동학생들이 담당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매일 선생님들이 그날 할 일의 양을 할당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다 해놔야 그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거기 가서 퇴비할 풀을 깎고 있었지요.

얼마나 더울 때예요 그때가?

이후 아주 더울 때죠. 근데 한 열시쯤 됐을까, 갑자기 호각소리가 나더니 전부 작업을 중지하고 빨리 집합하라는 거예요.

열시쯤예요?

그래서 이게 왜 딱이냐 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한 곳에 모여 선생님을 따라 학교로 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하나 보았어요. 그때 학교에는 공습경보를 알리는 높은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에 여태까지 보지 못한 거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깃발이 하나 꽂혀있는 거요.

무슨 깃발인데요?

처음 보는 깃발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선생님들 뒤를 따라가면서 “아, 아레가 낫노하다까? 무까지 조센노 하다자나이까?” 우리말로는 “아, 저게 무슨 기냐. 옛날 조선기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학교 운동장으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말씀은 안하시고 약간은 흥분하신 말투로 그냥 우리에게 모두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방이고 뭐고 이런 말은 일체 안하시고.

그 깃발이 무슨 기였어요?

후에야 알았지만 그게 내가 처음 보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였어요. 그 태극기는 당시 윤병선 교장선생님이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현재의 양도초등학교 전경

태극기를 처음 보신 분이
이 어땠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식민지'란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내가 1933년생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그런 교육은 더구나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요.

상당히 젊으셨네요. 요즘의 대학생 정도 되겠네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본말로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처음 본 그날, 8월 15일 오후쯤 되니까 이 양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은 저 양도면 인산리에 살던 신영섭, 신민상, 신우재, 그리고 이승환, 이종환과 그의 형 이영환 등 수 십 명으로 그들은 '인천상업(현 인천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쯤 되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신식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분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장을 도는데, 모두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노들강변 봄버들', '동해물과 백두산' 등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승환, 이종환, 이영환 이 삼형제가 더 열렬하게 부르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들은 광복, 즉 해방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었군요?

그분들은 알았지요. 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몰랐지만, 그런데 그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지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찬송가처럼 부르더라구요.

그렇죠. 당시에는 안익태 선생 작곡의 애국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지요.

그리고 또 처음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백두산 뚝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 동산이 역사만만년’ 이란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운동장을 빙빙 돌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참 지났을까. 아,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일본 교장의 사택이 있었는데, 일본사람 교장을 끌어내가지고는 발길로 차고 때리고 말이지. 어제까지 그냥 천황같이 알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편없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교장 부인은 그냥 울면서 두 손으로 자기 남편을 덮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주 정말 슬퍼서 못 보겠더라고, 그런 장면을 우린 봤죠.

역사의 밝음과 어두움을 바로 한 곳, 한 시간에 다 보신 거네요.

또 학교 실습지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이었죠. 그 일본 교장이 토마토도 키워놓고 하는 곳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농사짓지 않고 참 과학적으로 토마토 등 여러 작물을 잘 키워냈는데, 그곳에 우리가 막 들어가서 따먹고 허허.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학교 말고도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었을 법 한데요.

있었지요. 우리 마을 건너편 (양도면) 건평리에 주재소가 있었어요.

요즘의 파출소 같은 곳 말이죠.

그렇지요, 파출소죠. 경찰관 주재소니까. 그 주재소에 구로다라는 일본 부장

순사가 있었어요. 그 때는 부조상이라고 했어. 키가 조그마한 사람인데 그냥 가 무스름하게 생긴 사람이 긴 칼을 차고 다녔지.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순사부장을 이곳 학교 마당으로 끌어와서는 그냥 그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막 올라타서 때리고, 어휴 비참했어요. 일본사람들이 가장 큰 수모를 당한 장면이었죠.

일제강점 35년간 식민지 국가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군요.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징용 나가서 애쓰고 그리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의 분노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니.

그리고 해방 후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선 우리말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즉 애국가부터 배웠어요. 4절까지. 그리고 다음에 배운 노래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이지. 그리고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그런 노래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갸거겨’ 한글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나는 곧 졸업할 때였는데, 학교에서는 그 한글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해씩 더 학교에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5월에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처음으로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5·10 선거 말이죠.

강화도는 지역적으로 북쪽과 매우 가깝고 또 당시가 사회 혼란기였으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법한데 혹시 그와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지요?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열여섯 살이어서 잘 몰랐지만, 5·10선거 후에는 적색분자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도 깔려있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일본 명치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저씨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당시로는 상당히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무조건 옳을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니면서 뼈라를 뿌리기도 하는데, 자 고나면 우물가에 그들이 뿌린 뼈라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 뼈라 내용을 기억하세요?
아 그런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처럼 프린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붓글씨로 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삼흥리 흥천마을)보다 저 건평리, 도장리 쪽이 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있어서 적색사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란 말씀이지요. 그랬었던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는 신자들이니까 그들이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지요.

혹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어땠어요?
여기 양도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와 계신 분 중에 3, 4학년을 맡은 분이셨어요. 그분은 남의 결방살이로 살았는데, 6·25가 터지고 보니까 그분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산리 쪽에서도 다니던 선생님도 그런 줄 몰랐는데 그분도 그랬구요. 이런 분들이 열렬하게 앞장서서 활동하시더니……, 그분들은 나중에 의용군으로 다 월북하셨지.

평소에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가요?
그렇지요. 보통 때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두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하드라고요, 사람은 정말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6·25전쟁 – 걸어서 부산까지 갔다 오다.

1950년 6·25전쟁과 관련된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6·25사변이 나던 해가 1950년이니까 그 때 나는 열여덟 살로 양도초등학교를 졸업 한 뒤 모교에서 소사로 근무할 때였어요. 그 날 나는 사무실에서 숙직을 한다고 혼자 잤어요. 원래는 숙직선생님하고 같이 자는 건데 그 선생님은 대개 나오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자곤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어요. 근데 다른 때도 그랬었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평평’ 하는 대포 소리가 더 오랫동안 계속 들리더라고.

평소 때도 이곳에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때도 이북인 황해도 해주 쪽에서 광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늘 그래서 또 군사훈련하는 소리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대포소리도 세고 계속되더니 며칠 뒤에는 황해도 연백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이곳이 연백군과 가까워서 피난을 온 것이군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당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밀마당질(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피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까짓 거 털어서 뭐 할 거냐고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자기들은 벌써 고향인 해주 쪽에서 그 난리를 겪고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깐 그냥 얼굴이 새가만 인민군들이 나타나는데, 땀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거기에 내 또래에 있는 젊은 아이들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강화도가 그들의 치하에 들어 간 거지요.

그들이 혹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나요?

전쟁 초기여서 그런가 그때까지는 별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28 서울 수복 때 인천상륙작전 참 대단했잖아요, 며칠 동안 밤새 그냥 대포소리와 함께 불빛이 번쩍거리는데

이곳 강화도에서도 포탄 불빛이 보였어요?

아, 밤이면 보였죠, 그래서 몇몇 사람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김포쪽으로 불빛이 오르는 길 구경하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다시 찾고 압록강까지 진격이 되고 우리 통일이 되는줄 알았지요, 그런데 중공군이 들어와서 그만,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선엽 장군이 미8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에게 그랬대요, ‘매니 매니 차이나’ 중공군이 무지무지하게 압록강을 넘어온다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방위군이란 것이 만들어졌어요, 17살에서 40살 남자들 중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제2국민병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나면 6·25가 터졌을 때 며칠 되지 않아 남쪽이 대부분 북한군한테 점령당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렇게 당하지 않을려고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에서 그랬대요, 예비 병력을 미리 안전한 남쪽으로 보낼려고 한 것이지요.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국민방위군사건의 그 부대 말씀이죠.

그래요.

선생님도 거기에 편성이 되었나요?

그렇지요, 고생 참 많이 했지요,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우리는 청년방위대 즉 ‘청방’이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양도면의 청년방위대의 중대장은 옆 마을 하일리의 김의환이라는 사람으로 겉걸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술을 받아 강화도의 초지리에서 배를 타고 김포의 대명리에 내려 그때부터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김포읍에 가서 잤는데 그 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정말 추웠지. 거기서 우리는 아는 사람 집에서 잤어요,

같이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우리 형이랑 동네사람들 10여 명이 모두 양도면 청년방위대에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에는 안양, 다음에는 안성, 그냥 날마다 걸었어요, 그냥. 처음 며칠간은 질서가 조금 있었지. 그래서 '오늘은 어느 학교에 집결해라' 그러면 어떤 날은 밤 한 시에 도착하는 때도 있었지요. 우리가 김포에서 첫 밤을 지낼 때는 아는 사람 집에서 잤지만 다음 날부터는 집결지에 도착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동네사람들 따라가서 자고, 아침에는 그들이 주는 주먹밥 같은 것 몇 개 얻어먹고 아마 나라에서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먹을 쌀이 지급이 되었던 같았어요.

친형님도 같이 가셨나요?

참 출발은 같이 했지요, 그런데 그때 형님은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수님 되실 분은 우리 집에 와 있었고, 그런데 형님은 저랑 같이 낙동강 하류인 구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분류되어 제주도로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현역 군인으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참 뒤에 강원도 오대산 전투에서 그만 중공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아직까지

아!

우리는 그렇게 걸어서 남쪽으로 가고, 그 후에 나머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갔대요. 거기에서 우리 국군들과 합쳐서 배를 타고 전라도 여수로 내려갔대요. 그들은 우리만치 고생을 안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서 어디까지 가신거예요?

영도까지 걸어갔다니깐요.

영도라면 부산의 영도 말인가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21일 동안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23일 걸리고, 차 구경도 할 수 없더라고;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아, 그렇죠. 신발은 너털너털 다 떨어지고, 허벅다리 사이에 어른 주먹만한 가래투이 생겨서 끓아 터져서 지금도 흠집이 있어요. 가끔 목욕하다 그곳이 눈에 띄면, 아휴 그 고생하던 생각이 나서 근데 문경새재를 넘어갈 땐, 가도 가도 고개, 또 가도 가도 고개인데, 도착하니 새벽 한 시가 되었는데 거기다 또 눈이 펄펄 오는 거야. 지금도 난 문경새재하면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절머리나요.

지금의 문경새재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선생님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고개’ 이겠네요?

그래요. 그 와중에 공비가 나타나서 앞질러가는 길을 안내한다며 데리고 가서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경새재를 넘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요, 그래서 부산 영도까지 갔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김해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김해 김씨 능(김수로왕릉)이 있는 제12교육대에다 우리들을 편입시키더라고. 청년방위대 제12교육대. 거기서 진례면이라는 데로 갔어요. 거기 마을회관 같은 것 있는데서 우리 한 중대가 자면서 먹으면서 사는 거야. 가마떼기 쪽 찌서 깔고, 또 쪽 찌서 덮고, 다행히 외투라도 입고 간 사람은 그 외투가 이불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투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입고 간 것, 몸에 걸친 것이 그냥 나의 이불이야.

선생님 일행은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요?

그렇죠. 군번도 무기도 없고, 그러니 더구나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조직생활을 했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군가도 부르고, ‘사령관 누구누구’ 하고 관등성명도 외우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마 김해였을 거요, 거기에 대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그놈을 잘라서 집중훈련을 조금 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지요.

이십 여 일 동안 걸어가시면서 먹고, 자는 것,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굶주린 것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걸어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일단 학교 운동장으로 집결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들을 데리러 와요. 그분들이 우리들 몇 명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요. 어떤 집에는 안남미 쌀에다 밥을 해주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자기네 쌀로 잘 대접해 주는 집도 있고, 그냥 또 반찬이 없어서 콩 이파리를 된장에 쟈거 그걸로 반찬을 주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집에서, 내일은 저 동네 가서 또 ……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 인심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순수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 국민방위군 맨 위 간부급들이 우리에게 먹일 식량 그런 것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다 지들이 갈취해 먹고 그래서 나중에 총살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죠. 뭐 사령관 김운근 누구누구 하면서 ……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 말이군요?

그렇죠.

먹을 것이 그랬으니 다른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많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그 덮고 자던 가마베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생상태 나쁘고 거기에 열병이 유행해서 그 병에 걸려 죽은 거요. 더 비참한 것은 그 송장을 치우러 저마다 나가려

고 나서는 거야.

왜요?

그 송장들을 치우러 가면 담배도 한 갑주고 밥도 더 많이 준다는 거요. 어른들이 그렇게 서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더 끔찍해요. 아유, 송장을 묻은 흙 바깥으로 신발도 보였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산골짜기에 송장을 옮겨다 놓고 삽으로 그냥 대충 대충 묻어 버리고 내려왔나 봐요. 뭐 어떻게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동묘지로 갈수도 없으니까 그냥 죽은 사람만 서러운 거지 뭐. 아직까지 나의 청년방위대 기간 중에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면 담배를 주고 그래요?

담배 주고, 밥도 한 덩어리 더 주고 하니까 그 맛에 서로 갈려고 했지요

그 주먹밥이라는 것이 보리밥에 소금만 조금 찧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그 밥 먹는 이야기. 지금처럼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그냥 함석으로 만든 바게스 같은 통에다가 밥을 타오면, 이걸 가마뚜기 쪽 깔아놓고 주먹밥을 만드는 데, 이렇게 50개를 다 만들어서는 쪽 줄지어 놓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앞에 앉아서 그 50개를 다 구경하지. 어떤 게 더 큰가, 작은가 살피는 것이지. 아유,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그때는 원래 정해진 대로만 먹었으면 배가 안고플텐데 이 사람들이 다 떼어먹고 한 반 정도나 겨우 주는 거야. 그래서 아주 배고픈 고생을 많이 했죠.

밥은 항상 모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난리통에도 밥을 팔아서 막걸리나 담배를 사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담배는 끊을 수가 없는가 봐요. 참 지독하구나 생각했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는 담배가 요즘처럼 좋기로 말아놓은 담배도 아니고 봉지담배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게 배고픈 고생들을 하는데

이듬해 양력으로 4월 달 즈음되니까는, 윤재근⁴⁾ 씨하고 김석원⁵⁾ 장군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더라고요.

윤재근 씨면 강화도 출신의 국회의원 말씀인가요?

그렇죠, 윤재근 씨가 그 당시에 아마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원에 속해 있었을 거요, 내 기억으로는, 아, 그런데 그 김석원 장군이 오더니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갑자기, ‘너 이놈들! 눈알이 다 동태눈 같이 썩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김석원 장군이란 양반이 17연대장 했던 분으로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 무섭긴 하구나 했지요.

요즘말로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군기가 빠졌다 이거지. 눈이 다 멀건 게 전부터 동태눈꼴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다녀간 뒤에 어느 날 귀향증을 써주면서 집으로 가래요, 그리고 한 사람마다 안남미 쌀 그런걸 아홉 되인지를 주더라고, 그걸로 밥을 해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단지 서울을 다시 탈환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정보도 없어서 잘 모르고 단지 집으로 간다는 생각으로만 들떠 있었지요, 그때 나는 강화도 교동에 산다는 한규옥(?)이라는 사람과 그의 삼촌과 같이 그냥 걸어서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 오니까는 그냥 냇둑에서 쟁통에다 밥을 해먹기도 하고, 가끔은 남의 집에 들어가 구걸도 하고, 어떤 때는 다행히 대구에서 화물차를 붙들어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

4) (1909~1972) 강화도 출생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48년 강화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헌국회동지회부의장을 지냈다. 이어 제2대, 제4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강화도 마니산에 그의 묘가 있다.

5) (1893~1978) 일본사관학교출신으로 광복 후 19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제5대 민의원을 지냈고, 성남 중교교 교장으로 육영사업에도 전념하였다.

마 가지 않아 그만 하루 종일 이놈의 차가 또 안가요, 그래서 내려서 또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20여 일 동안 또 걸어서 강화도 집까지 그냥 걸어왔어요, 정말 비참한 일들이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강화도가 육지라면

강화도와 김포를 잇는 강화대교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강화도와 김포사이의 물길[염하]을 매워서 강화도를 육지화하려는 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화대교가 건설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였으면 하는데요.

(강화도와 김포사이의)그 물길을 막는 공사는 박정희 대통령, 아니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위원(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지시했어요, 그때가 아마 1962년이었을 거예요, 나는 해병대에서 제대를 한 후 한창 힘이 넘칠 때였지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양도면) 재건 청년회장으로 강화군청에서,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도 재건청년교육을 특별히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포와 강화 사이의 바닷물을 막는다는 거야. 연륙교를 만들기 위해 기공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각 부락의 재건청년 회원들은 임원들과 함께 잡석을 한 마차씩 싣고 기공식에 참석해라 이거예요.

요즘 간척공사 때 사용하는 그 덤프트럭 대신에 소가 끄는 우마차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때는 우마차가 있는 것도 그 집안으로서는 큰 재산이었지요, 그 때 나와 함께 공사장까지 간 우리 임원들 중에는 작고하신 분들도 있고 살아계신 계신 분들도 계시요, 그날 아침 일찍 지금 안양대학교(강화군 불은면 삼성리-강화 캠퍼스) 자리로 가서 우리 우마차에다가 잡석을 싣었어요, 나름대로

가득 싼고 공사현장인 갑곶리까지 우마차를 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 그런데 그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부려 놓다 보니까 참 하얗없더라고.



강화군 연륙공사 약도

왜요?

물살이 세기로 이름난

저 염하(강화해협)를 이렇게 돌덩이 하나씩 던져 넣어서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이지요. 그리고 차츰 사람들이 하나 둘 씩 우마차를 끌고 현장으로 들어오고, 또 기공식은 오후에 한다가에 나는 내 일을 끝내고 우마차를 쟁겨가지고 먼저 왔어요. 그냥 점심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와버렸지요.

『강화사』에 의하면, 당시 박정원 경기도지사가 리어카를 200대를 기증하였고, 박정희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기공식 테이프를 끊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나는 박정희 의장은 못 봤어요. 나중 오후에 그분이 오셔서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⁶⁾ 그날 나는 집에 할 일이 많아서 한가하게 거기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의 큰 재산인 우마차를 쟁겨가지고 빨리 집으로 왔지요.

6) 『조선일보』 1962년 12월 16일, 金浦·江華間 연결 육로개설 공사 어제 기공. 강화도(江華島)를 육지와 연결시키는 김포-강화 간 육로 개설공사의 기공식이 15일 하오 3시 강화군 강화면 갑곶진(甲串津) 현지에서 박(朴)의장을 비롯한 여러 귀빈과一万명이 넘는 강화, 김포군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식이 끝나 박의장 등 여러 귀빈이 누른 <다이내마이트>의 발파소리는 당산(堂山)마루에 메아리쳤고, 이어 기공을 기념하는 첫 삼짍음을 했다. 三浬五十四미터에 이르는 갑곶진과 맞은편 김포군 성동리(城東里) 사이의 바닷물을 돌과 흙으로 메우는 이 공사는 총공사비 一억 八천 三백여만원을 들여 강화군과 김포군의 재건청년·부녀회원들이 약 一년 예정으로 자력으로 이룩하는 큰 공사이다.



강화-김포간 육로개설 기공식 (1962년 12월)
왼쪽에 '바다 막아 복지 강화 이룩하자'란 글이 보인다.

빨리 걸어도 집까지 한 시간이 넘어 걸렸으니깐.

그렇겠네요. 당시로서는 우마차도 한 집안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트럭 한 대가 있는 것이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에는 김포나 인천 그리고 서울로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다녔겠네요.

그렇죠. 다리(강화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을 가려면 물을 건너야 하니깐 건너나 또 삼진회사 버스를 타고 우선 갑곶리까지 가야지요. 거기서 처음엔 돛을 단 나룻배로 김포의 성동

리까지 건너다가 6·25 이후엔 '엠보드'라고 미군 해병대가 사용하던 쇠로 만든 배가 승객과 화물 그리고 자동차까지 싣고 다녔지요. 거기서부터는 다시 버스를 타고 ……., 그러나 서울에 갈 때는 주로 감성환이나 감제환이라는 기선을 타고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하인천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곤 했어요.

선생님 댁은 양도면이니깐 갑곶리까지 걸어 나오시려면 힘이 드셨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양도면 건평리 쪽에 배가 다니는 나무가 있어서 부천군에서 운영하던 통운환(通運丸)이라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다녔어요. 그때 건평리의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얘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선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얘기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의장까지 참석한 그 연륙공사가 중단되고 다리가 놓이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이야기는 내가 김재춘⁷⁾ 장군에게 조금 들은 것이 있어요.

1961년 5·16 주체 세력 중 한사람이고 이후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춘씨 말인가요?

그렇죠. 강화대교가 개통된(1970년) 후 얼마 있지 않아 강화도의 각 면(面)에서 젊은 사람들 한 사람씩 초청을 받아서 서울의 후암동에 있는 그분의 집에 갔어요. 그때에 그분은 김포·강화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된 상태였지요.



강화대교 준공식 (1970)

일종의 선거운동이네요?

대접 잘 받았지요. 난 그때 양식이란 걸 처음 먹어봤어요. 맛은 별로인데, 하나 먹으면 다른 거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김재춘 장군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1962년도 강화-김포 연륙공사에 대해서 미(美) 8군 기술진이 진단을 했는데, 이곳(염하)을 막으면 생태계가 엉망이 되고, 강화 북쪽에는 물난리가 난다고 했대요. 그래서 연륙공사를 포기하고 대신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고.

그래서 1965년도에 다리공사가 시작되어 1970년에 강화대교가 개통이 되었

7) 1927년생, 8대(김포·강화군), 9대(고양·김포·강화군) 국회의원

습니다. 강화사람으로서 그 기쁨이 남달랐겠습니다.

그렇구말구요. 개통될 때 그냥 너무너무 맛있었고, 아마 강화사람들은 전부 거기 나갔을 거요. 물론 나도 우리 딸을 데리고 카메라까지 챙겨서 갔지요.

그때 카메라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 꽤 앞서 나간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그때 내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여상(강화여자상업학교, 현재의 강화여자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을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지. 그 강화대교에는 ‘경축’ 또 ‘뺨아가는……’ 등 표어가 쓰여 있었고 …… 그 아치 앞에는 우리 딸아이하고 동네아이 하나하고 두 아이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지.

강화도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순간이었겠습니다.

그렇죠. 강화도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까지 우릴 보고 ‘강화 섬놈들’이라고 하든 사람들도 이제 ‘강화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강화사』에 보면, 1936년도 겨울에 이곳 염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들이 많이 떠 내려와 며칠 동안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자 모 신문사에서 우편물과 신문을 가지고 헬기를 띄웠대요. 그런데 강화도로 들어오다가 기류를 잘못 만나 강화도의 전자산에 추락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화대교 개통이야 말로 강화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축하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강화도 주민들의 생활이 많은 부분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선생님,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몇 십 년 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화도에 수력발전소를 세웠

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 현장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아예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을(양도면 삼흥 2리) 속칭 용방골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진강산이고 이 골짜기를 용내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건너서부터 여기까지를 막은 다음, 물을 모아서 그리니까 작은 댐이 되는 것이지. 그 댐에 모인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한거요.

이곳에서요? 폭이나 깊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댐이나 수력발전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의 눈이나 생각과 그때의 생각과는 달랐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때가

1970년 초였으니까 당시로서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막아가지고 수력발전을 시킨다는 야망이었죠. 그 당시에는 각 리(里) 단위로 농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삼흥리 농협장이 윤필수씨라고 이 마을에서 매우 추앙을 받는 어르신이었어요. 약국도 하시고, 또 고기연씨라는 상무가 있었는데 이 분이 아주 계획도 치밀하고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을 고기연씨가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삼흥리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곳 삼흥리 주민은 물론 이웃 건평리, 인산리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등짐으로 흙을 지어 날라다 독을 쌓았지요. 그때 리어카라고는 한 두 대나 있었나? 거의 모두 사람 손이나 몸뚱아리로 하는 것이었지요. 한 1년 정도 그래 가지고 제방을 만들었어요.



양도면 삼흥 2리 용내천
이 골짜기의 물을 막아 전기를 생산했다.

요즘의 ‘댐’ 이군요.

그렇지요, 지금도 당시 그 작업에 참석했었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발전기 같은 중요한 기계는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강화도에는 미군부대가 많았어요. 아마 그런데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댐을 막아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준공식을 했는데 나도 참석했지요. 그때 이미 각 가정에서는 내선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그리고 전화식이라고 하나? 이걸 하나까 바로 앞의 (현 양도초등학교) 윤용현 교장 선생님네 마당 앞의 외동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거기 모였던 주민들 고함소리는 아직 생생해요.

동네사람들 집 모두 전기가 들어왔나요?

그러나 아쉬운 건 이 전기가 많은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 댁하고 그 앞에 한 집, 이렇게 해서 두 집밖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을에 우리가 만든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난센스지요. 전기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나 계획도 없이 그냥 물줄기만 막아서 거기에 발전기만 놓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 한번 일으킨다고 물을 좀 뽑아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썩 다 빠져나간 거요. 그 다음날 물이 있어야 다시 전기를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하다가 그나마 1년 쯤 뒤에는 큰비가 와서 이 동네에도 난리가 났지요. 그 바람에 이 발전소 독, 아니 댐이 무너져서 마을 아래 논밭이 대부분 쓸려 내려가고 흙에 묻히고 …… 대단했지요.

비가 그친 후 다시 복구했나요?

아니죠. 그때 발전기도 저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수력발전소’가 아예 모두 사라진 것이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발전기가 어느 고물장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물자가 귀하고 전기에 관한 지식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일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시도했다는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하네요.

그래도 그 당시에 비록 완전한 성공은 못했지만, 전기를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필수씨, 고기연씨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분들이 요즘 태어났더라면 우리 강화도를 위해 큰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1970년대 사회발전 과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새마을운동 하면 근면, 자주, 협동 정신이 생각납니다. 한마디로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죠. 그때 나는 5·16후부터 양도면 재건청년회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부터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그게 약간의 정치성도 있어야 되고, 말 잘 듣고 그러는 사람들을 내세우더라고. 그런데 나는 약간 야당성이 있어 가지고 반발도 잘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제외되고 이 동네에서 중견이 되는 사람을 새마을회장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마을길 넓히는 일이며, 지붕개량은 아주 우선으로 해서 초가집도 거의 없애고, 상수도 설치를 해서 수돗물도 먹게 되고,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마을노래가 마을에 울려 퍼지고 그 노래도 너댓가지 있었지요.

흔한 말로 할 말을 하시는 분이었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또 나는 나 먹고 살기 바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리드를 받으면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노래가 있으세요?

‘재건시대’라고 해서, ‘펼칠 휘날리는 재건의 깃발 아래서/조국을 위해서라

면 물불을 가리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강화군 교육청자리에서 재건청년요원들을 일주일씩 먹여가면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다 아는 노래,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 하는 그런 노래이지요.

새마을 운동이 선생님 개인에게는 혹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구술자의 집 마당)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저 은행나무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 심은 것이니 한 40년 됐나? 정말 사연이 많은 나무올시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점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는 묘목 심기 운동을 많이 장려했어요. 아가시아묘목은 연료를 삼기 위해서 많이 심었고, 그 중에 특히 고급 묘목이 있었는데 그게 은행나무 묘목이었지. 일본에서 가로수를 전부 은행나무로 갱신한다고 해서.

일본에서요?

예, 일본으로 은행나무를 대량으로 수출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묘목이 앞으로 뜨게 생긴 거지요. 어떻게 나는 그걸 미리 알게 되어서 서울 종로5가에 가서 은행나무 종자 한 가마니를, 그때 아마 쌀 한 서 너 가마니 값을 주고 사왔어요.

사업수완이 있으셨네요.

그랬더니 강화군청 새마을과의 직원이 찾아와서는 그 은행씨를 저희한테 넘기라는 거야. 군청 새마을과에서도 묘목사업을 해야 될 텐데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거요. 아 그래서 난 이게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알고 안 된다고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자신들이 여기다가 이 사업을 했다고 간편만 하나 씨 붙이게 해 달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묘목에 관한 장부를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새마을과에서는 우리 밭에다가 자기네가 한 것처럼 간편을 붙였지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강화군은 당시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가 1995년에 인천시로 합병되었다)에서 감사반이 나오면 자기들 새마을과사업이라고 감사받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걸

로 자기들 업적은 끝나는 거지.

그냥 흘려들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그 시대가 그랬었지. 근데 웬걸 이게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재미를 많이 볼 줄 알았던 이 은행나무가 1미터 50센티가 거의 됐는데 도 사가질 않는 거요.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옥영수여사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진거요. 그 문세광이 총애,

예?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제일 한국인 문세광의 저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옥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사건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딱 막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묘목수출은 다 틀렸지 뭐. 아 그래서 우리 은행나무는 거의 2만주인가 되는데, 이거 판로가 딱 막혀버렸지 뭐야.

큰 타격이었겠는데요.

은행나무, 못 팔아먹게 된 거지 뭐요. 그래서 그냥 밭 귀퉁이에다가 가식을 해 놔지 뭘. 그리고 그 상태로 이듬해로 넘어갔어. 근데 그 이듬해 4월 5일 날쯤 됐는데 벌써 은행나무 가식 해놓은 데서 순이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리게 생긴 거야. 빨리 팔아버려야지 하고 나는 업자를 찾아가 흥정을 했지요. 한 개에 60원씩 달라고 그랬더니 장사꾼은 40원에 하자고 그러더라고.

흥정이 잘 안됐나요?

아 그랬는데, 하늘이 날 살려주더라구요. 강화군청 새마을과에서 은행나무 묘목이 필요하게 된 거요. 그 전에 우리 밭에다가 간판을 써 붙이고 자기들의 사업으로 보고한 것 있었잖아요. 그때 경기도에서 연락이 온 거요. 그 은행나무 묘목사업 결과를 보고하라고.



구술자의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그래서 군청에서는 부랴 부랴 한 마을에 묘목 50주씩을 나누어 줄 정책을 수립하고 나를 찾아 온 거요.

참 세상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마을에 50주씩 이장님께 다 무료로 갖다 주는 거야. 그래

서 내가 사람 하나를 사서 하나는 차에다 실어서 남쪽으로 보내고 나는 송해면 양사면 저 북쪽으로 가면서 이장님들마다 50주씩 줬어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니 모두들 고맙다고 받으니 나는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40원 60원 얘기하던 것이 군 새마을과에 의해서 물가감정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게 150원씩 나왔어요. 그때 정말 신바람 났지요.

정말 기분 좋았겠습니다.

기분 좋았지요. 내가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했지요. 빚졌던 것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 중 마당에 심은 것이 바로 저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난 이 은행나무만 보기만 하면은 그때 생각을 하죠. 그때는 모든 일에 참 열심히 일했던 감기도 하고.

선생님께서는 정말 고마운 은행나무라 할 수 있겠네요.

강화도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니?

저도 기억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인가 어느 날 밤새도록, 말

그대로 양동으로 퍼 붓듯 비가 많이 와서 강화도 기상 관측상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비 이야기 말입니다. 다음 날 부산에 계시는 형님이, “혹시 어젯밤 폭우에 강화도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나?” 하는 우스개 소리와 함께 걱정스러운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6백 미리 비’라고 하는 것 말이군요. 그거 아주 내 일기에 특별히 내가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일기로 쓰셨어요?

나는 일기를 한 30년 동안 날마다 써왔어요.

그럼 그 대목을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지요. 가만있어 봐요. 그 제목이 아마 …… 아, 여기 있어요. 1998년 8월 6일 목요일 흐림. 이게 그날의 나의 일기에요. 아! 제목은 ‘큰 재해’라고 되어 있네요.

‘어젯밤 마니산 집회를 마치고 하산할 때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TV에 강화소식이 제일 먼저 나온다. 615미리의 비가 강화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이 강우량은 관측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 강화를 산문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산문 골짜기부터 산사태가 내려와 농경지를 다 덮쳤고 용넷가 다리가 반쯤 떨어져서 소형차만 다닌다. 남는들 뱃둑이 무너져 들어갔고 샘포지를 완전히 토사로 뒤덮었다.

삼흥정미소 주인인 박흥규 씨네 집 2층집이 비바람에 빼떡한 것처럼 80도로 기울어졌다. 하일고개(양도면 하일리와 삼흥리를 잇는 고개)를 산이 무너져서 내려 덮쳤다. 인산리 황골 전동찬 씨에 집을 완전히 뚫고 나갔다고 한다. 나는 (교회의) 사회 평신도 총무로서 수재민을 돕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부흥회 낫 시간이 끝나고 교역자회의가 있었다. 나는 이재민 구호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감리사의 대답이 명답이었다. 이 문제는 다음 교역자회의 때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폭우에 잃어버린 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식사 한 끼와 따뜻한 잠자리인데, 다음 회의는 한 달 있어야 하는데 이재민은 그 동안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



인터뷰중인 구술자

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손 빨리 생명줄 던져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지나가는 제사장 생각이 났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탐탁하지 않은 내색인 듯 했고 거기다 억지로 구제대책위원회라는 것을 한 면(面)에 한 사람씩 선정했는

데 화도면에 최무영 목사, 길상면에 이철우 목사, 양도면에 채한수 목사, 거기에 감리사와 사회 평신도 총무인 나를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세한 지침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급히 일어날 때 모든 교육자들의 속심이 그 얼굴마다 떠오르고 있었다.”

이건 내 솔직한 나의 일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안됐지만 이건 적나라하게 쓴 내 일기니까요.

지역 곳곳의 피해상황이 상세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과 흥천교회가 앞장서서서 구호활동을 하신 것도 감동적이구요.

근데 다른 지역의 큰 교회에도 원조를 청했죠. 그때 내가 잘 아는 목사님도 그때 돈 250만원을 보내주어서 그 존강리 삼흥교회, 그때 크게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 교회에다 150만원인가 원조를 해주고 인산리 전동찬 씨네 집에 100만원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관(官)에서의 구호, 복구활동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렇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 오랜 시간, 귀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장



고철호 ———

인천고등학교 졸업

경기도야구협회 전무이사(1974년)

경기도체육회 감사(1977년)

인천직할시체육회 사무처장(1982년)

대한민국체육포장 수상(1984년)

대한체육회 이사(1989년)

인천직할시 문화상 수상(1993년)

인천광역시 원로자문위원회 위원(현재)

■ 채 록 자 : 김운식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 채록일시 : 2012년 12월 일 오후 2시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2장 인천체육의 발전과 도시 변화

용동 큰 우물의 추억과 가난한 야구선수 생활

고철호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구술 채록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출생이 언제시고, 출생지가 어디신지, 인천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1937년 출생을 했는데, 원 출생은 황해도 연백군 송병면 운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가를 하신 제 선친이 제가 3살 때 인천으로 오셔서 저도 오게 되었는데, 철이 들고 성장한 것은 인천에서 했다, 이렇고요, 가호적제도가 전란 때 시행되어서 본적은 인천시 중구 용동 135번지로 되어 있어요.

아, 네 용동.

네. 용동 135번지이니까, 인천인이다, 자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 또 초중고도 다 인천에서 나왔고…….

초등학교는 어디?

송현초등학교.

송현. 음 그 다음에.

동산중학교, 인천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출생만 황해도이시지 완전히 인천 토박이시네요.

출생과 성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지금까지 인천을 떠나 본적이



용동 큰우물

없고,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인천인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어린 시절 용동에 사셨으면 그때 도시 풍경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왜냐하면 김장철에 용동 큰 우물에 가서 물지게 져서 가족들을 도와주

는 것이 내 책무였으니까. 물지게 많이 져죠.

그때는 저기가 거의 유흥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녀 산부인과가 들어서기 전 풍경이니까. 그때는 전란 후의 혼란기여서 상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용동 큰 우물이 그때 당시 식수원으로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문화재로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출생이 37년생이니까 광복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러니까 1~2학년 초기에는 일본어 교육을 받은 거지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는 학제가? 입학하는 시기가?

1950년도에 제가 중학교는 입학했는데 개학식을 6월 4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학기 변동이 …… . 그러니까 입학식이 6월 4일이면 기존에 입학한 2학년 3학년은 개학식이 되겠죠.

하하 그렇겠지요.

그땐 학기 개시가 6월 달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3월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중학교가 몇 년제였어요?

6년제지요.

고등학교는 없고? 아, 그러셨구나.

여담이지만, 저는 동산중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고 1950년도 용산에 있는 국립교통학교를 …….

아, 교통학교요.

네, 1950년도 입학을 했다가 전란으로 인해 학교 등교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동산중학교 청강생으로 노크를 해서 학업을 지속하다 보니 일 년을 묵었죠.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인천고로 가는 바람에 정상적인 학업이 연장될 수 있었죠.

그러면 중학생 시절에 야구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까지 대개 야구를 하는 사람은 동네 찜뿌라는 게 있어.

아, 그 저 찜뿌 …….

연식정구 라켓을 가지고 하는 거. 동네에서 그 놀이를 하던 사람이 학교에서 야구부, 거의 다 야구부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해도 기구, 학교의 뒷받침 이런 것이 전부 열악하니까 야구를 좋아해 하고 싶어 하는, 그저 즐기는 야구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 왜냐하면 방과 후에 모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회 자체가 일 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 그 당시, 감독이라고 하냐요, 코치라고 하냐요?

동산고도 지도자 하시는 박현덕 선생님이, 전란으로 자기 관리를 먼저 해야

하니까, 학교에 나와서 가끔 저희들과 훈련을 같이 했지, 지금처럼 1년 시즌을 전부 관리하진 않았어.

아, 그, 있을 때에만 …….

정상적인 야구지도를 받을 기회가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장비 같은 것은 전부?

장비 ……;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개인이 운동구점 뒤지고, 또 공이 없으면 고물상 가서 미군부대에서 흘러 나온 공을 사가지고, 또 그리고 글러브도 국내 제작이 없으니까,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글러브를 사다가 손에 맞게 수선해서 쓰고, 또 공이 헤지면, 그 연결하는 것이 108개인데, 그 실이 끊어져서 낡으면 구둑방에 가서 공 깎는 도구를 갖다가 훈련 끝나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기워서 다시 쓰고, 뭐 이런 비애가 다 있었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야구 선수들이 그거 다 체험했어.

지금은 야구하다 파울볼이 나오면 팬서비스 차원에서 팬들이 가져가는데, 그 전에는, 그 송의공설운동장에서 보면 파울볼이 나면 찾으러 왔었지요.

찾으러 왔었지. 공둘러 줘. 하하.

그게 옛날,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꼬마 시절에 본 신인식, 동산고 1학년 때, 네.

발을 이렇게 하이킥을 해서 강속구를 던진다고 하던, 눈썹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상 지금 회장이 3학년, 그때 공설운동장에서 고 회장님도 뵈었을 텐데, 잘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야구죠, 6년제이니까. 그리고 수복해서 학제가 변경되어 고등학교 야구로 변환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인천에 고등학교 방향 인고 동산, 동산 인고인데, 그 시험이 있을 때면 송의야구장이 꼭 찼어. 그걸

뭘 의미하냐면 원래 야구를 사랑하는 인천 도시, 구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덧붙여서 향수에 젖었던 고등학교 야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말라 했어.

그랬죠, 네네.

그래서 열기를 뿔어줬더니 인천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막 해 오



인터뷰장면(왼쪽이 구술자)

니까, 그때 그 시절의 시민들의 열광은 대단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연습하러 가기 위해서 학교 등교해서 4교시 후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훈련을 하러 준비해서 학교에 다시 오는데, 학교에서 집이 가까운 사람은 운동복을 입은 채 학교로 가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서 상점 주인들이 나와서 “야, 훈련하러 가냐?” 이렇게 좋아하고 …….,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은 배다리 쪽 지나가다 보면 인고 앞에 플라타너스가 쭉 서 있고,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지만, 빨간 벽돌로 그 교사가 참 멋있었는데 ……., 저는 그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정문 앞만 지나다녔는데, 그 학교, 그 도시 모습이 ……., 참 안타까워요, 없어진 것이.

없어져서 안 되는 건데, 송의운동장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보다 더, 우리는 3년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더 아쉽지요.

송의운동장도 인천의 도시 풍경일 텐데, 송의운동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그, 야구장이 먼저 정비가 된 거예요, 일제시대에 거기 맨 터가 운동장 부지로 정해지니까, 바닥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정 시

대 전쟁 말기에는, 거기가 운동장으로 활용할 사회적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 다 배추 이런 등숙을 심어 가지고 …….

네, 운동장에다?

그렇게 밭으로 변동이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구장 가다보면 광성고 쪽으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장이었네.

네, 거기가 화장장이었죠.

그런 데에 부지가 정해져서 운동했는데, 우리가 야구를 할 당시에는 스탠드가 없고 맨바닥만 고르고 스탠드는 언덕처럼 맨 흙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타가 없었어요. 다만 시간이 흐르고 인천의 체육인 중에 대선배이고 잊지 못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성함이 정용복 씨라고 빵모자에다 마도로스파이프 물고 다니시면서, 에스캄하고 관계를 하셨는데 …….

목뒤에 혹?

네네. 그렇죠.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는데, 그분의 열정으로 미군부대에 이야기해서 유류 드럼통을 기증 받아서, 양 가를 잘라 퍼서 그것으로 야구장, 육상장 지역의 담을 만들어놓고 아스팔트 콜타르로 새가맴게 색칠해서, 드디어 소위 얘기하는 그라운드에 올라타가 쳐졌다 …….

그 당시 인천고 감독은 어느 선생님이셨나요?

김선웅 선생님이라고 …….

아, 김선웅 선생님.

이분은 인천 상업학교, 물론 왜정시대죠. 상업학교 시절에 일본에서 야구가 들어오다시피 한 거니까 일본인들이 있는 인천상업이 야구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 정규 선수가 되어 소위 일본에서 자라고 있는 갑자원대

회에 두 번 출전했어요, 그 두 번 출전이라는 것이 인천상업이 그냥 선택받아서 간 게 아니라 전 조선 대표로,

네 그렇죠,

국내에서 예선대회 해서 전 조선대표로 두 번 갑자원대회에 출전하신 경력이 있고, 제 기억에는 수복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인고에서 야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서 인고에서 야구부 감독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두실 때까지 그러니까 인고 53회, 54회, 55회, 56회, 57회, 6년 동안을 모교를 위해 무료봉사를 하신 거예요,

아, 고마우신 …….

그리고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것은, 그때 유일한 야구 정보가 일본에서 오는데, 당시 모든 체육이 그랬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 구입해서, 번역을 해서 ……., 그 지도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지 …….

아,

에피소드가 차라리 햇빛이 나서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것이 낫지, 비가 오는 날이 쉬는 날이다, 현대 꼭 교실에 잡아놓고 물 교육을 직접 하셨어요,

아, 네,

세오리(theory)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역시 비오는 날 전체 선수 미팅을 하면서 물 교육을 하는데, 감독이 질문한 걸 제가 건방지게 손들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정답이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대학 감독이 “야, 너 일학년인데 그런 것을 다 아냐? 역시 인고가 그냥 우수한 게 아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저희는 제대로 된 야구 지도를 받았고, 지금도 어디 가서 야구 얘기를 하면 그분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얘기해요,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죠,

예, 우리 인천 야구인으로서 길이길이 존경할 만한 분이데 ……, 인고 시절에 청룡기 우승 두 번 하셨나요?

그렇죠, 두 번 했죠,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했으니까.

3학년 올라 가시면서는 …….

3년 연패에 실패를 해서.

동산이 이제 …….

신인식이라는 걸출한 투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3년 연승에 실패를 했는데 그 때 주전멤버가 영진공사 이기상 투수, 쏫 스톱에는 그 유명한 김진영이, 저는 캐치 후보에다가 퍼스트 멤버로 출전했는데 ……., 그런데 1995년이 인천고등학교 개교 백주년이예요, 그때 100년사를 만들 때에 뒷부분에 ‘통한의 몇 년도’, 3년 우승 놓친 것을 기고한 내용이 있죠.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셨습니까?

제가 선수로서 스카웃 당해서 간 데가 부산의 동아대예요.

아, 동아대. 동아대학도 야구는 아주 강팀이죠. 동아대학 출신 누가 계시죠, 우리 한국 야구에? 아주 많은 것 같은데 …….

동아대학이 지방 사립대로서, 당시 이사장이 일본의 입명관(立命館)대학을 나오셨는데 …….

입명관. 네네.

야구 많이 좋아해요. 동아대학, 지방대학이지만 야구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창단할 때 감독을 하셨던 배성수 씨가 이사장과 입명관대학교 동기야.

아.

그래서 야구부 중흥 계획으로 인천의 투수를 들여와야겠다 해서 어떻게 알

았는지 저희 집 앞에 있는 여관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관이 있었어요, 집 앞에?

여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저희 집 골목 맞은쪽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
에 와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설득을 해서 …….

야구를 잘하시니까 스카웃도 하죠. 그러면 인천으로 이주해서 계속 그 시절
까지 용동에 사신 거예요?

예예.

그러면 선친께서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아, 선친께서는 제가 세 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몰라. 사진 한 장만 있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러면 형님이나 누님은?

누님.

아, 거기 쪽 사셨구나. 그러면 선친도 안 계셨는데 야구하느라 힘 드셨겠다.
돈도 …… 들었겠다.

모교 야구 감독으로

그런데요, 지금도 야구를 했던 고 아무개로 인정받을 때는 역시 내가 인고 3
년 동안에 선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양식을 다 거기서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고 3년 동안은 잊을 수가 없죠. 특히 훌륭한
지도자 그분한테 ……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 제대 말씀 되어
서 인고 감독으로 픽업돼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

만두시면서 저를 선택해서 인고 감독의 바통을 그분으로부터 이어 받았죠.

그럼 군대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2년 있다가.

2학년?

원래 동아대학에서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면 옵션이지. 뭐, 하숙시켜주고, 훈련비 주고, 학비 면제고, 군대 가게 되면 또 면제시켜 주도록 다 해주겠다, 이런 모든 약속이 이행이 안 돼. 그리고 집안의 가세도 방향이 틀어지니까, 에이 군대를 가자, 해서 중도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그때에는 육군에 야구팀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럼 육군 팀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육군 팀에 갔다가 제가 결핵성 늑막염이 걸려서

아이고.

중도, 하고서 일반 병과로 갔는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하 부대 야구팀에서 인고 투수했던 사람이 일반병으로 나와서 훈련받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갔는지 거기서 왔어요. 훈련 과정 이수하자마자 육군병기학교로 가버렸죠. 그런데 가보니까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리로 가면서 인천 동산고 출신 인고 출신 동료 후배들을 몇 끌고 갔지. 그래서 예하부대, 또는 미군 고문관실하고 비정규적인 경기를 주말마다 하면서 거기서도 활동을 한동안 했죠.

음, 그러셨구나. 그러면 군 제대하시고는 어떻게?

군 제대 두 달 ……., 그때가 1961년 5·16 나던 해인데, 제대 말년에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에 와서 쉬는 기간이 있을 때인데, 야구장이니까 모교에 가서 뛰고 그랬는데 ……., 결국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모교 감독으로 선수 지도를 맡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제대와 동시에 인고 감독을 하게 된 거죠.

몇 년이나 하셨어요?

2년 했어요. 1961년부터 2년을 했는데 그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 때 지도자 하셨던 분한테 오전에 가서 훈련 계획을 협의하고 오후에 훈련을 하는 식의, 감독 초기에는 나 자신부터 레슨을 받아서 역할을 축적했죠.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셨구나.

그때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장훈 선수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일교포 학생야구단이 한국에 와서 서울서 경기하고, 인천서 경기할 때 인고하고도 시합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예예, 저도 그 장훈 선수, 인천그라운드에서 봤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정용복 선생하고 친하셔서, 선친도 경기도야구협회 이사에 이름만 올려놓으시고, 가끔 가면, 콜타르로 담장 칠했을 무렵, 저쪽 정구장, 육상장에서 올라와 미루나무가 선 사이에 문이 있었는데 …….

그래, 문이 있었지.

백 ……., 뭐라 그러니까?

스코어보드, 그 뒤쪽으로 …….

네, 스코어보드 뒤쪽 거기서 문을 지키고 계세요, 두 양반이.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 아들인데도 왜 왔냐? 들어가라. 결국 이리로 들어가서 본 적도 있어요.

그 시절의 진풍경은 뭐냐 하면 제일교포 야구단을 한국일보가 초청해 수차



인천공설운동장

레 사업을 했는데, 인천에는 오지 않는 거야. 전국대회 우승팀들이 인천에 있지 않느냐, 인고 동산이? 인천으로 와야지, 어째서 서울에서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인천으로 보내줄 테니까 옵션을, 즉 개런티를 내려, 이거야. 그러니까 인천야구협회에서 필요 없다. 돈 내고는 안 한다. 옥신각신 하

다가 결국 타협이 되어서 인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일보 회장으로 있는 장기영 씨가, 나중에 경제기획원장관까지 했지만, 그분이 와서 보고 이해가 간다. 돈 안주겠다는 게 이해가 간다. 무슨 뜻이냐? 광성고등학교 지금 체육관 뒤편 언덕에, 운동장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그 언덕에 깔린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 산꼭대기 …… 저도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게 옛날 우리 인천 풍경이죠.

그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설이고 기구고 여러 가지가 가장 열악한 시기였다. 그때가 야구하기에.

그러니까 인고에서 송의공설운동장까지 올라오는 길 양편에 전부 다닥다닥한 판잣집에서, 미군부대에서 나온 깡통 잘라서, 오꼬시 공장, 대나무 공장 그런 것만 …….

인고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경기도예선대회에서 이기면 학교로 돌아오다가 중국집에 가요. 거기 팽 서방네 중국집이란 데가 있어.

어디 있는데요?

올목동.

올목동에.

그 올목동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묵 파는 데 있지?

네네.

거기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팽 서방네야. 그러니까 이기고 내려오면 팽서방 네 집 가서 자장면 먹는 거야.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동인천역 앞에 무궁화식당에서 돈가스를 사주는데 돈가스 썰는 방법을 몰라서, 눈치를 봐서 어른들 먹는 거 보고 먹었지. 선수들이 시합 끝나고 돈가스 하나 가지고는 만복이 아냐. 한참 먹을 텐데 아쉬울 거 아냐? 그럼 막 투정을 해. 부장선생님도 답답하지. 예산은 없고, 우승했으니 잘은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머리를 썼어. 식당에 들어가면 단팥빵 하나하고 사이다를 줘. 배고프니까 우선 막 먹잖아? 마지막에 사이다를 마시고는 끄옥 해. 그렇게 좀 배가 찼을 때에 돈가스를 하나 주면 만복이 되는 거야. 하하.

아이고, 재밌습니다. 인천고 감독 후에는 어디 취직을 하셨습니까?

2년 만에 여러 곡절이 있어서 그만 뒀는데, 동인천고등학교 팀이 생겼어. 아마 그 학교 김정환 교장선생님이 지켜봤겠죠. 그래서 인고 정리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인천고 감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또 2년 했죠.

아, 예, 그러시고는요?

이 불안한 야구감독직을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내 자신 정식 사회인으로 변신이 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떨쳐버리고 직장 생활을 조금 했어요.

인천서 하셨습니까?

인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했는데 …… 참, 1974년도에 인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청룡기에선대회에서 인고 동산, 동산 인고가 경기를 진행하다가
트러블이 생겨 싸움이 붙었던 일이 있어.

아, 예.

경기도야구협회 전무이사가 되다

시내까지 와서 충돌이 된 거야, 졸업생, 응원단 등등이. 그래서 이 사태가 대
한야구협회 보고가 되고, 그 해 불행스럽게도 동산도 못나가고 인고도 못나가
게 되었어. 경기종료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해 경기도 대표는 없는 채 청룡기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기존의 야구협회 집행부가 총 사
퇴를 했어요. 그러나 야구협회는 존재해야 하니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제가 협회 전무이사로 발탁이 된 거죠.

그럼 그때 야구협회 사무실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이 협회라고 해 놓고는 사무실은 없어?

체육회 사무실 한 구통이에.

체육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때, 도원체육관 안에.

아, 도원체육관 안에. 그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전무가 되신 거예요?

예.

그때, 야구협회?

그런데 그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인천체육전문대학교에서 야구부를 만들 때 백인엽 이사장과 독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창단하면 되겠다고 조언하다가 백 이사장이 ‘너 여기 와서 고생할래?’ 그런 연유로 인천체육전문대 팀을 창단 하고 초대감독으로, 거기에도 한 2년 있었죠. 그러니까 74년 이전에.

아, 네 그렇군요.

거기까지 2년 단위로 세 번 지도생활을 한 거죠. 6년. 그리고 74년을 맞이해서 다 정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던 차에 앞서 말한 그 야구협회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역 체육인으로 ……., 이렇게 되셨구나. 그리고는?

그때는 명칭이 경기도야구협회죠.

그렇죠.

전무이사 생활하다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경기도체육회 감사까지 했고.

쭉 감사로 계셨나요? 몇 년 동안?

그렇죠. 감사로 있다가 1981년도에 행정개편이 되어서 인천직할시가 탄생한 거야. 경기도와 인천이 분리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인천직할시체육회 감사가 된 거군요.

예예. 그런데 왜 감사로 발탁되었나 하면, 그때는 문교부죠. 문교부하고 대한체육회의 분리 지침에 따라 경북하고 대구하고 분리가 되고 경기도와 인천이 분리가 되는데, 체육회 분리 지침이 있었어. 그런데 재산권 분리문제가 현안의 키가 되었는데, 내가 기억할 때, 그때 현금 3억 3천만의 자산이 있었어.

재산이.

그런데 3억은 일반자금이고 3천은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었어. 그것을 나누는

데 보통 개념은 대충 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경기도 여론은 그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분리를 하는데 인천시를 대표한 사람으로는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전영춘 시장, 작고하신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문병하 씨, 저는 감사했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경기인 대표, 그래서 3인이 경기도 도청 회의실에서 재산권 분리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참석한 사람이 인천은 셋이고 저쪽은 많은 거야.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체육이란 게 뭐냐, 전부 인천 중심으로 해서 시설은 인천이 다 가져가고 수원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 돈을, 재산을 인천에다 줄 필요가 없다. 대신 시설을 인천이 가져가라 이런 논리를 참석한 사람들이 펴고, 그때 당시 도지사는, 기억에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경기도 교육감 …….

이준경 씨죠?

네, 교육감한테 “교육청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 곧이곧대로 “우리는 학생 비율대로 나눴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 참여해 말단에 앉아있던 내가, 인구수대로 하면 경기도는 460만 인천은 80만인데,

그렇죠.

3억이란 돈을 그런 비율로 나누겠다는 거냐? 생각이 딱 들어서, 건방지게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사님, 불과 몇 달 전에 전주에서 벌어진 체육대회에 경기도 선수단 일원으로 참석해서 우승을 하니깐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바로 밑에서 지사님께서 환영대회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고 지사님 환영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두 달 후면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인천은 인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해 보자. 경기도가 경상북도와 시합한다. 그럼 인천선수단이 경기도를 응원한다든가, 인천이 부산하고 붙었다, 그러면 경기도 선수단이 인천을 응원한다든가, 이런 형제지애를 발휘하는게 좋은 거지, 지금 3억 가지고 반

만하면 1억 5천이고, 인천을 분리해서 나가는 아우로 생각해서 더 준다고 해야 5천만 원 더 줘서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지사가 씩 보더니, “무슨 자격으로 온 사람이오?”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병하 씨가 야구



야구대회

협회, 체육회 감사고 야구협회 전무라고, 체육인 대표로 온 겁니다. 했더니 싱글 아웃이니 여기서 결론이 안 나겠구면, 이렇게 된 거야.

전영춘 씨가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지사님.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경기도 인천시 시장이니까 지사님의 수하요, 그러니 7월 1일 날 인천도 직할시 시장이 어느 분이든 올 테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이야기한 그런 정신 하에서, 그분하고 답판을 지시죠.

끝난 다음에 수원시장이 제공하는 오찬 자리가 있었어. 거기서 또 문병하 씨가 머리를 쓴 거지. 한참 흥겹게 건배하고, 한잔 먹은 다음에, 지사님, 여기 많은 분들이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진솔하고 맛있는 얘기를 한 건 이 친구 아님니까? 하고 날 찍었어. 그러니까 염보현 지사가 할 수 없이 “예,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내 기억으로는 1억을 받은 거 같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고생이라기보다 그런 시기에 그렇게 참여도 했다는 거지.

아. 인천 체육회를 위한 그것이 다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거죠.

충성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 나름의 판단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나중에 기여한 거로 된 거죠.

그 후에 1982년인가요? 체육회 사무국장을 …….

네. 그래서 분리가 된 다음에 독자적으로 인천체육회 창립총회를 갖고 대의원 총회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직할시 초대 시장께서 사무국도 바꾸고, 뭐 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국장도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기초를 다져 가지고 새로 출발한다는 방향을 정하니까, 이런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여러 가지로 탐문하다가 암만 그래도 체육인들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후보로 낙점이 된 것 같아.

아. 네네.

그때 내가 무엇을 했냐면, 82년도에 세계야구선수권 대회가 잠실에서 열렸던 것 기억나시죠?

네네.

한대화가 홈런 쳐서 ……., 그 대회가, 내가 대한야구협회 감사도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기본계획은 서울, 대구에 분산 본부를 두고 전체 리그전을 할 때, 대구에 가서 하고 잠실운동장은 준결승전과 결승전만 한다는 이원화된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왜 대구까지 가느냐? 호텔 중심으로 한다면 인천이 더 가까울 수 있는데 ……., 그래서 인천운동장에서 하자고 별 때를 다 써서 6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별안간 시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을 제의를 했고, 그래서 그 해 8월에 인천직할시 체육회 사무국장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사무국장 수락과 동시에 세계야구대회를 인천에서 치르는 …….

이 무렵은 어디 사셨어요? 거주지는?

거주지? 가만있어라, 그때가 ……., 아 저기, 송림동 삼익아파트.

아, 송림동 삼익아파트요?

동부경찰서 앞에.

거기서 몇 년이나 사셨어요?

거기서 4년 살았지요.

그리고는? 연수구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 전에 저, 도화동.

아 도화동으로 이사하셔서 …….

정인선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네.

거기서 살았지요.

그 당시 우리 인천 체육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형편이라고 할까요?

그게요,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전국 체육대회 개최 종목이 축구, 육상, 탁구, 야구, 수영 이렇게 해서 32개 종목인데 우리 인천의 남녀 고등학교의 수가 28이야. 그러면 한 종목에 한 학교를 맡겨도 종목 육성이 안 되는 거야. 남녀가 있기 때문에. 또 편중이 뭐냐. 야구는 2개야. 기억하겠지만, 농구는 송도고등학교 1개야. 배구 인하부고 …….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더군다나 재정 문제는 직할시가 탄생했다고 해도 당장 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안 된 때라 내무부에서, 각 시도가 체육회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었어. 각 시도 체육회에 재정적 지원은 4억으로 해라. 그래서 시는 더 주고 싶어도 4억 이상은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머지 평균 예산이 10억이다. 각 시도마다 체육 예산 규모를 달리 정하는데, 10억이다 하면 6억을 성금을 건어야 돼. 그때는 성금이 유행하

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인천은 성금도 잘 걷힐 수가 없는 게, 산업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본사가 인천에 있는 게 아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긴 최고 책임자가 공장장이야.

그렇죠.

답 그러니까 공장장이 인천 분이라고 해서 체육성금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내고 싶어도, 본사 기획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줘. 이런 모든 열악한 조건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평균 예산이 10억으로 보았을 때, 시야 어차피 제한이 되어 있으니 나머지 6억이나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였어.

음. 그렇군요.

그래서 3대 현실로 나타나 있는 체육 현황 중에서 선수 확보, 거기에 뒤따르는 팀을 창단해서 정립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게 전체적인 과제인데, 전부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 한 거지요.

인천이 지점밖에 없어서, 본사가 없으니까 그런 게 …….

네. 그리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를 들면 공장장협의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명단을 넣어서 시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자기들끼리 통화를 해, 너희는 규모가 크니까 5백 해, 우리는 4백 할게. 이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금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서로들 그렇게 …….

아웅산 테러사건과 제64회 전국체전

그런 데다가 개인적인 소견을 좀 얘기하면, 내가 1982년에 상반기 지나서 사

무국장이 됐는데, 83년도에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었다고. 그건 그 전에, 내가 사무국장 되기 전에 확정된 사항이야.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역으로, 이때 과제를 해결하는 모멘트로 잡아야겠다. 내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다 5억, 6억 하지 말고 20억을 해 달라. 그 20억 중에서 5~6억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가져야 전국체전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역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이 기회에 재정자립 구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64회 전국체전, 1983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최초로 분리된 지 1~2년 만에 13억의 체육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었어.

아유, 불과 2년 사이에.

근데 그건 개인능력이 아니고,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계기와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미얀마 아웅산사건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6일 날 개막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저하고 먼 친척이 되는 비서실장 함병춘씨,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개막식을 하고 버마로 떠났어요. 그런데 대회 이틀 치르고 나니까 아웅산 사건이 터져 전부 혼란에 빠진 거야. 그때 체육부에서도 이 대회를 해야 옳으나, 안 해야 옳으나, 우왕좌왕할 때야. 그때 인천운동장에서 긴급 관계관회의를 했어. 체육부차관, 대한체육회장, 인천시장 등 관계관들이 모였는데, 기울어 가는 게 중지.

중단! 네.

제가 역설을 했죠, “120만 인천 시민의 모든 열과 땀이 묻어 있는 것인데, 의연하게 대회를 마쳐서, 비록 그런 흉악한 일이 있었다 해도, 대한민국이 대단하

다. 나라가 뒤틀리는 사건이 있는데도 체육대회는 다 하더라. 그런 것을 보여주고, 폐회식 때 북한규탄 결기대회를 체육인이 먼저 하자.” 물론 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회를 계속하는 길로 갔어. 그때는 중앙 정부 최고 책임자의 승낙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앉은 자리에서 가자, 하고 결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 사항으로 정부는 끝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회식 때는 전부 어깨띠 두르고, 햇불 들고, 성적발표는 나중에 하고 북한규탄대회를 한 거예요.

아웅산 사건, 그 만행 규탄대회를 했군요.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체육 행정 쪽에서 아주 참, 크게 하신 게 많으시구나.

너무 자랑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그때 듣자하니까 성화를 특이하게 하셨다는데?

저희가 83년에 개최한 횡수가 제64회 전국체전인데, 63회를 경남 마산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경남 마산에서 개최식을 할 때, 성화를 점화를 했는데,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바람 때문에 그 연기가 로열박스로 붙었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대통령 앉아 있는 면전으로 …… 이게 뭐냐. 그게 휘발유를 썼는데, 나름대로 신경 써서 김해 공항에서 제트기 엔진에 들어가는 최고급 휘발유를 갖다 넣었는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체전에 맨날 휘발유를 쓰고 그러면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 하명이든 뭐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마스케임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파트별로 학교에서 훈련을 하다가 개막식 바로 전에 리허설 하느라고 종합경기장에 다 모여.

그렇죠.

그런데 10월 달에 잔디가 마르는데 막 텅구니까 잔디가 초토화돼버려. 그런데 개막 당일에 전부 하얀 옷 입고 구르는 동작 하나 하나씩 전부 흙이 묻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바로 전에 한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인조 카펫을 깔고 하더라. 왜 카펫을 못 만드느냐?

그래서 그 이듬해 64회 전국체전 인천대회에 인조카펫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폭으로 이 책상 넓이만큼 서로 이어서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카펫이 나왔어. 그 인조카펫이 다음 개최지로…….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5월에 하는 소년체육대회였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도가 쓰고, 또 그것 끝나면 10월 달에 전국체전으로 보내서 또 쓰고, 그렇게 했지.

그리고 성화는 린나이가 인천 주안공단에 있었잖아요?

아, 린나이, 예!

린나이 코리아에 의뢰해서 가스로, 가정에서 쓰는 린나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확대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 그 때서부터 전국체전 개최 6개월 전에 의뢰를 해서, 기술 검토를 한 뒤 세 번의 시험을 했어요. 린나이 옥상에서.

옥상에서?

바람 부는 것을 예상해서는 큰 선풍기 3개를 틀어 놓고 시험을 하고, 또 비오는 것을 가상해서는 위에서 소방호수처럼 살수를 해서 견디내는 방법을 시험했지. 그래서 최초로 제64회 전국체전에서 성화를 가스불로 했어요. 거기다가 국내 최

아, 네.

그리고 경기 운영 면에서 점수 처리하는 운영 팀을 종래는 여상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점수채점 등을 주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인천대회에서부터 전산화 하였고, 경기장 시설면에서도 사이클 경기를 종래 평면운동장에서 치르던 것을 계양구에 건설한 국내 최초의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했지…….이 64회 전국체전의 특징들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백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네. 제 64회 전국체전이 우녕, 시설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은 내가 그만두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송의운동장 내에 체육회관을 건립했고 또 그 안에 ‘전산처리실’ 명패까지는 붙여놔는데, 그리고 공간을 만 들어서 인천체육사를 발간하려는 기본 계획은 세워놔는데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 실현을 못 보고 제가 그만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아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체육사 문제는요, 시작할수록 빠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건이 안 맞는다. 의욕이 없다. 안하면 또 그만큼 늦어요.

네네. 그렇죠.

출발이 좀 뒤뚱거리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출발을 해놔야 3년 만에 하든 5년 만에 하든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기회를 때 마다 야, 그 작업을 좀 해, 해, 하면서 후배들에게, 나 물려난 다음의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현안 사항만 처리하지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83년 인가요? 무슨 대회성취상이라는 것이 있었다죠?

아, 그거는 전국 체육대회 규정에, 매년 1, 2, 3등은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1등은 경기도, 2등은 서울, 3등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위 순위에 있는 시도가 추위를 했다. 그런데 아무 상도 못 받으면 말이 되느냐. 시 상대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점이 받아들여져서 가장, 전년도 성적에 비해서 이번 대회에서…….

많이 올라간…….

가장 많이 올라간 시도에게 성취상을 수여하자 그래서 성취상제도가 생긴 지 2년 만에, 인천 개최 때 그 성취상을 받았죠. 뭐 10위권에서 4위권으로 올라갔

으니까,

그렇죠. 어우, 상당한 실력 향상이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인이 아니고 체육인으로서 체육 행정 쪽에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다른 뭐 아쉬움이랄까 이런 건 ……?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체육계에 전



문학경기장

반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일들이 1986년, 1988년에 일어나는데 다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렸고, 88올림픽이 있었던 것은 다 주지하는 바인데, 이 중에 지근거리에 있는 인천이 어떤 종목이건 하나 유치할 해서 경기를 치렀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종용을 하고 일정한 보조를 해줘서 성균관대학 수원 캠퍼스 쪽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서 핸드볼 경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했다. 아쉽다. 어떻게 보면 한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음,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8년 올림픽 할 때까지도 인천체육회 사무국장에 계셨네요?

제가 이제 1992년도에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사무국장 선출을 3월 달에 하는데, 그때 국장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임기가 정해지면 또 4년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게 다만 체육인으로서 명예스러운 거지, 장래를 보장하고, 치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했던 사업도 접었는데 이걸 아닌 거 아니냐? 마침 또 새로 온 관선 시장이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것을 저한테 표시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다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때 내가 빠졌고,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그만 둔

거고, 저쪽에서 볼 때 물리적으로 간 폴이 돼서 통산 만 10년 몇 개월을 했다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사무국장직을 하고 그만 둔 거죠.

음. 아이고, 오래하셨구나. 음.

종합경기장 신축 계획 수립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종합경기장 건립 계획 기초를 다졌어요.

음, 그게 문학경기장 말씀인가요?

네네. 송의경기장에 대한 건 제가 거기서 선수생활도 하고 지도자생활도 하면서 늘 체육시설로 접했던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천 체육 시설이 가장 열악한 시도로 나와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제주도 운동장 지었죠, 하다못해 경북 포항도 소년체전 할 때 운동장 지었죠. 이거는 아니다.

제가 사무국장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관선 시장을 여섯 분이나 모셨는데, 새로 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공감을 하면서도 시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만둔 다음에도 제가 찾아뵙고 이러는 게 심재홍 시장께서 그걸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나중에 얘기지만, 시정을 전부 잘해서 내가 인천시장 동안에 여기도 남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 체육시설 하나 해주자. 이래서 문학경기장 건립에 대한 기초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부지 확보까지 하고는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문학경기장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출발하고, 부지도 확보되고, 그렇게 되는데 …….

그런데 왜 그때 부지를 그 쪽으로?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혹시?

답 알고 있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양반이 추구했던 게 송도신도시예요. 그

러려면 갯벌을 매워야 하는데, 산이면 어떠냐, 체육시설을? 다 깎아서 그 흙을 갯벌에 주고, 일거양득 아니냐 하는 어떤 분의 논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선 부지를 구하려고 저 검단 쪽, 하다못해 천마산 넘어가는 라이프주택 있는데, 그 쪽, 저는 네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지금 문학경기장 들어선 데가 예비 군 사격 훈련장 했었어요. 그러면 시청이 있는데 너무 지근거리에 사격훈련장이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사격훈련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그럼 이걸 주경기장으로 하자.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무엇무엇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스포츠 아레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4개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체육관. 이렇게 정하고 만약에 잉여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가고, 테니스코트를 해 달라. 그래서 옛날 조감도를 보면 4개의 경기장을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시행을 하는데 이제창 시장을 거쳐서 안상수 민선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님,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문학경기장 작업에 참여했던 그걸로 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말씀하시죠, 그래. 왜 4개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둘만 하고 마느냐. 아, 그랬어요?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옛날 조감도를 가져와 보라고 하십시오. 거기 4개 하게 되어 있다. 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조찬 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주경기장 앉히고, 야구장 앉히는데 이쪽을 굴착하려니까 암반이 나와.

암반이, 그게 어느 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게 북문 쪽에서 들어가다가 오른쪽이야. 휴식 공간 만드는데.

네.

근데 암반이 또 효자노릇을 한 거야. 깨뜨려서 송도 신도시 매립지 축대 쌓는 데로 가 버렸어.

하, 그랬군요.

네. 그런 비하인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체육관, 수영장도 없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삼산체육관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즈음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문학경기장 아레나를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가 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상하기를.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생활 체육 쪽으로, 거기에 개방을 하면 체육관하고 수영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 의식이 바뀌어서 수영장, 거기를 시간으로 규제를 해서 못 들어가서 수영장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둘만 하고 나서 지금 주경기장 관리에 연간 40억이 들어가니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런 방안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생각을 못했을까? 참 당장에 투자해야 할 그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워야 되는데, 미국의 애틀란타 올림픽 때, 체육시설, 주경기장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냐, 새로 짓냐, 고민을 하는데 그 애틀란타 시에 프로야구팀이 있어요. 그 팀한테 조직위원회가 노크를 한 거야. 주경기장을 새로 지어서 개막식을 하고 너희한테 돌려줄 테니까, 프로야구팀의 주경기장으로 쓰라. 이렇게 시설을 이원화해서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쓰다가 주 야구경기장으로 쓰라.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오래된 야구장을 바꾸려고 하던 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거 좋다. 이래서 주경기장을 번듯하게 새로 짓고 …… 몰라요, 그 프로야구팀이 6을 대고 조직위원회가 4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회 치르고 그 다음엔 프로야구 주경기장으로 지금 써, 그러니까 관리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인천대학이 송도로 나갔죠?

네.

아시아게임이 유치 추진을 하고 있죠? 또 자신 있다고 했죠? 그런 때 인천대학에다 체육관을 지어주는 거야. 어차피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거든.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줘. 수영장이든 뭐든 딱 해주는 거야. 그게 아시아대회 시설 준비의 일환으로 지어서 인천대학에다 기증해. 관리비 너희 예산에서 대라. 그러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기장 관리비는 빠지는 거야.

그렇죠, 네.

대학이 훌륭한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뭐라 그래? 또 체육관 가지고 있다고? 내 개인 소견은 유치 경쟁이 있기 전, 제일 아쉬운 게 대회 유치위원회가 있어서, 시설부분이 고민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고민했어야 했다는 점이지.

그때 우리 인천에는 인천체육회 사무처장을 그만둔 사람이 4명이 있었어. 이 4명이 있는 동안에 전국체전을 두 번 치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든지, 시설 문제에 무슨 위원으로 위촉하든지 해서, 시설 확보 문제가 어려운 과제다. 당신들이 좀 그림을 그려 달라 했으면 문학경기장을 보수해서 그냥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거와는 관계없어.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그때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야 돼. 이런 논리로 했다가 지금 저 난리를 하는데 ……., 우리 체육인들이 단순하지만 그런 것을 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선택을 하든 안하든 좋은 안이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처장 하는 동안에 문학경기장 건립이라는 그 전 상황과는 다른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게 착공이 돼서, 2002년 월드컵 당시 인천도 경기 지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인천에도 경기장이 있는데 왜 서울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인천을 도외시키고, 뭐 전라도 광주 이런 데로만 분산하느냐. 이래서 돌아가신 문병하 씨가 인천축구협회 회장이었으니까 직접적인 건 그분이 나서고, 또 주위에서 도



2002년 월드컵 홍보관

와줘서 월드컵을 인천에 유치할 수가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 팀 육성 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인천은 8개 구청이 있어요. 저, 심재홍 시장 시절인데, 인천시청만 체육회 산

하 종목 중 열악한 종목, 5개 종목을 맡고 있었어. 그리고는 지도자 다섯 명이 지원을 확대해 우승팀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도는 각 시군에 종목, 팀 배정을 하고 도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경기도가 1등하는 이유는 체육 종목이 36개인데 36개 시군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가. 그래서 한 종목 씩 지정해 맡겨. 그리고 관선 시스템이니까 시장, 군수들을 도지사가 다그쳐. 이걸 실제 이야기예요. 의정부에 시장을 새로 보냈는데 거기가 씨름을 맡은 거야. 그런데 씨름협회에서 난리야. 시장이 대표선수 격려도 한 번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사가 의정부 시장한테 전화한 거야. 당신 말이야 이러이러해서 촉망받는다고 이야기들 해서 시장 발령을 냈는데, 거기 속해 있는 운동 팀 하나 관리를 못해서 난리가 났어. 운동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체육회를 찾아온 거야. 지금 지사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중간에 격려금 얼마 주고, 의정부시에 우수한 기업체나 지역단체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돈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의정부시의 시민 대표들이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너희는 우리 팀이다. 이렇게 해줘라. 지역에서 정성으로 격려해 줘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것도 경기도 지사, 임 누구야? 그 양반이 그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도체육회 사무국장 모임에 가면요,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이 제일 부

러워. 여건 갖췄죠. 지사가 한수 이북에 가 보라고 지시하고 전화 걸어주면, 헬기를 제공해줘. 행정적으로 경기도는 한수 이북이 있어서 도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헬리콥터 타고 업무 보는 사람은 경기도 사무국장뿐이에요.

오, 야. 그래, 인천 8개 구청에는 무슨 팀을 창단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동구청에 여자 유도 팀.

동구청에 여자 유도 팀.

왜 여자 쪽으로 가냐 하면, 여자는 적령기가 되면 선수생활을 접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남자는 평생직장을 쥐야 하는데 공무원으로 발령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어서 여자 종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8개 구청 팀을 만들었고, 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원극장 자리를 시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체육회관 5층짜리를 지었다는 거죠. 이번에 송의운동장 없앨 때 그것도 무참히 넘어간 거야. 폐허가 돼 버리고 말았지.

그럼 체육회관은 다시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경기가 끝나면 그 밑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쪽으로 다 수용을 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지.

아 그렇군요. 그래도 가장 체육인으로서 아쉽다고 하면, 특히 이제 야구를 하셨는데, 야구가 뭐 우리나라의 대표 운동이죠, 시민의식도 그렇고, 그 송의운동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그게요, 사회 내면적인 것과 비교해서 말하면 주체념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을 이렇게 닦고 보듬는 정신이 없어. 옛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면 부산이요, 사직구장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있던 구덕경기장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요. 그게 야구장, 체육관, 육상 주경기장이 있는데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요.

아, 구덕구장.

네, 오히려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내부에 의자를 새로 깎다든지, 보존을 확대해, 인천은 왜 없애는 것에 열중하나 이거예요. 송의운동장은 우리 토래의 체육인,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향수가 담겨 있는 곳이고, 위치가 중심에 있어서 기능면에서 좋았고, 그 다음에 야구선수 출신인 나 같은 사람은 그 땅에서 선수의 꿈을 키운 거야.

지금 인천 야구에 관한 사항은요, 대체하는 시설인 문학경기장이 있어요, 야구장이.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지역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이 반쪽이야. 왜? 관리비를 이유로 모든 관리, 이용권을 SK에다가 줬어. 내가 알기로는 연간 9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학경기장에서 어떤 해프닝이 나오느냐? 돼지고기를 구워먹으면서 경기를 보는 게 나왔어. 인스턴트식품을 가져다가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거기에 어떻게 야구경기장에서? 프로경기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 그러고선 자라나는 초, 중, 고등학교 인천 야구선수는 거기 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경기를 못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애깁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한 것이,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을 거 아녜요? 그랬더니 이번에 혈어서 없어지는 야구장을 동양화학 유원지 매립지에 체육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곳에 야구장을 지어 주겠다. 그러면 그 거 먼저 해주고 혈면 안 되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 구상이 뭐냐? 그런데 그 LNG기지가 연수구에서 하도 안전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체육시설을, 땅을 기증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거기에 야구장이 두 개인가 세 개 있어요. 그러나 속이 상한 게,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국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해요, 인천일보 미추홀기라고.

네네. 미추홀기.

승의구장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LNG기지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에 벤치도 없고, 스탠드도 없고, 본부석이 없으니까, 대회 기록은 해야 되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했어.

아이고.

이게 인천시가 예산 들어서 만든 전국대회 현실이야. 야구의 도시라고 일컫는 인천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일들은 인천 지역 사회에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현실들이지.

그렇군요.

아쉬움 많은 인천 체육 시설 현실

인천 체육 시설 현실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 인구가 곧 300만에 육박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그리고 지역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몇 평방미터. 인구 300만의 도시를, 그 기반시설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천은 열악해요. 그게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를 보아도, 인구 비례를 했을 때, 체육시설을 대비하면 열악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시설 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겠지. 그런데 시민의 인식이, 인천의 지역에 내로라하는 유력한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나면, 문학경기장 1년 관리하는데 30억 내지 40억이 적자라는데, 뭘 또 짓느냐, 이런 풍조이란 말이에요. 맞죠, 단일수지균형을 보면 적자가 나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300만에 육박하고, 소위 인천에서 대구를 제쳤다고 하잖아요?

네네.

세 번째 도시인데, 세 번째 도시에 지역 사회기반 시설 중에 체육시설을 대비하면 형편없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욕먹을 얘기지만, 의회를 해야 하니까 의회기관을 지어야 된다, 뭐를 하려니까 뭘 지어야 된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밥상 위에 기본 반찬이 있듯이 체육시설은 발전하는 도시의 사회기반 시설로 관리, 운영하는데, 설혹 돈이 들어가더라도 갖춰야 한다. 갖추고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전체 비용의, 연간 관리비용의 50퍼센트만 달성하면 되는 거다. 그걸 왜 총액 40억이 들어간다고 비난을 하느냐?

음.

체육시설을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제일 잘 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독일은 펜싱경기장, 펜싱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주변을 전부 잔디, 숲 등으로 해 놓아서 펜싱선수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 달만이라도 훈련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전부 갈망을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기숙사 같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 여기 시설에는 펜싱에 관한 전시관 등등 다 갖추어져 있어. 이 시설의 대표 관리 책임자는 누구냐? 펜싱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관리 책임자야. 그리고 기술자, 이곳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직 외에는 전부 다 자원봉사를 받아. 노인네들이 많아요. 자원봉사 받아. 그러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뭐냐? 담당자 한 명이 수시로 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설점검을 해, 이거 파이프라인 고쳐야 한다. 만약에 이번엔 안 고치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터졌을 때 고치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 시설을 고쳐주지만 하면 돼. 그러면 관리원의 인건비가 우선 안 들어가.

그리고 내가 송의운동장 없앤다고 할 때, 당시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헐어버리고 이쪽에 축구운동장 짓고, 이쪽에 주상복합 지으면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때는 육상 트랙도 8트랙이 아니고 6이나 4트랙으로 하고, 훈련 전용 시설로 제대로 하고, 스탠드도 조립식으로 하고, 담을 낮춰라. 그래서 24시간 오픈을 해라. 그리고 거기 관리책임자는 체육인으로

하고 ……., 이런 독일식 시스템을 하자고 말이야.

지금까지 대략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바꾸어서, 옛날에 대회에 나가 우승하고 들어오면 가두행진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죠.

그게 어떤 코스였나요?

인천서 시내를 도는데, 율목동에서 출발해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해서 시청으로 가는 코스죠.

여기, 요 밑 옛날 시청으로?

맞아요. 시청 앞에 딱 가면, 시장이 마중 나와 있다가 격려해 해주고, 다시 나와서 홍예문을 넘어서 …….

동인천으로 해서…….

하여튼 화평동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오성극장 앞으로 오는 …….

미림극장!

응. 미림극장. 그 코스를 따라 가는데, 앵 하고 공습경보가 나온 거야. 밴드, 야구부 뒤에 가던 전교생이, 1954년으로 기억되는데 ……., 5월 달 청룡기에서 우승했으니 약간 더울 때 아니에요? 러닝셔츠, 체육복, 그거 입고 가는데 ……., 그러니까 다 처마 밑으로 숨었다가 해제가 되어 다시 돌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공습경보 사이렌이 왜 난 거예요?

그때 정전협정이 …….

아, 아직 정전협정이 안 되었을 때였지요?

오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습경보가 …….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 아까도 잠깐 얘기 했지만, 제가 인천체육회 사무국장 했다고 인천을 대표해서 뭐 나서고 그런다고 ……., 지난번에 송의운동장 문제를 가지고 인천일보에서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어.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한 것이 나갔단 말이야. 그때 비난이 나왔지. 인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이 고철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 제가 뭘에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이야. 우리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

제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누구 꼭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몸소 겪은, 우리 인천시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고, 또 체육이 주 전공이시니까 주로 체육 쪽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천의 형편, 체육계의 현실을 알 수 있었던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는 마십시오.

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이게 진언이 될 수는 없지만, 제발 체육 시설만 가지고 평가를, 관리, 수지 균형만 따지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 필수품을 갖는 거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용의 반을 커버해라. 이렇게 지혜를 짜야지. 근본 자체를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 …….

그렇죠.

아무튼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평범한 수준의 늘 갖고 있는 신념의 한 축을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평범한 말씀은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 새겨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제3장



곡창신 _____

인천 용현동 출생

인천화교 중산소학교 입학(1962년)

일본 오사가 신제바시 입사(1973년)

현대백화점 외식사업 식품부 중식조리장(1985년)

인천화교협회 이사(1988년)

인천화교협회 부회장(2002년)

인천화교조리사예유회 회장, 인천화교학교 중산중학교 부이사장(현재)

■ 채 록 자 : 문상범(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채록일시 : 2012년 7월 17일, 9월 14일

■ 채록장소 : 차이나타운 내 음식점

제3장 화교 사회와 한국사회의 소통 메신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꼭 사장님께 화교와 관련된 인천의 얘기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면보다는 인천의 화교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님께서서는 언제부터 인천에 거주하셨나요?

인천에서 출생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오신건가요?

저희는 인천에서 태어났죠.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인हा대 후문 근처예요. 인हा대 후문 쪽에 인천중산학교 분교가 있었어요. 용현분교요, 용현분교도 역사가 꽤 오래됐죠. 용현분교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 중턱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용현동 화교들, 농사하신 분들이 대거 그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대략 제 기억으로 그 쪽에 30가구 정도가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당시 50년대는 부평이 켈 컸구요. 그 다음으로 용현분교 있는 그쪽이 농사하는 인구가 많았어요. 참, 옛날에는 석바위에도 분교가 있었어요.

용현동에서 태어난 중국인

인हा대 후문 근처 어디 쯤인가요?

인हा대 후문 쪽에서부터 옆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언덕에서부터 그쪽이 거의 화교들이 살던 곳이에요.



인터뷰 중인 구술자

용현분교도 있고 석바위
분교도 있었어요?

예, 석바위 분교는 좀 적
었드랬죠.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20명 미만 정도
.....

학생들은 초등학교이었
나요?

초등학교이죠. 용현분교
도 초등학교죠. 용현분교

는 학생 수가 좀 많았어요. 1학년부터 6학년이 있었는데 한 반에 15~20명 정
도 있었어요.

저희 큰누나와 둘째누나가 용현 분교에 다니면서 집에서는 농사를 도왔어요.
농사는 몇 년부터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큰 누나가 63세이신데 그 전부
터 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으신거죠.

농사는 용현동 동네에서만 하신거죠?

예, 용현동에서만 했어요. 인하대 후문 앞쪽에 밭이 있었어요.

성당이 있었고, 약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무덤이 있었고, 밭도 있었죠.

무덤 쪽은 고속도로 쪽이에요. 독쟁이 고개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거든요. 저
희 사는 데는 가게가 없었어요. 독쟁이 고개까지 가야 가게가 몇 군데가 있거든
요.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그 무덤 쪽을 지나갈 때는 막 도망가고 했어요. 거기
가 천주교 무덤이었어요. 지금은 다 집이 들어섰어요.

저희가 사는 데가 조금 높아요. 마당에서 나와 조금 내려가면 이쪽에는 화교
가 없었어요. 저희가 맨 끝이에요. 왜냐면 지역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더 가면
인하대 제일 높은 산 있죠? 바로 그 고개예요. 저희는 중턱에 있어가지고, 그 위

로 더 올라가면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들은 그쪽에 몇 가구만 살았어요. 판자집이 있었고, 좀 가난한, 6·25 지나 거기로 피난 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집밖에 못 살았었어요. 정식 집이 있는 곳은 그 중간선까지였고, 그 위는 집이 막 지어져 있었어요.

친가는 해로로, 외가는 육로로 한국 땅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사신 거네요.

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한국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배타고 넘어왔지만 외할아버지는 대련하고 지금 평안도 쪽에서 비단장사하시면서 건너왔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중국에서 비단장사를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집안은 잘 사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육로로 오셨어요?

비단 사업을 하시니까 육지로 오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바다로 들어오셨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기서(인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고향은 중국 어디였나요?

외할아버지는 고향은 산둥 모평이에요. 모평은 지금 연태시 소관이지요. 연태하고 모평은 붙었어요. 연태시 정부가 새로 들어선 거기가 모평이에요.

어머니 사신 곳은 양마도라고 있어요. 아마 연태가면 바로 바닷가 옆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을 많이 기르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출신이에요. 대가문 출신이에요. 사대부, 방 몇 칸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어머니는 거기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쪽에서 공산혁명 이런 거 때문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따라서 한국으로 왔어요. 외할아버

지는 그전에도 몇 번 오셨었나봐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신 게 대략 몇 년도인가요?

대략 1930년대일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오신 건 아니예요. 아버님은 13살 때 오셨고,

중국의 혼란을 피해 한국으로 오신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아버님은 좀 일찍 오셨고, 어머니는 늦게 오신 편이에요. 어머니 집안은 잘 사는 편이었으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갑부였어요. 그래서 투쟁도 했어요. 외삼촌은 대만 정부 국민당에 입당을 하고, 군대도 대만 쪽으로 가서 장개석 총통하고 같이 대만 쪽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이모님하고 외할아버지 따라서 한국 쪽으로 왔죠. 어머님 이야기로는 그때는 한국에 오기 싫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평양 쪽에서 비단 사업을 크게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오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대충 들었어요. 오셔서 정착하는 데도 고향사람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데를 찾아 그쪽에 정착을 했나 봐요. 지금의 신포동 쪽에 친척이 한 분 계셔서 그쪽에 거주했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거기서 만나셨어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용현동으로 이사 갔나 봐요.

아버님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국으로 오셨는데, 혹시 한국에 오신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버님 집안은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님하고 고모님은 할아버지 따라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목수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셨어요. 가난하더라도 일을 빠지지 않으면 할 일이 많았대요. 여기에 와서도 그런 일을 잠깐 하셨나봐요. 저희 때는 큰 누님까지 할아버지를 뵈었는데 저희 때 돌아가셨죠.

목수 일과 또 어떤 일을 하신건가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목수 일은 그렇게 오래는 못하셨어요. 목수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농사짓는 그런 쪽에서

할아버지는 중국에서도 농사지으시면서 목수 일을 간간히 하셨나봐요. 여기 와서는 말도 안 통하고 목수 일이 많지 않으니까 용현동쪽으로 가신 거 같아요.

용현동에서 아버님과 고모님이 같이 농사지었어요. 그때는 식구들이 다 같이 농사지었고, 고모님은 거기서 시집을 가셨어요. 나중에 고모님은 여주, 이천 쪽으로 이사 가셔서 그쪽에서 따로 살림을 나시고, 여기는 아버님이 꾸려가셨죠.

아버님은 농사만 계속 지으신 건가요? 아님 다른 일을 하셨나요?

아버님은 다른 기술이 있었어요. 6·25 당시에 아버님은 대구까지 피난 내려 가셨나봐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4 후퇴 때 낙동강 이남 어딘가까지 피난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부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버님은 집에 어머니하고 가족이 다 있으니까 올라오면서도 그 와중에 돈을 벌 어 오셨어요. 손재주가 있었셨어요. 파배기 장사하시면서 조금 돈을 모았어요. 그런 재주가 있었셨어요. 집에 와서는 재건해서 농사를 다시 지었고요.

재주요?

예, 그 당시 아버님이 어디 다닌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화교들은 다 그렇겠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면 부둣가 가서 막노동이나 남의 집 심부름을 하던가 했어요. 그때는 요릿집이 많이 없었죠. 제가 다닐 때도 몇 집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더했죠. 그 당시에 심부름 이런 일거리만 많았어요. 아버지도 잠깐 그런 일을 하셨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하셨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니까 파배기 할 정도의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런 재주를 이용해 돈을 벌어 농토를 장만했죠. 제가 알기로는 농토가 꽤 많았어요. 농사지를 때 집에 머슴을 세 사람 두고, 소 두 마리, 말 한 필이 있었어요.

말도 있었어요?

채소를 시장에 갔다 팔려면 말이 있어야 했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4살, 5살 무렵이요, 아침에 장엘 가요, 아침 새벽 장, 어디냐면 도원동 짱 시장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도원동 기차길 아래로 내려가면 그 옆에 과일 파는 곳이 있어요.

아, 송의철교 쪽에 있는 송의시장이요?

지금은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상가 그쪽으로는 옛날에는 건물이 없고 다 짱 시장이었어요. 거기에 아침마다 사람이 꼭 찾고, 채소, 배추, 무 주로 그런게 많았죠. 찾길을 건너서 과일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버님은 말이 끄는 달구지에 채소를, 거기서는 쌀농사는 못 지었으니까, 밭농사 한 배추, 무 같은 걸 싣고 새벽에 저를 옆에 앉혀 놓고 아버님도 타고 시장에 갔어요.

그때 다니던 길은 아직도 있지요?

그 길은 아직도 있어요. 천주교 무덤인가 그리로 지나가는 좁은 길, 그때는 없었던 고속도로가 생겼지만, 고속도로 밑으로 지금의 용현시장 쪽으로 올라가서 독쟁이 고개에서 용현시장 뒷길로 넘어가면 송의사거리예요. 그 길이 옛날 길이예요. 그 길은 안 잊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마차로 그 길로 해서 바로 도원시장까지 다니던 역사가 있어서요.

시장에서 직접 팔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화교들은 농사지는 것을 마차에 싣고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시장에서 배추같은 것을 쌓아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죠. 물물교환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배추가 많으니까, 배추가 안 팔리면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그대로 폐기처분한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갖다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 다 먹었어요. 배추 나쁜 거는 잘라내고 안에 것만 갖다 먹었어요. 그때는 농사짓는 사람만큼 소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화교들은 워낙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시장은 아버님이 일부로 데려간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따라갔어요. 왜 거기 가고 싶느냐면 옛날에 중국 호떡, 그게 먹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따라 다녔어요. 고구마도 굽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가 재밌었어요.



가족사진

호떡 먹는 재미로 따라 다녔군요?

예,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났죠. 맨날 가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번 주에 야채가 뭐가 많이 나오는지 에 따라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갔을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갈 때는 일찍 일어나서 말한테 사료를 먹여서 가져거든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말이 안 움직이면 오늘은 안 가는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호떡 장사도 화교가 했나요?

네, 거의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 고객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파는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삿갓 모자를 쓰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다녔어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호떡 먹는 요령을 모르니까 그걸 한 입에 넣고 먹으니까 설탕이 수염을 통해서 저고리에 다 흘러서 그것을 닦고, 겨울에는 금방 굳어서 ……., 그래도 많이 사먹었어요. 그게 맛있으니까요. 저는 먹는 요령을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 흘린다고.

고난과 역경의 초기 정착 생활

화교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아침에 마당에서 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보여요. 그때는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시골 동네였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마을에 사는 누구네 집에 일이 있으면 징을 쳐요. 몇 번 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일이 있냐고 막 모이거든요.

다들 잘 모였나요?

예, 거진 다. 가까웠으니까요. 분교에서도 만나고, 당시는 당면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화루 사장 양가민사장님 댁에서 하던 쌍용당면공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만난 적이 있고, 일주일에 1~2번씩 모였던 것 같아요.

왜 자주 모였나요?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조금 안 좋았더랬죠. 용현동에서 살해당한 화교가 있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

한국사람한테요?

예예, 한국 사람도 어려웠으니까요. 당시 6·25 끝나가지고 어려우니까 밭에 가서 흙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이 그걸 보고 쫓고 싸우고 하다가 누군가 칼 맞는 인명사고가 몇 군데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교끼리 서로 도와야 했어요. 자치 방어해야 했어요. 용현동은 용현동쪽에서, 부평은 부평쪽에서.

자치 방어요?

그때는 18기 무술을 다 익혀야 돼요. 학교에서도 다 배웠거든요. 피선생이라고 18기 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인천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요일별로 정해 용현 분교와 부평분교에서도 가르치고, 시내에서도 가르쳤어요.

우리 집에도 무술할 때 쓰는 무기가 있었어요. 창, 칼 그런 거 다 집에 있었어

요, 농사 지을 때도 있었는데, 시내 쪽으로 와서 장사할 때도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갔다 농냐고 아버님께 물으면 그런 거 없으면 자기 방어가 안되니까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며 무술을 가르쳐 자기방어를 하게 했어요.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녔나요.

승의동으로 이사 와 짜장면 장사를 하면서 시내하고 가까워졌죠. 이쪽으로 와 동인천이나 신포동 등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시내를 잘 몰랐어요. 거의 1년 있다가 여기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어디 초등학교요?

인천 화교학교요.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은 용현분교를 다녔고요. 셋째 누나하고 저하고 같이 1년 후에 이쪽 학교에 들어가고, 그때 누님들도 다 이쪽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용현분교 그 자리가 지금 빌라로 되어 있어요. 인하대학교 바로 아래쪽, 그 바로 밑이에요.

지금도 그쪽에 화교들 재산이 남아있지 않나요?

지금은 거기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거기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하나 있었지요? 인하대 후문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 초등학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뒤쪽에 있던 당면공장이 없어지고 목욕탕이 생겼어요. 당면 공장 큰 아들이, 목욕탕 하면서 살림을 했어요. 목욕탕은 아직 있는데, 목욕탕은 지금 안해요. 그 당면공장 사장 큰 아들이 거기 토지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매각했어요.

그러면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토지거래규제법 때문에 이사를 하신건가요?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자기 토지를 매매해서 판 데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좀 먼저 나왔어요. 초기죠.

조금 일찍 나왔고,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도 있고, 부산으로 이사 간 집이 두 집 있고, 또 안 나오고 거기서 나이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 교장선생님 아버님은 기계공고 바로 못가서 농사지었어요. 그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거의 90살 됐어요. 우종진 교장선생님은 아직 학교에서 교장 하시고 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 교육은 빼 놓을 수 없어

분교가 석바위에도 있고 용현동에 있다고 했는데, 인천에는 중산학교 분교가 몇 군데 있었나요?

3개요. 부평에도 있었죠. 부평이 제일 컸고, 그 다음이 용현 분교였고, 그리고 석바위 분교가 있었죠.

분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이쪽으로 왔겠네요?

거의 5학년 정도만 다니면 다들 이쪽으로 많이 왔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가야되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면 적응이 어려우니까, 4학년이나 5학년만 다니면 이쪽으로 많이 왔죠.

분교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던 것 같아요?

석바위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11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용현분교는 선생님이 5명이 있었고, 교장선생님 부부, 여선생님 3분이셨나 그래요.

학비는 무료가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 곳에 분교를 둔 것은 화교들의 높은 교육열때문인 것 같아요. 교육열이 높으니까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을 공부시킨거지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해외 나와서 자식들 공부를 안 가르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애들을 공부 가르치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학교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웠나요?

저희 때는 대만 교과서로 배웠고, 저희 큰 누나 때도 대만 책을 읽었죠. 저희들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가끔가다 간체를 많이 써요. 왜냐면 그분들은 간체도 쓰고 정자도 쓰기 때문에 ……., 그래서 빨리 쓰게 되면 간체를 쓰고 정확하게 쓰면 대만 정자를 쓰고 양 쪽 다 배웠거든요. 옛날 교장선생님은 일본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말도 배워야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여기서 다니셨나요?

예, 여기서 다녔죠.

그 당시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학교생활은 한국애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학교 끝나고 동네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비슷하죠.

화교학교는 요즘에는 한국사람들이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화교들만 다녔나요?

그렇죠. 그 당시는 없었죠. 화교학교는 한국 사람들 못 들어왔어요. 화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 애들은, 지금 중구청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중구청 앞이니깐 거기에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가 경계선이예요. 그쪽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그만큼 이쪽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집 빼고는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학교의 학생 수는 몇 명 정도였나요?

학생 수는 저희 다닐 때는 많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만해도 1,300명 정도였어요.

초·중·고 다 합쳐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인천에서 중학교 세 반은 저희 밖에 없었어요. 중, 초, 인 세 반까지 있었어요. 저희 때가 제일 많아요.

저희 또래는 집안 형제는 저희는 8남매예요. 최하가 5남매이고 8남매는 보통이었어요.

애를 많이 낳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 아버님 어머님 애기도 그렇고 남의 나라에 와서 설움 안 받으려면 식구가 많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피임도구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당시 중국에서도 애 낳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규제는 없었죠. 규제는 없었지만 여기처럼 8남매, 5남매까지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3남매고 어머니도 3남매였어요. 보통 3남매, 4남매였어요.

그래서 학교도 인원이 많은 거네요.

한 반에 거의 60명, 70명이었어요.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서서 공부했다니까요. 교실도 별로 없고 선생님도 별로 없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교실이 모자라서, 학교 대강당 잤어요. 강당 그 자리를 학생들 숙소로 썼어요. 그때 당진, 서산, 강릉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숙소가 모자라서요.

중학교를 서울로 가려면 학비가 비싸고, 서울은 텃세가 있었어요. 인천은 그런 게 덜하고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선배를 짝꿍이 모시잖아요. 저희는 그런거 잘 안 따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맞춰 일곱 여

덜살이 되면 정확히 학교 가야되지만, 중국사람들은 안그래요, 심지어 저보다 5살 많은 사람도 있어요. 6.25 거치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셋째 누나하고 같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누나가 저보다 2살 위인데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는 몇 학급이었나요?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3개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인원수가 줄어 들어서 충, 효 두 반이었어요, 중학교에 서는 충, 효, 인 세반, 개교 이래 우리 나이 때가 제일 많았어요, 54에서 56년생.

학교 들어 갈 때는 시험을 보았나요?

시험은 안 봤어요, 반은 지역을 나눠서 인천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을 반씩 섞어서 편성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나요?

우리 때만 해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는 한국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많죠, 아무래도 한국 학교에는 비할 수가 없죠, 중학교 다닐 때 영어, 한국어, 중국어 세 가지를 다 배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중산학교는 예전 같지 않지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쇠퇴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위축되었지요, 요새는 한국 학생들이 오면서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요.

지금 학교 학생 수가 거의 500 몇 명인데, 한국 학생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 포함에서 150명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민을 많이 가고, 자녀를 하나만 두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 수가 줄잖아요, 학교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희 화교 학교가 다 그런 현상이에요.

대학 진학은 어땠나요?

그 시절에 한국 대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대만으로 갔죠. 대만으로 가게 되면 학비가 없어요. 사범대를 들어가면 학비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모든 대학이 학비를 안 냈나요?

아니예요. 그러니까 교육대죠, 국립교육대. 거기 나오면 다 선생님이 됐어요. 저희 또래 남학생은 여러 군데로 많이 갔어요. 여자는 대부분 열에 아홉은 다 사범대학을 갔어요. 처음 동창회 했을 때 대만서 온 여자들은 다 교사예요. 애기 들어보니까 대만가서 대학 다니면 학비는 다 면제고, 기숙사 들어가는 데도 거의 돈이 안들고, 다 국가에서 지원 해주고, 그때는 국가에서 용돈까지 주다보니 돈 없는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다 사범대 들어 가려고 했던 거지요. 사립 대학에 들어 가면 돈이 좀 들었으니까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이야 괜찮았지만 그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환전도 별로 잘되지 않고, 달러 같은 거 많이 가져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갈 때 오징어, 홍삼, 버섯 같은 것 사갖고 가서 팔고, 올 때는 바나나, 그때는 한국 사람들에게 바나나는 무척 귀한 것이었죠. 그런 거 사오면 용돈 좀 벌 수 있었죠.

취업이 어려워 대학을 나와도 배달통을 들 수밖에 없어

졸업생이 총 2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학이나 대학은 몇 명이나 갔나요?

대학 진학 인원 수는 거의 반 정도 더 될까요. 여학생들은 대충 다 간 거 같고,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집안이 여유가 있는 거지요. 또 여학생들은 대만에 안 가고 여기 남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으니까 대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 또한 그래요. 저희 또래들도 남학생은 대만

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오면 다시 또 배달통을 들어야 했어요. 취업 자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제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자리는 아예 쳐다 보지도 않았고, 삼성이나 현대같은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아버지 일을 따라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가 출신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또 한국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개인적인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지요.

저도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아직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그때가 집안 사업이 실패한 때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제가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동생이 학교에 못 갈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는 수입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초청 비자로 일본에 가서 일하고 계셨어요. 큰 누나는 시집갔고, 둘째 누나는 빼갈(고량주) 공장에서 정리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좋은 자리를 얻은 거예요. 셋째 누나도 남의 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남자가 학교를 나와 졸업장이 있어야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시 생각으로는 종이에 불과한 졸업장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아버지 따라 일본에 갔었어요. 제가 19살에 일본엘 갔는데, 일본에서 거의 2년 있었어요. 2년 있다가 한국을 다시 들어오니까 눈이 캄캄했더라고요.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저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발전이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일본 가면 할 건 많아요. 말을 못해도 큰 일은 아니지만 요리집에서 설거지 하든가, 심부름 해 주든가 하는 일은 많았어요.

한국도 그런 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때는 중국집이 워낙 규모가 작아요. 왜냐면 인천에는 3군데, 서울 같은 데는 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릇 닦으려는 사람이 줄 서요. 그래서 그릇도 맘대로 못 닦아요. 또 보수가 작아요. 그 당시만 해도 3개월 동안 무료로 해

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학시험이 없으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처럼 시험 잘 쳐야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학생들과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 시험 봐야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 안해요. 요새는 외국인 특례로 한국 대학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특례로 대학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안되요. 두 분 모두 외국인이어야 해요. 중국 애들은 지금 들어가는 건 쉽지만 나올 때는 힘들어요.

큰애는 성균관대학 나왔고, 둘째도 성균관대학, 셋째는 계파를 배워가지고 장안대학 외국 학생 1호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 처음에는 안 받아줬었어요. 외국사람 들어온 역사가 없다고, 학교에 몇 번 전화했더니 규정을 다시 만들어 받아줬어요.

한국어 교육은 따로 받지 않았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5학년 때부터 한글 공부가 1주일에 2번인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글선생님도 한국 사람이었죠. 수원에서 와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 동네에서 한국말을 배웠죠.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겠네요.

승의동으로 이사와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화교들의 공통되는 입장이지요. 사회 나가면 놀림 많이 받았죠. 어차피 인원수가 적으니까요. 나 혼자 중국 사람이니까요. 주변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는 이 놀림이 나쁘다 좋다 그런 건 몰랐어요. 처음에는 놀림 받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짱꼴라' 그러면 짱꼴라가 욕소리인지 몰랐죠. 그때는 다 욕을 먼저 배우니까 욕인지 몰랐죠. 그렇게 놀림 받는 건 그리 대수롭지 않았어요.

화교들의 주업이 되었던 짜장면 집과 버스업

송의동으로는 언제 이사왔나요?

제가 5~6살 때 송의동으로 이사왔어요. 독감다리 아시죠? 독감다리, 바로 그쪽으로 왔어요. 저희가 장사하던 집이 아직 거기에 있어요. 일본집이었어요. 독감다리 공구상가 입구예요. 독감다리 개천은 지금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죠. 그 개천이 유명해요. 매년 비만 오면 거기는 물난리예요. 바로 그 개천 옆에 살았어요. 그 개천 옆집은 쌀집이고, 쌀집도 아직 거기 있어요. 그 쌀집 바로 옆에 저희집이에요. 저희집 옆에는 공주집이라고, 그때 뭐 술파는 집 그런 데가 몇 집 있었어요.

그런데 송의동 그쪽 애들은 거칠어요. 동네가 그런지 애들 배울 게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쪽 동네가 그랬어요.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애들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만 되면 주안염전 있는 데로 놀러갔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사는 동네에 따라 아이들을 구분했어요. 학교가 있는 쪽에 사는 아이들은 서쪽 마을 애들, 내가 살았던 동네는 동쪽이라 동쪽 마을 애들이라고 했어요. 신포동은 따로 떨어져 있어 신포동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는 송의동 그쪽을 말하고 그곳에서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가 좀 거칠다고 했는데, 장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힘이 있어요. 무술을 좀 배웠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방어가 안되면 짜장면집 장사하기 어려웠어요. 중국 사람들도 무슨 조합 모임이 있었나 봐요. 학교에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얘기 집에서 많이 했어요. 어느 집은 며칠 전에 상이군인들이 와서 싸우고 다 얹어 버려 지금 장사 못하고 몇일 쉰다는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상이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더랬죠. 가게에 딱 앉아서 장사 방해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필요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가게 앞에 해양공사가 있었어요, 해양공사는 아마 바다의 헌병부대라고 보면 되요, 지금 그 자리가 송의동 큰길에 있는 국민은행 자리 옆이에요, 그 국민은행 옆에 보면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그 골목 안에 옛날 해양공사가 있었어요, 지금 현대유비스병원 그쪽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헌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거기에 중국집 하나 있죠? 용화반점이라고, 용화반점은 저희 아버님이 장사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용화반점 바로 그 뒤쪽 공구상이 있는 데서 장사했거든요, 용화반점 옆에서 보면 해양공사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게 없어졌어요, 그때 해양공사에서 짜장면 많이 팔아주고, 저희 아버님 수입에도 좋았고,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양공사에서 도와줬어요, 민간이 싸우면 헌병들이 와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상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행패부리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해양공사가 바로 앞이니 까 다 보여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병들이 금방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도 무서워 했어요, 경찰은 안 무서워 해도 헌병들은 좀 무서워 했어요.

농사를 짓다 말고 왜 이사를 갔나요?

그 동네에서 농사를 더 이상 못 지으니까요, 다들 생계를 저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했어요.

그게 토지규제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1961년인가, 60년인가 그때 화폐개혁 1차 화폐개혁 겸해서 토지개혁이

외국인 토지규제는 1961년도부터예요.

그 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토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안 돼서 한국사람 이름을 빌렸어요, 물론 자기가 사는 것도 있지만, 빌리는 게 많았죠, 한국사람한테 빌리고 1년에 쌀 몇 가마 주든가 하는 방식으로 했지요.

그러면서 토지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농사짓기 어려워졌어요, 법으로 규제 받으니까요, 자기 땅이지만 마음대로 못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땐 자기 돈 있어도 땅을 사지 못했지요, 돈 있어도 한국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야 했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 한국 사람도 없고, 또 설사 알더라도



신혼사진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송의동으로, 그것도 화교 아버지 선배가 하던 자리예요, 그걸 구매해서 가지고 거기서 짜장면 장사를 시작하신거죠.

아버님이 직접 요리를 하신 건가요?

아버님이 그 전에 짜장면집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피난가서 다들 고생했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파배기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어서 오신 거 보면 젊은 시절에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이에요, 아마 확실할 거예요, 그 짜장면 집을 인수하면서 조금 서투니까 그 선배님이 일주일동안 가르쳐 줬나봐요, 그리고는 혼자 운영했어요.

일주일만에 가게를 운영했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기술을 다 익히신 거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그렇게 좋은 기술이 없더라도 운영은 가능했을 시절이에요, 왜냐면 화교 아니면 밥장사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서 막걸리 팔면서 밥을 조금 파는 정도고, 제가 봤을 때도 밥 파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그 동네에는 방앗간이 2군데 있었고 ……, 술집만 많았어요, 그 외에는 저희 집 맞은편에 고깃집 하나 있고, 송의병원 쪽에 2군데가 있었고, 자전거포, 만화

가게, 아 맞은편에 밥집하나 있었어요, 백반 파는 집, 술도 팔고 백반도 팔았어요, 그때는 삼겹살 굽는 데, 뭐 그런 데는 거의 없었죠, 그 시절에는 고기 못 먹었죠.

예전에는 외식문화라는 게 거의 없었죠.

지금이야 많이 발전됐지만, 외식문화 역사가 좀 짧아요, 제 기억으로는 잔치도 다 집에서 했었으니까요, 나가서 먹는 일이 별로 없었죠.

화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많았어요, 그때는 송의동 쪽에 화교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송의동 쪽에서 장사하는 집이 적게 잡아서 40 몇 집이 있었어요.

신포동만 해도 상권이 화교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신포동 일대에는 거의 화교들 천지였어요, 한 집 건너서 화교라고 할 정도로 잡화, 빵집, 제화점, 이불장사 없는 게 없었어요, 신포동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포동을 하나의 섬이라고 했어요.

지금 유비스병원 맞은 편 건강진단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주물 공장이 있었어요, 큰 사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석바위 못가서 잔치부페 그 자리있죠? 거기에는 빼갈(고량주) 공장이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화교들이 인천에서 큰 사업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천은 화교의 중심지였고 중국에서 오는 화교들은 인천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화교의 1/3 이상은 다 인천을 거쳐서 올라간 거예요,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전에 대구 화교 회장이 화교 100년사를 썼다고 하던데, 대구 화교도 실질적으로 인천을 거친 화교가 많죠, 군산 쪽에도 화교가 많은데, 인천을 거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죠.

인천에서 계속 살지 않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군산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기

고 사업체를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있었죠, 여기는 많은 인구를 소비할 자리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화교들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생계를 운영할 발판이 별로 없었죠, 있어야 잡화상, 요리집 정도인데, 요리집도 많지 않았어요. 있어봤자 주로 저희 아버님 집 같은 소규모 짜장면집 규모는 많았죠. 큰 규모는 공화춘, 중화루, 애관 극장 쪽의 평화각으로, 이 세 군데가 인천에서 제일 큰 데였죠. 중간규모, 소규모만 많았죠. 그 당시만 해도 농사짓는 것이 아니면 짜장면집을 하는 것이 다였어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해야 했죠. 친척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찾아 갔어요.

화교들끼리 경쟁이 되고 힘들니까, 생계를 위해 화교들이 덜 있는 곳으로 간 거네요.

그렇죠. 화교 역사책을 보면 그 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있는 화교가 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정도로 인원이 많았죠.

주로 언제들 인천을 떠났나요?

화폐개혁 이후에는 절반 이상이 다 갔죠. 화폐개혁 할 때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쯤인 것 같아요.

화폐개혁은 1962년에 있었어요.

화폐개혁 할 때 저희는 돈 딱지를 만들었어요. 돈을 바꿔야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꾼건가요, 아님 못 바꾼건가요?

바꾸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아버님은 왜 안 떠나셨나요?

아버님이 부지런하셨어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운수사업도 하셨어요. 송의동 집 뒤가 항도버스 차고였어요. 그 인연으로 운수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돈 있는 화교는 거의 운수사업에 뛰어들었어요. 60년대에 제일 많았어요. 합승버스, 지금의 봉고차 같은 걸 아버지는 3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화교도 보통 2~3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차해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일찍 손 떼는 사람은 다행이었고, 늦게 손 떼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처음에 버스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70~80만원 쥘야 차 한대 새 것을 구입했어요. 우리 차 중에서 한 대의 번호를 지금도 기억해요. 663번. 차 번호가 아주 좋아서요. 그 차는 새차예요. 저는 차타는 것을 좋아했지만, 다른 차는 안탔어요. 기사님도 잘 해 주셨고, 거기타면 안내양이 동전 몇 개 주고 해서 그 차를 따라 다닌 적이 많아요.

차 살 때만 해도 십 몇 만원 벌었는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 처음에는 돈이 좀 됐는데, 나중에는 계속 적자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사하고 안내양이 돈을 빼돌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그랬어요. 안내양도 거의 시골에서 올라오고 기사님들도 총각이다 보니까 같이 결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장가보내 준 사람만 해도 5명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눈 맞으면 돈을 빼돌리곤 했어요. 어떤 차주인들은 차를 맨날 따라 다녔어요. 다른 일이 없으면 차를 따라 다녔어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는 가게 운영을 했고, 차를 세 대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수금이 잘 안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 당시에는 믿고 맡겼는데, 그게 어떻게 탄로가 났냐면, 큰 누님은 초등학교 나오고 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집에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큰 누나하고 안내양하고 방을 같이 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안내양들이 옷을 챙겨 입고 나가고 나면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계산은 저녁에 끝내는 건데, 큰 누나는 아침마다 방에서 동전을 한 움큼씩 주웠어요. 안내양들이 주머니에도 넣고, 다른 데에도 숨겨 놓았는데, 깜빡해서 흘렸고, 옷

속에 숨겨 놓은 동전이 빠져나왔던 거지요, 며칠 지켜보다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는 화교들만 모여서 만든 운수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새마을 버스가 나왔어요. 합승보다 큰 버스였어요.

지금 있는 차를 조합에다 반납하고 돈을 얼마 더 주면 버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합승을 두 대를 주면 버스 한 대를 준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한 대를 먼저 팔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운수사업은 안된다고 말리셨어요. 짜장면으로 번 돈을 거기다가 다 넣고 손해를 보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버님은 운수사업으로 손해를 많이 보시고 결국에는 장사도 못하시고 다른 데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했어요. 만약에 그때 버스를 했으면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1년 뒤에 버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화교 10명 중에 9명이 버스를 포기했어요. 신포동에 있는 한 분만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일본에서 시작한 요리 인생

젊은 시절에 일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 갔었나요?

아 저는 오사카예요.

오사카에도 중국분들 많이 계셨나요?

아 그 당시만 해도 화교들 많이 갔었어요.

요코하마에 갔더니 화교사회가 대단하던데요. 오사카도 화교가 많았나요?

요코하마는 화교사회가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었어요. 저희 한국화교들은 거기 많이 안 갔어요.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코하마는 동경하고 가까웠기 때문

에 요코하마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동경 신주쿠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일 자리가 있는데 요코하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친구들이 요코하마나 동경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 많이 있는 데를 안 가려고 일부러 아버님이 계신 오사카를 택했어요. 아마 한국에 일자리가 많았으면 안 갔겠죠.

그래도 당시에는 일본으로 가는 것이 수월했어요. 일본에 내리면 3개월 동안 비자를 줘요. 관광비자로 왔다고 해도 3개월 줘요. 일본사람 통해서 보증을 서면 3개월 더 주고, 2번 연장돼요. 2번 연장되면 9개월이죠. 그러다 9개월 지나면 대만에 가서 몇 일 있다가 와요. 대만은 우리 조국이니까 한 번 갔다 와 2번 연장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요리 이런 계통을 많이 배웠죠.

아, 일본에 가서 요리를 배우신 거네요?

요리는 원래 알았죠. 아버님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아버님에게 먹고 싶은 거 해 달라 할 수 없었어요. 배고프면 혼자 해 먹어야 했어요. 그때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요리사 세 사람 두고 했죠. 한국인 요리사도 있었어요. 한국 주방장은 내가 짜장면 시키면 잘 안 해주고 아! 너 배워라 하며 짜장면 만드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리 만드는 것도 보고 배웠고, 짬뽕도 좀 했죠.

일본에서 처음에는 오사카 니혼바시에 있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킴 닻아주는 일, 빠징고 일을 하다가, 중국집 시다로 들어갔어요. 거기 요리사도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라 얘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잘해주니까 요리 만드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요리사가 사장하고 싸우고 나가자, 얼떨결에 제가 주방을 맡게 되었고, 요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진짜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2년 뒤 한국에 왔을 때 어머니가 간곡히 말리셔서 다시 갈 수가 없었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다시 갔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지금도 여기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요.

사장님은 음식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

일본에서 돌아 와 친구 누님 음식점에서 6개월 정도 했어요, 누님이 미국 간다고 잠시 도와 달라고 해서 거기서 그 일을 좀 봐줬어요, 그러고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일본에서 돈을 조금 모았으니까, 아버지가 자리를 찾고 다니셨는데, 우연치 않게 김포읍에서 아는 아버님 후배를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가 따르던 삼촌이예요, 용현동에서 같이 농사지으면서 아는 삼촌인데, 아버님하고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어요, 마송에 가보자 해서 마송에 갔어요, 거기서 장사를 했죠, 거기는 부대가 2사단이 있고, 인삼 같은 거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돈들이 많아요, 여기서 장사를 하면 되겠다하고, 마음에 드는 장소를 계약 했어요, 저는 못마땅했죠, 기왕 하려면 서울 이런 데서 해야 하는데 ……., 아버님은 거기가 괜찮다고 결정하신거죠, 내려가니까 경치도 괜찮고, 마을은 작지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조그만 동네에 다방이 7~8개가 있었으니까,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인삼 사러들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 75년인가 76년에 시작해서 4년 정도 하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지셔서, 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사를 이어받아 하다가 79년 말에 장사를 접고 인천으로 왔어요, 벌은 돈으로 그냥 살 수는 없어서 인천에서 계속 장사하려고 했어요, 마침 79년도에 진흥각을 재수리하면서 거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3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중국 대사관 있는 영사부 자리, 거기가 옛날에 굉장히 큰 중국집이었어요, 거기서 몇 년 하다가 강남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이 오픈하면서 외식사업부 중식부분에 조리장 구인 광고가 나와서 거기에 지원했어요, 거기서 조리부장을 했어요, 85년도에 입사해서 96년인가 97년에 내려왔죠, 인천에서는 여기서 하기 전에 연안부두에서 먼저했어요, 연안부두 가보셨어요? 만다린 아세요? 그게 제가 인천에서 처음 연 거예요, 연안부두에서도 12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차이나타운의 여러 변화

하인천역 쪽으로는 다니지 않았나요?

하인천, 거기가 바로 어시장 있을 때 냉동창고였어요. 그 기차길 옆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쉬는 날 월미도도 가고 그랬어요. 그쪽에 대성목재가 있었어요. 거기로 많이 놀러 갔어요. 제 친구도 대성목재 거기서 수영하다 빠져 죽었어요. 송의동 있을 때는 낙섬으로 많이 갔죠. 지금 낙섬 이야기를 하면 오리지날 인천사람들이야 알겠지만, 그때는 다 갯벌이고, 가는 길도 하나고, 거기서도 많이 빠져 죽었죠. 하인천 부두 쪽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역장이 없었고, 부두에 천막치고 ……., 길만 좀 있었고 …….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 일대는 어떤 곳이었나요?

이 일대는 연안부두로 항구가 옮겨가지 전까지 부두 역할을 했기 때문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하터라도 서해 도서 사람들이 배 들어오면 묵을 수 있는 여인숙, 여관 등 숙박업소가 많았어요. 가게들도 별로 없고, 짜장면집, 이발소, 쌀가게 정도. 우리 가게 자리는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은 저희 친구 집이었어요. 이곳에 살던 화교들도 신포동 쪽으로 다녔고, 우리 가게 앞쪽으로는 화교들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화교들은 70년대 후반 많이 떠났어요. 박정희 말 때 75년, 76년 이때 친구들이 많이 떠났죠. 그때는 미국 이민도 굉장히 쉬웠어요. 미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대만은 뭐 수시로 갔다 올 수도 있죠. 갈 사람들은 85년도까지는 거의 다 철수했죠.

그때는 생활이 어려웠죠. 한국 사람들도 어려웠죠. 6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고무신에다가 삼립빵밖에 더 있었겠어요. 살기가 어려웠죠. 화교도 어려웠고 한국도 어려운 때였죠.

이 동네가 큰 변화를 하게 된 것이 한중수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한중수교가

된 지 벌써 20년 됐잖아요.
한중수교 전 상황은 어땠
나요?

한중수교 이전에는 이쪽
동네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동네였죠. 70
년대도 어려웠죠. 80년대
도 여기는 크게 발전된 것
도 없었고, 있어봐야 풍미
각, 그 당시는 만두가계였
고, 대창은 저 밑에서 여기로 이사 온 거였고, 여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었죠.



회의청

부두가 하인천에 있을 때 하고 연안부두로 가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
나요?

아무래도 여기가 많이 죽었죠. 그 당시만 해도 짜장면집 하는 사람들은 해물
사러 왔다가 이쪽으로 모이고 협회 일도 보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짜장면집
이 인천에 제일 많았으니까요. 화교는 거의 80%가 짜장면 집을 했으니까요. 80
년대에는 농사짓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80년대만 해도 큰 기술이 필요 없기 때
문에 조금 할 줄 알면 짜장면 집을 열었어요. 모임 있으면 화교들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연안부두로 가면서 많이 끓겼죠. 동선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
쪽에 큰길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죠.

결국은 연안부두가 생기면서 화교협회 움직임도 둔화됐어요. 많이 둔화됐
죠. 활성화가 못 됐죠. 그래도 명절날 같은 날은 쉬는 집이 많았어요. 어쨌든
협회에서는 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영화같은 것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해
줬어요. 나중에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니까 화교 사회도 이제 큰 모임이 많이 쇠
퇴한거죠.

지금도 여기에 절이 있으니까 음력 정월 초하루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새해
인사하고, 양력에는 협회 뒷마당에서 다 같이 모이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점점



화교협회

적어지죠. 아직까지 저희 같은 사람은 화교사회에 오래 몸을 담아 왔기때문에 꼭 참석하는데, 이런 데에 참석 안하는 사람은 점점 참석 안하려고 하죠.

사장님은 한국 화교 2세대인가요, 3세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어느 관점으로 봐야할지. 저는 2세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3세대라고 하고.

사장님 세대하고 자녀들 세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 사회라든가 화교 사회에서 분위기가 있잖아요.

2세하고 3세하고 차이가 많겠죠. 저희 세대만 해도 아직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후세들은 사회생활을 잘 모르고 활동을 잘 안해요. 아무래도 사회도 다 공생관계인데,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은 자기 위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거 같아요.

3세대 자녀들의 직업들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 세대들에 비하면 많이 변화돼 있죠. 아직까지는 사회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

지도 시장이나 구청장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금은 옛날 세대보다 많이 다르겠지만, 자치제를 도입했으니까 인천 자치제. 그러면 자치적으로 화교나 외국사람들을 풀어주는 법을 만들고, 자치제 공무원 같은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죠.

화교들도 한국사람들이랑 똑같이 한동안 애들을 많이 낳다가 2, 3세대로 가면서 애들을 덜 낳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한국 사회와 똑같아요, 젊은 세대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예요,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이민을 가버리고 말아요.

높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직까지는 한국에도 다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는데, 우리 화교가 다문화로 속하게 되어있어요, 화교를 다문화로 보는 것이 애매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차라리 다문화가 되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름만 다문화지 실질적인 혜택은 다문화가 아니예요, 지금 다문화가 한국에서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원도 한 톨 없어요, 심지어 장애자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화교들한테는 장애제도가 단지 몇 %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65세 무임승차 그런 것도 안돼요, 예전에는 화교라 해도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 때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 금방 나왔는데, 지금은 안돼요, 신분증과 동시에 여권을 제시해야 돼요.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대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교들은 국적이 다 대만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귀화를 하고 싶었으나, 지금이야 많이 좋아져서 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귀화를 하고 싶을 때는 국가에서 제제가 많았어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보증을 서줘야 우리가 시험을 봐서 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이 보증을 서주겠어요? 보증 서줄 사람이 없죠,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됐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했죠.

귀화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요?

70년대 쯤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귀화할 때 돈 많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 귀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당시 제 친구 아버님들도 많이 갔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화교는 한국에 있던 화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다 받아주니까.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됐어요. 그 당시는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이민 초창기 때는 돈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화교가 제일 많은 곳은 LA, 아틀란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 간 분은 주로 짜장면 집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남은 얘기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번창과 화교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심정구 _____

서울 종로구 출생

인천고등학교 졸업(195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1957년)

12·13·14·15대 국회의원

현재 (주)선광 회장, 인천시민원로회의 의장

■ 채 록 자 : 문상범(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채록일시 : 2012년 7월 11일, 9월 12일

■ 채록장소 : 선광문화재단 사무실

제4장 인천의 경제계와 정치계를 한 손에

안녕하세요. 만나 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록 내용을 녹음
하고, 중간에 사진도 몇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물포고등학
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고등학교에서 근무
했고, 2007년과 2008년

에는 인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였는데, 그때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인천고등학교 얘기를 먼저 해 볼까 합니다.

회장님이 인고에 다니실 때는 학교가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학교에 다니고 졸업할 때는 학교 이름이 인천고등학교가 아니고 인천상
업중학교였어요. 줄여서 인상이라고 불렀고,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6년제였어
요. 위치는 을목동 정보산업고등학교 자리에 인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구술자

시험(?)을 보고 들어 간 국민학교

창영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천상업중학교에 입학하신 건가요?

창영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천상업중학교에 들어갔지. 당시에는 인천에 중학교가 별반 없었어요. 내가 학교에 갈 때는 인천에 인상하고, 인천공업중학교, 인천공업중학교는 지금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됐고, 그리고 동산학교가 있었는데, 동산학교는 전수학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인 학교로는 인천중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제물포고등학교가 인천중학교였지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거기로 간 사람은 한 학년에 거의 한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길 가만히 보면 일본사람들 자체나 일본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은행지점에 다니는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대체로 그러한 사람들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녔어요.

초등학교로 치면 신흥초등학교는 주로 일본사람들 자녀들이라든지, 당시 일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니고, 창영초등학교가 한국사람들이 다닌 것처럼요.

일본사람들이 많이 다닌 학교는 신흥학교하고 야마테라고 지금의 축현학교였지. 축현초등학교는 신흥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용강정(지금의 인현동)에 새로 생긴 학교야. 예전에는 축현학교가 있던 동네를 용강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신흥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축현학교를 새로 개교하여 학생들 일부를 거기, 축현학교로 보냈지. 그리고 창영학교는 우리 한국사람들 자녀들이 갔지. 창영국민학교는 100년이, 아니 거의 110년 가까이 됐지. 역사가 오래된 전통있는 학교예요.

초등학교 때의 특별한 기억은 좀 없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율목동 살았거든요. 창영학교에 가려면 다리 밑으로 빙 돌아가야 했는데, 그냥 기차길 건너서 다녔어. 지금도 배다리 철교가 있잖아.

그 밑으로 가야 했는데, 거기로 안 다니고 상업학교 앞으로 해서 철로를 그냥 건너서 다녔지. 가까우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위험하게도 그쪽으로 다녔지요.

그리고 창영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시험같은 것을 보았어.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도 시험을 보았나요?

꼭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히 보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험 보고 들어갔다고 할 수는 있지. 선생님이 나무토막을 쪽 펼쳐놓고 그걸 세어 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무토막 몇 개를 한 쪽에 놓고는 숫자로 몇 개인지 묻더라고.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세고, 일곱 개면 일곱을 세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아는지 확인하더라고. 이려고 들어갔어요. 그 때 다른 소학교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당시 창영학교는 학급 수가 얼마나 됐나요?

내가 다닐 때는 남자가 2학급이고 여자가 1학급이고 그랬어요.

나는 별 다른 일은 없이 학교만 다녔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국민학교에서 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좀 엄하신 분이라 개명을 못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선생님한테 가면 혼나고, 맞고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는 왜 개명을 하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며 아버지 오시라고 한거야. 그래서 결국 개명을 했어. 아마 아버지가 학교에 가셨을 때 뭐라고 협박을 했을 거야. 애들한테 지장이 있을 거다 하며,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 조그만 것이. 그런데 뉴스 이외에는 별로 들은 게 없어. 뉴스가 딱 끝나면 끝이야. 음악이 짹짹하고 나오잖아. 그럼 바로 라디오를 끄시는 거야.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버님이 그런 정신이시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제로예요. 형제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지 집안 분위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음정이란 걸 우린 몰라요. 우리 형제가 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송도라는 곳을 기껏해야 아

마 두 번밖에 가 본적이 없어요.

소풍을 간 건가요?

아냐, 소풍은 송도로 안 갔어요. 송도는 버스타고 놀러간 거야. 그때는 어디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소풍은 가까운 데로 갔고, 5,6 학년 때 수학 여행을 갔어. 5학년 때는 개성으로 갔고, 6학년 때는 수원을 갔어요.

또 국민학교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월미도도 많이는 못 갔지만, 언젠가 월미도를 갔는데 하여튼 다리가 있었고, 다리 위로 발목까지 물이 찼어. 아마 만조 때였을거야. 만조, 월미도 다리가 그렇게 넓지도, 높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만조가 돼가지고 물이 짝 차있을 때 발로 물을 차고, 축이면서 월미도를 다녀왔는데, 그 기억이 그렇게 좋더라고.

월미도는 놀러 가신 건가요?

놀러갔지. 친구들 하고 수영하러 가고, 사람들이 월미도에 많이들 갔어요.

당시 재미있는 놀이가 있었나요.

그런 건 뭐 없어요. 놀이라는 게 별 거 없어요. 그런데,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때는 방학 때도 쉬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체조를 했어. 아침 체조, 여름방학 때만 했는데, 일어나면 학교에 갔고, 체조만 하고 집에 왔어요.

맨손 체조요? 학교에서 체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 아마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로 가서 체조를 했어.

그게 창영학교만 그랬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학교도 했나요?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가셨나요?

예, 방학 동안에, 방학숙제 같은 거였어. 체조를 마치면 방학숙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체조하러 온 학생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었어.

일본 학생들과 같이 한 인천상업학교 시절

창영학교를 마치고 인상을 들어가셨죠? 인상에 대해 여쭙 볼게요. 회장님이 인상을 다니실 때 그 학교 학생들은 다 한국인 자제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일본사람들이 한 40% 될 거예요. 이렇게 일본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일본인들이 주로 가는 학교가 인천중학교 하나뿐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이 중학교에 가는 비율이 좀 적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90% 이상 다 중학교에 간 것 같고, 한국사람들은 중학교에 가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네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마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인천상업중학교는 몇 학급이었나요, 또 학급당 학생 수는요?

한 학년에 3학급이었고, 한 반에 50명 정도 됐어요.

인상 다니시면서 공부, 친구들, 학교에서 벌어진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일은 없었나요?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당시는 일제시대니까 우리 인상에서도 매일 아침 교육이 있었어요. 조회 서고, 사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일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 우스운 일은 수인선으로 송도나 소래에서 인상을 다니는 학생들

이 때 있었어. 근데 그 때만 해도 차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연히 학교는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수인선이 수인역까지 왔는데, 소래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 올라 왔지.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또 기차 시간 때문에 학교에 늦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으로 정확한 횡수는 모르지만 열 번에 한 두세 번은 늦는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침 교육 시간 중간에 줄을 서서 탁탁탁 들어오는 거야. 그건 그때는 동네마다 분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명 단위로 해서 학교에 올 때 줄을 서 가지고 다닌 거야. 거기에 반장이라고 소대장 비슷했는데, 그 학생이 학생들을 이끌고 다녔어.

수인선을 타고 온 학생들도 수인역부터는 안그랬겠지만 오는 중간에 정돈해 들어오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늦은 날은 교육 중간에 뚜벅뚜벅 들어왔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수인선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운동장에 풀이 앉아 혼나고 있는 거야. 그 날도 기차가 늦게 온 날인데, 학교에 왔을 때 이미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사열해 있으니깐. 그 사람들이 피가 나서 학교에 안 들어오고, 몰래 비탈에서 쳐다보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들켜 가지고 혼이 났던 거지.

당시 인상을 다닌 학생들이 멀리서도 왔나 봐요?

소래, 또 지나서 군자 그런데서 다녔어요. 이승윤씨가 소래에서 다녔을 거예요 아마.

당시 인상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 창영학교에서 인상에 들어 가 보니 한 반에 4분의 1이 창영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였어. 4분의 1이 창영학교 출신이니까. 창영학교 다닌 사람이 인상의 주도권을 쥔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 수가 제일 많으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생소하고 낯설어 했어.

학생들 나이가 요새처럼 다 같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았을 거 같고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보다 한 두 세 살 위가 20% 정도고, 아, 한 사람이 네 살 위도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은 창영학교에서 막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 그때 고등과정이 있었어.

고등과요.

어, 고등과.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맞고 중학교 못가고선 1년을 더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 고등과정이라고 그 사람들은 전부 나이가 우리보다 많았어.

요새 말로 하면 재수한 거네요.

그렇지. 재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업장은 타고 또 다시 공부한 거지.

인상에 들어갔는데 고등과에서 온 사람도 한 7~8명 됐거든. 근데 그때는 고등과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영학교 나온 사람도 있지 만 거의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더라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상업학교에서 상대(商大)로의 진학

서울대 상대를 들어 가셨잖아요. 상대를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상업학교를 다녔으니 경제학과든 상과를 가는 거지. 그래서 상대를 택했는데, 근데 그때 상대를 들어갈 때 시험과목에 상업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상업학교 사람들이 유리했던거지. 다른 인문학교에서 가는 것보다, 우리는 배운 게 상업이니까 유리했지. 인문학교 학생들은 그런 걸 안 배웠으니까 말이지. 좀 유리한 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대학교 들어가기에 유리하다는 면을 많이 고려하신 거네요.

그때는 특별히 경제적인 건 아니고, 그냥 대학교 가야겠다 맘 먹고, 어디가 제일 좀 나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본거지.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선배 후배나 동기들 봤을 때, 다들 거의 상과로 많이 진학했나요?

나 때는 상대에 다섯 사람 들어갔고, 뭐 법대 간 친구도 있고, 의대 간 친구도 있고, 서울대 말고 연대, 고대 간 친구도 있고.

당시에도 인상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생 중 20% 정도였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 마치면 90% 이상 대학간다고 들었으니까요.

예, 지금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거의 다 대학을 가려고 하고, 심지어 특성화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60~70%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했던 건가요?

취직하고 뭐 그랬지, 근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 형님들 보면 대학 갈 생각을 못했어.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한다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상업학교 졸업하고 금융기관, 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희망이었지.

회장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셨나요?

내가 대학을 6·25전쟁 때문에 3년을 더 다녔어요. 미군부대 다니느라고, 6·25 끝나고, 학교에 다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허술했어. 한 친구는 군복입고 다니며 어딘가 회사에도 나가더라고.

학교 다니면서 그게 가능했나요?

학교에 나가서 출석이 어떻게 됐냐면, 출석을 따로 체크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데, 창문 앞에서 “누굽니다.”하고 출석을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을 체크하는 아씨가 이렇게 보고 출석을 체크해 주었지. 그렇게 출석을 체크하면 시험볼 수 있는 출석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굴만 내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지.

6·25전쟁, 소래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

1957년도에 졸업하신 거죠? 대학 때 6·25전쟁을 겪으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6·25 때는 우리가 신포동에 살고 있었는데, 신포동에 불이 났어. 그래서 어디로 피난갔냐면, 형님이 조선유지라고, 지금 소래 근처의 한국화약 합숙소에 계셨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피난을 갔어.

그럼 거긴 안전했나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 다만 그때는 붙잡혀 가는 걸 피하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지. 형님이 그때 거기서 오리를 기르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오리를 잡아 상을 차려 대접해서 그랬는지 우리집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가 없었어. 그래서 방에서 형님들과 있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천장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곤 했어.

북한군들이 소래까지 들어왔던 거네요?

그렇지. 내 생각으로는 한국화약 때문에 거길 왔던 거 같아. 한국화약이 그때 수류탄을 만들고 있었거든. 군수쪽으로다가, 근데 그런 건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갔을 거야.

인천에서는 피난을 멀리 안 가고 소래 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아마 다들 어디런가 피신을 했을텐데 당시에는 서로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어디로 피난 가셨나요?

그러니까 6·25가 바로 나서는 소래쪽으로 갔지만, 1·4 후퇴 때는 식구들 모두 배 타고 부산까지 피난 갔었지. 1·4 후퇴 때는 인천에서 피난 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배 타고 내려갔지. 많이.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3년 뒤에 올라왔지.

피난 가서는 부둣가에 있는 미군 부대에 다녔어. 식당에서 일했어.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하니.

그럼 그 돈으로 식구들이 생활하신 건가요?

아냐, 피난을 가긴했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우리는 어느 정도 생활할 겨를 준비해 갖고, 쓸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형님이 6·25 전에 인천항에서 창고를 경영하셨어. 미군들이 창고를 전부 쓰다가 일부를 내놔거든, 세관에서 관리하는 창고인데 그거를 형님이 임대해서 가지고 일하셨지. 회사를 운영하신거지.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거야.

형님이 창고 일을 1948년도부터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할만한 건 가지고 있었어.

창고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선포

당시의 창고회사가 지금의 선포의 바탕이네요.

그렇지. 사람들은 당시에 쓰던 물건들이 미군부대에서 나온 물자로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중국하고 무역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 특히 마카오 양복 천 같은 게 많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무역하면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인부를 동원해서 하역해 창고에 그걸 보관하고 내주는 일을 형님이 시작하셨던 거지.

창고는 개인 소유였나요?

개인 소유는 아니고, 세관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해방 이후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해방 직후에는 군수물자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가 적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쓰던 창고를 내 놓 거지. 그것을 세관이 맡아 관리하던 것을 형님이 임대해 운영한 거지.

그러면 부산으로 피난 갔다 와서 형님은 그 사업을 계속하시고, 회장님은 언제부터 그 일에 관여했나요?

나는 뭐 피난 갔다 와서 복학해 학교 다녔는데, 복학했어도 형님이 창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형님을 돕기 위해 대학 3학년 때부터 수금하러 다녔어.

일찍 사업에 뛰어 들었으니,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당시 창고업은 주로 어떤 일이었나요?

창고업이란 무역으로 들어 온 물자를 창고에 보관해 주고 보관료를 받는 거야. 화주쪽에서 여기 통관하는 데로 내려와서 창고 보관료, 통관료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회사로 가져가 결제 받잖아. 그러면 나는 회사로 수금하러 갔지. 계속 그 사람들 물건이 들어오니가 수금을 바로 할 수 있었지.

당시 창고에 보관된 물건은 여러가지가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거의 없으니. 그때는 전부, 우산조차도 외국에서 들여올 때고, 가정용 계산기 있잖아. 이것이 200평짜리 창고에 꽉 찰 정도로 들어오기도 했고, 전선까지도 들어왔으니까.

인천으로 들어온 것은 다 여기서 취급하신 거죠?

뭐 그렇지. 우리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당시 인천에 창고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분들은 얼마나 됐나요?

뭐 몇 사람은 안 돼. 한 다섯, 여섯 군데 됐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선광처럼 성장을 했나요?

거의 없어요. 우련통운이라고 처음에는 무역업을 하다가 나중에 하역 일도 같이 했던 우련통운 정도이고, 영진공사는 한참 후에 생긴 회사이고, 그전에 우리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들은 지금은 다 없어요.

그 당시의 창고업은 작은 규모였잖아요? 인천의 창고업은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나요?

창고업이라는 것은 정부에 임대료를 일 년에 얼마 내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화주에게 보관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달렸어. 근데 보관료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물건의 감정 가격의 몇 % 이렇게 받아요. 이틀테면 비싼 물건과 싼 물건의 차이가 있어요.

또 물건에 대해서 창고료하고 작업비가 있거든. 창고료라는 것은 그 물건 값의 몇 분의 일을 받는 것이고, 작업료는 두 가지가 있어서 물건의 부피나 중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물건에 따라 부피가 큰 게 있고, 중량이 큰 게 있는데, 둘 중에서 유리한 것을 받았어.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 부피로 받고, 중량이 무거우면 중량으로 받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기에 그때는 비교적 이익이 많이 남았지. 경쟁도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창고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었네요. 요즘은 어떤가요?

당시에는 회사가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안 됐지만, 요즘에는 물동량이 그만큼 많아졌다곤 하지만 회사가 수십 개가 있으니 경쟁이 너무 심해요.

선광이 초기의 작은 규모에서 오늘날과 같은 큰 규모의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천항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겠죠?

6·25가 나고 나서 형님이 고철작업을 하는 하역회사 비슷한 거를 하다가, 고철사업을 그만두고 창고업만 전념하다가 하역회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도 쯤 되는 건가요?

하역회사 한 것은 창고업과 같이 했다고 보면 되고, 세관업무를 시작한 것이 1948년이고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선광으로 한 것이 1961년이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선광공사, 개인 회사였지.



선광공사(현 선광문화재단)

그게 인천항 발전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인천항이 커지면서 물동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인천항도 커지면서 선광도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선광을 큰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수급하러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무실(현 선광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무실이 통관사무실이거든 통관사.

내가 통관 다닐 때에 그때 제일 큰 회사가 동신화학이라고 있었고, 그 회사가 그때 제일 컸었어요. 지금 뭐 삼성, 럭키, 지금의 LG이고, 선경 뭐 이런 데보다 동신화학이 더 컸어요. 타이어하고 생고무 가지고서, 운동화 만들고 스펀지 만들고 하는 회사였거든. 그러니까 생고무가 창고에 가득 찼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녹았어요. 어린 아들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중역도 있고 한데, 책상에 딱 하니 다리 올려놓고 이러니 있었어요.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지

만, 뒤에서는 욕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 돼.

그리고 내가 그때 통관 다닐 때 선정 최종건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 지금 SK 그룹 회장인 최태원씨의 큰아버지가 수원에 직조공장을 했는데, 나도 그 공장을 가봤어요. 한 400평 정도 됐을거야.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금 가격으로 하면 아마 한 20만 불 되는 직조기계를 들여왔다고. 우리가 그 기계를 통관해 주었어요. 통관을 하니 최종건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 트럭 두 대에다가 싣고선 앞 조수석에 타가지고 공장으로 갔던 기억이 난다고. 그 후에 선정 폴리 에스터르(선경직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컸더라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 수원 입구에다가 공장 두 개를 지었지. 그 회사의 기계들을 우리가 다 통관해서 운반해 주었어.

그리고 한국타이어 있잖아요. 한국타이어는 당산동 농토에 철망을 쳐 가지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회사 기계를 통관하여 거기다가 가져다 주었어. 한국타이어는 농토에 공장 세워서 그렇게 커진 거지. 하여튼 지금 재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때도 크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큰 회사들이 아니었다고.

내가 그래도 상대 나왔기 때문에 무역회사나 동신화학이라든지 그런 커다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무역부가 있었고 거기 보면 내가 아는 상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있었어. 이상득 씨 있잖아. 그 사람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회사에 들어 가 인천에 있는 통관회사를 통해 통관하던 일을 했어.

그리고 또 선정, 대한석유공사, 삼성 등의 회사의 통관 일도 하였는데, 몇 년 후배들이 통관하러 오더라고. ‘선배님’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바로 위의 형님이 상대 교수하시다가 나중에 경영대학장을 하셨기 때문에 선배일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통관도 선광에서

가만히 보니 선광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물류회사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경제발전에 막후에서 많은 역할을 했네요.

많이 일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 일 중에서 특별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올 때 우리가 통관한거예요. 당시 컴퓨터 크기가 캐비닛 정도였거든, 그것도 수십 개를 들여 왔어요. 서울 흥농에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원에



(주)선광 싸이로준공식(2003)

서 컴퓨터를 제일 처음 들여왔어요. 아마 트럭 일곱 대에 실어서 가져다 주었지. 그랬더니, 마지막 날 거기 소장이 '고사 좀 지내줬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침단을 걷는 사람들도 이런 걸 다 해달고 하네 하면서도 돼지머리하고 저기 딱하고 해서 고사를 같이 지내 준 적이 있어요.

솔직히 고사라는 것이, 난 지금도 우리 집에서 매년 고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창고에도 갖다놓고 집에도 갖다놓고 해요.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일지 모르지만, 그냥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단합에 일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들여왔을 때 우리가 농담삼아 "아이고 침단을 걷는 사람들이 뭘 고사야?" 하면서도 정성껏 준비해 고사를 지내줬어요.

또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공장들의 기계를 많이 통관했어요. 삼성전자 있잖아. 그 회사 것도 우리가 운반해줬어.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일의 과정은 대체로 어떠했나요?

별거 아냐.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기계나 물자를 하역하는 거야. 배에서 내려 트럭에 실어 창고에 보관했다가 통관 수

속이 끝나면 그 회사 공장까지 갔다 주는 거야.

그리고 통관 업무를 해 주는데, 통관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국내로 들어 올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는 거야. 서류 수속을 대신해 주는 거야. 요새는 정말 투명해졌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건마다 세율이 있다고, 이 기계는 세율이 50%다, 이 기계는 20%다 이러했기 때문에 새 기계를 들여오면서 세율이 높은 거면 세율이 낮은 것으로 서류를 잘 꾸며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서 세관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기계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예 세관 쪽으로는 안 왔어. 우리가 대신 알아서 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도 유리했으니까.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세율은 세율표가 있고 물품 가격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물품 가격표에 없는 물품은 한때는 물건 가격의 얼마의 몇 %로 이렇게 부과했어요. 물건이 들어와서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사람들이 매일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 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주는 세관 사람들 결정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상인들이 백 원짜리를 갖다가 하다못해 팔십 얼마에 팔 수도 있고, 백십 원으로 팔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통관사의 역할이 컸지.

회장님은 관세사회 회장도 하셨잖아요? 한 십여 년, 오래 기간 하셨는데. 관세사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따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딴 건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났을 거예요. 관세사 자격을, 처음엔 화물 출급인이었는데 관세사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관업무를 하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관세사 자격을 주고, 새로이 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보게 돼 있다고. 근데 관세사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기껏해야 통관회사가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백 몇 개가 됐지만 말이지. 세관에서 규제를 한 거지.

통관사가 적었으니 일이 많았겠네요?

많았지만 모든 일은 세관에서 하고 통관사는 절차 수속을 했지. 우리 회사는 돌아가신 회장님이 일찍이 통관 업무를 했으므로 자동적으로 관세사 자격을 가졌고, 셋째 형님이 세관에 근무했어요. 세관장까지 하셨어요.

세관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시험 과목을 줄여줬어. 예를 들면 세관 다니는 사람 중에서 주사는 한 여덟 가지 본다고 하면, 사무관은 여섯 개, 서기관은 한 과목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도 관세사 자격을 갖고 있었지. 시험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었지 형님하고 나하고.

인천 부두가 많이 확장되었잖아요. 하역 관련 회사 입장에서 인천 부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부두라는 것은 선창인데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지. 옛날에는 도크 안에만 있었지. 그런데 자꾸만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이 도크 안의 부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에 요소가 많아지니까. 외항에다 부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지. 근데 지금 인천의 물동량이 급감을 했어요.

지금 도크 안으로 배가 잘 안 들어와요. 삼분의 일이 비어있어. 외항으로 나가는 배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 물동량도 줄어서 그렇지요. 도크 안에 있는 하역회사는 물론 항만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세계경제하고 하역회사의 일은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세계 경기가 나빠졌다고 할 땐 종전대로 물동량이 있지만, 그 여파가 한 반 년 정도 지나면 와요.

인천항에 물동량이 적어진 원인은 산업체의 수도권 설립 억제 정책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려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더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러나 어렵게 들어 선 정치 발걸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나요?

솔직히 나는 장사하던 사람이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선광의 전무로 있을 때, 어느 날 이승윤 씨가 찾아왔어요. 이승윤 씨는 인상 후배인데 운동을 같이했어요. 처음에는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운동을 같이하며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 서강대학교에 있을 때 형님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형님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보내 줘서 공부하러 간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승윤 씨 부인이 나한테 형님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심교수님한테 “너무 결례가 많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집은 가족이 같이 가고, 형님은 혼자 갔대요. 그래서 부부가 외출할 때 “선배님, 애 좀 봐 주세요.”하고 형님께 애를 맡기고 자기들끼리 외출하고 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 어려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승윤 씨가 와서는 유정희는 그만하고 지역구의원 해 보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상은 나왔지만, 선후배 동문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 했어요. 대학에 있다가 미국 갔다 오고, 동창회에도 별로 왔다 갔다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선거를 하려면 동문들 신세를 져야 할 거 같은데 그러려면 동창회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동창회장은 경기은행 전무로 계시는 선배님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간부들에게 이승윤 씨가 지역구에 나온다고 하는데 도와주자고 했어요. 제일 반대한 사람이 〇〇〇 씨이었어요. 이승윤 선배는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면서 동창회에 참여도 안하고, 후배들한테 연락도 없었고, 하다못해 소주라도 한잔 해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여기 내려와서 국회의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저녁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동문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데 힘을 합쳐야지 않냐?”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동창회 총회가 있을 때 어렵게 동창회 회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동창회장 시켜놨더니, 2달인가 3달 후에 재무장관이 됐어. 그러니 장관 일이 바빠 인천에 내려오질 못 하잖

아, 그래서 “시간 내서 좀 내려와라.”했더니, 나보고 대신 동창회 일을 봐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동창회 기별로 모임 때마다 가서 대신 인사를 한거야. 원래 동창회 회장을 해야 기수 모임 같은 곳에 가서 인사를 할 수 있었어. 동창회장이 가면 어떻게 왜 왔느냐고 하면서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을 거 아냐. 그래서 이승운 씨를 동창회장을 시킨다고 한



예결위원장시절(1961. 2. 13. 경향)

거예요. 이후에도 한번 인천에 오라고 해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보고 대신 동창회 일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쭉 했어요. 그리고 그 해 10월 쯤 해서 민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승운 씨한테 “어떻게 돼 가냐.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오냐, 안 나오냐?”하고 물어 보니 지금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계에 진출한 계기가 이승운 씨하고 관련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당시 신문에 국회의원에 이승운 씨가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왕설래 했어. 그런데 나한테는 못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 차에 기관 관계자들이 궁금해서 나를 찾아 온거야. “이승운 씨가 어떻게 한답니까. 10월에 당이 생긴다는데 ……” 하면서 이것 저것 묻는거야. 그래서 이승운 씨가 바빠서 이번에는 못 나온다고 했더니, 그러나 하면서 자기가 여론을 살펴볼테니 “심전무님이 국회의원에 한번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방면에 아직 한번도 발을 들여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기반이 빈약해서 어려울거야 하고 돌려보냈어.

그리고는 한 보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저희가 알아 봤더니 괜찮습니다. 심전무님 출마해도 괜찮습니다.”하는 거야 그래서 공천 신청을 했어요.

공천을 받으셨나요?

공천 신청을 하고 지구당 위원장으로 나오고 싶다 했는데, 그때 10월 중순 즈음에서 민정당을 창당하는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대의원으로 참석했는데, “끝나고 호명하는 사람은 전부 남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때 인천서 공천 신청하고 출마하려던 사람이 한 세 명 됐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 한 백 몇 십명 정도가 남았어.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면 “당신들은 각 지구당 위원장 서리니까 빨리 가서 개편대회를 열고 서리를 띠고 위원장을 빨리 하라”고, 일주일 안에 빨리 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천에 와서 서둘러 백 몇 십명 모아 놓고 개편 대회를 열었어.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

어디 지역구였나요?

지역구가 하나 밖에 없었어. 아 근데 그렇게 지역구가 하나니까 동사무소 가고, 경찰서 가고, 동네에 가고 뭐 하다 보니 한 달이 폭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당시에 민정당 사무차장으로 있던 이종찬씨가 하얏트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가 하고 부리나케 갔지. 그랬더니 “지역구 관리가 약하니까 고만 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퇴서 써 줬어.

사퇴서 써 주고 왔더니, 주위에서 그걸 왜 써주었냐고 하더라고. 그때 사퇴서를 내라고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나 빼고 다 안 썼어. 그들은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받고 사퇴서를 써 주었다고 들었어. 나는 정치를 몰랐으나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알았던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버려야 된다는 걸.

그런데 왜 갑자기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 건가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맹은재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하고 통일주체대의원도 같이 한 친구야. 그 친구가 총력안보 경기도 지부의 부회장을 했어. 경기도 지부장은 이규동 씨였고, 맹은재 씨가 이규동 씨한테 “국회의원에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힘쓸 만한 사람에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전당대회할 때 맹은재 씨 이름이 안 불리고 빠졌단 말이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이 안 불리니까 수원을 내려 간 거야. 내려가서 이규동 씨한테 다른 사람이 정해졌다고 말을 한거야. 그러니까 이규동 씨가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기분이 나빴겠지.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거야. 전두환 대통령령의 장인이었으니,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관련 기관에 맹은재 씨가 괜찮았는데 어떠냐 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지구당 위원장을 사퇴했고 공천에서 탈락 했어요.

한 번 큰 고비가 있었네요.

맹은재 씨한테 뺏긴 거지. 그렇게 뺏기니까 인천에서 “어떻게 남의 입에 들어 가는 것까지 뺏을 수 있냐?” 하는 소문이 돌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맹은재 씨가 당선되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어. 그러다가 맹은재 씨가 한 3년 후부터 병을 앓았어, 그러더니 3년 반쯤 돼서는 사무실도 나가지 못했을 거야. 그 해 9월인가 대구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길 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상의할 게 있으니 올라 오라고. 그랬더니 맹은재 씨가 지역 관리를 못 하는데 당신이 좀 말아서 해 줘야겠다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당에 나간거야. 그리고 그 다음해 1월인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중앙당에선 나보고 장의위원장을 해서 마무리 좀 지어달라고 하여 내가 장의위원장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그 해 4월 선거에서 12대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당시에 인천의 정치적 상황이 좀 어땠나요?

그때 당선된 사람이 김숙현 씨하고 맹은재 씨 두 분이었지요. 김숙현 씨는 민주당이었고.

저기 명화섭 씨는 그 이후인가요?

응 그 이후지.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했지. 12대 때, 그때는 인천이 두 개 선거구로, 갑, 을로 두 사람씩 선출했어요. 중선거구제로 명화섭 씨하고 나하고 같이 했고, 저쪽에서는 유재현 씨하고 김숙현 씨가 했고, 근데 선거라는 것이 모르는 일이야. 김은하 씨 부인이 셋째 형수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

고 하니까 김은하 씨가 다방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인천에만 있으면 안 되고 중앙당 다니면서 확고하게 해 놔야 되지 괜히 인천에서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해 줬어. 그럴지도 모르지. 지난 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결국은 12대 선거하는 데 한 열흘 전까지 김숙현 씨가 1위, 내가 2위, 명화섭 씨가 3위였어. 열흘 전까지는. 근데 닷새쯤 지나고 이게 바뀌더라고. 내가 1위가 되고 명화섭 씨가 2위가 되고 김숙현 씨가 3위가 되고, 그게 전국 뉴스로 나오더니 결국 김숙현 씨 떨어졌지. 명화섭 씨가 되고.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나요?

아 선거운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선거도 운동하기 나름이야. 근데 김숙현 씨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워낙 그 당시에는 제일 막강했으니까. 나도 처음 나왔을 때는 김숙현 씨는 뭐 당연히 당선될 거고 나는 2등이라고 생각했지. 명화섭 씨가 위험하고, 그런데 그게 딱 바뀌더라고. 그리고는 저 13대에 소선거구가 되며 선거구가 더 늘어났어. 남구 갑, 을, 남동구 등으로 그래서 나는 남구 갑으로 나올까 생각했어. 남동구도 생각했고, 명화섭 씨하고 같이 해 보니까 명화섭 씨가 사람이 괜찮아요. 마침 명화섭 씨가 나한테 “이렇게 구가 나누어지면 우리 나누어 갑시다.” 하더라고. 그래 좋다고 했지. 그래서 남구가 갑, 을로 나누었을 때는 내가 을로다가 신청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도화동, 산동네 이런 데를 내가 많이 다니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거기 유권자가 나한테 더 좋을 거 같아서 그쪽에다 신청을 했는데, 서울서 이한동 씨가 전화를 해서 “을로 신청하셨죠?”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을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세 번이나 물어보더라고. 암만해도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공천을 갑으로 거꾸러 해 줬어. 을은 이강희 씨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의원은 갑이든 어딜 가도 괜찮고 이강희는 노조 많은 데로 해줘야 할 거 같아서, 그게 유리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공천을 받았어요.

내가 공천이 받고 나서 보니 야쪽은 우리보다 늦게 공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명화섭 씨에게 전화를 세 번이나 했어. 한 번 걸고, 두 번 걸고 ……., 계속 안 받더니 세 번째는 부인이 받아. 그래서 “연락 좀 주세요”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

는 거야. 내가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해 줬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배려를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리고 한참 지나니 남구 감으로 나오는 거야.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도 심정구하고 불지 말고 같이 다른 데로 올구로 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듣더라. 그 당시 명화섭 의원이 당의 사무차장을 하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예요. 내 생각은 아마 올구에 하근수씨 있거든 그러니까 하근수 씨한테 약속을 한 거 같아요.

선거운동할 때 특별한 선거 전략이 있으셨나요, 명화섭 씨 같은 경우는 충청도 분이니까 충청도 표를 고려 하셨을 거 같은데요.

12대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어요. 명화섭 씨도 인천에 온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충청도의 힘을 다 흡수를 못 했을 거예요.

근데 13대 때 명화섭 씨하고 또 불지 않았어? 그때는 명화섭 씨가 충청도 사람들을 많이 확보했어. 선거 때는 충청도가 결집을 해요. 암만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충청도다.” 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더라고요. 실제로 나도 충청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충청도 보령에 계시다가 서울로 양자로 오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상대 쪽에서 호적을 떼어 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서울로 간 기록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때 충청도 표가 좀 깨진거지. 그래서 13대에도 많이 또 영향을 주었지.

인천에 외지 분들이 많아서 선거 운동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천사람들에 대해서. 인천에는 인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고, 황해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천 부두가 발전하고, 인천 경제가 좋아지면 부두 노동자나, 공장 노동자로 충청도, 전라도사람들이 많이 유입했어. 내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황해도 사람들이 많고, 인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진짜로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이 충청도 사람 그 다음이 전라도 사람. 근데 이것이 자꾸 가다보니까 거꾸로 되더라고, 요새는 아마 거꾸로일 거예요. 황해도 사람들은 어른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주로 자식밖에 남아 있지 않을 거고, 충청도 사람은 서울로 많이 올라가고, 인천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 정치, 선거운동에 이러한 면이 영향을 줘. 내 생각으로는 지방색, 그런 게 없어지려면 2세, 3세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태어나 형님따라 인천으로

어릴 때 울목동에 사셨으면 그럼 인천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 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예, 서울 태생이군요. 그럼 언제, 어떤 연유로 인천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아, 우리 형님들이 일제 때 군수업체인 조선기계제작소라고, 나중에 대우중공업이 되었다가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되었지. 거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

형님들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오신 거군요.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사셨나요?

서울에 원서동이라고 있어요. 종로구 원서동. 저 비원 옆에 넘어 있는 동네예요. 참, 그때 생각이 나는데 비원 안에서 계곡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옆에 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은 여럿이 물 뛰고 논 것 같은데, 커 가지고 가서 보니까 기껏해야 두 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인천에 오신 거는 몇 살 때인가요?

내가 4살 때 내려왔을 거야.

울목동은 기와집이 많았던 부유한 동네로 기억하나요?

울목동이 비교적 다른 동네보다도 좋은 동네였잖아. 근데 지금 가보면 골목이 아주 좁고, 전혀 다른 동네가 되었어. 연립들만 들어서서, 거기가 낙후된 동네가 되었어요. 안타까워요. 인천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울목동처럼 바뀌지 말았으면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물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고등학교에서 근무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인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였는데, 그때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3학년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한 두 차례씩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할 때도 송도에서 맛난 저녁 식사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번에 인고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3학년 담임선생님들과 부장선생님들과 같이, 그런데 교장, 교감선생님 제외하고 20분이 나왔는데, 여선생님은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남선생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술 한 잔 따라 주는데, 가까운 자리에 여선생이 있길래 “술 조금만 드릴게요.” 하면서 반만 따라주고, 성이 뭐냐니까 심씨래요. 그래서 나는 “어디 심씨냐?” 하니까 청송이라고 해, 나하고 본이 같아 반가운 마음에 고향이 어디냐니까 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요?

응, 대구. 그래서 항렬을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자리로 돌아왔더니, 그 여선생님이 와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항렬이 할아버지뻘 되세요.” 하더라고요. 아마 나가서 전화로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서른 넘는 거 같아서 “시집 갔어요?” 했더니, 안 갔다고 해요. 다른 여선생님도 다 시집 안 갔대요, 여섯이 다 안 갔더라구요.

요새 학교에 결혼 안하신 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면서, 여기 계신 여선생님들이 다 결혼을 안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나이 때는 그래도 생산 활동하고 부양하는 인구가 충분히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직 괜찮지만, 선생님들이 나이 먹었을 때는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자칫하면 굶기도 하고 재정이 파탄나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문제더라고요.

예,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부모가 올라왔더라고요, 대구에서 와서 나를 찾아 와 인사하며, 어떻게 딸 시집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농반 진반으로

어떻게 좋은 일 하셔야겠네요.

아니 뭐, 나도 좋은 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가 부모님은 그게 큰 걱정이지, 딸이 시집을 안 가는지 못 가는지, 저러고 있으니깐,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학교 마치고 바로 인천으로 온 모양이에요.

처음이라 학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고, 또 3학년 담임을 맡다 보니까 매일 늦게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제 학교에 점점 여자선생님이 더 많아지게 되고, 실제로 정말 결혼 안 한 여자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40대도 많고요, 50대도 계시고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이 3학년 담임을 맡느냐 이러니까, 가장 가진 사람은 늦게 퇴근하니 안 할려고 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시키기가 좀 미안하고 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그 일이 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요새도 매번 인고에 가셔서 3학년 하고 부장선생님들 격려해주시나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요새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수업은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6~17시간 정도합니다. 50분 단위로 해서요, 요새는 주 5일제 수업을 하니까 하루에 3~4시간 정도씩 수업을 합니다.

3시간도 힘들지요.

근데 수업 하는 건 괜찮은데요,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아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이들도 많은 변화가 있고, 성격이 좀 더 급해졌어요, 요새 애들은 공부보다 자꾸 다른 데 신경쓰니까요, 공부보다는 다른 일에 더 신경쓰고 수업 시간에는 자려고만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거칠게 구는 애들도 있고요,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아이고,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신조랄까 혹은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시오.

글쎄요, 80여년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웠던 일, 기뻐던 일 등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게 되겠지요, 이견 정당한 경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해치고는 나도 결코 잘될 수 없으니까요.

둘째로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분수를 알아야 한

다는 말이지요.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등등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고 조금씩 정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셋째로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약속이라 하면 나야 정치를 했으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나 약속이 있겠고, 일반 상행위에서는 거래에 관한 약속,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약속 등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몇 가지는 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인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5장



오종원

전남 해남 출생 ———

해남고등학교 졸업

경인일보, 경기매일, 인천일보, 인천상공회의소보 편집국장

■ 채 록 자 : 이영태(인하대학교 강사)

■ 채록일시 : 2012년 7월 13일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5장 인천 언론사의 증인

전기 공급하는 데가 상전이지

인천에 오신 지는요? 그리고 직장과 거주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해방 직후니까 휴전협정하고 그러니까, 56년 5~6년도인가 인천 왔어.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 네 직장근처, 그때는 인천도시가 송의동 로타리 아시죠? 그 이후로는 변두리에요, 엉망이에요, 거기는 뭐, 그때는 버스도 없으니까, 차가 있나 뭐 있나, 걸어 다니니까, 그때는 전기가 가설이 되었는데, 발전이 안 되지, 이북에서 끊어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가 신문사도 전기 때문에 발행하다 멈춰요, 꿈같은 얘기지, 가정집이야 말할 것도 없지, 공장도 그러니까, 공장사람들이 한 자리에다가 대고 아주 그냥 상전이지 한전이, 한전은 그때 경찰국이었어, 통신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통신과에서 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으니까, 경찰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정보부가 있지만, 그때는 사찰과가 있었다고, 사찰, 지금의 정보부지, 정보부 그 역할이야, 그 경찰이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 말할 것도 없어, 그레 가지고 남한에서 로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명했으니까,

그러면 전기 말고 신문을 찍으려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그제 인제 해방 직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에서 지금 부평역인가 일본 놈들 경기창 있고 군수기지였어요, 거기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다가 종이, 그리고 그거 다 하고 원자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고, 일



구술자 사진첩

부에는 그거를 갖다가 인천 시내에 일본 놈들이 창고에다 쟁여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국산 종이로 하는 거죠. 마분지지 뭐. 마분지지. 그런 거 갖다가 쓰고, 인쇄기도 거

기 조병창에서 갖다가 썼어요. 연료가 아니고 평판기 딱따닥 딱따닥 하는 거. 그러면 발행부수가 보통 3,000부에서 한 5,000부 사이였을 거거든. 한 3,000부에서 한 5,000부. 5,000부 그때 인천인구가 20만 30만인가 그럴 거예요. 인구 통계가 나타났고, 해방 직후에. 그래 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거니까. 20만, 30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높았을 텐데 신문 발행은 인구대비해서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앙기도 그렇고. 뭐 중앙에 보급이 여기까지 잘 안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앙에 지사가 없었죠. 그때 서울 수복하기 전에는 인천에서 일부 중앙들이 발행하기도 했어요. 해방 직후, 6·25 직후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사』나 이런 거 읽어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이예요.

그런 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언론계 같은 거 그때 출판계 같은 거. 그런 대목은 아마 이젠 신문사 몇 번 간행해봤는데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그걸 내가 왜 보통 관심이 이렇게 있는가. 언론사 있고, 아무래도 내가 출판

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쪽 좀 모아왔어요. 자료들을 모아왔다는 건, 이걸 뭐 정리좀 하려다가 그냥 나도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걸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 당시 나와 동갑짜리가, 일제시대에 배달왕이 있었어요. 신문배달,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가끔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듣는 게 나아요. 나는 인천이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일제강점기에 …… 초등학교 …… 그때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졸업도 못하고 학교 다니며 배달하고 그냥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가지고 배달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조병창도 그 사람한테 듣는 얘기고,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야. 심부름꾼이니까. 애니까 말이야. 따라다니면서 이거 나르라 저거 나르라 하면, 그래서 듣는 얘기가 그리고 종이도 그 사람이 일본 창고 가서 말이야. 같이 가서 가져오고 이제 심부름하는 거지. 그래서 듣는 거야. 출판계 아마 내가 하는 얘기가 처음일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게요. 그런 구술 이런 것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

구술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 그레가지고 신문도 야카도 이야기했지만 발행부수가 5000까지는 모르겠고, 3,000 정도, 2~3,000

2~3,000부르니까 나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요, 일반 대학생들이 워드로 쳐요, 맞춤법 맞추고 뭐 다시 아무 때라도 정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걸 정정해야죠. 나도 실수한 것도 당연히 정정이 되어야죠.

해남 땅끝 마을에서 인천 송학동으로(경인일보)

먼저 그럼 모두 발언은 끝내고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신지.

전남 해남. 땅끝마을.

어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인천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 다 그때 뭐 직장이 있었나요, 뭐 전혀 없지. 무작정 상경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었냐면, 내 개인적인 일화는, 내가 그때 초등학교는 나왔지만 해방 45년 해방 내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많잖아요, 해방 2년 전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한 2년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 45년에 이제 중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중학교가 이제 6년제예요, 거기를 나온 거죠, 졸업하는 해에 6·25가 터진 거지, 6·25 터져가지고 몇 년 있다가 서울 올라오는 거죠, 그때가 56년 정도 아마 되었을 거예요, 56년 정도, 왜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해남의 친구들이 몇 명이 학교에 다녔어요, 나 살 때도 학교 그랬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못 올라오고 좀 있다가, 나 아는 사람이 통신과장을 했어요, 경찰에 통신과장. 아까 얘기한, 통신과,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전기사주는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는데, 그거 그렇게 막강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통신에서, 그러니까 한전도 꼼짝 못해 꼼짝 못하고, 거기서 경찰국에서 지시하는 데로 그때는 모든 게 경찰이니까, 반공인, 오로지 반공이야, 모든 게 반공에 그게 국가를 위해서 반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도 그럼 해남분이십니까?

해남, 형님 친구예요, 형님 친구인데, 인제 와가지고 해가지고 통신과장이 되었지, 그 사람이 고생 많이 해가지고 통신과장이 되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경기도 경찰학교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있다가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오자마자 지금 이야기하기 거시기한테 지금 송학동, 지금 송학동이 거기가 일본놈 쪽이 참 좋았어요, 아주 그냥 앞에 전망이 참 좋아요, 드러누웠어도 앞방 따뜻하고, 그런데 거기가 경찰학교 관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응 자유공원에, 두 개 있어, 그러니까 과장이야 이제 경무과장하고 통신과장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관사에 기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양반한테 부탁해가지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말년에, 한국유리가 그

때 막 생겼어요. 만석동에 한국유리가 막 어디 막 짓는거야. 그때 개인적인 일인데 이야기해도 막 되겠나. 그때 발 갈아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는 베이스캠프 사령관이 있었어요. 사령관이 미국은 마군이, 그건 뭐 계급은 다 모르겠어요. 그때 뭐 대령이란 말도 있고 뭐 그런데. 그때 지금은, 옛날에 인천시 청관사. 지금은 아마 역사자료관이죠. 송학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술집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술집이. 그러니까 술집에서 베이스캠프 사령관이 이제 자주 드나들어요. 실제 통수과장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준 거니까. 그 사령관이 급해가지고 한국유리의 얘기를 했는데, 가보다보니까 뭐 영어로 하는데 내가 영어를 알아야죠. 그러니 결국 내가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신문사. 마침 모집한다고 그래서 신문사. 처음에는 교정일로 들어갔어요. 교열. 교열이든 그때는 교정이라 그래가지고. 교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사 바로 들어갔죠.

그 신문사 이름과 하시던 일은요?

경인일보였어요.(경인일보) 그러니까 그때 경인일보하고 경기매일신문이 대중일보 효시입니다. 그리고 주간인천이라는 데가 있었을 거예요. 주간인천 주간지. 그런데 경기매일하고 경인일보가 있었어요. 경인일보에 들어간 거지. 경인일보 보는 이제 그래가지고 73년도에 3사 통합 때 없어진 거니까. 그때 군부독재였으니까. 교정보다가. 이제 편집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편집부로 넘겨 가지고 있다가 5·16혁명을 맞이하게 된 거지. 그때 1차 언론파동이 생긴 거구요. 그때 시설기준 미달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퇴출, 퇴출당한 거죠. 그 전에 유승원 인천시장이 시장하면서 인천신문 이라는 걸 허가해 줬어요. 허가를 해가지고 있었어요. 저기는 살아남고 경인일보는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그냥 인천신문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거기 가서도 1주일정도 하다가 도로 그냥 그만두고 경기매일로 가게된 거예요.

일 주일 만에 경인일보에서 경기매일로 전직

일 주일 만에 퇴직하셨습니까?

일 주일 만에 퇴직하고, 내가 그때 비교적 운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 서식에도 그렇고 김웅태라는 분이 있어. 언론계에 그분께서 편집장을 하시는데, 언론계에서 인천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고일 씨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압니다.) 고일 씨하고 김웅태 선배님하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된 그러니까는 공간 없이 그냥 바로 문 닫자마자 그냥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바로 갔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맞지 않더라고요. 맞지 않아가지고, 맞지 않는데도 먹고 살라니까 …….

분위기 안 맞는단 말은 구체적으로 …….

뭐랄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 있던 테하고 좀 다르니까. 뭐 다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낯설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원전들에 경기, 경인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좀 했어요. 내가 파워를 좀 과시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제약을 받는데, 제약을 받지. 그런데 분위기가 그래서 경기매일에서 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웅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또 잘했어. 그 판단이 지나고 보면 그래서 경기매일에서 쉬 목다가 내가 그 인제 죽 편집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일절 뭐 외근은 부분적으로 상공회의소 아니면 소소한 행정단체, 그 때는 부천군청이라고 있었어요. 부천군청이 여기가, 답동성당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 다니다던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주로 편집을 내가 전담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집부장까지 된 거예요. 그랬다가 73년도에 인제 통폐합이 이뤄진 거죠. 신문사 이런 데는 되게 그런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경인일보 있을 때 채호라는 분이 함경도분인데 그 사람이 인천에 끼치는 공로는 대단해요. 언론인이라고 보다는 상공인이예요. 그 양반이 인천수출공단을 만들었고, 부평수출공단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경기은행을 만들었고,

함경도 분이시죠.

함경도 분인데 아마 그 인천 인물사에도 나와요. 채호라는 분인데 함경도 분인데 대단한 분이예요. 그 양반이 경인일보 처음 입사할 때 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있을 땐,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 함경도분하고 전라도하고 뭐 전혀 하늘과 땅차인데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를 잘 봤어요. 잘 봐가지고 그럼 이상하게 이 양반이 내가 경기매일 가니까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선거되는데 이 양반이 당선이 되어버렸어. 상공회의소 회장이. 옛날에 뭐했냐 하면은 협신정미소 대표를 했어요. 정미소, 협신정미소 대표. 그때는 정미소가 왜 좋았냐 하면은 쌀이 없었어요. 전부 그때 배급미란 말이야. 쌀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쌀을 먹지를 못했어요. 원체 돈이 없으니까. 안남미 그 당시에 안남미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먹지도 못해요. 아마 지금 먹으라고 하면 아마.

그래도 뭐 배급을 받으니까 다행이지 못 받은 사람도 꽤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럼 못 받은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미소가 그때 호...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정을 하는데 뭐 7도분인가 8도분 하는데, 한 번 깎으면 그 양이 엄청나데요. 한번 1도를 더 깎느냐 안 깎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게 도정 공장이 그래서 좋았고, 인천은 원래부터 군량미라던가 뭐 수탈해간. 일본이 수탈해갔기 때문에, 인천이 도정업이 엄청 발달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도정을 갖다가 한게 인천이고, 그래서 그 양반이 협신정미소 대표를 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백이 생기는 거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통신과장이 나를 뒷바라지 했는데 후견인이었는데. 그 양반은 그냥 경찰은 대개 오래 못 있잖아요. 2, 3년 있다 다른데 가고 다른데 가고 있다가 전복 경찰로 갔어요. 몇 년 있다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떠났으니까. 사실 나는 학부되는 건 없어요. 시골에서 그 6년제 졸업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채호 선생과의 각별한 인연

최고 후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매일 그때부터 새로운 승승장구를 하셨네요.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땅 끝 마을에서, 겨우 어떻게 시골에서 해방 직후에 학교가면 엉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뻔하지 뭐. 아니 그럼 해방 직후에 그냥 선생이 뭐 제대로 되었어? 그냥 학생이고 선생이고 엉망이지 뭐. 갑자기 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히 나는 그걸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냥 어떻게 되어서 내가 2년이 늦었으니까. 안되지. 참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막 그래서 들어갔다가. 막 그냥 겨우. 정말 엉망이지 뭐 한글을 뭐 제대로 배워서 그때만 해도 뭐 정말로 최현배씨가 뭐 맞춤법 뭐뭐 이런 식 아주 괴상한 것만 또 가르칠 때예요. 『우리말본』 해가지고 그런 참 어수선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제 채호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일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고 그래서. 키가 아주 단신입니다. 단신인데 담이 커요. 대단해요. 배포가 크단 얘기죠. 그리고 앞을 바라보거나 안목이 일반 사람들보다 낫어요. 그래서 인천에다가 수출 공단 만든 것도 그 양반이 아니면 못 만들었어요. 그 양반이 당시에 20만 평 인가. 20만 평 일거예요. 그때 허허벌판에다가 하는데. 누가 거 땅을 내놔요. 무얼 보고. 그 설득력 그 안목. 그 규합하는 거. 그게 난 대단해. 또 그 양반이 그거 때문에 인천에서 큰 공적을 인천 발전의 동력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출공단 기계공단 단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 공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은행. 지역자본 집대성해야 된다. 지역자본 서울에 유출되면 안 된다. 모아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경기은행 설립한 거. 그 69년 했을 거야. 69년

그래서 채호 선생님이랑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일身に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상공회의소 개혁을 하는 거야 그 양반 나름대로, 그 양반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그전에만 해도 상공회의소가 월급을 못줬어요, 재정이 나빠 가지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활동력이 좋아야 기업체에서 회비를 낼 텐데, 또 미미한건 안내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업도 벌이고 해서, 상공회의소를 대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인천상의보라는 것을 만들어요, 상공회의소 회보지 그러니까, 인천상의보, 상공인들을 일종의 상공인들 경제지, 한 달에 두 번 이제 주간이 아니라 격주간, 이제 만드는데 이 양반이 마침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부장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고 편집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회장이니까 배려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경기매일에 있는데 촉탁을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촉탁.

그러니까 원래 직장은 저쪽이고 이쪽까지 촉탁을 하셨네요.

촉탁을 그러니까 신문사 월급, 밥상을 뺀히 아니까 자기가 이제 신문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야 너 와서 촉탁을 해라, 촉탁 월급이 신문사보다 더 많았어요, 신문사 월급이 원래 박한 일이라.

그럼 그 당시 신문사에서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아 그걸 지금 모르겠네, 아니 하여간 그거까지는, 먹고는 살았어, 먹고는 살았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편집은 특별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거 뭐 지 부처가 있나? 사실 뭐 그때는 편집에 대해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거야,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하여간 특별대우는 해줬어, 그런데 원래 박하니까, 인천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촉탁 상임으로 내가 편집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또 신문사에 미안하니까, 그 인세를 경기매일에다가 맡긴 거야, 발행, 그러니까 경기매일에서는 속에서는 좋지 않지,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이 보더라도 짜식 뭐 한때 말이야, 이려고 촉탁을 뭐 시기를 하기 쉽단 말이야, 그런 거는 내 나름대로는 커버를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신문사에다가 그 인세를 신문사에 갖다 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유인물이 그때 인

제 수출 공단으로 만들고 막 그게 굉장히 유인물이 많이 나왔어. 기계공단도 만든다. 막 굉장히 활발하니까 그 유인물을 이제 신문에 다 맡기니까, 나는 회장 배경 그 역할을 해줬지 그래가지고 신문에 큰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나는 야단을 맞아도 신문의 입지가 또 나아지고, 어쨌든 인연이 닿고 인천 경제계는 아까도 했지만 상공회의소 채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인천 경제의 큰 돌파구하는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아마 경기은행 설립일 겁니다.

경기은행 설립하기로는 수출 공단부터 해야 할 거예요. 그 당시에 김우중이 개발이고 와이셔츠고 거기서 그랬거든. 대우상사, 와이셔츠 그렇고, 부평 자동차 아니 대우자동차 말고 저 지금 그때 새나라자동차였을 거예요. 새나라자동차 거기서 회비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걸 이제 뚫은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채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됨으로써 인천경제에 전환점이 내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정환 회장이라는 분이, 최정환 회장님이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예요. 대단한 분인데 이양반이 이제 채호 회장 다음으로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되었는데 73년도 통합 통폐합이 73년도죠. 73년도에 작업을 하는데 이제 난항이 걸리니까 최정환 회장이 지역대표로 거절 중재 역할을 서는 거죠. 안기부는 안기부대로 이 양반 내세우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이 양반 내세웠는데,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만 해도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안기부 별실 또는 경기도 수원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오면 상공회의소 7층에다 지사. 지사 룸을 만들 정도로 상공회의소가 아주 컸발이 있었던 거예요. 새마을 운동은 완전히 상공회의소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직장새마을을 하는 거 중심이 되어가지고 했죠. 그때 그 양반이 마지막에 3사 통합할 때 조인을 하면서 송수환 경기매일 회장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조인을 도장을 사인을 하고 나와서 최정환 회장한테 최정환 회장은 나하고 그때 전혀 모르는 사이지. 신문기자로서 그냥 내가 인사만 할 정도야. 그 양반은 나 모르고, 그럴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양반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송수환 선생이 최정

환 회장한테 이래야 된다. 오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문을 닫는다. 내일부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맡아 주쇼. 하고 그 다음에 인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7월 30일, 8월 30일인가? 31일인가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날 9월1일, 8월 31일일거야. 9월 1일 날 상공회의소를 출근하게 된 거지.



축구팀회합

선생님은 전반적으로 노는 시기가 없네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경인일보 5일 뒤 나간 것도 그렇고 이제, 나는 그냥 했어. 그 당시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편집국장이 수원 일을 하고 부하가 몇 명 있는데, 두 서명이 있는데 통합사 발탁되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한 두 명 세 명, 세 명 편집국장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나머지 못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

다른 직장 잡을 직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직장이, 직장이라고 해봐야 공장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거기다 신문에 있으면 직장에 서 환영을 안 해요. 반지를 얹지. 그래 가지고 상공회의소 가서 내가 거기서 15년 동안 근무를 한거예요. 아까 상의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전담을 하게 되면서 만들면서 90년사, 그렇게 편찬을 하게 된 거고, 채호 회장이 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첫 인상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송수환 회장이라는 분이 사람이 참 좋았어요. 대우 많이 해주고, 그런데 최정환 회장이 그 양반을 또 숭배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조?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내가 제하는

엄청 많이 돈 들어가는데도 그냥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해해, 이렇게 하지 일사천리로 이제 다른 데는 안 돼요. (어쨌거나 신뢰를 크게 얻었네요.) 네 그레가지고 90년사를 발행을 하고 15년 동안 정년까지 거기에 내가 55세에 그때 정년이었어요. 55세 정년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양반이 그만 두고 누가 또 했느냐면 이회림 회장 동양화학 회장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회림 회장 돌아가셨지. 동양화학 아주 대단한 업체잖아요. 개성 분인데.

아 이진 뭐 그냥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회림 회장이 나를 또 그렇게 그냥. 하여간 그 양반이 처음 와서 나하고 잘 모르니까 처음에 그 밑에 참모들 이상한테 얘기해가지고 마찰이 있으면 되겠다. 그 양반이 그 55세가 정년인데 나를 2년을 연장을 정년 연장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정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 때문에.

상공회의소 정년을 만55세를 만 57세로?

나 때문에 최초로, 그래서 어른들이 일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혼자는 못 산다. 누군가 특히 없는 사람 흔히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건 내 삶의 과정을 보면 참 필요한 거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혼자는 못 살아. 아 물론. 어쨌거나 하여간 그레가지고 2년을 내가 연장을 했어. 2년이 어디예요. 대단한 거지.

2년 동안 월급 받고 그레가지고 월급 받고 상무직 월급이 최고로 좋았어요. 은행하고 막상막하였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활발한 것이 정부에서 모든 시청을 상공회의소로 일임을 해버렸어. 자기들이 떠들지 못 한 걸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떠들게. 그러니까 좋은 예로 그 전에는 주유종탄. 정책이라고 있었는데 주유 주어 기름 종탄. 그러니까 하여간 그 연탄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인제 석탄에서 기름으로 바꾸는데 그거를 뭐 국민들이 아나. 모르니까 우선 경제 단체 상공회의소 간부들에게 난로를 줘요. 아주 싸게 해서 아님 월부로 해서.

주유종탄(主油從炭)의 일화

기름을 위주로 하고 연탄을 종속시킨다는 주유종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 종속된다. 그러니까 연탄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정책을 바꾼 거야. 잘한 거야 그런 거. 근데 인제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난로를 갖다가 말아야 그런 정책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마을운동도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보급시킨 거예요. 직장새마을 공장새마을. 다 바꾼 거예요. 특히 공장 새마을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인제 자동차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자동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운전할 줄 아나. 그러니까 하여간 상공회의소가 중심 돼가지고 각 기업체 임원들 간부들 내가 무조건 면허 따는 데 말아야. 그래 그때는 정부에서 그냥 해서 50%는 회사에서 대라 말아야. 그 비용도 회사에서 50%.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게까지 안하면 안 돼요. 아니면 운전 할 줄을 아나 자동차가 이제 막 생산돼야 되는데.

주유종탄 주유정책에 대한 사례는요?

그건 고속도로하고 자동차하고 연계돼 있는 거야. 아까는 소위 인명 사고 같은 거 정책 바꾼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하는 거고, 공교 새마을 같은 거고 물론 새마을운동이지만 국민정신, 시민정신 한 군데 다 물려서 소위 우민정책 이런 거 있자나 독재 들이하는거 스포츠 같은 거 말아야 한군데가 국민들 집중시키는 거. 그런 정책하고 비슷한 거지. 뭐 박수치고 그냥 국민들 그 쪽으로 몰리게 하는 거야. 소위 우민정책이라는 거 히틀러가 많이 썼지. 스포츠 같은 거 뭐 그런 거. 너희들은 그런 거 즐겨라, 정책에 관심 가지지 말고.

선생님 면허 있으세요?

난 면허가 없었어. 나는 그때만 해도 그거를 내가 안 한거야. 내가 어리석은 게 그거 당연히 따라 돼요. 따라 되고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나 나름대로는

그거 뭐 되나 내가. 기사 쓰고, 소위 시건방졌지.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 사실 내가 비교적 얌전하게 내가 남한테 욕을 안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난 건방지게 마음을 먹어.

아무튼 재밌는 얘기 주유종탄 정책과 관련된 것도 재밌었고요 상공회의소 2년을 더 근무하셨는데?

응, 2년을 더. 88년 87년도일거야. 내가 생일이 11월이니까, 87년 정년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인천일보 창간 기운이 싹 트기 시작 한거야. 내가 딱 퇴직할 무렵에 싹 트기 시작해서 무르익기 시작한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88년 7월 15일 날 창간됐는데 내가 88년 4월에 인천일보로 가게 된 거지. 창간 멤버로 인제 내가 가서 합류를 하게 된 거지. 그때만 해도 그때는 물론 누가 서포터 해 준 사람은 없었어. 글썽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근무를 했고 경기매일 편집 부국장할 때 경기매일 신문이 괜찮았어. 괜찮고 좋았어. 내가 쪽 편집을 했는데 편집 기구 면에서나 편집 아이디어, 편집 테크닉, 기획 난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졌어. 내가 경기도 1인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경기매일 시절의 일화

상공회의소 격주간이지만 15년인가 17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글썽 거기서 쪽 그러니까 나는 단 적이 없었어요. 쪽 해왔고 그래서 상의보가 비교적 평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도(道) 이상이기 때문에 신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천 아무리 큰일이라도 2~3 단 이상은 없어요. 하루에 한 건 나면 인천기사 한 건 나지 두 건 이상은 잘 없어요. 한 건 아님 두 건. 그것도 단수가 1단 아님 2단. 그래서 완전히 소위 공동 기사라는 거 15년 동안. 공동기사 그 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의보가 유일하게 그나마도 격주간이라도 발행이 됐기 때문에 나는 뭐 대서특필하는 사람 없으니까 일반 얘기는 못 쓰고 경

제 얘기만. 그러니까 인물 소개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많이 소개를 해줬지. 그래도 그 때는 하여간 그 때 언론 인천 변이죠.

혹여 그 때 편집을 해서 이게 상의보가 나갔는데 다른 게 잘못되어 한번 어디 불러가고 그런 적 없었어요?

아니 말할 수도 없어요. 상의보 있을 때도 내가 몇 번 곤혹을 치렀어요. 경기매일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거고, 경기매일 있을 때는 제일 큰 사건이 인천 제철이 서독에서 전기로를 들여온 거예요.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시운전 하다가 폭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 전기로가 들어왔는데 폭발을 했다고, 그 때 내가 편집 부국장 할 때 거든. 부국장 할 땐데 내가 편집 좌지우지 했으니까, 나보고 좀 만나자 그러더니 이렇게 됐으니 좀 막아 달라 좀 해 달라. 경기매일에 못 나가게 해달라고, 조정관이 와.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들어줬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 아 근데 내가 참 운이 짝았어요. 내가 불러 갈 뻔 했어. 오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안 나가고 피해있었어. 근데 사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장이 그 송영선? 그 사람이 서울 문리대 나왔어. 그 사람이 무슨 일이나 못 보낸다. 책임져도 내가 진다. 이 양반이 사장이 버텨준 거예요. 2~3일 동안을.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하여간 사표를 받아라. 못 받는데 옥신각신 했는데 그 양반이 결국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하나는 그 저 아까 채호씨 애긴데 내가 섬에서 간첩을 하나 잡았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그 것도 그 때는 경찰에서 점선 뭐 이래 가지고 그것도 보도를 한다고, 뭐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 당시 얘기는, 그게 점선을 해야 될 땐데 노출 되가지고 점선이 안 된다 그런 구실을 붙인 거지.

아 더 많은 간첩을 잡기 위한 방법이 노출된 거군요.

그거를 또 내가 글썽 별거 아니란 말이야. 잡았는데 무슨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 거리.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썽이 나더라고요. 전부 오라 가라 해서 내가 한 두어 차례 갔는데 아무래도 최소장이 경비소장이니까 두 번 갔는데도 계속해서 좀 강도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때 채호 회장 있었죠.

그 때 채호 회장이 있을 때 인제 내가 찾아갔죠. 상황이 이래 돼서 정부가 이래 가지고 끌려가서 두어 차례 조사를 받았습시다. 하니까 그래. 근데 마치 경찰국 국장이 채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채 씨야. 이 양반한테 전화를 걸더라고. 동생이야? 나야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랑 있는데 이제 내 사정을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 말 듣고 잘 처리 좀 해달라고 하고 알았으니까 일 보라고 하고, 거기서 내가 또 곤혹을 치를 뻔 했어.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 와가지고 그런 일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저 부천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명을 표시했는데 이게 또 오라가라고 한거야.

그것도 그럼 기밀이란 얘기지요?

응, 기밀이란 얘기지. 하여간 그것도 뭐 비밀비재해요. 근데다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5·16이 나가지고 무슨 파동이 붙었냐 하면은, 언론 사이비 기자 일소요?

사이비 기자들

사이비 기자의 소탕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응, 소탕. 사이비 기자가 많았어요. 하여간 신문사가 통신사, 신문사 해가지고 수십 군데 있었어요. 수십 군데. 뭐 해아릴 수 없었어요. 신문사가 부대야 부대. 그런 말도 나오고 했었어요.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5·16 나가지고 굉장히 얻어맞았어요. 많이 맞고 하여간 거기서 곤욕을 치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야. 내가 셋방 살다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보고 새책 요즘 신문사 사람들 바깥에도 못 나간단데 새책 신량은 괜찮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꺼릴 게 없으니까 뭐. 집사람이 그래요 요즘 신문사 무슨 일 있냐? 소문이 난 거예요. 인천 시내 바닥에, 소통 작전이 벌어지니까, 그건 뭐 사이비 기자가 원체 많았으니까 그럴 법해요. 특히 지방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인

론 계통에선 많아요. 통신사에서도 많았고 주간지고 뭐뭐 부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유, 헤아릴 수 없었어요. 수백 명 수백 명이 부대를.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던 거야. 부패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식해서 한 거야. 뼈끗했으면,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다는 얘기지. 파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파리가 구른 다음에 날아간 거 아냐.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었다는 얘기지. 인천만 나는 현상이 아니었어. 소탕이지. 그래서 이제 사회악 제거한다는 명목도 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5·18, 12·12 그 전하고 후 언론 분위기나 상공회의소의 분위기는 사건이 있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럼 많이 났지. 그러니까 나는 인제 5·16 나가지고 한 번은 겪었고 7.15 삼자 통폐합 겪고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인천일보까지 창간 멤버로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편집국장을 하다가 문서위원 하다가 편집장 거기서 내가 인천일보 편집장을 세 차례나 했어. 내가 세 차례, 인천일보 창간 초대 편집장을 내가 했어. 이래서 내가 한 10년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혼 시기에 주변 풍경에 대한 기억

선생님 신혼살림 하던 때 거기 율목동 수도 시설은 잘 되어 있었어요?

거긴 율목동이 중심지예요. 율목동, 경동. 내가 경동 살았는데 거기가 중심지예요 인천의 중심지예요 용동, 그거밖에 없었어요. 좀 나가면 송의동 경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 철길 있는데 화평동.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거기밖에 없었어요. 난 처음부터 거기를 떠나질 못했어요. 율목동에 살다가 경동에 살다가 율목동에 살다가 신흥동에 살다가 내가 이제 저 동춘동 이리로 이사 왔는데, 율목동에서 내가 오래 살았어요. 경동보다.

율목동에 미국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원로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

양반이 미국으로 돈벌이 이민을 가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신태범씨가 쓴 인천한세기 책자에 나와요, 김기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조선은행에서 달러를 환전 하려는데, 액수가 커서 모두 환전을 할 수 없었다지. 후손이 9남매인데, 김옥돈 이 거기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고 나에게 그 집을 판거예요, 나는 그게 미국 집인지 몰랐던 거예요, 박두성씨 점자 그 양반, 미국집 …… 그 권업소라고 인천의 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것도 율목동에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율목동에 있었는데 다 허물어버리고, 인천이 도시지만은 너무 잡동사니 참 문화라는 게, 율목동이 내가 참, 율목동에 오래 살았지만 참 아쉬워, 그걸 다듬어 봤으면 인천의 명소가 됐을 거야, 그냥 미로요, 미로, 얼마나 좋아, 유명한 집이 많았고, 박두성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훈민정음이죠.

그럼 훈민정음이지, 그 태극집이라고 나도 거길 지나갔어요, 때문에 태극기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태극집, 난 그때만 해도 태극집, 태극집 해서 막연하게 그 소문이 한참 뒤에 나가 됐는데, 인천이란 데가 그렇게 참, 율목동에 지나갔으면 보여요, 지금 뭐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건담 모퉁인지 건담 사거린지, 지금도 요즘 여기저기 보기 좋은 집들이 있죠, 그 양반이 김옥돈씨가 사랑 영화를 만들다가 흠뻑 망했어요, 인천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사랑.

사랑? 감독과 주연 배우는요?

그 때 일류 배우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 때는 적산가옥 많았죠?

그 때는 많았지, 그 때만 해도 부자 된 사람 많지, 전국적으로, 적산 가옥뿐

이겠어. 농토 소위 땅 같은 거 몇 십 원을, 차 한 잔에 50원인가 그랬는데, 차 한 잔 마시면 땅이 몇 평이냐고 그랬다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건 인천 도시변화 관련된 거. 참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금도 보존할 게 많은데 잘 안 하는 거 같아.

제6장



최영섭 _____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인천에협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서울 그린 오케스트라 전임 지휘자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한국예술가곡 연합회 명예회장

은관문화훈장 수상(2009년)

■ 채 록 자 : 이영태(인하대학교 강사)

■ 채록일시 : 2012년 8월 18일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6장 코리아 슈베르트의 끝나지 않은 여정

코리아 슈베르트

좀 천천히 잡수시면
서요, 화평동은 뭐 제
가 태어나고 제가 축현
초등학교에서 다녔는
데 선생님들도 그 근처
에 그 당시에 축현초동
학교가 일본인이 만든
학교기 때문에 있었잖
아요?

아 뭐 인제 나이가
벌써 여든 살이 넘으니

까 기억도 희미하고 그러나 기억나는 데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 내
가 현재 인천시에 뭐 중구나 이런 데서 태어나신거로 아마 아셨겠습니까만 그
실은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아 그렇습니까?

화도면 사기리 77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1929년에 강화에서 태어날 때는
그 일제시대 때부터 강화군은 경기도 강화군이었던거ですよ. 그러면 이제 먼 후일



구술자 인터뷰 중

에 해방되고 후일에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주변에 군 을 합치는데 강화군은 이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김포군은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참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화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 때문에 국민 작곡가, 국민 가곡 작곡가로 알려져 있고 허 참, 제가 분에 넘치는 대한민국 문화 훈장 은관 문화 훈장을 수훈하게 된 근본적인 것도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 너무나 잘 알려지니까 제가 참 은관 문화상보다도 저의 수상경력은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화려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할 정도의 상을 모조리 탔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된 원인이 제가 작곡가로서 뭐 관현악곡이라든가 기악곡 또는 합창곡 칸타타 무슨 오페라 여러 장르에 있어서 다른 작곡가보다도 제가 작품수가 많습니다.

다작이죠?

예 그렇죠, 아주 다작입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가곡, 가곡 장르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가곡집 상권 70곡, 중권 70곡, 하권 70곡 해서 210곡을 세 권으로 두껍지요, 피아노 반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권의 가곡집을 출판을 했더니 아 주변에서 별명이 코리아 슈베르트라고 하더니 진짜라고, 코리아 슈베르트가 제 별명인데 음악계에서, 아 그 별명에 걸맞게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 가곡의 왕 그 사람은 5~600곡이라고 하지만 사실 출판된 것은 300곡 이내입니다.

예 이제 곡은 그렇게 작곡했다고 하지만 없어지고 등등 해서 현재 그저 300곡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올해 11월 다음달 지금이 10월 말쯤 됐으니까 11월 20일 경에 4권, 5권이 나옵니다. 4권 70곡, 5권 111곡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300여 곡이 넘어섰기 때문에 출판된 곡 수로는 슈베르트 가곡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품은 산과 강과 바다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더 문제지요. 이제 그것은 제가 출판 해냈으니까 곡을 듣거나 성악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등등 소위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고 제3자의 몫인데 왜 제가 이 얘길 하나면요, 곡 중에 출판만 300여 곡을 정식으로 한 것 중에서 7할, 70퍼센트가 우리나라의 산과 강과 바다를 그렸습니다. 근데 또 왜 내가 이 얘길 하나면요, 제가 이제 강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 7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제가 태어난 곳에서 1Km, 2Km 안되는 지점에 우리나라의 개국을 선포했다는 단군께서 개국을 선포했다는 마니산이 있습니다. 마니산. 예 그 마니산은 원래는 옛날에는 머리산이라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산. 머리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죠.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지만 그 함경북도 끝하고 제주도 끝하고 이 중간은 강화. 마니산이래요. 한문으로 하면 마니산인데 우리말로 하면 머리산. 근데 사람들이 발음이 머리산보다는 마니산 한 것이 마니산하고 머리산의 중간의 발음으로 마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즉 단군께서 개국선언을 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참 개국의 선조께서 개국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은 참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의 개국사상밖에 없어요. 다들 개국하는 최고의 권좌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 나라를 크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겠다. 다 이런 뜻으로 개국했는데 단군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홍익인간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넓게 기르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홍익인간 정신. 또, 그리고 강화는 어떤 데냐 하는 건 아시겠습니까만 서울의 이조시대만 하더라도 경복궁에서 시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불렀다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면 서해 앞바다 쪽으로 해서 경복궁 쪽으로 쳐들어 가야 되는데 서해 앞바다를 통해서 한강 하류를 통해서 한강 상류 마포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도의 초지진, 광진진, 덕진진 이런 그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고 한강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와야 되

는데 그랬기 때문에 강화는 호국, 나라를 지키는 근본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그 초치전에서 싸웠던 그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그 투구가 마루 아래에 있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그걸 그냥 제일 좋은 곳에다가 모셔놓을 걸 몰라 모르고, 색깔이 빨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마루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상한 게 있어 하면서 그 때 다섯 살, 여섯 살 이럴 때 보니까 핏자국도 있고 참 그런 강화란 게 호국의 섬, 호국 정신의 섬, 개국 정신의 홍익인간을 선포했다는 그 섬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산의 노래가 많아요, 조국에 관한, 강에 관한 노래가 많아요, 바다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동해바다의 노래, 서해 조개잡이의 노래, 파스한 남해의 노래, 또 오케스트라 곡으로서 심포닉 포임 교향 시곡으로서 sunrise of east sea, 동해의 여명, 그 동해의 여명은 영어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sunrise of east sea라고 했지만 제가 그 심포닉 포임의 표지에다가 붙인 것은 순 우리말로 붙였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녘 바다에 해가 솟는다 한문이 하나도 안 섞인 순수한 우리말로 하나만 그렇게 길이지더라고요, 한 말로 하면 동해의 일출이거든요.

시인 한상익 선생과의 추억

한상익 선생님과의 추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글자 다섯 자인데도 순 우리말로 하나만 스무 자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 더 강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던 것이 훗날 제가 알게 된 인천서 6·25 전후해서 알게 된 작고하신 시인 한상익 선생, 바로 그리운 금강산 작시자이지요, 예, 그분하고 나하고의 콤비가 돼서 우리나라의 산과 강과 바다의 노래를 근 40곡 정도 작곡했다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고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왜? 나중에 적당히 친한 다음에 이제 고향 물어보고 하는데 그 한 선생이 한상익 선생이 그 미스터 최, 저보다 열다섯 살 정도 위시니까 미스터 최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강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강

화 어디? 아 저 화도면 사
기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
다. 그랬더니 아 이런 나는
바로 한 발짝만 옆에 있는
양도면에서 태어났다고 그
러시더라구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서로 남자끼리 막
껴안았어요.

이렇게 바로 4~500미터
사이에서 태어나 그 한 발
짝만 지나가면 양도면, 한

발짝으로 이쪽하면 화도면인데 태어난 집 얘기하니까 한 4~500미터, 5~600
미터 정도 떨어진 데서 15년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15년 후에 내가 태어났고,
그런 그 한상익 씨의 먼저 한강의 노래, 그러니까 모두 KBS방송국의 청탁입니
다. 한상익 씨는요, KBS에서 중요시 여겨가지고 한강의 노래, 낙동강 굽이친
곳, 압록강은 흐른다, 백두산은 솟아있다, 한라산의 노래, 동해의 노래, 서해의
조개잡이의 노래, 파스한 남해의 노래, 그리고 그 백두산은 솟아있다 이런데 이
것이 매주 제가 작곡 콤비로 작곡을 해서 오케스트라 반주, KBS 정향악단의
반주, 그리고 KBS 코러스와 독창자의 협연으로 녹음이 되어가지고 인제 방송
이 뭐 매일 되죠, 매일. 그런데 뭐 지금의 방송국, KBS가 먼저 남산에 있었습
니다. 남산에 있을 때 조그만 국이었어요. 공보처의, 공보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문광부 안에 있는 만도 못한 처거든요. 예. 거기 있는 국 하나가 바로 KBS방송
국이었습니다.

그 60년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여의도의 방송공사는, 아마 천 배 커졌을 겁
니다. 천 배. 그 조그만 방송국에서도 국가 예산으로서 청탁 작품의 사례금을
주면서 한상익 선생이 시 쓴 사례금. 요새 돈으로 하면 한 십 만 원 정도 되겠
지? 이게 그리고 요새 또, 그러니까 뭐 그 때 돈으로 말할 수도 없죠, 작곡료는
조금 많았어요, 요새 돈으로 한 이십 만 원? 한 배 정도로, 일이 좀 많으니까.

그리운 금강산

Key=C Major

독창곡 곡

♩ = 800



「그리운 금강산」 악보

그래서 이제 열 몇 곡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산과 강과 바다를 해서 방송에 나가니까 참 방송국에서 처음 애호가들의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뭐 가곡으로서, 유행가는 많아요, 유행가는 뭐 송민도 씨의 노래를 잘 들었다든지, 저 뭐 이렇게 하면서 한명숙 씨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를 잘 들었다고 그 팬레터가 오는데 가곡이 방송되고 나서 팬레터가 온 것은 저의 작품입니다. 저의 선생님, 김성택 선생이나 다른 현제명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그 윗분들의 작품이 나가도 팬레터는 안 받았는데 저의 그 이유가 아 한국 사람들은 속에서 들으면서 애국심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팬레터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은 그 남산 방송국 앞에 산길다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작품을 전달하고 나와서 차 한 잔 하는데 그 당시에 KBS에 국제방송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의 음악부장이라는 사람이 한용희 씨라는 사람인데,

한용희씨입니까?

근데 이분은 동요 작곡가예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이 나보다 네 살 아래입니다. 그 다방으로 들어오더니 어유 최 선생님 인천에서 오셨군요, 하지, 그 때 인천에서 살 때니까, 인천에서 오셨군요, 어유, 요새 선생님 노래 잘 듣고 있다고, 계속 우리나라의 강, 산, 바다 좀 하는 그런 뭐 설악산도 있을 거고, 뭐야 저 지리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 많이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최 선생 금강산 노래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 북한의 압록강은 흐른다, 백두산은 솟아있다, 이런 곡도 있는데 아니 왜 금강산 노래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차 그랬어요, 아차, 그래서 그 길로 한상익 선생한테 찾아가서, 그 때 인천으로 다시 와가지고 인천 살 때니까, 제가 그 63년 동아방송 서울 개국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한 선생을 뵈고 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난 벌써 금강산에 써 봤어요,

그래서 추고 중에 있었는데 이제 완성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가까운 시기에 시를 주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십시오, 다 됐으면 지금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 그래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원고용지에 쓴 걸 주시는데 원래

는 3절까지였는데 3절은 너무 기니까 2절까지 해도 되니까. 했더니, 아 관계없
데요, 2절까지라도 뜻이 다 통하니까. 그게 읽는 순간에 제 머릿속엔 벌써 오늘
날의 그리운 금강산의 벨로디가 그냥 떠올랐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강화.
어휴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강화에서 태어나가지고 강화 온수리 거기서
한 십리 채 못 되는 온수리 소학교, 소학교에 입학해 해가지고,

길상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SP레코드

혹시 길상초등학교 아십니까?

길상! 길상초등학교였지. 그러니까 세세한 건 그것만은 얘기를 못하고 그게 3
학년 외삼촌이 정말 격인대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도시로 보내고 망아지는 시
골로 보낸단 식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얼굴이 아주 명랑하고 참 잘 웃고 명랑했
어요. 누가 봐도 고 녀석 참 아주 명랑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로써는 칭찬으
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다음에 훌륭하게 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외삼촌이 우리 집에서 제일 학문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누님, 나보다 네 살 위의 누님을 우선 인천으로 그 다음에 서울
로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참 맹모삼천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
었는데 그 강화를 떠나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딱 시작할 무렵에 한번은 담임
선생이 절 불러요. 한국 그 한국 선생님이셨는데 음악을 이분이 오르겐을 좀 치
시는 분이예요.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오르겐을 친다는 건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강
화 벽촌에까지 와서 그 선생님이 섬마을 선생님이 거의 인천이나 경성. 그 때는
서울을 경성이라 그랬으니까, 경성의 소학교 선생은 오르겐 칠 수 있지만 그 사
범학교에서도 오르겐 잘 못 치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늘 그
선생님이 그 동요나 뭐를 오르겐으로 치면 참 좋아하면서 듣고, 뭐 그 소학교 2
학년 때에 겨울 같은 때 팽이도 치고 썰매도 타고 연날리기도 하는데도 그러다

가도 아 그 사기리에서 길상면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기 때문에 길상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사는 조그만 집. 조그만 집 길 건너에 조그만 의원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세 분 있는데 나보다 다 연배 되시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요. 그 셋은 아버지가 시골 의사인데 세브란스의전 나와 가지고, 양의사인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의사님이 손으로 돌리는 축음기 전축, 축음기에다가 SP레코드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서양음악만 이분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특히 종교음악, 할렐루야 코러스 뭐 이런 걸 좋아하셔서 시간 있으시면 그걸 본인이 손수 테엽을 감고 그 축음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즐기는데 아들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팽이치고 썰매 타다가도 그 의원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다 팽개치고 그리로 가요.

그 의사 선생님 집에 가서 뒤탈마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들어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김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 너 영섭이 요전에도 이 음악 내가 듣고 이러면 뒤탈마루에 앉았었는데 오늘도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네가 또 뒤탈마루에 앉아 있어 우리 애들은 다 내가 이 음악만 들면 듣기 싫어서 다 다른 데로 가는데 너는 반대로 음악만 들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구나. 그래서 아 들어와, 들어와 이러시는데 발이 더러워서요.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이래가지고 뭐 그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종교음악 특히 합창곡 그 중에서도 할렐루야 코러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분이 또 이제 오후 진료가 있으니까 한 삼 사십 분 동안 거의 이삼일에 한 번씩은 그 의사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얹전히 개구쟁이가 장난꾸러기가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자 나는 또 손넌, 의료, 환자가 왔기 때문에 갈 테니까 넌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 때 나가면서 저는 어려서 듣길 할렐루야 헨델의 할렐루야 이 합창이 어떻게 들렸냐면 할릴루야로 들렸어요. 할릴루야.

그래서 나가면서 늘 할릴루야, 할릴루야 하면서 똑같이 흥내를 내느라고 노래하는데 그 때가 아마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 때였는데 동네사람들이 저 녀석이 병원에만 갔다 나오면 머리가 돌았나봐 저 녀석이, 이제 동네 분들이 할릴루야 그러고 다니니까,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하던 때가 겨우 그 때예요. 여섯 일곱 살 때는 모차르트는 이미 작곡을 했는데도 난 겨우 좋아하는 걸 시작

을 할 정도가 되는데 그 한 번은 담임선생이 그 소학교 담임선생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막 올라갔는데, 좀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오르겐 옆에 조그마한 풍금이죠, 오르겐 옆에서 내가 치는 거 잘 들어요, 그러면서 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일본말로 보끄라노 헤이파이상, 그러니까 우리들의 병정, 그런 노랜데 짧아요, 짧은데 이 노래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쪽 치셨어요, 보끄라노 헤이파이상 야사사이 헤이파이상 이이쓰모 니꼬니꼬 보아라카데 이이상또 나루도 기쓰요 이인다 이렇게 치셨어요, 또 치시길래 내가 두 번째 치시길래 내가 그대로 음음음 이랬어요, 아니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이 노래 아냐? 처음 나온 노랜데 아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니까 따라서 하는 거 아녘니까?

더 깜짝 놀라시지.

아니 그래도 그걸 한 번 쳤는데 외웠니? 아 그게 외워지는데요? 내가 요 녀석 아 왜 불렀냐면 열흘 후에 조선 총독 미나미즈로 남치랑 육군대장 각하께서 전등사를 시찰을, 관광 시찰을 오신다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환영회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환영하는 뜻에서 나가 독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사가 잘 외웠더라고,

그 길상초등학교 바로 뒷산이 전등사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예. 뒷산이 이제 달맞이 산 뒷산이 이제 그 위쪽이 이제 전등사인데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누님도 아주 됐다고, 어찌면 너 목소리가 그렇게 좋고, 근데 지금 노래 못해요, 그러니까 대략 어렸을 때 노래를 많이 한 어린이는 이 다음에 잘 못합니다. 야 그 총독이 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그랬는데 누님이 보통 식사, 시골의 그 형편없는 식사를 그대로 시켰으면 좋은데 노래 잘하라고 없는 찬, 있는 찬 그걸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노래하나 한다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과식을 했던 말이야.

과식을 하고 관객이 되니까 두드러기가 나서, 이런데 얼굴에도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서 왜냐면 긴장을 했는데 장은 과식을 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보시

더니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유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
 창도 있고 하나가 혼자 노래하는 거 하나쯤 빠져도 되니까 야 걱정마라 됐다.
 가도 됐다. 어휴, 가도 됐다 한 시간 만에 두드리기는 낫더라고요.

걱정을 안 하니까 참, 강화하면 그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초에 이제
 외삼촌의 참 외숙부지만 그렇게 우리 생질부 외삼촌의 누님의 아들딸인데도 그
 려게 귀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초지에서 조그
 마한 범선에 타가지고 김포 쪽으로 가서 거기 김포에서 걸어서 인천으로 갔습니
 다. 어휴 김포에서 인천까지 가니까 그냥 하루 걸리는 것 같더구만, 어렸을 때
 걸으니까.

창영초등학교 시절 만난 미세스 헤시 부인

인천 경동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제 짜리재 경동애다가 외삼촌이 사진관을 하셨어요, 제일사진관이라
 고, 제일사진관 인천에서는 유명합니다. 초등학교는 창영초등학교, 창영초등학
 교를 제가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 때는 강화에서도 온수리에 있는 그 감리교 교
 회 유년부에 매주 나갔고, 그 인천에서도 창영교회, 지금의 창영교회가 아니고
 옛날의 창영교회건물 시대 때, 그 때 위에 미세스 헤시 부인이 있었어요, 미세
 스 헤시, 헤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분은 양육에서 사는데 나나 우리 누님을 그
 려게 귀여워했어요, 이국땅에 와서 쓸쓸해서 그랬는지 제가 굉장히 명랑 했어
 요 얼굴 찡그리는 게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웃고 있었어, 것 참 이상하죠? 그래
 서 그 주일학교에서도 귀여움을 받고 선생님들께,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으
 레 그 미세스 헤시가 불러서 유년부 학생 몇 명을, 우리 누님과 더불어서 몇 명
 을 초청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시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거
 기 아니면 어디 가서 초콜릿을 먹어보니까, 거기 아니면, 어유 그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초콜릿 먹던 그 맛이 지금도 이렇게 입 안에 있는데 그

러면 영어로 굿모닝 뭐 하면서 또 노래도 가르쳐요.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alls are raining, morning balls are raining, ding dong dang, ding dong dang’ 이걸 열 번 하니까 난 금세 외우잖아요. 그게 최초로 외국 노래를 그 미세스 헤시 부인한테 배웠어요. 참.

그 일본 노래 한 번 듣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린이 몇이 선발이 돼서 한 4~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일곱 명만 선발이 돼서 갔는데 누가 할 사람? 누가 할 사람이요. 라고 그 분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니까 좀 알아야죠. 누구 노래 할 사람? 그래서 네! 네!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나만 손들어. 그러니까 어휴 어린이가 음정도 좋고 아주 잘해요. 나 참. 음악을 할 팔자가 되어서 그런지.

피아노를 경험한 소년

피아노나 그런 건 선생님 그 때 어깨너머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길 지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창영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내가 한 학년이 네반입니다. 네 반 한 학년이에요. 남자 세 반 여자 한 반. 그래서 네 반인데 그 3학년 때 쫓겨 했지, 그 3학년 전체에서 쫓겨 했지, 4학년 때 쫓겨 했지, 5학년 때 쫓겨 했어요. 왜 쫓겨 했냐? 만날 운동장에서 팽이치고 구슬치고 딱지치고 자치기 하고 노는 거밖에 몰라. 이 외삼촌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쫓겨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내 방을 뒤졌어요.

한 번은. 특별 감사를 하셨지. 아 보니까 그냥 책상 안에 그냥 구슬도 깨끗한 구슬 조금 털 깨끗한 구슬 더러운 구슬 차곡차곡 책이 있어야 될 데 공책이 있어야 될 데 한 쪽에는 구슬이 있고 한 쪽에는 딱지가 있고 한 쪽에는 팽이가 있고 한 쪽에는 제기차기, 제기차기도 털로 된 거 뭐로 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아 이놈 봐라. 강화에서 데려왔더니 공부도 안 하고 풀지만 하면서 구슬치기, 딱 지치기만 했구나. 아주 호령을 하시면서 제가 별을 받았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바꾸니에 넣었어요. 바꾸니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이라고 하셔서 이고 자 나 따라와 하셔서 창영학교를 가는 거 예요. 경동이니까 멀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고개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교장실로 들어가시더니 교장이 꺾꺾 놀래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하니 나 학부형인데 애 공부하러 강화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녀석이 2~3년 동안 공부도 안하고 구슬치기만 하고 그래서 풀찌하고 그래서 저걸 교장 선생님께 헌납하러 왔습니다.

전부 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삼성 재벌보다도 내가 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난 무로 되는 거지 그냥. 다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워서 교장 선생님. 반은 한국말, 반은 일본말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고조 센세이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본말 반, 한국말 반 그래도 듣는 건 60프로는 듣는단 말이에요. 일본말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참 훌륭하신 외삼촌이신데 외삼촌 말씀대로 앞으로 공부가 1년 남았는데 잘 하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하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외삼촌이 눈물을 씻기시면서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놀기만 한다면 무엇 하러 강화에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또 그 때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네. 외삼촌.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5학년 풀찌로 올라갔는데 6학년 1학기 때 6학년 네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이 직원들이 난리 났어요. 5학년 말까지 그 학년의 마지막 풀찌인데 6학년에 올라가서 그 학년에서 첫째를 한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 교장 선생님 개는 놀기만 했다가 그 노는 구슬 이런 걸 외삼촌이 다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해서 바치고 나서 공부하니까 저렇게 됐다. 아주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게 뭐 그 때는 3학기인데 1학기, 2학기, 3학기 다 1등을 해가지고 소위 그 때 경기도지사 상을 탄다는 게 어려울 텐데 지사 상을 탔어. 아주 그냥 화셋거리야. 바닥에서 뭐.

신문에는 안 났어요?

그 때는 뭐 신문. 이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제 진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창영초등학교 1등으로는 아마 최소한 경기 아니면 경북 서울에. 가야 되거든. 근데 알아봤더니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능 계통에는 경북이 강하더라고요. 김승열 선생도 나오셨고 뭐 등등. 그리고 주로 경북은 예능, 예술계에 또 경기는 법관, 정치 주로 지금도 그래요. 경북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누님이 말리는 거야.

그 때 누님이 이화고녀. 지금 이화여고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는 이화고녀라고 했어요. 여고를 거꾸로 고녀. 이화고등여학교, 이화고녀 다니고 있었는데 뭐 일제시대 때 해방 후도 좀 그랬습니다만 이화고녀에 겨울에 세일러복은 참 멋있었어요. 그린 타이에다가 세일러복 정말 이화만 하더라도 참 이렇다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경기 이화는 아주, 그 다음에 숙명, 진명 뭐 이렇게 되는데, 누님이 기차 통학을 했어요. 인천에서. 매일. 그러니까 누님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절 설득하면서 좋긴 좋은데 너 경북 말고 어딜 시험 봐도 된다. 너의 실력이면, 그렇지만 이 기차 통학이라는 게 어렵다. 그러니 인천중학교, 인천중학교는 조선 사람이 두 반인데 한 반에 두세 명, 조선 사람. 그 나머지는 97프로는 일본 사람.

일본 학생들이죠?

일본 학생이죠. 그러니까 일본 학생도 여러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괜찮아야 돼. 그 다음엔 다른 학교 쪽으로 갔는데, 아 그럼 뭐 인천중학교로 진학해야죠 뭐. 누님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천중학교에다 넣고 뭐 시험 준비도 안 했고 내가 시험 보는 날 갔어요. 가서 쳐 보니까 시험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한 20분에 다 써놓고 난 그냥 천장만 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합격 발표를 보니까 전 입학생 중에서 열넷 쯤 더라고 뭐 많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수학 저 샘플 문제는 재검토도 안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거 뭐 이렇게 쉬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쯤 됐을 때는 벌써 일본 말이 거의 99프로입니다.

프리 토권이 가능하고요?

인천중학교 1학년 때 이미 105프로, 100프로를 넘어서 조선말, 한국말은 100프로고, 왜 105프로냐면 일본말가지고 하루에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105프로가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조선에 대한 역사도 일본 역사보다도 덜 알고, 옛 글도 일본의 고어보다도 덜 알고, 그러니까 뭐 옛 글을 거의 해방 후에 알았지 뭐 일제시대 때 잘 모르고 일본의 망요슈라던가 코지키라던가 역사 소설만 해도 삼국지, 미야모토 무사시 뭐 이런 그냥 소설 문학 작품이 보통 삼국지만 해도 26권이 되고 또 미야모토 무사시도 18권이고 그런 거 그냥 탐독하고, 또 일본 문학이 셋어요, 군국주의가 일본의 문제였지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순수 예술인 들의 순수한 작품은 세계가 알아줬습니다. 예,

흔히 야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역집, 하이쿠 이런 것들요?

네, 그렇습니다. 만역집이 만요슈, 그러니까 만요슈가 노래예요. 하이쿠도 그렇게 단가도 그렇고 뭐 지금도 수 천 개를 외고 있는데 창피하게도 우리나라 용비어천가는 정읍사하고 첫 머리 조금 하하 참 이게, 참 요상한 시대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때에 이제 대동아전쟁이 딱 이제 시작이 되고 군사훈련 뭐 1학년 때도 무지 무지 하게 받았어요, 집중하면서, 아이 뭐 그냥 이 훈련 때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도 뭘 어느 동작을 잘 해도 뽐 맞고, 자식아 너 일본 놈보다 왜 조선 놈이 더 잘해, 잘 한다고 맞고, 못하면 이 자식아 조선 놈이니까 못하지 이러면서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인천중학교를 내가 못 잊어버리는 것이 1학년 때 내가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밴드부에 들어가서 우선 플롯하고 클라리넷 하는 사람이 없데,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하겠다. 그래서 악기를 빌려다가 집에서 그래서 교칙본 보고 플루트하고 클라리넷을 내가 연습을 하고, 또 집에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헌 바이올린도 연습을 하고 세 가지 악기를 음악적인 저거 재능이 있으니까, 뭐 독습도 잘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누나가 그 플루트로 무슨 노래 한 번 해봐 하면서, 그 악기를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밴드부니까, 권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강당 옆에 밴드부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강당 정문 왼

쪽에 아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까만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강당을 의식 때 말고는 사용을 안 하니까 비울 때 체육이나 뭐 조금하고 아니 그랜드 피아노 위에 그냥 먼지가 1센티미터 가까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서요?

아니. 이진 잠겨있고. 먼지가 쌓여 있길래, 어휴 좋은 악기가 먼지가 이렇다니 집에서 기름걸레 기름 같은 거 좀 묻혀 가지고 다 닦았지. 반짝 반짝하게 닦고 기름걸레를 악기창고 한 구석에다 이렇게 두고 이틀에 한 번씩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닦고 있는데 그 교관이 봤어. 잘 하면 잘 한다고 혼을 내주고 못 하면 못 한다고 혼을 내준 그 교관이 가다가 어 저 놈 봐라 저 놈 나한테 놀야단맞던 놈인데 그 때 그 분이 일본 소위 인가 그랬어. 그래서 장교였어요. 일본도 차고. 학생은 거기서 뭐해? 그래서 이저 기름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 먼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한 이 삼일 하루 이틀마다 닦습니다하니까. 그 귀군은 피아노가 치고 싶었는가? 아 이르다 말씀입니까. 이게 잠겨 있어서 못 치고 닦기만 하고 있는데. 그 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자네 밴드부지? 예, 그렇습니다. 음.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랜드 피아노를 귀군한테 맡길 테니까 안에 건반도 깨끗하게 하고 연습해도 되요. 아 이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얻었어.

그 날부터 플루트, 클라리넷은 밴드부 부장이 하라는 것 만 하고 또 역시 독학으로 바이엘, 바이엘을 다 땀어요 혼자. 그런데 누나 친구가 이화여전 피아노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 동생이 바이엘을 혼자 다 땀었는데 한 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바이엘을 저 후반부 끝 연주를 했더니 야 이걸 어떻게 오른손보다도 왼손을 적게 치는 걸 알았냐고 하니까 그래야지 듣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했더니 어 그럼 정식으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체르니 30번부터는 그 누님의 친구 저 이화여전 피아노학과 학생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3년을 하니까 아주 교회 가서도 찬송가 가지고 다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중학교 3학년, 아 해방이 3년만 늦게 됐으면 나는 특공대에 갔을 거 예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이미 벌써 나가서 일주일 훈련받고 죽어 돌아오고 시체는 저 유골 돌아

오고 이럴 때 거든요. 야 한 3~4년만 늦게 해방이 되었더라면 1950년에 해방이 되었더라면 난 가미가제 훈련 받고 비행기 타고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45년에 참 천우신조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그 때 돼서 그러니까 그냥 그 일본 중학교가 그렇게 싫었어.

이제는 기차 통학 아니라 뭐라도 된다. 경북중학교에 편입 광고가 났길래 편입 시험을, 아 또 인천중학교 영어 지독히 했어요. 왜 지독하게 했냐하면 이놈들아 너희들은 영국하고 미국을 일본이 이기면 다스려야 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니들이 관리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야 돼. 안도센세라고 그렇게 장려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영어를 참 잘 하거든. 이제 또 그 선생한테 뽕을 맞아요. 야까는 교련 선생하고 그랬고, 너 왜 다른 사람은 이프이즈 어 당꼬라고 하는데 넌 왜 잇 이즈 어 탕크라고 그래 이놈아 발음이 왜 제대로 되었어, 어디서 배웠어? 사실 그 미세스 헤시의 영향이 있거든요? 주일날 마다. 이거 뭐 영어 발음 잘 한다고 맞아, 교련 잘 한다고 맞아, 못 한다고 맞아, 좀 맞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렇죠, 조선 학생이기에.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여기 연대, 경북, 효자동에 와서 시험을 보니까 영어를 보는데 거의 영어가 수준급이니까 그냥 무조건 합격이 되가지고 밴드 부장이 되었지. 밴드 부장이, 내가 지휘도 하면서 상급생들이 질투하는데도 선배만 하고 우리는 못 하거든. 3년, 저 2년 선배 되는 분이 훗날 숙명여자대, 경대 피아노과 주임 교수 구연서 교수가 2년 선배고, 1년 선배가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였던 원경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밴드 끝나고 나서 음악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뚜껑 열고 아무도 안치니까 제가 적당한 걸치니까 그 2년 선배 구연서 씨가 사실은 폐가 나빠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2년 선배지 사실은 3~4년 선배예요. 오더니 어디서 했어? 그래서 우리 누님의 친구 되시는 이화여전 피아노과 학생한테 배웠습니다. 음 그런대로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사사해. 그 분은 이애내 씨 당대 최고예요 8.15 해방이 되니까 피아노 이애내 선생이라면 바이올린은 그

분의 남편 안병서 씨가 최고고, 그 분의 제자인데 쇼팽, 베토벤 리스트를 치는 걸 보니까 내가 눈이 이만해졌지 이런 분이 어떻게 학생으로 있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 분이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완전히 친형제 같이 날 귀여워하면 서 아무도 나한테 말도 못 붙이게 해.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이고 4학년, 5학년인데 4학년 나보다 한 반 위의 학생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냥 막 공부하려는 학생인데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를 아꼈어. 그런데 베토벤, 모차르트, 베토벤까지. 지금도 제가 모차르트 소나타, 베토벤 소나타 잘 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얼굴이, 레슨 할 때마다 얼굴이 좋지가 않아. 구현서 씨가 나중에 교수가 된 분이 선배님, 왜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하니 자네는 음악성이나 모든 것이 다 좋데. 근데 이 손가락이, 손가락이 짧네. 이게 뭐 잘 되나 베토벤까지는 몰라도 이게 쇼팽 리스트에 오면 도저히 어렵네.

손가락이 길어야 된단 얘기죠?

길어야지. 그렇다고 여기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보드시피 짧아요, 뭉툭하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태껏 피아노 공부를 한 것도 다 이 다음에 쓸모가 있는 거니까 이제라도 작곡 쪽으로 돌려라. 그렇다면 선배님이 간곡히 내가 이다음에 대 피아니스트가 못된다면 좋습니다. 해방되는 해 가을인데 아주 작곡 시작해도 빨리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출, 연출로 이화대학 음악대학 교수 임동엽 교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문하생으로 들어갔지요. 아 참 6·25 49년에 제가 인천에서 제1회 작곡 발표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때 해방이 되니까 학제가 변경을 해서 일제시대 때는 5년제였는데 6년제로 되더라고요 미국하고 똑같이 고등중학교라는 이름으로서, 그게 6학년 때 제 1회 작곡발표회를 인천 미국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게 스무 살 때겠죠? 선생님이 29년생이니까?

뭘 알아흠 이 때, 그 대신 3년을 하루에 3시간 잤어요, 화성학, 작곡법, 악기 배우는 것, 등 등 공부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임동엽 교수도 덩

달아서 좋아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났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없는 것 책을 나한테 주면서 이걸 말이야, 어떤 건 요새 돈으로는 한 권에 50만 원짜리 레임스키콜사코프의 관현악원리라는 책 같은 건 지금 50만 원으로도 못 사요, 그걸 두 권으로 된 걸 딱 주더라고요, 기념으로 준다. 잘 간직해라. 레임스키콜사코프, 작곡가예요, 러시아의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저술한 관현악법 원리라는 게 최고의 책입니다. 본인이 애지중지 하던 책을 기념으로 줄 정도로 절 귀여워했어요, 그 인정받기 전 까지 호된 훈련을 했고 내가 그 분의 시련의 숙제를 해낸 것 때문에 나를 시험해보느라고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한 권 음악 노트에 화성학 연습 문제를 해왔지만 한 번에 음 하나 틀렸어, 안 돼, 다 찢어버려요, 오지마라, 나중에 봤더니 나를 시험하느라고 그랬던 거야, 오지 말라면 안 오면 그만이니까,

근데 내가 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지 뭐, 지난주엔 잘 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미스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음 그럼 한 번 봐야지, 음 이번엔 없는데? 음 애췄군, 하면서 숙제 내주시거든, 고등화성학까지 어휴 지금 뭐, 나만 건디지 난 엄할수록 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깐, 그래서 친아들같이 해주시고 나중에 레슨 비도 다 필요 없다. 음 너는 내 제자니까 그거 하나로 됐다고 했어요, 6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초가 되었는데 아 작곡 발표회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되겠습니까? 아 그동안 내 밑에서 곡 지은 것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어요, 피아노곡, 바이올린곡, 가곡,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해에 1학기 초에 49년 초에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가 그 때 서울신문에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니까, 조선이 아니고, 중학생이,

그 몇 월이죠? 서울신문, 49년, 몇 월.

글쎄, 49년 한 6월 말 즈음 아닐까, 그 후에 54년인가 제1가곡집 소라가 출판 되었을 때에도 나운형씨가 서울신문에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정말 불철주야로 공부했습니다. 남들 다 시시덕대고 놀고 또래하고 연애하고 그럴 때 참 이를 악물고 제가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번 해보야겠다. 근데 인천에 있을 때 내 먼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내 초등학교 때인데 최순

용씨라는, 최순용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먼 친척으로 알고 그래서 그 집에 가끔 놀러가고 그랬는데 그 분이 동경 고등중학교 작곡반 졸업했데요, 이 분이 폐가 나빠 가지고 요양 중에 내가 만났어요, 그게 폐 때문에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못 가게 해가지고 날, 폐병이 전염될까봐, 그래도 어머니의 눈을 피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작곡한 과거를 얘기하고 벽에 걸려있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 프랑스 작곡가 드비쉬 그 로드아실 드비쉬 라고 하면서 인상주의 음악의 시초, 창시자라고 완성을 한 작곡가다. 나는 저 사람을 연구하느라고 폐병까지 걸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나의 가곡의 어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느 곡은 드비쉬 스타일로 그 어렸을 때 최순용 친척 선생님의 생각이 나서 인상주의 수법으로 피아노 반주를 많이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 우연이 모두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 있어서든지 그런데, 그레가지고 49년에 서울 음대, 아 그전에 하나 재밌는 것은, 아 서울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인천 얘기 해야지.

인천 시절 도시풍경의 변화와 예술인들에 대한 기억

아 예, 인천 도시 관련된 거, 창영초등학교 다니실 때요, 주변 민가나 선생님 저기 경동에 사실 때 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 등등, 공중화장실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뭐 백열등에 손으로 하는 건데 정전이 되는 일을 별로 못 봤어요, 정전이 되는 건 30와트 켜면 괜찮고 그것보다 흐린 걸 다들 컸어요.

그러니까 30와트에서부터 백열등이었고, 하얀 길 썩었던 건데 정전된 기억은 없는데 전기 사정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수도 사정도, 수도 사정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여름에는 수돗물이 뭔지 땅에 깊이 안 묻어서 그런가. 요샌 깊이 묻습니까? 다른 것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이 묻어야지만 여

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안 얼고 좋단 말이죠. 그 때는 기껏 해봤자 아스팔트 아래에 3~40센티미터 정도에서 묻으니까 여름에는 미지근하고 겨울에는 곧잘 동파가 되고 길가에서 보면 인부들이 이렇게 수도 고장난 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 그 경동 사실 때 거기 애관극장도 있었을 텐데요.

애관극장이 있었죠. 근데 뭐 학생들은 못 들어가니깐 아 뭐 요번에 애관극장이다 그러더니만 나중엔 장광순 씨가 인수를 해가지고 신신예식장으로 됐었죠? 신신예식장으로 됐었고, 그 장광순 인천 갑부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시대 때부터 갑부 소리 들은 것은 장광순 그 분 이었는데 그래도 그 분이 여동생 그 장보원, 나중에 연세대 피아노과 주임교수 하다가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말만 못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연령이 됐죠.

같이 인천에서 활동하시던 우리나라의 파이프로르겐, 오르겐 연주의 원조라고까지 할 수 있는 최성진 선생, 또 부인 되시는 소프라노 김순 ……, 아 이름도 잊어버렸네. 최성진 부인 사모님 참 저를 아껴주시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놀러가가지고 제1회 작곡발표회 때 피아노 반주를 그 최성진 선생이 해주셨을 정도니까. 인천 미국문화원, USIS라고 그랬어. 지금 중구청 뒤, 2층에서 초만원이라야 250명 들어가려나, 서울서도 많이 왔어요. 중학생이 작곡발표회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발표회는 뭐 그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였나요?

아니죠. 다 초대. 하나 재밌는 것은 프로그램을 등사판에다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래도 그걸 잘 했어요. 그걸 내가 집에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남아 있어. 어떻게. 그거 하면 그냥 감개무량이에요. 눈물이 훌쩍 나요. 이 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요새는 고생 안 하는 거지 뭐. 김정순 선생, 최성진 선생의 부인이 소프라노 김정순 선생. 그리고 피아노는 장광순 씨의 여동생 장보원 선생. 특히 그 세 분이 저희 우리 시대에 3대 음악가, 인천 출신의 3대 음악가입니다. 그 김정순 씨도 율목동 갑부집 딸로 또 장광순 씨 갑부의 여동생 장보원 선

생, 최성진 선생은 원래 그 분이 평양에서 일제시대 때 경성 쪽으로 이사를, 부천 쪽으로 이사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평양 학생 시절에 라츠베리 선교사한테 오르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오르겐을 연주를 잘 하시고, 물론 피아노도 잘 하시고요, 오르겐을 좋아하셔서 참 바하하고 정말 최성진 선생이 오르겐을 치는 거면 제대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셔가지고 KY, 기독교 방송국에 편성국장을 하시다가 숭실대학의 파이프오르겐 강사로 나가시고 서울에 있는 유수교회에 성가대 반주자에게 파이프오르겐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분이.

주로 오늘 선생님 얘기는 음악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몸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게 경동에 계셨으면 그 당시 그게 인천의 명동이잖아요.

아니, 인천의 경동은 서울의 명동이 좀 아니고, 인천의 명동은 역시 신포동 쪽이고, 그 당시에 신포동 쪽에 혼마찌라고 있지.

근처니까 그 시장에 대한 그 기억, 주로 어떤 음식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가서 많이 먹더라, 뭐 냉면은 어디더라, 그런 식생활 관련된 기억도 소개해 주세요.

허허, 그 경동에도요, 경동 짜리제 언덕에도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유킨도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유킨도는 잡화상 및 문방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나 연필이나, 사러 들어가고 또 장난감 또 과자, 과자라 해봤자 일본과자. 그게 잡화점인데 그 유킨도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통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훗날 얘기 들었더니 그 아마 혈압 때문에 작고하셨다고 얘기들었는데, 그 유킨도, 일본말로 유킨도인데 그 주변이 또 신포동 쪽에 변화가 그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좌우 한 50미터 정도만 그렇고 그 아래로 가면 지금 경동 파출소가 있나?

경동파출소 쪽만 해도 벌써 그 철로를 넘으면 벌써 그 못 사는 한국 조선 사람 마을이 이렇게 되니까 그 경동 파출소부터 짜리제로 올라오는 언덕이 조금

씩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 신포동으로 가야지 일본 사람들이 아 그런 뭐 서울의 명동하고 뒤지질 않았습시다. 일본 회식집 많았고 옷가게 많았고 그 무슨 책점 많았고, 서점이 많았고, 지금 그 일제시대 때 인천의 그 신포동 1번 변화가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책방이 다섯째 집 간격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1천집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야. 이게 큰일이예요.

그럼 서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섯집 마다 하나씩 그럼 주로 일본책이랑 뭐 책파는 게 주간지, 일간지도 있을 거고.

그 때는 뭐 주간지, 일간지 없었어요. <<인천신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어릴 때는 신문 안 볼 때니까, 해방되면서 <<인천일보>>, 그 분이 이름이 송 씨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후신이 지금 인천 무슨 일보, 그 조수일씨 그 문화부 부장을 하시면서 조수일 씨가 시인으로서 한상억씨하고 쌍벽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한상억 씨 주변에 그 분들이 해방 후에 지금은 문예총이라고 하죠? 예술단체 총 연합회 서울 본부 지방 각 지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 문화단체 총 연합회, 문총이라고 했죠.

문총의 총 본부는 저 조선일보 뒤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데 인천이 그 때 경기도의 인천이니까 문총 인천 지부장을 한상억 선생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일 씨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부장 때문에 약간 대립되어 이분들이, 나보다 다 선배되시는 분들이, 그 투표할 때 보면 총회 때 두 사람이 후보면, 물론 교대로 하셨지만, 좀 그랬던 느낌이 나고, 또 얘기가 어렸을 때 인천시까지 얘기하다가 별안간에 해방 직후의 인천 그 예술계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음악인들은 음악하는 사람은 최성진 선생, 장보원 선생, 김정순 선생 그렇게 원로시고, 그 아래로 이제 우리 토래, 우리 토래는 나와 또 테너 백석두 씨라고 있었어요.

LA가서 세상을 떠났어. 최성진 씨나 김정순 씨는 세상 떠나시고 장보원 선생은 아직 LA에서 아직 돌아가셨단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 하던 원명희, 박상만, 그리고 개명을 한 것이 박진태라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위인데 참 그 인천 오케스트라, 황무지에서 인천 오케

스트라를 구성하고 제가 지휘를 하면서 화려했었던 사람인데 그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오케스트라에 KBS 교향악단의 수석 첼로 연주하던 양재표, 한국 최고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참 레슨하느라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그 부인이 자녀 미국에 유학을 시키느라고 미국에 가 있으면서 남편이 번 돈을 유학 자금으로 쓰게 아니고 사이버 종교에다가 모르고 헌납을 해가지고 경제가 좋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럭저럭 살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작년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고 또 첼로하는 홍경표 씨라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 3년 정도 아래. 또 그 홍경표 씨의 형 홍훈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비올라 했어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안승호라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은 바이올린 실력보다도 인천 음악계를 행정적으로 휘어잡으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행정가로서 역량이 뛰어났군요?

예. 그 분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6.25 전후 해서 음악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저 하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에 김중섭, 인천시립 교향악단 초대 상임지휘자였었던 김중섭 씨가 작곡 잘하고요, 사람 참 착실하고 얌전하고, 그 이제 음악도 그런데 음악은 주로 작곡.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수덕 씨라는 분이 그 작곡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센데 작품이 없는 작곡가예요.

그 분하고 첼로치는 한 분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첼로가 좋았는데 두 사람은 6.25 때 사상 문제로 월북을 해버렸어요. 월북을 했는데 도중에 폭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있고, 또 6.25 전후해서 숙대 성악과 나온 박, 여자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6.25 되기 전에 이제 특히 음악도 그렇지만 문학은 조수일 선생, 한상익 선생, 최성현 시조작가 이런 분들과 임진수, 시를 쓰는 또, 이인석 시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였고, 또 미술계에는 김학수 화백, 돌아가셨고 김찬희 화백, 돌아가셨고 또 황추 선생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인천의 랜드마크와 월미도

선생님은 혹시 일제시대 때 존스톤 별장 그 끝에 보면 양관처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억을 해주세요.

인천각. 제가 인천중학교 다닐 때 바로 아래가 인천중학교니까 삼 년동안 인천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제시대 때 한 달에 한 번은 그 양관에 갑니다. 일제 말엽에는 호텔 비슷하고 양식인데 이미 호화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라야 뭐 우동, 기껏해야 오므라이스 정도나 그 양관에서 그 집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형식이 나왔고, 어찌다가 커피를 사기면 아 커피 원료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못 마실 시대였는데 하나, 그 양관이 스페인 사람이 지은 걸로 압니다. 그 양관이요, 대한민국 통틀어서 그렇게 맛있는 양관이 없었어요.

전 조선,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데 6·25 때 폭격당해서 없어졌잖아요? 제가 그 양관이 적지도 않았어요. 참 아주 웅장하고 크고 마치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여러 건물을 볼 때랑 똑같았어요.

그 현관의 메인프론트 위에 돌계단을 올라가면 양쪽에 석주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기둥이 마치 로마 궁전의 기둥 같은 게 두 개 있고 그 왼쪽에 그 건물 지킨 데는 하나의 남자 병사 같은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철기 가면, 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하죠.

투구를 쓰고 그 건물을 지키는 가드처럼 동상같이 구석에다가 해놨는데 그 동상의 눈이 스페인을 향해 있어요. 서쪽, 그 방향이 스페인을 향해 있다는 그 얘기만 들었죠. 스페인을 향한 이유가 그 양관을 지은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무역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버는 것 중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 돈 버느라고 정신 없는 사이에 사랑을 떠난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도 못하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는 실연을 당하고, 돈 있는 실연 당한 사람으로서 스페인에 살지 않고 동양 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인천에 와서 그 양관을 짓고 그 가드의 눈을 스페인 쪽으로 그 여자가 사

는 쪽을 향해서 했다 그래서. 참 로맨틱하고 좋다.

그 양관이 그 앞에서 봐도 그렇게 웅장한데 예를 들어서 덕적도에서 인천 항구 쪽으로 들어올 때 보거나 강화도에서 감성환이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왜정 말년에 군에 중발 당했지만 감성환이라는 것이 아주 괜찮은 배였어요 그야말로 준 배슬크루즈 배예요, 준 자는 붙여야 되요.

크루즈는 아니지만 크루즈에 준한다는 거죠?

준할 정도로 멋있었어요. 야 그건 아주 뭐 벌써 엔진 소리만 들어도 통통배가 아니고 큰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엔진 소리. 기관실을 이렇게 보더라도 다가다다가다 소리가 아니예요 스무스하게.

예를 들어서 지프차 엔진소리하고 벤츠600 엔진소리 다른 것처럼 사악하고 지나가고 한 쪽은 다가다 다가다 하고, 배의 엔진이 그 정도로 큰 배를 타고 강화에서 초지에서 월미도를 요렇게 돌아오면 그 양관이 전 인천을 대표하는 게 하나 서 있어. 인천 랜드마크인데, 아 그 6·25 때 보니까 폭격을 당해서 없어졌는데 참 아까워요.

그건 역사적인 양관입니다. 전 한국을 통해서 그런 멋있는 양관은 서울에서도 본 일이 없고 부산에서도 없고 그게 가장 인상이 커요. 그랬어요, 그 양관이. 그 제가 음악도 좋아했지만 문학에 또 심취해 있었던 터라 모파상이라든가, 무슨 톨스토이라든가, 도스토예프스키라든가, 또는 앙드레 지드라든가, 괴테, 하이네,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나 셰익스피어. 저는 음악 이상으로 문학에 미쳤어요. 내가 소설가가 됐으면.

월미도 이런 기억들 해수탕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는데 서울에 대한민국의 돈이 10분의 6이 한 도시에 몰려있습니다. 10분의 6내지 7이 서울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저 3할, 4할 전국에 합해봐야 3할, 4할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여름에 해수욕을 즐기려고 어딜갑니까?

부산 해운대하고 대천 해수욕장하고 경포대갑니다. 세 군데 쪽으로 가요. 왜

여름에 전국 사람들이 수영하면 인천 송도 아니면 월미도를 생각했는데 왜 그 반대하게 발전한 인천에 월미도에 인공 해수욕장과 인공 조타당이 없느냐 이거야. 바닷물을 끌어서, 그 두 가지 인공 위생 해수욕장, 인공위생 조타. 이것이 송도 하고 월미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월미도에 있었던 건물은 너무나 일본식이야. 그 조타하고 풀 건물이 반은 서양인데 반은 일본식이야. 그래서 맘에 없어요, 맘에 없는데 인천가면 110프로 양반이야. 그리고 월미도에 있는 것은 20프로 서양, 80프로 일본 느낌.

아 그게 군사기지가 잠깐 되는 바람에 완전히 사라졌죠.

어쨌든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송도에도 그래요. 천연 위생 해수욕장, 위생자가 붙어야돼요. 해수욕장 하고 송도는 보트장이 있었습니다. 보트장이 있었는데 보트장은 다목적 보트장이예요. 만조 때 보트장이 그 문학운동장 보다도 두 배 돼요. 그렇게 큰 것이 보트장인데 다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트해서 입장으로 돈을 벌지만 만조 때 바닷물을 받아 놓고 깊이가 4~5미터인데 인공으로 그렇게 시멘트로 해서 보트장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해수를 담아 놓는데 인천 앞바다에 해수가 더럽습니다. 더러우니까 거기다가 저수를 시켜놓고 태양에 일광욕으로 소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위생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름에 한 번만 체인지 하더라도 깨끗해요. 위에 있는 물이 태양에 광선이란 것이 소독을 잘 합니다. 4미터 깊이인데 위의 2미터를 갖다가 파이프를 해서 수영장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때번 수영장은 사람들 때문에 물빛이 흐려있지 원래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트장도 경영할 겸 이쪽 인공 해수욕장에 깨끗한 물을 천연적으로 소독된 길 이거 꼭 필요한데 인천에서 안 해서 내가 고향인 강화에다가 해수욕장을 건립하십시오. 라고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강화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내가 얘기한 길 어느 기업체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온테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 좋으며 거기도 보트장을 그렇게 천연으로 소독을 하고 동막해수욕장을 인공으로 막아가지고 해서 서울에 대한민국의 돈 60프로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세 군데를 간다. 대천, 부산, 강릉으로 가는데 이걸 인천으로 끌어오자.

혹시 선생님 저기 월미도에 조탕 있을 때 용궁각이라는 요릿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태준 씨의 단편소설에만 등장하지 그 용궁각 노동하는 모습이 있던 것인지, 이진 사진도 없구요, 용궁각이라는 바다가 있으면 심을 박아가지고 건물울, 용궁각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여기 월미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법 3~4층 되는 것이 이 안에 조탕, 이 바깥이 인공 풀, 이쪽에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용궁각. 부속건물은 따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고 서울 때문에 이제 거의 월미도 못 가보고 여기 6·25 난 후에 가봤는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왜 내가 여기를 못 갔냐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의 경제가 거기 못 들어가서 식사를 했던 말이지요, 식사를 안 할 바에는 갈 리가 없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했던 말이야. 그래서 저긴 어떤 사람들이 가나 하니까, 아 경성에서 하이칼라들이 단포산이라는 차를 몰고 와서 단포산이라는게 조그만 점 같아요. 점, 차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타. 이진 누가 타는가 하면 인천에서 한 열 대 정도 있었는데 의사.

아 이진 완전 초미니네 초미니네요, 이외의 기억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초미니예요, 지금 그 마티즈보다 더 작아. 둘이 타면 뒤에 의사 가방 하나 놓으면 돼. 그저 속도는 우리 걸음 세 배 빨라. 그러니까 의사가 걸어가지 않고 그걸 타고 가요, 여기서 50미터 가는데도 그걸 타고 그 5분 동안에, 인천에 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얘기도 남았지. 아까도 조금 얘기했고, 또 뭔가 문학은 좀 얘기했고 미술 조금 얘기 했고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서예. 서예는 해방 전후해서 인천이 최고였습니다. 서예까지도, 우선 겸어 유희강 선생, 동정 박세림 선생, 우초 장인식 선생, 장인식 씨는 서예도 아주 뭐 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천도서관

관장을 한 것으로 또 그렇고 특히 문화계에 있어서 표양문 시장, 표양문 시장이 문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강춘기 씨라는 사람이 연꽃으로 연꽃 사진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인천이 또 그리고 한 분이 용동 싸리재 마루터에서 개업한 분인데 사진관을 개업하던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미술에 있어서 우문국 씨라고 있어요. 또 문학에 있어서는 김양수 씨, 김양수 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김양수 씨는 인천의 해방 전후에서도 인재입니다. 아주 기억력 좋구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 아랫가 어떻게 되나, 한 살 위는 아닌 것 같아.

제7장



심재갑 _____

인천 서곶 출생

인천고등학교 졸업(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제물포고 교사 부임(1956년)

가좌농민학교 개설(1960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1969년)

길영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2000년)

길영희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2001년)

■ 채 록 자 : 이원규(소설가)

■ 채록일시 : 2012년 6월 8일, 6월 15일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7장 지난날 인천 교육은 최고였어

인중 제고는 길영희 교장 혼자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선생님, 오랜만에 뵙니다. 건강 좋아 보이십니다. 서구 출신의 대표적 원로이시고, 인중과 제고 그리고 대학까지 교육계에서 일하셨으니까, 서구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상, 그리고 인중과 제고의 전국 최고 명문으로의 도약 과정, 그런 걸 여쭙도록



인터뷰 모습

하겠습니다. 시간상, 편의상 연대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인천중학이랑 제물포고등학교를 전설처럼 만들었던 길영희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중학교가 해방 당시에 미군한테 야전병원으로 징발되었죠? 해방되고 나서 9월 7일인가 8일 날, 미 24군단의 주력이 인천중학교에서 1박하고 서울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예, 맞아요. 위치가 좋고 자리가 좋아서 6·25 때도 야전병원으로 45년도부터 징발돼가지고요, 46년도에,

45년 9월초 미군이 상륙해서 하룻밤을 자고 장갑차들이 인종 근처 언덕에 있다가 24군단 선발대가 서울로 간 건데 그 뒤로 계속 사용한 거겠죠?

예, 그렇죠. 제가 입학하던 46년도 가을에 돌려받았어요. 9월 1일이 새 학기예요. 7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신흥학교에서 봤거든요. 입학시험을 인종에서 못보고 신흥초등학교에서 봤어요. 그 당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리하면 45년 9월 7일 미 24군단이 1박하고 서울로 가고 계속 그 뒤에 후송병원이 와서 들어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학교에다가 돌려주는 거지요? 선생님의 선배들은 어디서 수업을 받았나요?

저 도서관도 빌려 썼고요. 인천 시립도서관, 길 교장선생님 자택에서도 공부했고.

그러니까 선생님 길 교장선생님 자택이라면 신흥동 1가 16번지인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는 도립병원 뒤편이지요?

예. 맞아요. 60년대 후반에도 길 교장선생님 은퇴하신 다음에 대성학원을 열었던 그 자리. 45년 11월 27일 개교를 했고, 학제는 그때는 그냥 5년, 일제시대 5년.

길영희 교장선생님은 어떤 인연으로 인천으로 오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평안북도 희천 출신인데 평양고보를 나오고서 경성의학전문학교,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죠.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학생대표로 자진해서 나서가지고 33인들하고 같이 학생동원하고 그런 걸 다 했다가 결국 체포되어 가지고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 인도를 받았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때 5년 동안에 세계 모든 고전을 동서양 고전을 다 섭렵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논어』에 탄복해가지고 공자와 같은 인류의 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려는 것을 다 접고 공민권 제한이 해제되는 날 청천강을 비오는 데 넘었다고 그래요. 비를 맞아가면서도 넘어가지고 배재고보를 편입해

서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일본에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로 말하자면 일본의 교육 기관학교로는 제일인…….

그러니까 고등사범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이제 그냥 사범학교는 초등교사 키우는 데고 고등사범은 중등학교 교사 키우는 데고 거기를, 히로시마 고등사범을 나오신 거죠?

예, 그렇죠. 보통 동기생들보다 다섯 살 위였어요. 일등으로 졸업했고 교수가 추천서를 썼다구요. 그러나 3:1운동 학생대표 전력이 있어서 공립학교는 못 가고 사립학교인 경신학교하고 배재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 뒤 우리 국민의 대학을, 민립 농과대학을 만들자. 앞으로 농과대학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동기들 7명을 규합을 하고 이 양반이 그 중에 한 분을 일본 유학도 시키고 함경도 안변에 가서 황무지도 개간하고 그러다가 39년도에 인천에 만수동에 후생농장을 만들었어요.

39년에 만수동에 후생농장을 만드시면서 인천에 오신 거군요? 지금 만수동 후생농장이 대공원 근처 대공원 정문에게까지 어느 쪽입니까, 선생님? 만수동 거의 절반인가요?

그렇죠. 많이. 거기서 이제 농촌계몽운동, 성인교육, 원예 강습 이런 거 쪽 하고 그랬었죠. 그랬다가 해방이 됐을 때에 인천중학교가 교장을 누가 하느냐, 이제 이름 밝히자면 동산고등학교 김영배 라는 분이 교장이었는데 인천중학교로 온다고 했어요. 그때 인천중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합해서 6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학교를 경비대를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나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에서 비품 같은 거를 도둑 안 맞고.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치안 부재 상태에 자치 치안대 같은 거를 조직해서 학교 비품을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지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교장이 누가 온다고 하니까 그 교장을 이제 적어도 훌륭한 사람을 모셔야겠다. 학생들이 누굴 시키냐 그랬을 때 김요한이라는, 그 양반

이 길 선생님을 추천하면서 송문호 선생 아시죠? 그 양반이 형 되는 송종호 선생한테 그 양반한테 이야기했대요.

예예, 송종호 선생님, 배재 나오시고 니혼대학 유학하고 소설 쓰면서 인천문학가동맹 조직하고 월북했지요, 제가 대건고에서 송문호 교감 선생님 밑에서 교사를 해서 잘 압니다.

우리 작문 가르쳤었어요, 송종호 선생은 학교와도 관계없고 아우한테 말해서 송문호 선생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백완기 씨와 고재운 씨와 셋이서.

예, 다시 말씀해주세요, 송문호 선생님하고 고재운, 백완기 선생의 완 자는 어떤 완 자입니까? 완전한 완 자입니까?

아니요, 임금 왕 변, 백완기 씨 터 기 자, 고재운 씨는 있을 재 자에다가 큰 아들 윤 자, 고재운 씨는 돌아갔고 백완기 씨는 아직 살아있고 송문호 씨는 돌아갔고, 그때 세 분이, 송문호 씨가 23살, 백완기 씨가 22살, 그리고 이제 고재운 씨가 9년 아래니까 17살쯤 됐겠지요.

그 나이에 자전거 타고 길영희 선생을 찾아 만수동에 가서 절하고서 우리 학교에 교장님이 돼 주십쇼 했어요, 애들이 와서 교장 하라고 하니까 “학부형을 좀 만나자, 학부형회에선 좀 어떠냐?”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부형회를 소집했어요, 송현초등학교에서 학부형회를 만들었을 때 양재박 씨랑 김성국 씨라고,

양재박 씨는 나중에 한민당으로 국회의원 나갔던 분이지요.

그렇군요, 김성국 씨도 입후보했던 분이구요, 김성국 씨가 은행원 출신입니다. 상업은행인지 ……, 아무튼 일본시대 은행이요, 양재박 씨는 나중에 4·19 후 과도정부 때 제주지사가 됐죠, 그분들이 학부형 대표로서 길 교장 선생님을 면담을 하셨죠, 송문호 씨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문호 선생님하고 백완기 선생님하고 고재운 선생님하고 찾아간

게 45년 9월 10월쯤 찾아
갔을 거 같고요. 10월 하
순 쯤에 학부형 대표로 양
재박 선생하고 김성국 선생
이 가서 “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된 거
죠?

그렇죠. 김성국 씨가 초
대 육성회장을 했어요. 김
성국 씨는 죽산 조봉암 선
생하고 제현의원 선거 겨루
었죠. 그때 을구 입후보했었어요.



제물포고등학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방향을 좀 바꾸지요. 선생님께서는 인천중학교가 선배들
도 계시지만 12회가 해방 이후에 길 교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천중학교의 첫
기가 되시잖아요? 11회까지보다는 12회가 궁지가 더 많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정규 코스라 그랬죠. 선배들은 더러 보결생도 뽑고 그랬
으니까. 그때 재학생이 150명인데 선배들이 한 30~40명 낙제해서 들어와 가지
고, 동기생들도 낙제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건물은 몇 개였습니까? 아주 잘 지어졌다 없어진 본관이 있었지요?

2층이었어요. 나중에 3층으로 올렸죠. 운동장은 옛날에, 아시겠지만 공설운
동장이었죠. 바로 윗터골운동장. 거기서 광상훈 씨가 야구, 일본 사람들하고 시
합하고 그랬죠.

윗터골 운동장이라, 제고 운동장 앞이 스탠드처럼 돼 있는 이유가 구경할 수
있게 만든 거겠죠?

예, 맞아요.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에 열의가 있었는지 그렇게 공설운동



길영희선생 동상

장을 다 학교로 만들었는지.

본관 건물이 중앙난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46년 입학하셨던 해 겨울에도 중앙난방이 돌아갔습니까?

아, 맞아요. 그랬어요.

그럼 길 교장선생님 교육의 특징을 한 두세 가지 잡으면 될까요? 지나친 엘리트주의라는 말도 있고 한데요.

개성의 완성이랄까. 학생조회라는 것을 일주일마다 하게 해가지고 각 반이 돌려가면서 학예회를 하는 거죠. 뭐 전교생 대상으로 연설도 하고, 강당에서, 창작발표하고 음악합창도 하고 무슨 발표 시 낭독 별거 다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 수 국 도구과목만 교육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부도 철저히 시키셨지만 그리고 1인 1기라고 학생들이 운동부에 하나씩 들어가지고, 시합을 시키지는 않지만 무슨 부든지 들어가서 운동장이 하얗튼 방과 후면 딱 차가지고 아주 배구, 농구 뭐 다 그런 거 했었죠.

선생님께서 모교에 교사로 부임하신 건 언제지요?

교편을 56년도에 가서 잡았죠. 학생들에게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한 명사들을 데려왔는데 시민들도 강당으로 와서 들었는데, 그 이름들이 변영태 전 국무총리, 현상을 고대총장, 설의식 언론인, 백낙준, 이분도 나중에 총장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셨고요. 유진오 선생, 함석헌 선생, 박종홍 교수, 장이옥 선생 뭐 그 외에 유명한 분들이 오셨지요. 길 교장선생님의 정성이 아마

지극했을 거예요.

교사진도 뭐 피천득 씨라든가, 박충집이라는 서울대 교수, 영어요, 그리고 조병화 선생, 조병화 선생은 6·25 전에 오셨죠, 수학, 물리, 조병화 씨가 와서 럭비부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피천득 선생은 뭐 특별한 건 그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어, 선우휘 선생은 공민, 전쟁이 나서 군대 갔죠, 정훈장교로, 하여튼 그 양반이 28살 때 갔는데 그때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학교에 왔길래, 전투하러 갔다가 폭탄이 터졌데, 자기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고 죽을까 하다가 28살 마지막이다.”고 그랬다고 해서 웃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제 처음에 『불꽃』을 만들었죠?

예, 좋은 단편소설입니다. 당시 인증 제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지요.

소풍도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원어민 교사도 왔어요, 인천에 미국문화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미쓰 키프라는 분, 그리고 미세스 버킨이라는 선생이 왔었어요, 교혼은 나중에 생겼어요, 뭐 워낙에 길 교장님 이 양반이 참 매 월요일마다 아주 열렬하게 연설을 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연설을 하면 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꼭 차서 구경하고 얘기 듣고 그랬어요, 워낙 웅변을 잘하시고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일절에는 두 서너 시간을 3·1운동 당시를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3·1운동에 33인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사모님이나 자제들이나 일체 몰랐어요, 그 중에서 얘기 듣기에는 그때 한국 형사들이 다 알면서 함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 형사들이 그걸 미리 다 알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무슨 짓 했다면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죠.

아까 선배들이 30~40명 유급된 선배들이 있고 선생님 동기 중에서도 유급되거나 낙제된 분들이 있다 하았는데, 권력자들이 우리 아들도 받아줘 그런 적도 있었는지요?

피아노를 기증할 테니 입학시켜 달라 했는데 거절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인천 중학교는 절대로 사가 없다. 뭐 권력자하고 돈으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는 학교다. 이제 그런 걸 주장하셨고, 경기도지사가 아들을 좀 입학시켜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랬어요. 교사 채용하는데도 대학교수가 온다 해도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인고로 갔어요.

인중에서 제물포고등학교를 만든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제가 6·3·3제로 바뀌면서 제물포고등학교가 생긴 건가요?

그 전에 1950년 6월 20일 인천중학교에 인천고등학교가 개교했어요. 그때 문교장관이 각 도마다 인문과 실업 고등학교를 하나씩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천고등학교가 인천중학교에 생기게 되고 또 상업학교로서는 개성상업이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생기게 됐지요. 아무튼 인천중학교에 인천고등학교 간판도 붙이고 학생들도 모집해서 공부 시작하다 6·25가 났단 말이에요. 길 교장선생님이 제주도로 피난 가셨어요. 1·4 후퇴 때지요. 제주도를 갔어요.

교사들하고 같이 피난을 했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돌아올래도 제주도의 위군인들 먼저 수송하고 국민방위군 이런 거 수송하고 그런 바람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왔을 때에 인천의 사립학교 교장으로 있던 이인관 교장이 손을 썼어요. 이 양반이 김홍식이라는 경기도 문교사회국장, 대통령 비서인가 경호원 지낸 분인데 이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인천중학교에 있었던 고등학교를 6·3·3으로 될 때 인천고등학교에다가 했어요. 혼란 중에 이인관 씨가 1·4 후퇴 때 학제가 이제 6·3·3으로 되니까 거기를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인상 졸업생들이 다 아주 격분해오니깐 거기다 상과까지 두었어요. 그래서 인천고등학교가 문과 상과가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인천시민들이 도장 찍고, 길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뺏겨서 인천 시민들도 당신이 고등학교 해야 된다고 운동했지요. 인천중학교에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인관 교장이 머리를 쓴 거군요. 그래서 인천상업에 있는 1,2,3학년은 인천중학교로 가고 인천중학교에서 있던 4,5,6학년은 인고로 갔군요.

그때 6년제가 돼서 내가 6학년인데 11월 달에 인천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졸업장은 인천고등학교가 되는 거지요. 한

4개월 다녔어요. 11,12,1,2월.

이야길 조금 돌리겠습니다. 당시 윗터골 운동장 위에 오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오에 오포를 쾅 하고 쏘죠? 그 오포를 들으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건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후 해방 후에 오포를 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유명한 인천각 건물 그게 학교에서 뻗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 찍으면 그것도 나오고 그래요. 위치가 무기창고 위쪽, 오늘날의 정문 쪽에서 무기창고 쪽으로 가면 그 위쪽 언덕.

한상익 선생님이 인천각이 무너진 걸 안타까워하는 시를 남기셨는데 아주 장려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예? 그게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명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미군 함포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지붕이 뺨뚫어진 거 빼고는, 제가 그때 사진을 봤는데 함포 사격에 뺨뚫어졌지 다 온전한 거예요. 그거는 땀땀하고 버티면 될 건데.

듣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뜯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유공원이 그 당시에 만국공원 일제강점기에 만국공원으로.

그리고 거기 박물관 있었고, 세창양행. 거기가 하여튼 박물관이었지.

인천중학교에서 봤을 때 인제 그 축현역, 오늘의 동인천역에서 올라다보면 언덕은 그냥 민가만 있었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로 놀러 다녔어요? 소풍은 어디로 가시고요?

소풍은 문학산 쪽에도 갔던 것 같고, 문학산에서 그냥 뛰어내리라 그래서 전원 뛰어내렸던 것도 기억나고 영흥도 까지도 소풍을 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하

여튼 저 여름방학이 되면 아 여름방학이 끝나면 월미도에서 그 해양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강제로 그 수영을 다 하라고 교장선생님이 명령해서.

예, 선생님, 거 나중에 제물포고등학교 얘기가 다시 안 나올 테니까 여기서 말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가장 피크에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1년도에 조선일보에 나올 때가 제일 컸던 거 같은데요, 61년도에 '저 학교로 가자' 그런 만화가 나오죠, 그게 아마 제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요, 만화가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서울에서 못된 것만 배우지 말고 저 학교로 가자, 이게 제물포고등학교거든요, 맹모삼천지교, 이것이 조선일보에 만화로 6면 톱에 오른, 서울대 수석 합격을 낸 신생 제고의 저력에 한국 사회 전체가 놀랐다. 팔호하고 조선일보 61년 3월 13일 시사만화 서울에서 못된 걸 보지 말고 제고로 가자, 이때는 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고대, 연대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1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제고는 몇 회입니까?

제고 5회부터 빛났던 거죠, 박순철이라고 동아일보 기자였던 사람이 일등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일등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면접을 안 불라고 서울대학교 철학관데, 그 애긴 아마 뒷얘기지만, 하여튼 서울대에 120명까지 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워야 했지

인중 제고는 선생님 교사로 부임하신 이야기하실 때 다시 더 듣기로 하고 유년 시절 말씀을 해주시지요, 선생님, 저 어렸을 때 멀리 보았던 노력, 파련, 밤염이라 부르는 정겨운 섬들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고향 가좌동 앞에 광활한 갯벌

에 있던 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립된 곳, 기억나시죠?

노름은 노루가 많은 섬이라 장도(獐島), 파렴은 멀리서 파랗게 보이는 파란 섬이라는 뜻이고 청라도, 밤염은 밤나무가 많은 섬이라 울도(栗島)라고 지도에 적혔지요, 그런 정겨운 이름을 갖고 있었지요, 이 선생과 나처럼 토박이들이나 아는 이름입니다.

그 섬들, 지금 사는 분들이 잘 모를 텐데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썰물 따라서 갯벌을 걸어나가 맛 조개를 잡고 네 시간, 다섯 시간 머물다가 밀물 전에 돌아오곤 했지요, 그게 70년대에 와서 동아개밭이 매립하면서 아마 없어지게 됐지요, 울도는 오늘날 청라매립지라 부르는 대규모 매립보다 먼저였어요, 십여 년 먼저였지요, 그때 울도가 육지가 돼 버렸지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 모교인 서곶국민학교 나오신 줄 알았더니 선생님 연보를 보니깐 부평동국민학교신데, 남서곶에 계신 분들은 부평동국민학교로 가셨나요?

예, 그때 남서곶이 서곶초등학교까지 한 십오리 정도 이십 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요, 또 주안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인제 부평동으로도 갔어요.

주안학교로도 갔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아버님이 아마 듣기에는 서곶, 서구에 처음 중학생이 됐었어요, 함자가 운(雲)자 섬(變)자셨지요, 서구의 첫 중학생일뿐더러 초등학교도 아마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학생 때 상투를 자르게 되니까 집안에서 아주 그냥 상놈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큰할아버지가 만날 볼 때마다, 만날 그걸 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아주 선각자여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창영초등학교죠, 옛날은 인천공립 보통학교, 거기를 다니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천상업을 또 나오시고, 인천상업학교는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이지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강습소를, 동네 분들과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그 강습소가 나중에 석남초등학교의 모태가 됐죠, 아버지하고 동네 분들

이 만든 가좌동강습소라는 것이 나중에 석남초등학교를 만드는 데 모태가 되고 저희 아버님이 초대 기성회장이 되고 건립위원장 뭐 이런 직책을 맡으셔서 하셨죠, 그런 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중학교에 갔지요, 서구 전체에서 한 삼십여 명이 시험을 봤는데 단 두 명이 됐었어요, 1946년도요,

1946년에 부평동국민학교는 몇 클래스였습니까?

그때 세 클래스였습니다. 한 반이 50명, 60명도 되고 그랬죠.

일제강점기 초기에 보통학교가 4년제였다가 3·1운동 난 다음에 일본이 균등하게 대우한다고 6년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십여 년 위에 선배님들은 4년제를 나오셨지만 선생님은 6년제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쪽에는 선생님 부평동을 졸업하실 때에는,

서곶국민학교도 다녔어요, 12회가 돼요, 왜냐하면 서곶국민학교도 제가 태평양 전쟁 때 부평동국민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께서 아주 교육열이 대단하셔서 소개를 서곶국민학교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서곶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다시 또, 또 전쟁이 악화될 거 같아서 김포에 검단초등학교, 거기 가서 이제 한 달도 안 있어가지고 해방을 거기서 맞았거든요,

일제강점기 말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 애들한테도 그 국민총화나 무슨 그런 국가총력이나 그런 쪽으로 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침이면 ‘고고쿠신민노 세시’라고 해가지고 황국신민의 선서, 서사 그거 외우고, 6학년 때는 뭐 공부는 제쳐놓고, 그 근로 봉사 나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때 학교 운동장도 다 식량 증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운동장을 밭으로 만들고 고무마 심고, 뭐 그 다음에 또 부평에서는 저 부개동 쪽에 일본군 보급소가 있었어요, 보급소에 가서도 근로 봉사하는데 그때 중학교 학생 이상은 소위 조병창, 거기 가서 근로봉사하고, 그러니까 1945년도 일본 망할 때에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보다도 그저 근로봉사로 다니는 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생활을 계속했어요,

당시 교사들은 부평동국민학교는 남녀 교사, 조선인 교사 비율이 어땠습니까?

뭐 삼분의 일, 거의 절반은 여교사였던 것 같아요, 남자 교사들은 군인들로 많이 나가니까. 조선인 교사는 그래도 뭐 삼분의 이, 한 사분의 삼? 한국인이었던 것 같고, 교장은 물론 일본사람이고요.

부평동국민학교에서 인천중학교 가신 게 광복 직후 아닙니까? 1946년이면 아직 미군정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6·3·3제가 만들어지기 전 아닙니까? 선생님 중학교 다니실 때 6·3·3제로 바뀌었죠? 정확히 언제입니까?

완전히 바뀐 건 1951년도.

그러면 48년에 정부수립을 하고 나서도 6·3·3제가 아니었군요? 그러면 선생님 경우는 인천중학교에 5년제였지요? 46년에 인중 입학하셨을 때 인천의 중학교 판도는 어땠나요?

인천중학교 있고요, 인천상업학교가 있고, 인천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요, 처음에는 전수학교라고 직업전수학교, 그리고 여학교로는 인천여상, 인천여고, 박문 그렇게 있었죠, 박문이 부평에 있었어요, 소화고녀라고 그랬었는데.

소화고녀였죠, 소화정이 부평이니까. 어떤 사람은 박문여고가 처음 소화라는 이름을 쓴 걸로 봐서 설립자가 친일이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설립자가 애국심이 강한 분인데 부평이 소화정이라서 소화로 했던 거지요.

아, 그 내용은 잘 …….

부평동국민학교 한 반에 50명이면 중학교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어, 중학교는 결국은 열 명 그 정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2:1로 교육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 인천중학교는 50명 중에 만약에 15명이 간다고 치면 분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남학생의 경우에, 선생님처럼 1등이나 2등 정도하면 인천중학교 가고요.

아, 1등은 하나씩 서울로 갔어요, 경북이나 경기나 이런 데, 경기는 제일고보, 경북은 제이고보였지요, 2등인 경우가 대강 인천중학교, 그 다음에 인상은 3, 4, 5, 6위 정도가, 10등 넘어서부터 그 다음 서열은 공고도 있고, 동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인천중학교 입학시험이 내신이었나요? 필필시험이었나요?

다 필기시험, 완전 필기시험, 지금도 기억나는데 역사 과목에는 역대 유명한 인사들로 내각을 만들어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익점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이퇴계를 문교부장관으로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나요, 다 주관식으로.

인천중학교 시험장에 가니까 몇 명이나 와 있던가요?

백오십 명 뽑는데 육백 몇 십 명이었어요, 인천 시내에서만 온 게 아니고 강화, 충청도 이런 데서 많이 왔죠, 4:1이 조금 넘었어요, 인종만 입학하면 동네에서 잔치도 하고 그랬었죠, 아까 얘기한대로 서구 전체에서 삼십여 명이 가서 두 명이 합격, 한 학생은, 아깝게도 2학년 올라갈 때 좀 낙오가 됐고요.

방향을 좀 바꿔보지요, 당시 해방이 됐어도 국민경제가 나아진 게 없을 것 같고, 또 서쪽에 농토가 많지가 않으니깐 굉장히 가난했을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 3,4월에 보릿고개를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부황 든 사람도 있고요, 장리쌀이라고 있었는데 현물 이자로 내는 거였거든요, 봄에 쌀 한 가마니 빌려 가면 늦가을이나 겨울에 갚는데 한 가마 반 갚는 거지요.

서곶 서구 지역 문화 환경 의료 복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뭘, 형편없었지요, 급한 환자가 생기면 택시를 불러 인천 시내로 가고 그랬지

요, 전화가 있는 서곶지서, 연희동까지 갔지요.

한방은 북서곶 백석동이 있었는데 남서곶에도 있었습니까?

남서곶에서는 기억이 없어요. 아, 침쟁이는 있었지. 동네, 우리 이웃에 한 80미터, 100미터 떨어진 데서 사는 분이 침을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종교 신앙은 어땠습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하고, 무속신앙으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게 무엇이었나요?

거의 모두 무속이었어요, 굿이 많았으니까요, 무속인이 신현동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신현동에 무당이 있었군요, 남서곶의 여섯 개 마을 정도를 무속이 담당했군요, 그런데 제 고향 연희동에는 연희교회가 백 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신자는 남서곶에는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 서곶이 열두 마을인데 왜 사찰이 하나도 없었는지 이상합니다.

가좌동 건지굴에 암자는 있었어요, 감중절 마을에 감중절이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감중이라는 중이 있어가지고 감중절이라고 그랬는데 뭐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빈대가 워낙 끓어서, 그런 소릴 들었어요, 그래서 불태웠다고, 감중절, 그 절터도 가보면 뭐 주춧돌도 있었어요.

연희동, 경서동, 백석동은 도당굿이라는 마을의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남서곶에서는 도당굿 같은 게 있었습니까? 마을 전체의 동제가 있었습니까?

아,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보도진 나루를 건너서 내달려 학교에 갔다

다음은 교통 쪽 애깁니다. 서쪽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게 가좌동의 해협이었지요?

윗나루는 우리 가좌동 쪽이었죠. 아래쪽은 보도진이구요. 보도진은 버드지라고 했지요. 물이 빠지면 이제 징검다리가, 갯벌 위를 징검다리가 한 이십 미터 정도였고 배는 이제 이만치 있던 말이에요. 징검다리를 물이 넘으면 배까지 오려면 한 삼십 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늦으니까 징검다리가 물이 넘더라도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리 건너갔지요.

윗나루, 아랫나루에 각각의 나룻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나루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동네 분들이 있었는데 가을에 벼를 쌀로 벼를 몇 가마씩,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그거 안하는 사람은 샅을 내고 다녔죠.

나룻배는 몇 명이나 탔습니까? 그 꼭 차면?

그 나룻배 탄 사진이 있지만 아마 많이 타면 한 삼십 명까지. 한 번 놓치면 한 삼사십 분 놓치니까 갔다 왔다 하면. 그리고 가을에는 바람이 몹시 불고 그러면 나루질을 안 해요. 그래서 헐떡고개라는 데 아시죠? 그 헐떡고개까지 와서 이렇게 봐서 배가 이제 저쪽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안으로 돌아요.

예예. 헐떡고개는 오늘날 재능대학교 근처지요?

그쪽까지 안 가고 이쪽 인천대학교.

선생님 그 당시에는 거기에 저도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저수지는 염전 만들 때부터 있었죠. 여하튼 여름이면 거기 가서 많이 시간을 보냈죠. 오늘날에 영창악기 있는 자리도 거기도 저수지였죠.

육로교통은 오늘날의 석남동, 가정동, 가좌동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된 길, 경인고속도로가 일직선이 된 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 일제 때 국방도로가 만들어졌던 자리 아닙니까?

예, 국방도로가 거기까지 왔다가 완성 못하고 해방이 됐거든요. 그 나루까지 오는 동안에 징용 나간 분들이 조그만 철로 놓고서 잔뜩 흙을 실어서 붓고, 붓고 그렇게 했죠. 그 국방도로는 45년도까지 했죠. 45년도까지 해서 나루까지 왔다가, 시작한 거는 아마 한 1년 됐을 거예요. 나중에 1970년대에 군사정부가 경인고속도로를 놓을 때에 국방도로 형질 거의 그대로, 그 길 폭이나 그런 게 거의 그대로였죠.

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정다리가, 나무다리가 있었거든요?

예, 석남동. 서너 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그러니까 차가 왕래가 많지 않던 데에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다리 선생님 검게 콜타르를 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까맣게. 선생님 전 하나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6.25때 거기 기총소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희생도 되고 그랬어요.

나루에 인천교 놓기 전에 버스를 타신다면, 저도 탔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동인천에서 차를 타면.

오늘날로 따지면 송의동을 거쳐서 주안을 거쳐서 주원마을 거치고, 심정동까지 가서 왼쪽으로 틀어져서 벽돌공장을 거쳐서 큰 고개 하나를 넘어가지고 심정동 고개 하나를 넘어가지고, 여우제비 고개라고도 했어요. 언덕을 잘못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죠. 그게 양곡까지 갔어요. 양곡에서 우시장이 열릴 때니까.

그 버스 타고 학교 가실 생각은 안하셨나요, 그때엔? 가좌동에서 선생님 마을에서 선생님 댁에서는 큰 길이 안 멀지 않습니까? 그 인항여객 버스 다니는 게, 한 오 분, 십 분밖에 안 걸리죠?

그렇죠, 십 분 거리. 근데 차가 자주 있지 않고, 차가 심정동을 들어서 한 없이 가야 되니까.

인천교가 놓인 게 윗나루에 놓인 거죠? 그게 60년인가, 61년인가.
61년이 가깝죠, 5·16 난 후에.

그래서 윗나루 쪽을 통과해서 가좌동에 연결되는 게 교통이 해소된 거겠죠? 그럼 선생님 이제 대강 광복 이후로 중심으로 하되 의식주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국민복이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랬죠.

제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농림부장관 할 때 시골 시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군복, 다 찢어진 거 기워 입고 형편없었다, 뭐 그런 얘길 하는데 옷이 보통 그저 사시기에 선생님처럼 넉넉한 집의 어른 아니면 옷은 몇 벌이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 거의, 단벌 아닐까? 꼭 교복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평초등학교 다닐 적에 여자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여자 고무신, 그리고 그 서곶초등학교 갔더니 다 맨발이야. 제가 6학년 때, 그게 인제 6, 7월 그때, 서곶초등학교 전학 갔었을 때 보니까 부평은 그래도 내가 여자 고무신이라도 신고 다녔는데 거기는 다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운동화 신고 갔다가 슬그머니 벗었어요, 저 서구 사진첩인가 받으셨죠? 거기에도 보면 맨발이 많죠.

예예, 맨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뭐 선생님, 가좌동에는 기와집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였습니다. 제가, 기와집이 우리 집 하나하고요, 신현동에 이종길

씨, 이종길 씨가 이제 석남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우리 아버지하고 교대로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집 두 분이라고.

라디오 신문 영화는?

아, 그건 없었죠. 저의 일기에 쓴 걸 보면 6·25 났을 때 1950년 6월 25일 났을 때 동네 라디오가 없어서 6·25를 몰랐다 그런 것이 실제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인천중학교 학교에 가실 때는 가좌동에서 어쨌거나 가좌동 해협을 건너야 이쪽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부평동은 안 건너도 되나요?

그렇죠, 그건 십정동으로 가거나 건자골로 가거나.

그 다음에 인천중학교 가실 때 나무를 건너신 직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거의 뛰는 거죠. 거기가 도화동인데 거기서 인천중학교까지가 직선거리로는 한 10km 되지요, 그 당시에는 구불구불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중학교 때 상학시간이 9시라고 친다고 하고 애들이 8시 반까지 도착한다고 하시면은 댁에서 한 7시 반쯤.

일찍 갔죠, 한 시간 반 전에 갔던 거 같습니다. 다운타운에 사는 일부 유복한 사람들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청년기에 맞은 한국동란 그리고 국민방위군 입대

그럼 얘기를 좀 돌립니다. 인중 6년 졸업은 6·3·3제로 바뀌면서 이제 인천 고등학교 오신 1회 졸업생이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졸업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동란 때는 어디서 계셨는지요?

1952년 3월 22일이에요, 6·25 때는 고향에서 3개월 지냈어요.

아니, 그럼 6·25 때는 선생님 인천에 계셨고 그러니까 인천 중학 5학년 때
 죠? 5년 텐데 가좌동 집에서 맞으셨죠? 그러면 그때는 아직 방학이 아니지 않
 습니까?

예, 그렇죠, 라디오도 없고 해서 못 들었다가 갔더니 이제 6·25가 났다…….
 시내 아이들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6일은 그냥 지냈고 27일 무기
 휴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일 서울도 떨어졌으니까 아슬아슬했겠네요, 피난하기도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역사학을 했던 분이래 “너희들끼리 서로 밀고하고
 그러지 말아라, 서로 감싸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천중학교 학생들이 서
 로 밀고하고 왜냐하면 해방 후에 좌익학생도 많아서 맨날 뼈라 뿌리고 뭐 경찰
 에도 감옥 생활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교장선생님 그 한 마디가 아마 꽤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동기생 150명 중 전쟁 때문에 다시 얼굴 못 본 사람도 있습니까?

많죠, 거의 3분의 1은 아마 님을 걸요, 전쟁에 나가서 소년병으로 나가서 죽
 은 사람도 있고 월북한 사람도 있고 그냥 탈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학교가 다시 문을 연 것은 언제입니까?

9·28 수복 후 바로 열었죠, 열었다가 다시 10, 11, 12월 공부하고 방학 때
 1·4 후퇴가 났죠, 저는 이제 1·4 후퇴 때 일본 배 타고서 1월 3일에 국민방위군
 으로 해서 제주도를 갔었죠, 거기서 6개월.

국민방위군에 입대를 하셨나요? 인천에서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그때 한 배에 한 3천 명씩 탔는데 여러 배가.

인천에서 국민방위군이 그렇게 많이 탔습니까?

인천에 경기도 사람이 꽤 왔으니까, 순 인천만은 제주도까지 간 사람, 한 8천

명 되지 않을까?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장년층들도 있었는데 굶으면 우리보다도 더 체력이 없어 펍펍 쓰러지더라고. 국민방위군으로 해서 아주 비참했어요. 6개월을 있었어요.

그럼 언제 복학을 하신 거죠?

6월 21일 날 마산을 거쳐서 의성까지 갔어요. 경상도, 근데 걸어서. 국민방위군은 우리를 다 지게부대로 동원한다고. 그래서 거의 집으로 도망하다시피 왔어요. 며칠 걸려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51년 6월입니다. 결국 돌아와서 한 두 달은 그냥 미군부대 가서 일하고, 체커라고 있었어요. 아, 뭐냐면 영어 좀 하니까 숫자 이렇게 체커. 통역은 아니구요. 수량 뭐 영어로 노동자들 나르고 그런 거. 신흥동, 여기 근처였던 같은데 부둣가였어. 평화공사라고 있어가지고 그거 했다가 아마 9월쯤 학교로 복학. 1년 전에 헤어졌던 동기생들하고 같은 반에 편성이 되었는데, 하여튼 6·25로 인해서 반도 아마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 동기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 알려진 분 누구 계십니까?

뭐 유명한 분 최세진 교수도 동기고, 대건고 교사 김영달 씨도, 오공본드의 김창식 사장, 그리고 임규운 고등법원장.

6·25를 그렇게 보내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당시의 대학판도는 어땠습니까?

그때 서울공대에서는 화공과가 제일이었죠. 서울대 다음에는 고대, 연대. 고대는 대구에 피난 가 있었어요. 연대는 부산에 있었던 것 같고, 서울대도 부산에. 시험은 이제 그 수원에서 봤어요. 그리고 수원에 연합대학이란 곳이 있었어요.

서울대 단과대학에서는 위상이 어땠습니까? 법대가?

법대가 제가 기억나는 것이 8대 1이었는데 150명 모집에 뭐 한 천 명.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과를, 공대 쪽으로는 화공과를 그렸고.

그럼 그 당시에 대학을 가겠다 하면 서울 법대, 문리대 정치과나 공대 화공과

외에, 그 나머지는 서울대 다른 학과, 그 다음이 고대는 연대군요, 그 외 나머지는 또 어디 갔습니까?

그때 뭐 동국대, 정치대학 지금 건국대도 있었고, 중앙대학은 그 당시에 중앙대학이라 그랬던 거 같아요, 경희대가 신흥대학.

선두에 끌고 가는 그 당시의 판도가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그런 순서였겠죠? 그러면 150명 중에 졸업한 분들은 전쟁 겪고 나서 몇 분이 졸업을 하셨습니까? 졸업장 받은 분들이 몇 분일까요?

150명에 졸업은 거의 그대로 다 졸업을 했죠, 인종에서 졸업한 사람은 한 30명 이렇게 될 거 같고,

선생님 150명 중에 전쟁 때문에 복학을 못해서 인종을 졸업한 사람이 백 명쯤 된다고 치고요, 그 중에 몇 명이나 대학 갔습니까?

반이 좀 안 될 거 같아요,

선생님은 서울에 기숙은 안 하셨습니까? 뭐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를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부산 가서 하숙을 하다가, 그 답에 자취를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학교로 왔어요,

학교가 2학기에 서울로 귀환한 거죠? 그때 서울 법대의 캠퍼스가 어디니까? 동숭동에 서울대학교들이 다 있었죠, 그 천막 캠퍼스가, 53년.

53년에 서울로 오셔서 그때는 뭐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이제 경인 기차통학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침에 출근 시에는 학생들이 짹짹 차서 다녔겠네요, 일제 때도 급행이 있어서 몇 개 정거장만 서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도 급행이 있었습니까?

급행, 급행은 모르겠어,

가좌동에서 타시려면 부평 가서 타세요?

주안을 가죠. 그 주안에서 부평 있고 소사 있고 영등포 있고 노량진 있고 용산 있고 서울역 있고 다섯 개. 그리고 서울역에서는 전차를 탔죠.

그 당시에 그럼 통학 풍속도는 여학생들도 꽤 많았습니까?

그렇죠. 많았죠. 근데 거의 다 알죠. 누가 어느 대학 다니고 그런 걸 다.

그러면은 인천에서 서울에 기숙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다 통학을 했을 텐데 대학생들 거의 다 아셨겠네요?

근데 기숙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취나 뭐나.

선생님, 아까 빼먹은 건데 그때 뭐냐 하면 스무 살 넘어서 결혼한 친구 분들도 있고 하셨으니까 관혼상제 이야기, 서구하고 인천하고 말씀해주세요.

결혼은 이십대에 다 했어요. 내가 31세에 했는데 나 혼자 남았었어요. 대개 25세, 26세. 유덕택 씨는 22세에 했어요. 인천은 서구 문명이 많이 들어온 도시였지만 한식 혼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인천에 신신예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했어요.

장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사는 3일장 했습니까, 5일장 했습니까?

장사는 대개 5일장. 60년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5일장 했어요. 7일장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5일장하면 그 가좌동도 당연히 상여 있겠죠. 상여 두기. 상여. 상여집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전부 그 삼베로 된 옷에.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은 그 상제를 어떻게 그분들은 배운 안 입었겠죠?

그러니까 가좌동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다. 60대 말에 교회가 개축



전시학생증

됐으니까.

다시 이야기 바꿉니다.
그 당시에 대학 재학생들은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까,
연기가 됐습니까?

그렇죠, 전시학생증. 그
것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법과대학
100년사에 쓰게 보내달라
고 해서 보냈어요.

전시에 인민군들은 청년을 붙잡으면 강제로 징집해서 끌고 갔다던데 국군도
그랬습니까? 전시학생증 없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각 대학이 경희대 한양대가 시골 분들이 소 팔고 땅 팔고 아들
목숨을 사자,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은 전시학생증이라도, 재학 중에는 면제가
되니까.

이거는 인천시 역사 구술과 관련이 없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 인천 출신이 광
복 이후의 최초이신가요? 광복 이후에 몇 대신가요?

내가 광복 이후에는 처음이라 기억하지만 그 후에도 나왔어요.

1954년에 총학 맡으신 건데 법과대학 학생회장도 뽑나요? 직선으로 뽑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각과 대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총학도 직선입니까?

그 당시에 12개 단과대학 회장들이 모여서, 과반수 넘게 받았죠.

6표 넘는 표를 잡아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총학이면 교수들도 대우도 다르게 하시는 일도 많고?

전국 대학생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서울대 12단과대 대표로 나가서 뭐 그때 결의문도 발표하고 계몽도 하자고, 뭐 하여튼 굉장히 바빠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죠.

그러면 대강 인천에는 서울대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50명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서울대학교 갔다고 고향 분들이 이렇게 추켜세워 주셔서 뭘 좀 해야겠다고 해서 몇 대까지 내려오고.

선생님, 정확히 인중에 부임하신 년도는 언제인가요? 인중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1956년입니다. 재학 당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제고생들에게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학생회도 새로 만들고, 회장도 직접 선거하고, 그리고 또 법과대학을 나와서 공민, 윤리, 도덕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교장선생님이 제가 학생 때 학생운동한 걸 알고 계셔서, 제고생들에게 학생 자치활동을 보급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부임하셨을 때가 1956년이었으면, 제물포고가 54년에 설립됐으니깐, 학생들이 3학년이었겠네요. 인중으로 따지면 몇 회인가요?

인중으로 따지면 해방 전으로는 17회고, 해방 후부터면 3, 4회 졸업생들입니다.

그 당시의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일주일 단위로 지정해주었나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마음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 수 중심으로 간 건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었습니다.

선생님 1956년에 부임하셨을 때, 인천에서 사람들이 알 만한 교사진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사로 오신 유훈 씨, 김영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내신 분, 외환은행의 이사까지 된 김석주란 분이 영어를 가르치셨고, 전주에서 올라오신 시인 최승렬 선생님. 그리고 이인수 선생님은 후에 이화여고 선생님이로 지내셨고 인종의 교감도 하셨는데, 저의 담임이었습니다. 방학 때면 담임 반 전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게도 하였고, 연극 등을 장려하셔서, 학생회 시간에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으셨는데, 만주 봉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길 교장 선생님이 삼고초려하다시피 하셔서 데려오셨습니다. “이북 피난민 중에 좋은 선생님이 누가 있나?”라는 말에 이인수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월미도의 피난민 수용소에 직접 가서서 데려오셨습니다.

제고에 동백림 사건에 관여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재원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홀란드로 유학을 갔다가.

가좌농민학교와 서곶의 전기, 전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가좌농민학교가 기억나는데요, 선생님이 재학 중에도 야학을 만드셨다면서요?

중학교 3학년 때, 1948년도에 사랑채에서 조그맣게 야학을 한 것을 아까 말한 이인수 선생님이, 심훈의 『상록수』로 비교하면서 칭찬을 해줘서 격려가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가좌동의 염전 창고를 빌려서…….

지금 인천교를 중심으로 한 해협에 있던 저수지 많았던 부분, 서구 쪽 끝자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대학교 2학년 때 야학을?

예, 초등반·중등반으로, 80명 정도로 나뉘서 여름방학 때 야학을 본격적으

로 시작했습니다. 김수열, 이효섭, 이종명, 대학 법대 동기 3명과 함께.

궁금한 게, 서구 쪽에 학교가 많고, 또 중간에 학교가 없어서 교육의 기회가 적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맹률, 취학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좌농민학당

초등학교 취학률이 아주 적었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 당시 야학했을 때 여학생이 많았죠. 왜냐하면 사범학교는 남녀 같이 뽑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추세가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반밖에 되지 않았었으니까.

선생님이 정식으로 가좌농민학교의 터를 닦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6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죠. 가좌동 산 30번지에 교실 3개, 한 60~70평? 운동장하고 교지를 합하면 한 1,000평 된 것 같습니다.

가좌농민학교 건물이 세워진 년도가 1961~2년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교사는 196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전에 흙벽돌집이었죠, 한 5년 계속하다가 생활이 조금 윤택해져서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가니깐 닫게 되었죠.

가좌농민학교에 당시 재학했던 학생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못 가고 했던 그 또래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최고로 많이 온 날은 90명 정도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 말고 있으셨습니까?

여자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거의 대학교 졸업 후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제고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왔었구요.

이왕 나오신 김에, 서곶에 애정이 많으셨으니깐 서곶학우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우회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깐 52년도 겨울이죠, 52년도 겨울에 서구 초등학교에서 발족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한 학년 위이신 심동기 선생이 힘을 썼었습니다. 저를 초대 회장으로 심동기 선생님이 맡기셨죠.

심동기 선생님과, 선생님의 본관이 다른 성씨인가요?

저는 청송이고, 그분은 풍산 심씨입니다. 옛날의 영화중학교, 오늘날의 서인 천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오래 잡으셨죠.

그러면 심동기 선생님 말고 알려진 선생님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조진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한번 확인 해야겠네요.

만 지역보다 서곶이 문명이 낙후되어 있어서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전기라든지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애향심이라든지 두루 목적이 있었겠죠?

네, 애향심인 것 같네요.

서곶이 문명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앞장 서셨었는데, 분발을 촉구하시면서, 우체국 유치 운동, 전기 유치 운동, 전화 유치 운동 등을 하셨습니다. 그럼 서곶학우회에서는?

학우회에서는 각자 고향에서 야학을 좀 주로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영사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자기 마을을 계몽하라고 한 거였죠?

그렇죠, 54~55년도입니다. 그전에 프로그램을 보내드렸지만, 체육대회 또, 서곶학우회의 연혁이 있어서 회장이 그 동안에 조인영, 이범엽, 서재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곶학우회가 선생님보다 10여 년 아래까지 이어진 거죠, 이범엽 형이 46년 생이니까 선생님보다 13년 아래인거네요, 전기 얘기 좀 해주세요

심덕기 씨가 서구 출신의 초대 인천시 자문위원이었어요, 어찌다가 66년에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만 33살이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최연소 자문위원이라고 나왔었지요, 그래서 전기를 해 달라, 도로 포장 해 달라 주장했었지요, 또, 화력발전소 만들 적에는, 한국전력과 보상 문제로 얘기했었죠, 고마웠던 기억이 있죠.

보상 많이 받아서요?

예, 그렇죠(웃음), 전기는 농어촌 전기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법대 대학 인맥을 통해서 상공부 김정렴 장관에게 연락이 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김정렴 장관과, 서구의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1,600만 원을 전기 유치하라고 지원 받았죠.

서구 전체에 전기를 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전기가 안 된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 전체에 전기가 다 놓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기 유치가 68년도 시작해서 70년도쯤에 끝났을 것 같은데요, 69년도에 시작했죠, 제가 전기를 가져다 놓을 때, 저희 집이 모두 전주라든가, 전깃줄, 방마다 전기에 관련한 것들이 많았죠.

국가에서 1,600만원 국고 지원한 것이 전액이 아니고 수혜자들이 돈을 조금씩 내야 되는 거죠?

돈은 거의 다 전액이었고, 집안에 놓는 배선 등 다른 것을 내는 거죠, 근데 그

것도 돈이 없어서 70년까지도 미결상태로 가다가 150만 원 정도 미결이 되었었 습니다.

선생님,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그걸 나와야 하니깐, 이걸 해결해야 하니깐 150만 원 내가 그걸 넣어서 깨끗 하게 하고서 임후보했어요. 71년도 선거예요. 내가 부평동초등학교 출신이니깐 53년도에 그니깐 대학 2학년 때 동창회를 만들었어요. 부평동초등학교가 계산 동초등학교 외에는 그래도 제일로 오래 됐는데.

부평동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참 트럭에다 마이크 달고 다니면서 모여라 그러셨군요.

마이크 달고 다니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창립이 됐는데 지금 초등학교 동창회 중에 부평동초등학교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해요. 장학금도 3억인가 뭐 있고, 그니깐 부평동초등학교가 왜 유명하나 하면 계양산 밑에 제일 오래 된 부평초등학교가 있는데, 부평역 다운타운 새로 형성된 새 거리에 있는 학교가 부평동초등학교니깐, 그게 교세가 역사가 오래된 부평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강 했고 가좌동이다 석남동이다 거기서도 거기 많이 다녔지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인제 대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69년에 전 기를 놓을 수 있는 농어촌 전화 사업이 마침 벌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지역 어른들이 자네가 나서야 된다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또 상충부에 서울 법대 인 맥도 있고 김정렴 장관도 오고 그래서 1,600만 원을 받고 옥내 배전은 수용자 부담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강 70년에 전기가 서구 지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체국은 분국은 선생님 제가 알기에 66년 7년에 여직원 하나 하고 국 장 하나 있는 분국이 있었어요.

분국이라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기도 체신부가 그때 69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참 하여튼 인천에서 편지 부치는 것이 닷새씩 걸리고 있으니깐 왜 냐하면 부평우체국에 가고 다시 계산동우체국에 가고 계산동우체국의 집배원

이 가좌동까지 오니깐 와서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찾아가서 누구네 집 편지 가져가서 누구네 집 아는 사람 우린 편지가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사탕이라도 주니깐 자꾸들 오려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 이것을 어떡하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저기 나온 것처럼 체신부장관한테 탄원서를 내고 그레가지고 굉장히 일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체국 개국했지요.

그러니깐 선생님 개국이 대강 7월,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깐 7월 1일 그때쯤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선생님 70년 7월 1일이죠? 그게 이제 우체국이 연희동에 지금 305번 국도 옆에 열렸지요.

이렇게 가다가 왼쪽 지금 새로 뚫린 거기서 지금 개국식도 하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감사장도 주고 양반들한테 금반지 석 돈짜리도 줬는데 그냥 뭐 얘기했지만 내가 다 그냥 허물어버렸지.

그러셨군요, 선생님. 전기하고 우체국이 70년에야 된 거죠? 그러니깐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의 혜택이 시작되었지요. 텔레비전도 못 봤겠죠, 이전에는. “저 베트남전에서 돌아올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깐 텔레비전을 사와도 된다.” 뭐 그런 편지가 와서 티비 면세 티켓을 가져가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전화도 제가 알기에는 뭐 초등학교에도 없었고, 경찰지서에만 있었습니다.

아, 저희 집에 전화가 70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걸 제가 인천에서 전봇대를 사서 그래서 전봇대를 한 구간 얼마얼마 해서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규정이 일 년 동안 만 사람이 전기를 놓으려면 나한테 전봇대 시설비를 나한테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 년 지나면 그건 무효가 되고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가져다 놓으니깐 그 심덕기 씨 큰따님 되는 심현주라고, 이동렬 씨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거기도 좀 전화 좀 오게 하라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레가지고 하여튼 전화를 놓았어요.

70년이교 교환원이 생기고 전화를 처음 유치한 게 언제예요?

70년대 전화는 직접 그때 인천에 저희 집이 3국으로 다 2국이었어요. 전화번호도 0419. 근데 우스운 얘기지만 밤중에 치안국에서 전화가 와요. 서울서 치안국인데 이 형사 바뀌, 박형사 바뀌, 전화 바뀌.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전화를 보니까 2국에 0419가 동인천경찰서 정보과야. 그래가지고 잘못 놀려서 그게 우리집에 오고 그랬는데 아주 동네전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문전성시였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 뭐 전화할라 그러면은 한 번 신청을 해 놓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요. 안방 건넌방 할 거 없이 전화 걸라고 오는 사람들이 꼭 차가지고 그거 어디 전화 나오는 걸 기다리고 그러니까 밤잠 제대로 못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서구는 처음에 다이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구에 처음 전화 온 거는 서구에 별도의 교환양이 있어서 전화로 했는데 이렇게 돌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교환양한테 전화번호 얘기하면 이렇게 꽃아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예요?

이거는 우리 집이 처음입니다.

그거는 전에도 있지 않았나? 전에도 있겠죠? 근데 한참 더 지나서 같은데 선생님보다 늦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전화 온 거는 이렇게 돌리면 저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교환양이 서구 우체국 교환양이 나오면 뭐 3국에 몇 번 하면 꽃아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를 돌렸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마 열 개 선이나 다섯 개의 선 가지고 처음에 연회동 중심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게 아마 70년대 선생님보다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리고 혹시 옛날에 라디오가 없어서 유선방송이 있었는데 남서쪽에도 그게 있었습니까? 선생님, 라디오가 없어서 줄을 가지고.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자석으로 해서 귀에다 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는 미군용 헤드폰을 끼고 했던 그게 유행했었죠? 아니면 트랜지스터 대

신에 광석을 꺼가지고 나무에 안테나 대신 매면 되는 걸로 다 방송을 들었고 그 답에 60년대 말에 시천동 유씨 성 가진 선배가 유선방송을 했거든요. 전기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선생님, 60년대 33세에 시 자문위원을 하셨는데, 그 시 자문위원이 그 당시에는 인천 시의원 격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어떻게 대강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30명 정도, 각계각층으로 또 지역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30명이면 오늘날 시의원이나 별 차이가 없으시겠네요. 직능별로 하고 지역 안배하고 그랬겠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 뭐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시장이 대강 한 세 분 정도 보셨습니까?

신충선 시장이 왔다가 6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해두 시장.

김해두 시장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 군인출신은 아니었네요. 고시패스 하신 분이었나요?

서울시와 내무부의 과장급을 하셨던 분이예요.

인천 출신도 아닌데 김정렬 시장 다음으로 인천에 애정이 강하고 일을 많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신충선 시장이나 김해두 시장이 있을 때 인천이 안고 있는 현안들은 대개 어떤 거였습니까?

나는 그냥 서구가 낙후되어서 맨날 그 얘기만 아주 그냥 구두선처럼 모일 때마다 맨날 내가 나가서 서구 12개 동 그림을 그리면서 도로도 포장도 안 되서 그렇고 전기 전화 도로포장 그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서쪽이나 남동이나 아니면 만수동 그런 쪽에도 별 차이가 안 났겠죠. 우리 인천 서구보다 그쪽은 좀 나았을까요? 조금 나았겠죠?

그때 그쪽은 뭐 수인산이다 그거가 있고 또 뭐 거기에 염전도 있었으니까. 우

리는 다녀보면 서구가 늦어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고.

당시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현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더 커질 때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 67~8년도 그때에 부평공단을 만든다는 거를 “안 된다. 서구 쪽에 가져와야 된다.” 그걸 나서서 서구민들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 선친 이훈의 선생님, 심덕기 선생님 찾아 남서쪽에서도 많이 가고 이랬는데, 심덕기 씨와 이훈의 씨가 저를, “추진 위원장을 취임시켜야 한다. 젊은 사람이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 하고 저를 시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쓴 ‘서구에 공단이 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심덕기 씨가 극구 찬양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탄원서도 썼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인천이 60년대 정치적 위상은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을 둘 뽑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깐 71년도에 제가 선거 출마해 나가게 된 것은 지역구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야당에서 나를 공천을 받아서 나갔다가 다 아시는 거지요. 자문위원을 6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달수가 모자란다. 여당 같으면 이제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야당이 나오는 바람에 71년도 선거에 중간에 결국은 공천까지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73년도에 다시 또 야당으로 나왔다가 인천에 두 명을 뽑는데 4명이 입후보를 해가지고 삼등을 했지요. 그래서 두 번 저는 서곶 주민들에게 뭔가 돼서 서구를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당선되셨으면 서곶 발전이 더 빨랐겠죠. 그리고 선생님, 저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서 인천의 4·19하고 5·16하고 말입니다.

인천의 4·19가 뒷북만 쳐서 내세울 게 없어요. 4·19 정신을 계승하자고 끝나고 데모를 했으니깐, 참.

저는 동인천경찰서에 기관총 걸어놓은 거는 봤는데 4·19때, 그리고 선생님, 시천동 유씨 집안의 유성규 선생님이라는 한의사 하시는 분, 시인이죠, 서울사대 나오신 분이죠 아마.

그래요, 아마 김포에서 국어 선생을 했지요?

인천고에서도 하셨어요, 제가 인고 병설 상인천중학교에 60년에 들어가니깐 아버님이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 유 선생님께 “애가 내 아들이요.” 해서 선생님이 저에게 책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습니다. 몇 달 지나서 안색이 창백해서 오셨어요,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여쭙봤더니, 상인중 다닐 때? 율목동 그 학교 안에?

예, 그랬는데 교단에서 이임사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해에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신 거죠.

교원노조 때문에.

근데 선생님, 그 당시에 인중 제고에 계실 때도 교원노조가 있었습니까? 시작이 되었습니까? 4·19가 난 다음에 민주화 바람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 전에 없었다는 거죠? 대강 4·19 이후에나 갑자기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죠, 갑자기 그냥 같이 해서 교원노조가 있었죠.

그러면 혹시 진보 쪽 교사들이 조합을 만드니깐 탄압을 한 거겠죠?

대구 쪽에서는 진보 그런 것이 있긴 하였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죠.

인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보다 그게 강했습니까? 그냥 미미한, 그죠?

미미했죠.

인천의 중등학교는 60년, 제가 입학할 때로 따진다면 사범학교가 있고 인천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남중이 있고 동인천 중학교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였지요? 공립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죠, 선생님?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 인천 시민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학교로 어떤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광성, 그것도 아마도 구두담이 애들.

예, 선생님. 광성이요, 광성이 구두담이 애들을 데려다 가르친 게 시작인가요?

그렇죠, 서울 시경국장 했던 유충렬 씨, 돌아가신 본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4·19 났을 때 사형선고 받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선생님? 유충렬 선생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거는 서울 시경국장으로 4·19 때 발포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총책임자이니깐 그 래서였지요, 그거를 회개하고 교육사업에 나선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광성을 세운 거죠.

예, 광성학교 이전에 보합이라는 학교도 있지 않았어요?
보합학교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하고 보합학교의 관계는 없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대강 말씀은 잘 났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기록해서 인천 역사의 한 증언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8장



정인표 —

인천 서곶 출생

서곶초등학교 졸업

인천사범학교 졸업

경인, 서곶, 창영초등학교 교사

서구문화원장

현재 부평향교 전교

■ 채 록 자 : 이원규(소설가)

■ 채록일시 : 2012년 6월 18일, 6월 25일

■ 채록장소 : 부평향교

제8장 옛날 인천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지

계양산에 띠를 둘렀던 회양목이 멸종했어.

선생님 건강한 모습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평향교 교장인 전교(典敎)를 맡아하시니까 참 좋아 보이십니다. 부평향교 전교는 연임하신 거죠?

그렇죠, 연임한 거예요.

유년기에 계양산 밑에서 자라셨으니까 계양산의 보존 문제도 오늘 날 있고 거기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게 말썽이 많지.

계양산에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도장나무라고 하는 회양목하고 도롱뇽하고 징맹이고개가 기억납니다. 선생님 어렸을 적엔 계양산 여러 번 올라가셨죠?

아, 여러 번 올라갔지. 나 초등학교 때에 소풍을 갔다하면 계양산이에요. 상상봉까지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서 멀리 보면은 그때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인터뷰 광경

아니라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이 보이고 거기서 비행기가 내리고 비행기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비행기 이착륙이 보였던 얘기죠? 그 뒤에 남산도 보이셨죠?

남산은 거기서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저기여 고양 땅에 보이는 행주산성도 있어요.

계양산에서 서해 쪽을 보면 노루섬, 파렴, 뭐 파렴은 청라도죠. 그런 섬이 갯벌 위에 보였습니까? 바다 위에 있었습니까, 멀리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계양산이나 우리 서곶학교 주위에 조금만 산에서라도 보이는 산은 뭐냐 하면은 제일 큰 산이 지금 글자로는 청라도지만요, 그때는 저 노인네들 청라도라는 말은 모르고 파렴이라 그랬어요. 울도는 밤염이고요, 또 세어도라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세어도는 우리말은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 고 셋은 다 사람이 사는 데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도니 무슨 사도니 무슨 이런 또 너저분한 섬들이 많았어요.

작은 섬들이죠. 장도는 노루 장(獐) 자기 때문에 노렴이고 사도는 뱀 사자라 뱀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보였는데 지금은 인제.

다 없어졌지. 매립돼서 없어졌지.

선생님, 다시 계양산 얘기로 돌아가서 회양목이 저 어렸을 때는 많이 훼손이 됐지만 대강 4부 능선, 5부 능선에 있었나요? 많았죠?

응. 무슨 다른 수목은 없고 회양목으로 차 있기 때문에 계양산을 일명 회양목 산이라고도 했었어요. 회양목으로 뒤덮여 있으니깐. 그러다가 부평 사람들이 계양산에 넘어와서 나무를 해가는 바람에, 일반 나무도 그렇고 회양목도 그렇게 많이. 딸감이 없으니까는.

나무 해 간다는 것은 화목해 간다는 거죠?

화목이지. 그리고 서곶학교에 내가 참 오래 근무했지만은 봄이 되면은 회양목 캐는 것이 아주 큰 행사야. 학교 화단가에, 벽돌로다가 하지만 옛날엔 그것이 화단가에다 쪽 심으면 말하자면 화단 그 경계예요. 그렇게 하다가 회양목이라는 것은 씨알머니가 없이 다 없어졌다고.

징땡이고개도 그 당시에도 거기 그대로 있었죠?

징땡이고개는 내가 어렸을 적에, 다른 사람과 달리 오정면에 우리 누님이 두 분이나 사셨기 때문에 어려서 징땡이고개를 오른 내린 생각이 나고. 옛날에 열 살, 열한 살, 열두 살 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는 지금 애기한 바와 같이 이 계산동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기 때문에 산에는 나무산이 아니라 돌산이야. 돌산이고 돌산 측에 회양목이 있었던 이런 말씀이에요.

예, 선생님 그 원래 그 부평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서곶 사람들도 잘라다 켜줬죠.

그래가지고 한 뭉텅이 해서 가는 건데 워낙 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양산이라든지 철마산은 그냥 나무라는 것은 씨알머니가 없고 나 어렸을 때 지나가면 이렇게 돌만 흘러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보고, “아니 산이 어떻게 돼서 나무는 없고 돌만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을 일본 놈들이 와서 인제 점령하고 할 적에 아마 계양산 일부도 아마……. 오지가 있어가지고는 돌로다가 많이 그 왜적을 무찌르고 그랬대요.

예, 산성도 있었으니까요. 중심산성 기억은 나세요?

허물어져서 흐뜨러진 거다,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징땡이고개 넘어가신 이야기 해주세요.

공촌동서부터 걸어서 쪽 올라가지고 계양산, 그 철마산하고 계양산하고 있는 중턱에는 뭐가 있었냐면 경명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는데 나는 못 보고 뭐만

봤느냐 받침대.

정명루에는 터 받침대가 있었죠.

기둥을 받치는 그 돌만 양쪽에 둘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돌을 어떤 놈이 가져갔더라고, 써먹으려고, 나는 어려서 무수히 걸어갔지. 우리 누님이 지금 행정구역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부천군 오정면이에요. 한 분은 오정리고 한 분은 장리예요. 근데 그 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공촌동을 지나면 그 개울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개울서부터 그냥 꼬박꼬박 걸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넉넉잡고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걸리지. 그리고 부평부사를 지낸 분들의 비석이 꼭 있었어요.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계양산 밑에, 자전저경기장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내가 지금 얘기한 비석 25개를 전부 날라다 거기다 잘 정리해 해놔터라고, 지금 그제 있을 거예요, 경기장 옆에 있다고.

선생님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인천시나 역사자료관에서 잘 정리해 보존하겠죠. 그리고 저의 아버지 향토사 기록을 보게 되면 계양산에 부싯돌이 좋아서 유명했다고 하는데 어려서 전 기억이 나거든요. 하얀 돌 가지고 번쩍번쩍.

아이구 그럼, 자네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더 나지. 그제 차돌이라고 해서, 하얀색이지.

그제 선생님 그제 산지가 철마산인가요 계양산인가요? 기억나세요? 계양산 아십니까?

계양산이나 철마산이나 또는 시천동에도, 거기가 우리 어렸을 때에는 부싯돌 같은 거 나오고 녹청기 같은 거를 두고 경서동보다도 시천동에서 많이 났어요. 나는 거기 찰흙을 집에 가져와서는 장난감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참 징맥이고개가 둘이에요. 작은징맥이, 큰징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예, 들어봤죠. 그리고 선생님, 연희동이나 경서동, 북서곶 6동네 전부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당곳이 선생님 연희동이 유명하고 경서동도 도당곳이 있었죠.

서곶의 신앙 도당굿과 연희교회

그렇지. 서곶에서 도당굿 하는 동네는 연희동, 경서동, 백석동에서만 매년 정성스럽게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했지. 시천동, 공촌동은 그런 거를 안했어요.

도당굿은 추수감사 성격이 있는 동제(洞祭)이자 축제였는데 계절이 언제죠? 10월인가요?

10월 달에 해요. 초닷새날 시작해서 하루종일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낮에 저녁때쯤에 끝났지.

그러면 선생님 3박 4일 하는 건가요?

그랬지. 아침에 쿵다쿵하면서 샘말에 와서 봉구네 집 뒤에.

예. 정봉구 선생네 집 뒤에.

거기가 도당할아버지야. 도당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한바탕 굿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연희동 출장소 뒤에도 올라가서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를.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만한 집에서 그냥 낸 거겠죠?

그렇지.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못 하고 보통은 다 했지. 당일 날 남자 무당이라든지 여자 무당들이 팽과리 치면서 쪽 돌아다니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던져주지. 대개 그 50전짜리 10전짜리 쇠로 만든 돈 던져주는데 종이돈 주시는 분들은 많은 돈 주시는 거야.

예. 선생님, 북서곶 6개 동네에 교회가 들어있어요. 연희교회가 100년쯤 되고 백석교회가 아마 60년쯤 되고 그랬을 텐데 선생님 그 연희교회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교회 얘기 하는 거야?

아니요, 종교를 여쭙보는 건데. 선생님 판단에는 서곶 여섯 동네 사람들이 신앙이 몇 프로나 무속 신앙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남서곶은 말고?

남서곶, 북서곶 합치셔도 되고,

둘 다 합쳐야지. 다 합쳐야 12동넨데. 거의가 무속이지.

연회교회가 200~300명 다녔다고 친다면 서곶 사람들의 종교가 무속이고 그쪽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우리 북서곶, 남서곶 통틀어서 70~80프로는 그냥 무속이었어. 그 도당굿 하는 것도 다 무속이고.

연회교회요?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데, 우리가 글방에 갔다가 오면은 개인집에서 노래 소리가 들어가더라 이거야. 찬송가지.

그게 연회동 안채, 안동네 어디 있었어요?

그 집이, 교영이네는 큰집이고 교영이가 그 양반들이 4형제 판인데 저기 저 군대 가서 죽은 사람 있어. 교영이의 셋째 작은 아버지. 인규가 막내야. 4형제 중에서는, 세 번째 아들만 하나 있어가지고 개가 뭐지 교영이하고 사촌간인지 모르겠네.

제 먼 조카 교찬이예요.

그래, 그 사람 사는 집에서 글방에 갔다 오면 찬송간지 뭔지 알았나.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해서 구경갔어. 아주 친절하게 맞이 하면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임마들 나가라고 야단을 쳐야하는데 야단은 안 치고 계속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임시로 그때

로 말하자면 목사지, 순식이라고 저기 저.

이순식 씨요? 저의 집안인 걸요?

순식이 알아? 그분이 영복 씨 아버지야. 영복 씨 아버지가 이렇게 허리가 꾸 부정하셨는데 두루마기를 입으셨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양반이 정식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주관하고 처음 그 예수교라고 할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이 그 분이고. 그리고 심곡동에 저기 김희준이, 또 저기 경환이도 있고 희준이 아버지가 또 철저한 교인이야 또, 그래서 동네에서도 무당 그런 것만 따지고 하는 세상에 교회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1933년 태생이시니까 1940년 정도에는 교회도 없었고 그냥 어디에 가정집에서 하다가 미국에 간 김기선 씨가 와서 만들었군요?

그분 해방 뒤 오셨는데 제일 큰 아들님이 옥돈 씨라는 애기도 들었어? 김기선 씨가 오시면서 외국 물을 잡수신 분이라 기와집 교회를 지었지. 난 첨에 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뭐 교회 같은 기분이 안 나니까. 절만냥 기와 올리고 했으니까. 나중에 근데 거기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해서 여기 뭐하는 데냐니까 예수 그뎨 속된 말로 예수쟁이들 노래 부르고 그러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론을 말씀하신다면 연회동이나 서곶 남서곶, 북서곶 다 합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80프로가 무속 신앙이었다?

그렇지. 가좌동 건지굴에 건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왜 그 이름이 생겼냐면 건지라는 말이 한글로 ‘건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건지굴절이라고 했는데, 산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사찰이 있긴 했군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이 동이점에 들어온 이야기를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동이점은 빈정천에 있는 빈정교라는 다리 옆이지요. 인천 시내에서 저 백석으로 가다보면 다리 막 건너서 왼쪽 바른쪽.

그렇지, 그렇지, 왼쪽 바른쪽, 거기에 동이 굽는 가마, 도기 가마가 땃개 있었지.

거기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동이를 구우러 온 거지요? 지금 종교 얘기 중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 어렸을 때도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예요, 동이점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으로는 신현재, 조금석 이 두 분인데 경상남도에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서곶학교 16회 졸업생인데 자네보다는 선배고 그랴.

저보다 10년 위네요.

신현재, 조금석, 이 두 분의 아들들이 16회야.

경상도 어디서 왔어요?

함양, 삼청. 천주교 박해를 받아서 피난 와 가지고 자리 잡아서, 뭐 땅이 있어? 그러니까 독점을 차려가지고 동이니 향아리니 절그릇이라고 해요, 신현재 씨하고 조금석 씨하고 둘이서 하다가 경서동으로 가는 길.

누가 했냐면 최기영이 알아? 김포의 대곶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천주교 합류했지. 나 일곱 살 때쯤 우리 연희동 셋말에서 멀리 보면 불이 별정계 보였지.

예, 그분들이 천주교 공소를 세웠고 그게 서곶지구 천주교의 시작이었지요, 선생님, 초등교육 쪽으로 넘어갈까요?

선생님처럼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서곶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이 영특해서 서당에 미리 가신 건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갔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아이들을 글방에 보낼 생각도 못했고, 내가 여덟 살인가에 갔어. 훈장은 송병재 할아버지, 이름이 송순정이었어. 우리 부평향교의 전교도 지내셨지. 서곶 출신 전교는 그분, 자네 할아버님, 그리고 내 아버님, 나, 이렇게.

나는 서당에 두세 살 더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갔지.

그 후 초등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몇 회시죠?

나 13회야.

동기생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13회 남녀 합해서 60~70명, 여자는 적어서 20명.

당시 학령 아동 중에 여자는 남자의 절반밖에 취학 못했군요?

안 땡겼지. 남자들도 나보다 세 살 더 먹은 사람도 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 입학하신 1940년, 41년 무렵에 학령 아동 100명이 있다고 하면 보통학교라도 간 사람이 한 절반이 넘었을까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다녔지. 여자는 우리 동네, 우리 집안에서도 나보다 세 살 위 누님하고 그때 여자가 셋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월미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같은 인천 관내인데도 수학여행이라고 했어.

서곶이 워낙 벽지였으니까요. 일본 아이도 있었나요?

하나 있었어. 우메기 고오즈라고 이름도 기억나네. 내 짝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했지만 왜정 때는 주재소라고 했지. 주재소에 감독이 별 두개단 사람이 칼도 차고 지금으로 따지면,

주재소장이군요.



일제강점기 서곶초등학교의 월미도 견학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목총훈련

그렇지. 그 애가 점심을 싸오면 일본 사람이니까 반찬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뺏어 먹는단 말이야. 뺏어 먹으면 울어요. 그래도 다 뺏어먹어.

그러면 70여 명 중에 중학교 진학은요?

15명 정도가 간 것 같아. 시내 애들은 서곶 아이들보다 많이 갔지. 여자는 3~4명만 중학교 갔어.

검암동에 중학교가 선 게 언제지요?

해방되고 나서 영화중학교 분교가 생겨났는데, 개교가 늦어 내 동창들은 못 다녔지만.

영화는 전신이 오늘날의 대건고등학교입니다.

그래, 대건이지. 영화중학 분교가 검암동에 생겼단 말이야. 지역사회 유지들이 애써서 만든 학교야. 미군들이 와서 건물을 지어주었지. 그 후 성문중, 서인천중, 고려중, 인광중으로 이름을 바뀌오다가, 서인천고등학교가 이어받았지. 서구지역의 교육에 큰 역할을 한 학교야. 잊어선 안 되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중학교 가신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해방되고 나서요?

내가 해방되는 해는 국민학교 6학년이야. 해방이 8월 15일 아닌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 거 같애.

사범학교와 인천중
학이 최고였지요?

인중을 더 쳤지. 왜
정 때는 말이지. 인중
은 순전히 일본 아이
들이고 자네가 나온 인
고의 전신인 인상(仁
商)은 예를 들어 80명
이면 40명은 조선 아
이고 40명은 일본아이
지. 얼마 있다가 주안



서인천고의 전신인 서인천중

에 직업학교가 생겨서 거기 가면 바로 취업이 되었지. 또 동산학교가 당시에는
전수상업이었지.

그 직업학교는 나중에 기계공고고 전수상업은 동산고등학교죠?
그렇지.

서긔 동창분들 중에 인중이나 사범학교 간 분은 별로 없었겠죠?
아, 그때는 하나들이야.

사범학교 6-3-3제이기 때문에 병설중 3년, 사범학교 3년 따로 가셨죠? 사범
병설중학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명이었지. 남자 반 여자 반 총 120명 정도 됐지.

사범학교는 지금 남구청 자리 아십니까?

인천에 머문 개성사범학교

남구청 자리가 아니라 송의학교 자리였지. 송의학교에서 개성사범학교. 처음에 조선 8도에 평양사범, 경성사범, 대구사범 3개밖에 없었지. 그랬다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각 도에 하나씩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도마다 사범학교를 하나씩 두는데 경기도는 개성에서 가져가냐, 인천에서 가져가냐 하다가 개성이 끝발이 강해서 그리 갔지. 나 입학할 때에는 개성사범학교가 인천에 왔어. 개성사범학교에 입학했지.

그러니까 해방된 후에?

해방돼서 있다가 6·25가 나서 개성사범이 부산으로 피란갔다가 도로 올라갈려 했던 거지. 할 수 없이 임시로 인천에 머물렀고, 그래서 반년 동안을 개성사범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영영 올라가지 못하니까, 1954년, 55년경에 개성사범이 인천 사범으로 바뀌었지.

사범학교는 남녀 혼성학급으로 했습니까?

그럼요, 사범학교는 남녀합반이에요. 처음에는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 몇 년 후에 가서, 사범학교라는 것은 남녀가 수준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 30명, 여자 30명 합쳤는데, 나 다닐 적에는 남자, 여자 나누었었죠.

오늘날 교육대학은 헌법 준수한다고 남녀정원을 정하지 않아 여자가 더 많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자 60명, 여자 60명 성별 구분해서 숫자 맞춰서 뽑았군요?

그렇지. 지금은 여교사가 많아 큰일이야. 내가 경인초등학교 근무할 때는 90명 중에 남자가 11명밖에 없었어요. 여자들만 몽땅 있으니까는 큰 물건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회도 못 했었어요. 큰 문제인 것은 시골의 학교가 정원이 안 되면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학교끼리 합쳐요. 학생수가 줄어들어니까 교육대학 나와도 교단에 못 서요. 그래서 인천, 경기도로 보낸단 말이야. 받

기 싫어도 소화해야지. 남자 선생님들은 안 오고 여선생님들만 몰려왔었지.

지금은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시돼서 구분 없이 뽑으니깐 여자가 교육대학에 많이 가는데다가 남쪽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깐, 여자들이 비율이 많아져서 경기도, 인천으로 온단 얘기시죠? 그럼 부작용이 문제가 되겠군요. 옛날 사범학교는 남부금을 안냈었죠?

아니, 냈었지. 남부금은 남부금대로 냈었지.

얼마 정도 내셨었는데요?

남부금, 음. 기성회비인지 뭔지 내고, 장학금도 있었지.

그래도 인종보단 째졌죠?

음, 째었지. 그리고 장학금을 매달 3000원씩 탔어요. 음, 매달. 쌀 한가마니도 못 사는 가격이었지.

교생 실습은요?

3개월.

오늘날은 교생 실습을 한 4주 정도 했는데 오래 했었군요, 실습을.

우리 때는 실습 나가서, 끝나면 졸업식만 참여하고.

실습을 3학년 때 가을 학기에 나가는 건가요? 9월 즈음에?

10월 즈음에 나갔었지. 우리는 3월 16일이 졸업날이었어요.

그러면 워낙 엘리트만 뽑았기 때문에, 낙제나 징계도 없었겠네요.

그런 건 없었지.

군대는 교사도 면제였나요?



일제강점기 서곶면사무소

교보(敎補, 교사 보충역)가 있고 학보(學補, 대학생 보충역)가 있었는데,

교보는 교사 보충역의 약자네요?

응, 학보는 대학생들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교보로 나갔었지. 몇 년 몇 월까지는

교사라도 교보를 나가야 되고, 그것이 넘은 사람들은 안 나가고 그랬었어요. 몇 년 몇 월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짧았고, 나는 그게 넘었었지. 2년이었어요, 짧았어요. 일반 병사보다.

교단 이야기는 이따 하시고 다시 학창시절로 갑니다. 사범학교 통학 말입니다. 선생님, 일제말 교통수단 말입니다. 서곶지역에 차가 있었나요?

그때 왜정 때에도 다꾸시(택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트럭을 도락쿠라고 했지. 길도 아스팔트가 어딴나.

지금 305번 국도 말입니다. 그 도로 만들기 전에 더 옛날의 길 말입니다.

옛날 길인데 가정동 봉수대 앞으로 해서 심곡동 305번 도로, 그리고 연희교회 앞에서 왼쪽으로 내려가 서곶학교와 서곶지서, 그리고 서곶면사무소 앞을 지나 도당구 지내던 당산나무 언덕에서 다시 비탈을 내려가 동이점 있는 빈정천 쪽으로 갔지요.

지금은 사라진 옛날 길이지요.

서곶에는 서곶출장소, 경찰주재소, 일제시대에 아까 말씀하듯이 1개였고 의

용소방대가 한 곳이었지. 의용소방대도 한 대, 저기 자네 숙부 훈덕 씨네 마당에 있는 빨간 수레.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펌프를 인력으로 한 10명의 펌프질을 해서 물을 켰지.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지.

저도 그 볼 끄는 빨간 소방수레 생각납니다. 선생님, 의료 쪽으로 이야기 넘어가지요, 서곶에 의사가 한 분 있었지요? 연희동 출장소 옆에 진료소가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 이가삼 선생이 온 게 언제쯤일까요? 6·25 끝난 직후였죠?

그 집 아들 홍수가 자네보다 조금 위지?

2년 선배입니다.

우리 큰아이 낳을 때 그 양반이 봐주시고 애를 못 낳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양반이 와서 아직 이르다고 일주일 후에 낳는다고 했는데 정말 일주일 후에 낳았어요, 서곶은 그 양반이 큰 역할을 했지.

백석동 한의사도 한 분 있었지요?

3·1운동 했던 심혁성 선생 아들이지.

아마 부평에 살다가 오셨지요? 언제 백석동에 자리잡으셨나요? 선생님 몇 살 때 자리 잡으셨나요?

그때가 10살 때 쯤이었나 중학교 다닐 땐가 그랬나. 일제 말이군. 참엔 한약방에 가면 뭐 보조 있잖아. 그렇게 익힌 거야. 그래서 좀 안다 해서 한약방을 차린 거지. 그랬는데도 워낙 사람이 귀하니까 검단이나 이쪽에서도 다 다녔지. 그러다가 이름이 알려져 외지에서 엄청 왔단 말이야.

선생님, 통학하시던 이야기로 다시 가시죠. 가좌동 해협에 학교 다니실 때, 웃나루, 아랫나루가 있었는데 웃나루로 다니셨죠?

내가 다닐 적에는, 웃나루라는 것은 국방도로라고 해서, 쪽 이어져 있는 그 길 생각나? 내가 다닐 적에는 웃나루보다 가좌동 문지기 나루라고 거길 이용

했지.

웃나루는 가좌동이고, 아랫나루가 번지기 석남동이고.

번지기가 어딘지는 알죠? 그쪽이 바닷가란 말이에요. 건너는데 물이 나가면,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다니고, 물이 있으면 배타고 다녔었지.

그러면 연희동에서 출발해서 번지기 나루까지 한 40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아랫나루, 번지기 나루 건너도, 또 거기서 송의동까지 또 40분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리셨었겠네요. 아무튼 지금 서구 연희동 주민센터가 선생님 댁 부근인데 거기서 시내 송의동까지 매일 걸어 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었지만은 바지 다 걷고 뛰는 거야. 배가 옆에 나루에 왔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타고 가고, 마침 물이 나갔으면은 징검다리가 더 빠르니깐 징검다리 건너서 다녔었지. 그렇게 해서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체력이 있지만, 학교 다니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녔나 몰라.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의식주 이야기입니다. 당시 서곶과 인천 사람들이 40~50년대에 하루에 세 끼는 먹었습니까?

먹기는 먹었으되, 제대로 된 쌀밥은 못 먹었지. 잡곡밥, 죽 씹먹고.

그럼 죽은 무엇으로 끓여서 먹었었습니까?

쌀죽도 있었고, 녹두나 팥도 섞어서 먹었었지.

웃은 어땠을까요?

40년대, 국민학교 때에는 90~100프로가 바지저고리 입고, 신발은 고무신 신고, 어찌다가 운동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운동화를 제비뽑기로 정해서 가지기로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배급이었어요.

지금까지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얘기했는데 선생님 서곶 초등학교에 몇 년 부임하셨죠?

내가 동두천으로 발령나가지고, 거기서 3년 하고,

서곶에 오신 게 1957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였지, 그때 와서 내가 와서 여자반을 맡았지, 허정 선생님이 교감이고, 구 선생님이 교장이었지, 나는 몽땅 여자반을 주더라고,

몇 회 여자반이었나요? 22회나 23회 정도였나요?

한 23회 정도 될 거야.

교무실 직원은 10명 안팎이었겠어요.

내가 알기로 서곶학교가 그 때 한 학년이 한 반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교사가 대강 15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버스가 다닐 때는 버스 타고 다녔고 안 다닐 때는 십중팔구 하숙을 했어.

버스는 인항여객에서 운영했지요, 동인천을 떠나서 석바위로 해서 십정동 거쳐 가좌동을 거쳐 연희동은 1시간 반 걸렸지요, 그게 언제부터 다녔지요?

그때는 버스라고 안하고 합승이라고 했지, 선생 되고 나서 20살 이후지.

그러면 1953년 이후에나 버스가 다녀서 선생님들이 통근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미군이 옥수수 가루나 분유 같은 거 준 거는 미군이 교육청에 가져다 줘서 교육청이 나누어 준 건가요?

그렇지.

그럼 교육청 차를 가지고 싣고 왔나요?

그렇지. 농기구창고라고 있었는데 거기다 쌓아 놔다가 퍼서 썼지.

서곳에 전기가 7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촛불 켜놓고 수업 했었지.

저녁에 무슨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외공부, 중학교 가야 되니깐 책상에 두 명이 붙어서 하나 놓고, 남포도 아니고 촛불이었지.

그럼 과외군요. 부모님이 돈을 어느 정도 주셨었나요?

무상이었지. 시골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과외를 하는데 무상으로 해줬고, 운동회는 지역 축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들도 달리기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큰 축제였지. 1970년대쯤에 없어졌지.

운동회가 서곳 사람들 결속시키는 일환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럼. 하나의 지방의 축제였고, 화합의 장이었는데 없어졌지.

전기가 없으니 앰프는 배터리 가지고 했나요?

처음에 없어서 배터리 가지고 하다가 앰프 걸어놔지.

당시에 라디오는 있었죠?

라디오가 없었지.

그럼 서곳국민학교에 1960년까지도 라디오가 없었네요. 전화기도 없었겠네요?

전화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주재소에 딱 한 대 있었지. 계산동에다가 연락을 하면 차를 하나 보내달라는지 급한 연락을 주재소끼리 했었지.

제 생각에는 196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화기 한 대 밖에 없었던 것. 내가 선생 노릇할 때는 있었지, 학생 때는 없었지.

선생님 부임하신 1957년도에는?

1957, 58년에는 전화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럼 교육청 연락은 어떻게 받았나요?

사람이 가지고 오고, 문서를 왔다갔다 가지고 다녔었지.

전언통신문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급한 것 있으면 서긔지서 가서 순사한테 가서 부탁했었지.

서긔사람들 생업에 관해섭니다. 대부분 상업보다 농업이죠?

90퍼센트는 농업이었지.

그럼 앞쪽 바다에 갯벌이 있었지만 고깃배가 없었고, 그렇죠?

우리는 갯벌에 나가서 어업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지.

배도 없었죠?

어선이 없었지. 어업은 청라도 일대 쪽에서 했었지.

선생님 관혼상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친구분들 33년생이인데, 예식장에 신식결혼, 구식결혼, 교회결혼, 대개 어땠습니까?

나는 신식결혼 말고 구식결혼을 했었는데, 오고 갈 때 택시가 있어서, 가다가

고장이 나고 해서 잘못 가고 그랬어요.

교회결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했겠네요.

그 얘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 서곶에서는 김기선 씨가 지은 연희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신식결혼 한다고 해서 다들 구경하러 나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네 셋말에 살던 옥석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결혼했지. 나도 어려서 봤던 것이 눈에 선해요.

그럼 서곶은 신식예식장도 없었고, 교회결혼도 딱 보셨었고, 선생님, 또 선생님 선배들도 다 구식결혼을 하셨다는 거네요. 서곶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일약 발탁이 되어서 인천의 명문인 창영으로 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아, 그것이 63년도인가?

그러니까 서곶에선 몇 년 계신 거죠?

서곶에서는 10년이지.

창영을 가셔서 보니까 서곶에는 전기도 없고 조희 때 마이크도 못 썼는데 교외에서 제일 변화한 명문학교니까 차이가 컸던 것 같네요.

아, 그렇지.

창영국민학교는 대단했지, 공부나 특활이나

서곶초등학교는 모교이기도 하신데 창영에 가보니까 변화하고 학력차이도 많다고, 어느 정도로 많았습니까? 명문학교라고 한다면 인종이나 선생님이 나오신 사범학교 두 개 학교라면 서곶초등학교는 그 학교에 한 명 정도씩 밖에 많이 가야 못 가는데.

어디에?

사범학교나 인증 말입니다.

서 곳도 많이 가면 두서너 명 갔지.

그럼 창영학교는요?

창영학교는 60명, 70명씩 갔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학급도 많고, 6학년이 20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8학급, 20학급 전체에서 인증은 60명, 70명씩 갔다고요,
많이 가는 데는 70명, 적게 가는 데는 50명, 60명 그건 반마다 달라요.

아니 여섯, 일곱 명이겠죠. 아, 60명, 70명이니까 한 반이.

그러니까 6학년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지. 6학년 내가 말했을 때, 한 반밖에 없었던 걸. 창영학교는 18학급 중에 그게 다 남자 반이 아니고 여자 반은, 반은 아니지만 남자 반이 더 많죠. 남자 반이 더 많은데 대개 몇 명이 들어갔냐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60명, 70명씩 들어가고.

사범학교는 몇 명씩 가고요?

그때에는 사범학교가 없었었지. 나, 나 젊을 때는.

아, 선생님 교사하실 때는 없었죠? 사범은, 교육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 학교는 그 당시에 선생님 가신 창영 말고 흔히 인천에 오래된 사람들은 인천의 명문이 시내, 다운타운에 있던 명문이 창영하고 신흥하고 그 다음에 축현하고 그 학교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때는 한국 애들은 창영, 송림이고, 일본 애들은 신흥, 축현이예요. 신흥, 축현이라는 것은 해방되고 나서 얘기지 개정 때는 아사히 낫쏘, 그러니까 욱일과 용강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신흥하고 축현은,

일본 아이들만 갖고,

일제시대 때 그랬단 얘기로,

해방되어 가지고 신흥, 창영.

예, 그러니까 축현은 용용 자에 굳셀 강 자 쓰는 다쓰오까고 신흥은 옥일이
라고 아사히라는 이름을 지었었죠? 그럼 선생님 그런 잔재가 그 때는 물론 해방
되고나서 20년이 다 되었을 텐데 그래도 신흥하고 인천의 초등교육의 명문은
창영, 신흥, 송림 뭐 그런 학교였겠죠?

그렇지, 창영, 우리 이제 해방이 됐으니 창영, 송림, 신흥, 축현.

그런데 이 학교들이 거의 다 인종 가는 학생들을 독차지했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대개 으레 그때는 인종만 많이 보내면 좋은 학교다.

당시에 창영 교장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교장선생님을 네 분 모셨는데 같은 년도로만 따지면 조석기, 이강빈.

아, 나중에 교육장 지낸 분이요?

그렇지. 조석기, 이강빈, 황광수, 그런 분들이 아주 명문,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또 한 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한분은 고태영 씨, 고태영.

이 네 분이란 말이지요.

또 한 분이 황 …….

교육국장하신 분이요?

옛날에, 황, 황기익, 그 양반들이 장영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지.

그러니까 네다섯 분을 모셨다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조석기 선생님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원래 경상도 분이예요, 경상도 출신인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고 신문기자로 시작하셨다고.

처음에 신문기자로 출발하셨던 분이군요, 그래서 교육대로 바꾼 거죠, 이강민 교장은 어디 고향.

이강민 교장은 고향이 저기요, 경상도, 대구사범 출신이에요, 그리고 조석기 씨는 옛날에 보통, 사범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황광수 교장은 어디?

도상, 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립사범학교예요, 경성, 왜정 때에.

그러니까 개성사범 생기기 전에, 전에 서울에 있던 사범학교네요?

그렇지, 도립사범이고, 그 전에 서울에 있던 거는 경성사범, 게이조 취향이라고 그건 아주 그냥.

경성사범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도립사범은 서울에 있지만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경기도로도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고태영 교장은 어디 사람입니까?

고태영 그 양반은 저기 인천 분으로 아는데.

인천 출신이군요, 그 다음에 황기익 씨는?

황기익 씨는 강화 분이고.

강화 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셨던 기억하는 다섯 분, 교장은 외지 분들이 세 분이고 인천 출신이 두 분, 강화까지 두 분이군요. 뭐 재직하실 때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일 같은 건 있었나요? 뭐 4·19도 지나고 5·16도 지난 다음에.

사범학교를 다시 가가지고 4·19가 터졌는데 그 때에 창영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하나의 자만심이라고나 할까.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창영에 근무하시면서 교사들이 전부 자존심이 많았나요?

그렇지. 공설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일 큰 학교는 해방 된 뒤라서 신흥, 창영을 정면으로, 잘 보이게.

그러니까 양대 학교니까. 본부석 정면에.

그렇지, 그렇지. 양대 학교인데 창영은 호랑이, 호랑이를 무슨 코트라고 해요. 마스코트라 그러나, 그리고 신흥은 백마. 그걸 인제 양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응원을 했겠죠.

밴드부가 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밴드부도 두 학교가 있었군요.

신흥, 창영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창영에 밴드부는 몇 인조가 되었습니까?

한 오십 명 되려나.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인고 밴드부나 공고 밴드부로 갔겠네요. 그랬군요. 그렇게 체육대회를 두 학교가 겨뤘고.

글쎄 어찌된 게 다른 학교는 상대가 안 되지.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신흥, 창영이 돼서 그제 얘기가 인천 시내에 학교가 뭐냐면 타도 창영이야. 창영만 꺾으

면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창영학교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경기도 지정 특별학교, 특별활동이에요. 무슨 음악부니 미술부니 서예부니.



1950년대 서곶초등학교 농업실습

도 지정 특별학교라고요?

특별활동 연구학교, 나는 그때 서예부를 맡았어요.

선생님 음악도 좋아하시고 작문도 좋아하시고, 음악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

음악을 그렇게 잘 하셨는데 서곶초등학교에서는 최고이셨죠. 창영에는 더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현덕영 선생이 음악 담당이고, 그래서 나는 서예 담당했고.

선생님은 서예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창영이 공부만 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활동이나 체육활동 아주 잘했네요.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그룹 활동이 58개부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58개부나 했다고요?

그게 서곶학교 같은데 열두 개나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음악부, 미술부, 그런데 거기는 워낙 크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밴드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헛갈려서.

그러니까 아침 조회를 하고 나서.

조회 말고 그 특별활동은 조회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하는 거지. 아침부터 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각각 58개 들으려 가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밴드부에 한해서 음악부, 사회부, 어느 부 이렇게 불러주면 그 반 들어가고 그 반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진짜 그러니까 클럽 액티비티, 특별 활동이 끝난 다음에 교실로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활동을 하러 들어갈 때 막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럼 특별활동은 언제 했는데요? 무슨 요일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요일 날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1회인데 수요일 날 했다 이거죠? 근데 몇 시간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40분이 한 시간인데 아마 두 시간, 80분 했을 걸.

아, 특별활동 시간이면 난리 나요. 창영학교 운동장이 둘 아니에요. 1,2,3학년은 앞 운동장에서 교감이 주관하고 뒤 운동장에서는 4,5,6학년을 교장 선생님이 주관을 하고, 한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전교생이 동시에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적도 있고 따로 할 적도 있고, 그럼. 아 저기 저기 뭐예요. 특별활동은 워낙 창영학교가. 뭐로 또 유명했냐 하면 내가 또 뭘 담당했냐 하면 창영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를 담당했어요. 전교 어린이회장은 뭐냐 하면 각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가지고선 전교 어린이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꼬마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듣고 외지에서도 어린이, 전교 어린이 하는 것을 관찰하러 온 그런 것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사진도 있지만, 전교 어린이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예,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선생님, 그런데 창영학교가 다시 앞 쪽으로 돌아가서 공설운동장 연합체육대회 가서 뭐 우승도, 상도 많이 받고, 특별활동도 많이 하고 시가행진도.

우승해서 시가행진도 그렇게 못해요, 밴드부가 있어야 밴드부 맞아서 배다리로 해서 짜리재로 해서 넘어가서 시내를 한 바퀴 돌 때는 으쓱으쓱하지.

네, 그렇죠, 그랬는데, 사범학교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명문 인중에 집어넣기 위해서 경쟁도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의 독려도 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 요구도 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중학교 몇 명 몇 명을 못 붙이면 그 다음에 6학년을 안준다니까, 그렇게 심했다니까.

그러면 학부형들도 압력이 있지 않나요?

압력도 알게 모르게 있었지만, 그건 교장선생님이 인중을 다른 국민학교보다 많이 붙이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넌 6학년 할 자격이 없으니까 요거만 하고 그 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갈아 치우고 그랬대니까요.

그러니까 인중을 많이 못 넣으면, 그렇죠?

인중을 많이 합격시키지 못한다면, 학급단위로 바뀌치는 그런 일이.

6학년 바꿨다 이거죠?

그렇지.

선생님은 나중에 장학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까지 하셨는데, 관리자도 하셨는데, 인제가 제일 심했습니까? 인중 있을 때, 경쟁할 때가 중 말입니다. 나중에 땡땡이 된 다음에는 심하지 않았고요.

땡땡이 돌리고 나면 시들해졌지.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날로 이야기를 돌려서 창영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창영학교를 둘러싼 문제점 말입니다. 그 자리가 개발의 뒷전에 밀려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개발하려 하는데 배다리를 보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활발하게 개발이 되는데,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정체되다 보니까, 오히려 옛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보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옛날 모습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창영 앞에는 애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1907년에 개교해가지고 그전에 을사보약이라는 것을 들었죠?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영화중학교하고 창영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창영학교가 아니에요.

공립보통학교죠.

그냥 인천공립보통학교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냐면, 쇠뿔고개이기 때문에 우각보통학교, 우각소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영학교가 그렇게 되고 해서 건물도 창영은 건드리지 않고 손을 안대요. 신흥, 축현은 이사도 가고 학교 허물기도 했지만 창영은.

창영, 그대로 다 남았나요?

2층집 그대로예요.

창영이 개교 초기의 건물이 그대로 문화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잘한 거라 이거죠?

아 그럼요. 현관 입구에는 강재구 소령 동상이 있는데 흉상이에요.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간 지는 오래되었지, 흔적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아까 애기와 같이 창영이나 송의 같은 데는 옛날에 애기지 요즘은 개발되어 가지고 아파트 세상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아파트로 다 빠져나가서 늙은이들만 학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영학교에 내가 갔을 적에 102클래스인가 이렇게까지 되었던 학교가, 교장들

도 갈려고 하지 않고 학부형들도 늙은이들만 가지. 젊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5학급 12학급 그렇게 되었었어요. 안가요.

그게 양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인천에 선생님 오늘날에 개발드라이브 때문에 다 도시가 헐리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창영학교는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보전운동을 해서 현책방들도 보전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제대로 안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출근하실 때 쇠뿔고개를 배다리 삼거리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이쪽에 기독교 사회관이 있고 영화학교 있고, 그렇죠?

나는 먼젓번에 얘기지만, 창영학교 일단 가가지고서는 6학년 담임 맡고 뭐하기 때문에 집에서 못 다니고.

집을 서구에서 못 다니시고.

그럼요 서구에서 못 다니고 금곡동. 한때는 금곡동, 한때는 송림동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내가 네 번을 했었어요. 인천시내 가서도, 그래야 학교를 제대로. 그리고 또 내가 아주 잊지 못할 것은 온실을 담당했던 말이야. 그 때의 온실이 인천의 신흥하고 창영밖에 없었어요. 온실이. 나중에 얼마 있다 선인학교가 생겼는데. 아, 이종필 교장선생님을 빠뜨렸구나. 그 양반은 충청도분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요. 충청도 분이면서 대구사범이에요. 이강민 씨마냥. 옛날에는 평양사범, 경상사범, 대구사범 그렇게 셋밖에 없었어요.

지방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절 금곡동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금곡동은 그래도 송월동이나 만석동이 가난했지 거기처럼 가난한 동네는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는 달랐지. 정말 가난한 데는 수도권산. 그런데는 어려운 사람들만 살았고, 창영 다니는 애들이 사는 유동, 율목동 이런 데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괜찮게 산 사람들이지. 신흥학교 학군은 관동이니 이런 데는 일본사람들이 살다가 간 데가 되어서 더 좀 집도 그렇고 조선기와라든지 이런 옛날 저기가 없고 다들 신지역이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역사가 깊고 하기 때문에, 창영하면은 나도 뭐 내가 잘나가 창영 간 것이 아니라 하도 한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

그래도 잘하시니까 가셨죠.

아냐, 잘 한 거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기 돌아가셨는데 공병목 학무과장이 그건 내 잊어버리지 않아요. 공병목 학무과장, 그 양반이 학교 장 학지도를 나오셨더라, 이런 말이에요. 서곶초등학교에, 그랬는데 공병목 학무과장님이 날 불러요. 그래서 “자네 여기가 고향이지?” 그랬더니 네 여기 고향입니다. “자네 여기 몇 년 있었어?”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니까는 “이 사람아, 자네 가정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거기 오래 있는 줄 알지만은 젊은 사람이 시골에만 틀어박혀있으면 어떠하냐. 시내로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추천을 해서 제일 역사 깊고 의미 있는 학교로다가 가라고, 시골에서만 고생했으니까는 그래서 창영학교를 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창영학교 주변 여쭙보고 있는 건데, 거기 그냥 가다보면 양조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헌 책방도 몇 개 있었겠죠. 헌 책방도 몇 개가?

아, 창영학교에서 배다리로 가는데 헌책방?

왜 여쭙느냐 하면은 열네 분 중엔 채록하시는 분 중에 오늘날에 옛날에 거리를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줄 만 한 분은 선생님밖에 안계시잖아요.

그걸 거예요, 그거. 본토박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그렇죠, 거기 선생님 그러면 양조장이 창영양조장이 오른쪽에 있고, 그 밑에 아이스캐기 집들도 있고.

어, 송림학교 옆에는 성냥공장이라고 왜정 때 아주 유명한 성냥 만드는…….

성냥 만드는 공장이
췌, 송림학교 건너편이
췌?

해방되면서 없어졌
지.

네, 동인천경찰서에
서 송림4동 쪽으로 가
서 그쪽에 성냥공장이
있었췌. 그 다음에 쪽
올라가다 보면 기독교

사회관도 있었췌. 그 다음에 창영학교 지나서 영화학교도 있었췌. 영화여중. 쇠뿔
고개처럼 소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우각 우각. 쇠뿔 우각.

그 당시에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도국산이나 송월동이나 만석
동 그쪽보다는 나았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많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면 송의동이 아주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다녔었
어요. 전도관인가? 그 근처에 그 계절학기 그 산 등세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
서 가정방문 가면, 이진 뭐라는 얘기냐면, 유동, 울목동이 잘살았거든요. 이제
자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으려고 하면, 유동,
울목동이나 금곡동으로 가야해요. 그런데 송의동은 왜 안 갔냐 하면은, 딱딱
대문 두드리면 누가 나오는데, 누구시냐고 그래서 학교서 왔다고 하면은 슬그머
니 문을 닫고 들어간단 말이야. 뭐 대접할 것도 없고, 아주 선생 오는 걸, 큰 저
기로 생각했다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

난처하게 생각한 거췌.

그렇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뭐 술 한 잔 대접할 저기도 없고 하니까는 그렇



초등학교 체육대회

고, 학교 다닐 때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운동화가 귀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신발 잃어버린 애들이 많아.

그런데 그 신발 잃어버린 애들은 주로가 송의동 아이들이야. 그러면 송의동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신발 찾아달라고, 신발은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운동화가 있으면 신고 싶으니까 애들이 지고무신 짝은 내버리고 운동화 바꿔 신고 가고 그래서 그냥 학부형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죠. 내가 처음 창영학교를 가니까 김광수 교장이 자네 시골서 왔으니까 온실을 맡으라는 거야. 아니 온실은 뭐냐 하면 거기 뭐예요 스템장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꺼지면 안 돼.

그러셨군요, 교사 처우가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어땠나요? 처음에 동두천 부임해 가셨을 땐 어떠셨어요?

하숙을 내가 서너넛 몇 번, 삼 년 동안에 세 번인가 네 번을 이렇게 했는데, 가서 돈 얼마씩 주고 얻어먹는 거죠. 밥, 주인집 왔다가 하는 건데, 처우라는 것이 뭐 별로 없었어요.

하숙비를,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내실 정도 되었나요? 1/3이요?

그때 봉급도 얼마 안 돼서, 선생들이 학부형네 집에 많이 있었어요.

학부형네 집 중 괜찮은 집에 있어서 아들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공짜로다 다 얻어먹는 게 아니라 얼마씩 줬었지.

그러면 선생님 인천에 오셔서 인천의 교사들은 어땠는데요? 인천의 타지출신 교사들은.

인천에도 그때 뭐 대한민국이 뭐 다 비슷비슷해서.

총각 교사들은 학부형 집에 기숙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하

숙비를 싸게 받거나 안 받거나 그랬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주고 하니까는 싸게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러면 선생님, 그 당시에 시청 직원하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시청 직원 초봉하고 사범학교 나온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좀 나왔었겠죠? 말단 관리보다는.

그게 뭐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셨겠군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남녀균형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사범학교는 50:50으로 남녀를 뽑았다. 그런데 그게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영학교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해마다 학년 올라갈수록 반 편성을 따로 하는데 몽땅 60명이면 60명 여자, 또 몽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했지 남녀로다 섞어서 안했다고.

아뇨, 선생님. 선생님들이요?

남자가 더 많았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교단에 설 때 여선생들이 결혼하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었죠?

권고사직은 안하고 그냥 결혼한 여선생님들도 다니고 처녀 선생님들도 다니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교사들이 선생님 아까 창영의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사범학교 출신들이 더러 계셨는데 인천시내에 60년대 70년대에 교사진들이 요 새는 지역 정체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타지 교사들 출신 교사들이 많아서 조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약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인천출신 교사들이 많았겠죠?

인천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서쪽에 주로 계시다가 동두천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시내에 계셨는데 그 다음에 도서벽지에는 인천 시내에 어디에 분교가 있었습니까?

그때 인천 시내에는 청라도에 있었고…….

청라분교는 어디 소속이었죠?

아, 이렇게 됐어요. 청라분교는 창영학교가 맡았었고, 창영학교가 본교고 말하자면 뒷배를 봐줬고 울도는 그 때에 축현학교에서 봐줬고, 세어도에는 분교가 있었는데 송현학교가 맡았지.

근데 선생님, 제 누님 1942년생 누님 초등학교 졸업사진에는 왜 청라분교가 애들이 따로 오려서 집어넣었는지? 그때는 서쪽 소속이었나봐요.

그 전에는 여선생이 하나, 남선생이 하나 있을 적에는 졸업사진 찍을 때 청라도에서 와서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지가 않았고…….

그러면 당시에는 청라하고 울도하고 세어도 세군데만 분교가 있었군요.

청라도, 울도, 세어도만 사람이 살았으니까.

세 군데만요? 강화는 인천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우, 강화는 그럼 그때는 강화군은 인천이 아니지.

강화는 오늘날에 인천이 됐으니까 강화에도 분교가 있었습니까?

강화에는 내가 알기로는 강화는 본토에 10개 면이고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뭐냐면 교동.

예, 교동하고 주문도, 석모도요?

석모도가 그게 섬 이름만 석모도지. 학교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 강화는 교동면 석모도에 있는 것은 무슨 면.

그럼 강화도에도 분교들이 몇 개가 있었군요?

셋이야 셋.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교동초등학교, 또, 석모도에 있는 학교가.

오늘날의 인천 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인천이 떨어졌습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제물포고등학교나 그런 학교가.

그때에는 별로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어쨌든 인천에 제물포고등학교 애들이 대학교를 많이 가서 과 톱을 하고 대학에 무슨 과, 무슨 과에서도 십 몇 개 과가 제고아이들이 가서 톱을 끊었다고 그런 소문이 났지. 뭐 중·고등학교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대강 선생님 계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그런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인천이 괜찮았던 거죠? 그러다 80년대 이후부터 기울었나요?

80년대 이후에 좀 그런 점이 있었죠.

남부지방 교대 출신들의 전입이 인천의 정체성을 약화시켰어.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육열입니까? 교사진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교육열도 그렇고 교사진도 그렇고 그때는 인천만 하더라도 저 아래 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주교대나 초등학교만 알고 중·고등학교 모르는데 100명이 못되면 저 큰 학교보다 합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교사들이 전주교대나 무슨 교대나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점점 학령 아동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병합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남

는데 좋은 교사자원은 거기서 발령내서 붙잡고 남는 선생님들이 오고 그랬습니까? 좋은 교사는 자기들이 붙잡고,

학생들을?

아니 교사들어요, 거기서 남는 교사들이 인천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덮어놓고 오는 거지, 잡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인천의 지역적 정체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그것도 있죠?

그런 점도 있지.

그 다음에 학력 저하도 원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원 인천 토박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지고 와서 하니까 열의가 뭐 있나. 있는 날까지 있다 보는 거지. 원래 우리처럼 죽어도 인천 땅에 묻힐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었지. 그렇잖아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무슨 애착, 애향심이 있습니까?

대강 80년대 성적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도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대강 제가 질문 여쭙는 거는 다 됐는데요, 오늘 두 시간, 이틀 동안 한 세 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빼 먹은 건 없는지.

아니, 저 창영학교에 있을 때 내가 어린이회장단 했다는 얘기도 했고, 강재구 소령 동상 개막식 때도 했고,

강재구 소령 동상 제막식은 언제 했습니까?

내가 가서 6년 동안 있었는데 3년 되는 해인가?

66년인가 67년이죠? 베트남 참전 시작할 때요?

그 전이지. 그렇지. 그 연습하다 수류탄 던지는 걸 저리로 들어가는 것을 강재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영 출신으로 육사 졸업한 강재구 소령이 육군대위로 있다가, 분이 이제 창영을 나와서 인증을 나와서 고등학교는 뭐 어디 제고가 아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베트남 참전 직전에 대원들 훈련시키다가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죽었는데, 그니까 이제 인증에 세우냐, 창영에 세우냐 그러다가 창영에 세웠는데 그때 이제 육영수 여사가 왔다 거나.

에이, 전혀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누가 왔거나 그런 건 일체 보지도 못했고,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인중학교에서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얘기를 해서 창영학교 다닌 게 더 억울하지 않냐 6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중학교는 3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중학교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여쭙게요. 교단에 서서서 40여 년을 보내셨고 인천 초등교육의 증인이신데.

전체적으로 45년이지.

45년이신데, 선생님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날의 교육계에 하실 말씀 한 가지만 하시죠. 오늘날의 교육계에 뭐 옛날보다 좋은 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잘못 된다는 건 저 왕따니 뭐니 해서 어려운데, 그것은 아이들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측, 선생님 담임선생님 학부형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건 아이들도, 뭘 알아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아무개가 미우니까 뭐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텅달아서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요? 일본의 이지에 같은.

이지메라고 했었죠, 일본말로, 우린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난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나는 뭐냐면 학교도 그렇고, 담임도 그렇고, 학부형이라고 해서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어미 애비가 잘 하면은 자식들도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따 그 책임은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사회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지, 그게 걱정이지, 요즘에 돌아가는걸 보면 내가 교육계에 안 있었다면 모르지만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서로 미룬단 말이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그랬다 그러는데 담임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 학력도 잘 이끄셨지만 온실지도도 하시고 작문지도도 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날은 그런 계획이 옛날보다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없어요, 안하는 거보다 그걸 하는 사람이 없을 거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서 왔다고 해서 온실 맡겼죠? 화단정리 내가 다 했다고요, 시골서 온 촌놈이라고,

서곳에서는 음악지도도 하시고 작문지도도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김 선생 시골서 그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김철수 교장하고 내가 참 통지게도 많이 지고 그랬거든요, 그걸 말아가지고……, 말으라는데 어떻게 교장이? 싫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옛날보다 그런 걸 못해서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영학교 운동부처럼 체육대회도 다시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얘기지만, 가을이 되면 으레 운동회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그나마도 했던 말이에요, 이제 그나마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학교가 많으니까 구별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운동회라는 것이 없고, 우리 어렸을 때는 봄에는 어른들 활쏘기 대회가 그게 큰 구경거리고, 가을에는 각 초등학교, 그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 운동회가 무슨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시골에서 운동회는 운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락민, 뭐 전체가 다 하나의 큰 경사라고 할까 축제로다가 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시시하더라 이거야. 나도 그만둘 때, 정년퇴임할 때까지도 운동회가 있었어요.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귀한 말씀 정리 잘해서 인천시사에 잘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할 것은 참고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역시 큰 데서 고기도 큰데에서 놀아야 한다지만 그런 데서 정말 많이 배운 점도 많아요, 그래서 참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이 도움 되고, 졸업식 때만 하더라도 그때 워낙 큰 학교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다 나왔었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창영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축사를 하라니까 그 양반이 된 분이니까 내가 여기서도 그런 소리를 하지만 교장선생님이 먼저 한 말씀하시라니까 그 양반이 백문교부장관이 여기 학교의 주인이 누구요? 그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교장이 주인인데 왜 남을 시키는 게 어디 있냐? 그건 예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시키지 않아서 못해요, 근데 그 양반이.

그게 대강 몇 년쯤입니까? 매 번 온 건 아니죠?

1964년도나 5년도쯤 그 양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그 책을 낸 뒤로 가끔씩 보는데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찾아보나마나 여기 책이 있으니까 보여 달라면 보여줄게요. 참고를 하겠다면.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가다 사무실에 가서 메모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땀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라도 말씀 주시면…….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교육계에 있을 때에도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이 큰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 온 거지.

선생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교수, 자네가 애썼네.

제9장



김병상 몬시뇰 신부 _____

충남 공주 출생

충남 공주 유구국민학교 졸업

홍익대 국문과 졸업(1961년)

가톨릭대학교 졸업, 사제 서품(1969년)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교회 보좌 신부(1970년)

은퇴시까지 인천교구에서 사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창립 참여 활동(1974년)

목요회 창립, 회장 역임(1989년)

현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 채 록 자 : 이희환(시민과 대안 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채록일시 : 2012년 11월 28일

■ 채록장소 : 인천 중구 신흥동 정남아파트 자택

제9장 정의구현을 위해 인천에서 사제로서 걸어온 한평생

일평생을 돌아보며

새로 발간할 예정인 『인천광역시사』에 인천의 원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구술로 듣는 인천에서의 삶과 도시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상 신부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신부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김병상 신부님께서 인천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으로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드신 건 알고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셨고 인천에는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선 전혀 몰라서 먼저 말씀 여쭙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 유구. 공주군(公州郡) 유구(維鳩)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에 오게 된 것은, 우리 형님들이 일제 때부터 여기 인천에 와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공주 유구에서 마치고, 중학교를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인천에 오고 됐어요. 중학교를 6년제 중학교를, 서울 용산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신중학교 …….

성신중학교요?

네, 성신중학교, 거기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형님들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했죠. 그러고서 내가 정식으로 인천에 있게 된 건은 9·28수복이라 하나 뭐라 하나?

9·15 상륙작전이요?



젊은시절의 구술자

인천상륙작전 그 후에, 9·28수복 후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했다는 말은, 그때 어린 나이니까 부모님 따라서 여기서 살게 됐죠. 그때가 50년도 6·25가 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 나고 1952년도 됐어요. 1952년도에 인천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죠.

살면서 이제 6·25를 겪어 가는 거죠. 겪어가면서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인천에도 형님네와서 살면서, 이제 방학 때는 인천 오고 학교 재학 중일 때 서울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여기서 한 거예요. 인천서.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학도 여기서 가고, 대학은 그 당시 홍익대학 들어갔어요. 홍익대학 들어갔다가 그래서 인천사람이 된 거죠. 인천사람이 돼서, 대학도 인천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부학교, 신부가 되는 가톨릭대학 있어요. 서울에. 그리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1963년 아주 나이가 많은 1969년도에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은 인천에서 계속 활동을 한 거죠. 활동을 하고 그리고 1970년대에 73년도인가? 74년도에 유신헌법이 생기면서 박정희의 폭정이 시작되는 거죠.

1974년도에 폭정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 신부들, 젊은 신부들이 박정희의 유신헌법의 잔인성, 폭압성,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를 향해서 전면적으로 봉기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항거를 했죠. 항거라는 말이 맞겠네. 항거했어요.

그러면서 신부생활을 하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이라는 독재자에 대한 일종의 항거를 했죠. 그때 천주교에 젊은 신부들. 그러면서 인천에서 지금까지 몇 십 년 살았나? 1969년도 신부 됐다고 하더라도 70년도 한 40년 이상 살았네. 그래서 이제 인천사람이 된 거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천주교 신부로서 인천에서 상주하면서 인천에서 사목활동이라고 그래요. 사목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겹쳐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이 박정희의 부패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의 사제단, 사제단들이 때를 지어서 항의를 했지. 그러다가 박정희가 죽

던 해가 몇 년이지?

1979년이요?

1979년이지. 그러니까 1977년도에 유신헌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답동성당에서 기도회를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박정희 유신헌법 철폐, 언론자유 보장하라!” 그리고 “박정희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다가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서 답동성당에다, 답동성당 주임신부 할 때가거든요. 성당의 마당에다 그거를,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 놓고, 그리고 지금 가톨릭회관이죠? 거기 가 보셨어요?

네, 가봤죠.

가톨릭회관에 신포동 쪽으로다가 스피커를 아주 크게 달아 놓고, 그걸 고성능 스피커를 달면 동인천까지 들려요. 그래서 인제 막 박정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했더니 내가 인제 그전부터 계속 그걸 했으니까 내가 항상 정보사찰의 사찰대상이었죠.

그리고 1977년도에 구속돼가지고 인천교도소 가서 얼마 한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인이죠? 투사가 된 거야. 인천지역에서는 유신헌법 때문에 유신에 항거하다가 들어간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일반 주민들은 유신헌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독재적인 법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걸 잘 몰랐는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이거, 대단하게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이구나!’ 그런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도소 가면 여기가 이렇게 요만한 천으로다가 될 붙여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붙이면 그 붙이는 색깔에 따라서 죄수의 종류가 구분돼. 사상범, 사상범도 소위 박정희를 반대하는 사상범, 또 간첩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문제되는, 그래서 사상범이 1, 2, 3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아주 다루는 거를 얼마나 엄격히 다루는지, 우리는 아주 특급 사상범이야. 박정희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특히 정보계통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지. 정보계통에서는 인천서 내가 아주 그 정말 골치 아프면서 항상 중앙에서 나를 통제하라는 지

시가 구체적으로 정보국에서 내려오고 치안국에서 내려오고 또 정보계통에서 내려오고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별로 모르지만서도, 그 유신헌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아마 당신들도 그때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그 유신헌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제 전국에 그런 천주교에서 하는 집회에 전국으로 다 다니는 거야. 또 그리고 거기서 자꾸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끌려 나가는 거야. 집회에 자동적으로. 그래서 인제 인천에서는 기관 특히 정보기관에서 피곤한 존재가 되었지. 그리고 인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는 항상 나를 불러갔어요. 나를 앞잡이로.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 대해서 인천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명인사가 됐으니까, 나를 불러가서 사회의 시민들 모임에서도 나를 끌어내서 앞잡이도 하고 중잡이도 하고 뒷잡이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인제 지금은 전보다는 유신헌법 하고는 정면으로 충돌은 또 유신헌법이 사회 운동권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저항 받은 결과 또 유신헌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라는 걸 알게 됐지. 여기 있는 두 분도 60년대 생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 진짜로 그거 얼마나 그런 법이었어.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이니까, 천주교 신부니까 활동이 좀 자유롭지.

함부로 잡아 갈 수도 없고 잡아 갔다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서 활동을 더 자유롭게 인천지역뿐 아니라 서울모임, 지금도 가잖아. 모임 있으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또 오라고해요. 신부들 모이면 서울 시민광장에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가고, 또 지금도 신부들 모임이 서울에 있어요. 그 사무소가, 정의구현사제단 모임이라고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모임을 매달 한번씩 하고 또 거기서 전국의 신부들한테 어떤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뒤로 돈도 걷어 보내주고. 인제 인천에서는, 인천에 대해서는 ‘저 신부가 피곤한 사람이다!’ 그랬지. 인천시민들은 나중에 훨씬 지나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움직였지. 시민회관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지?

5·3인천사태요?

5·3사태,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나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은, 일 반적으로 인천시민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전부 객지에서 모여드는 곳이죠, 그렇죠? 객지에서 모여드니까 벌어먹고 살기가 피곤한 데예요, 바빠! 바쁘니까 그런 거, 민주주의가 뭐 거꾸로 되든 바로 되든, 박정희가 사람을 잡아 난도질을 치든 뭐, 별 상관을 안 했어. 인천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흐름이야, 흐름이라는 것은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그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 다 이주해 온 사람이고 또 황해도, 황해도에서 많이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피곤해.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하다.

네, 지금 개략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좀 더 궁금한 것을 여쭙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 충남 공주면 유구읍인가요?

아니, 유구는 읍이지. 면 소재지면 읍인가? 명곡리라는 곳이지.

원래 그러면 집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6대째,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6대째 믿었죠.

그면 혹시 집안에 순교자도 있으셨어요?

그럼 신부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수녀도 있고.

아니요, 6대면 굉장히 오래되신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박해당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순교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고요?

그때는 수도자가 별로 없었고,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 그거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있다고만 전해 내려오지 누구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거 같애.

아~ 네, 굉장히 전통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성당도 다니시지요?

아니, 일제시대니까 뭐 성당은 없어요. 거기는 아주 벽촌이라 성당이 없어요. 성당 가려면 공주읍으로 가야 해요.

읍으로 가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군청 소재지에 성당이 하나, 일제 때. 그러니까 군청에 사는 사람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성당 가려면 군청 소재지로 가야지.

그러면 국민학교는 어디 공주에서 나오셨어요?

네, 공주가 아니고 유구. 유구국민학교.

근데 아까 인천에 형님들이 먼저 올라와 계셨다고 했는데, 친형님들인가요? 형제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저희 큰형은 일제 말에 올라갔어요. 사형제인데 제가 막내이고,

형들을 따라 인천 배다리로

형님들이 인천으로 올라가신, 먼저 가 계신 이유가, 인천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가난하니까. 도시로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먼저 뛰어 나간단 말이야. 그 시골에서 가난을 면하려고.

인천 와서 어떤 직장을 다니셨나요?

아니. 그때는 직장이라는 게 없었죠. 자기 각자 지게 품이라도 벌어먹는 건데. 우리 형님들은 장사를 했대. 인천에서. 배다리시장에서 포목장사를 크게 했어요. 명곡상회라고, 지금도 간판이 있어요. 배다리 가면.

면목상회요?

명곡, 명곡리라는 게 내가 살던 고향 이름이야. 지금 간판 붙은 건 있는데. 옛날처럼 가게가, 지금 다 죽었잖아, 시장이.

가세가 많이 피셨겠어요, 포목점하면서 많이 나아지셨겠어요?

아 그렇지. 한 때는 낫발 좋았지.

그때 신부님 연배에, 대학가고 하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그렇지. 우리 형님들은 학교도 못 다녔는데 동생인 나를 가르쳤지.

형제분 중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도 성신중학교로 가신 거죠? 중학교 입학하신 게 몇 년도가 될까요?

1947년도, 그때는 늦게 들어간 거지. 그때는 초등학교도 늦게 나오고…….

서울에서 기숙사생활 하시면서?

신부되는 학교는 다 기숙사예요, 지금도 서울에도 다 기숙사, 인천 강화도 기숙사, 육군사관학교하고 비슷해요.

위로 세 형님들이 다 인천에 계셨나요?

네.

기숙사생활 하시면서 인천으로 언제 내려오셨어요? 그때 머물던 곳이 배다리 쪽인가요?

우리 집은 송림동, 송림국민학교 옆에. 토요일 날 내려오고, 방학 때도 내려오고.

그러면 성당은 송림동성당 다니셨나요?

그렇죠.

송림동성당은 제가 알기로 1955년도에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답동으로 다니셨나요?

그전에는 답동으로 다녔지요, 그때는 인천에 성당 하나니까, 고잔에서도 여기 답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러시다가 성신중학교를 졸업하시고, 6년제죠? 6년제를 졸업하시고, 아마 그 무렵이 졸업하실 때면 전쟁이 끝났을 때니까, 아예 인천에 정착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서울서 공부하다가 6·25 만나서 피난을 시골로 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9·28수복될 때는 다들 이리 들어왔죠, 수복됐을 때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인천으로? 서울로 안 가시고 인천으로?

인천에 형님들이 계셨으니깐.

피난은 고향마을로 가셨던 거고요?

예.

전쟁 때 기억 같은 건 나시는 게?

고향마을 산골, 아주 깊은 산골, 거기 숨어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갔다가 인민군, 철수하는 인민군 있잖아요? 인민군들한테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어려서 안 죽었어요, 인천서 피난 가서 고향 골짜기니깐 고향이 시골이니깐 거기 와서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피난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철수하는 인민군한테 잡혀서 다 죽었어요, 불쌍하게.

어린아이들은?

놔주고,

전쟁 직후의 인천과 대학 입학

그러면 신부님이 인천에 처음 오셨을 때, 서울서 기숙하다가 인천에 오셨을 때, 인천의 인상 같은 건 어땠었나요?

인천은, 그때 뭐 다 아는 애인데, 인천이라는 게 하인천, 동인천, 그리고 저 송림동 쪽은, 송림동 가다보면 성당 뒤 거기는 다 초가집이에요, 거기가 6·25 때 미군이 함포 사격할 때 월미도에서 바라보는 동네는 다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초가집이 자꾸 지어나가는 거지.

그 초가집들 생겨나는 게 인천 객지로 모여드는 사람들 집 짓고, 주택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저 박문여고 그쪽에는 뚝고개라는 들었죠? 뚝고개란 말이, 인천 시내 이쪽에서 가정집들 변을 전부 물지게 같은 걸로 져다 거기다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 놓고 변을 다 가져다 부어놔. 부어놔다가 봄 되면 그걸 퍼서 밭에다가 농사 짓는 데다가 뿌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름이 뚝고개예요, 뚝고개.

박문여고 쪽이요?

박문여고, 그리고 이쪽 송림시장 안쪽, 송림시장인가 거기 어디야? 현대시장. 거기가 다 뚝고개야.

박문여고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데요, 박문여고 이전하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교회니깐 뭐 좋다고 생각해. (웃음)

교회 입장 말고 신부님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말 못해.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그게 퍼져나가면 또 우리 교회지도자들 입장과는 달리 그게 구전으로 전해서 반대했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순명해야 되는, 이런 건가요?

순명보다도 뭐 현실적인 거지. 거기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어.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송도로 가는 거지. 송도에 연세대학교 땅을 줬거든? 그 땅을 줬는데 실가로, 살 때 가격으로, 지금은 그렇게 못 사지.

전쟁 이후에 송림학교 옆에 사셨죠? 그 뒤에는 수도국산은 달동네였죠?

우리가 수도국산 중턱에 살았어. 그게 다 이렇게 충청도, 서산, 당진 이쪽에서 배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이 그 쪽에 초가집 짓고 살던 동네지. 이쪽은 여기 관교동, 일본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쪽 도시를 개발하면서 한국사람들 중에는 돈 있는 사람들, 경동 좋은 데예요. 경동 되게 좋았어. 울목동, 다 부자들 살던 데였어. 일본사람들은 송학동 있지? 송학동에서 자유공원에서 인천 월미도를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집 지은 건 거의가 일본 사람들. 일본사람들 아니면 조선사람인데, 일본인한테 붙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살던 곳이지.

그 당시에 배다리시장 기억도 나세요? 그때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랬다는 데요?

그때는 뭐 내가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네가 거기서 가게를 크게 했으니깐, 거기서 방학되면 우리 집은 송림동 그쪽이니깐 송림성당 그쪽이니깐. 거기는 뭐 한강다리가 끊어졌잖아? 끊어졌으니깐 한강 이남 쪽에 수원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여기 물건 사러 왔어. 배다리 그때가 황금시기였어. 돈들도 많이 벌고, 영등포는 또 서울 못 들어갔으니깐 영등포 시장이 푸짐했었어. 인천 시장 상인들이 영등포에 물건 받으러 가고 그랬어.

철교 밑에 삼거리, 거기가 다 시장이었던 거죠?

거기서 쪽 가면서, 저쪽을 하여간 시장 있잖아? 저리 화수동까지 올라가는?

중앙시장이요?

네, 그때 거기는 가격도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

6·25전쟁 때 건물들도 많이 파괴되고 답동성당도 사진에 보면 일부 훼손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총, 위에서 기관총 쏘 가지고, 기왓장이 뚫어졌는데, 그때 건물이 남은 게 서울 한국 천주교 최고 주교가 미8군한테 가서 거기는 부수지 말아라, 그래서 폭격을 중단했어, 명동성당도 그런 거야. 거기도 인민군이 꼭 찼었어. 인민군들이 천주교 성당을 안 부술 거라고 그 놈들이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본부.

성당에다가 본부를 차리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니까?

그렇지. 공격 못하니까.

못할 걸 아니깐, 그때 노기남 주교님이었나요?

그렇죠, 그땐 여기도 다 서울에 속한 교구지, 대목구 아니고 그냥 서울교구.

그럼, 인천교구로 떨어져 나온 게 몇 년도예요?

떨어져 나온 게? 1963년? 메리놀로 변경된 게 1963년도 같아요, 내가 1963년에 신학교 다시 들어갈 때 인천교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홍익대에 들어가신 건 몇 년도에 들어가신 거죠? 홍익대에 입학하신 건 몇 년도 정도 되나요?

1958년도.

그러면 전쟁 때문에 한창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중학교 졸업도 늦어지시고 대학 진학 사이에도 공백도 있으시고 그랬겠네요?

그때는 대학 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생각을 못하지, 대학교 입학이. 인천에 대학이 경희대학교도 있었고, 그때는 경희대학이 아니고 무슨 대학이라

고 했더라? 신흥대학, 경희대학 이름이 신흥대학이야. 홍익대학도 있었고, 저기 밀가루공장 같은 데 텅텅 비어있으니깐 거기다 간판 붙여 놓고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는 거야?

그때 대학들이 여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화수동쪽에.

전쟁 때문에 임시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이 수복이 안 되니깐 인천에, 또 부산이나 이런 데 자리 잡은 대학은 더 늦게 수복하고 그랬지.

인천역사 많이 공부했는데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네요. 전쟁 이후 50년 대에는 형님들 일 도와드리고 그러고 지내셨나요?

그때는 몸이 아팠어, 몸이, 몸이 아파서 치료 기간이니깐 도와주지도 못하고 병신처럼 왔다갔다 했지.

대학입학도 늦어지시고, 원래 가시려고 했던 사제의 길도 좀 늦어지신 거네요? 그럼, 사제에 대해 생각하신 게 홍익대 갈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넌 신부 되라. 막내는 신부 되라.” 그러셨어요. 신부가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용산에 있는 학교 거기가 신부 만드는 데야.

근데 홍익대는 왜 가셨어요?

그때 아파서 인천서 쉬는 공백이 너무 아까우니깐, 신부 학교도 부산에 있고, 신학교가.

그땐 신학교가 서울에 없었어요?

그때 6·25 나고 부산에 있었죠. 전엔 서울에 있었지. 피난 후에 피난 대학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 다 피난 나가 있었잖아.

아까 말씀하셨던 홍익대도 화수동 쪽에 있었어요?

화수동 밀가루공장. 지금은 대한제분. 대한제분이 지금은 저쪽에 있지만, 화수동성당 쪽에 있었어요. 그냥 대학들이 인천 여기 주변에 큰 건물 폭격에 부숴진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얻어서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과는 무슨 과로 들어가신 거예요?

국어과.

국어과요? 그때 당시 인천에서 기독교 감리교가 더 컸잖아요?

감리교가 크죠. 인천에 본래는 천주교가 처음에 상륙할 때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미국 감리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감리교회를 키웠죠. 내리교회가 그 교회야.

제가 전에 박문초등학교 학교사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요. 개항 이후 제물포에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오고, 영국에서는 성공회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감리회가 들어와서 서로 전교활동을 벌이는데요. 주로 교육과 의료, 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조선인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종의 종교전쟁이랄까,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 뭐 대원군 때는 여러 번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숨어서 포교활동 하고 그랬지. 여기 인천에서도 뭐, 아무 것도 없는 곳이었잖아. 그런데서 성당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기 어디냐? 연수구 어디지? 하여간 그리로 이사 갔지만, 박문국민학교도 그때 세운 거예요. 왜정시댄 감리교에서 세운 영화학교 하고 천주교에서 세운 박문학교가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죠.

박문학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천주교에서 박문학교를 세울 때 보니까 천주교가 주축이 되고 또 인천의 계몽운동단체들이 결합해서 학교를 설립하더라고요. ‘박문협회’라는 독립협회 인천지회가 생겨가지고 영어야간학교를 먼저 세우고 나서 나중에 천주교와 힘을 합쳐서 인천항사립박문학교를 1901년에 세웁니다. 처음에 교장은 강준, 김교원이라는 조선사람이었지만, 곧 1903년부터는 제물포본당 신부인 에우제니오 드뇌 신부가 교장을 맡더라고요.

난 그건 자세히 몰라요. 하여간 그 당시는 천주교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천주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사제의 길과 함께 민주화에 몸을 던져

박문여중고가 이전하는 과정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께서는 그럼 홍익대를 졸업하시고 신학대에는 언제 들어가신 건가요?

그게 63년도, 1963년도에 가톨릭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구서 1969년에 늦은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았지. 그때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 막 들어온 학생들 하고 나이 차이가 한 12살 정도 나더라고요. 신부 사제서품을 받을 때는 37명과 같이 받았어요.

정의구현사제단을 만드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제서품을 받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내가 교구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인데, 유신헌법이 1972년도에 만들어지지? 1972년 10월인가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한두 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폭압적이야. 그래서 1974년에 젊은 신부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한 일곱, 여덟 명 모였나? 황상근 신부하고 ……., 누

구더라. 다 기억이 안 나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함세웅 신부님도 창립 때부터 참여했죠?

그렇죠. 함 신부가 나이는 나보다 적은데, 신부는 더 빨리 됐어

요. 하여간 그렇게 젊은 신부들이 모여서 유신헌법 체제에 항거를 시작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모이자 해서 자연스럽게 정의구현사제단이 만들어진 거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교회에서 맡으신 일도 있으실 텐데, 계속 교구 사무처장으로 있으시면서 활동하신 건가요?

그 후로 내 활동은 두 가지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천주교 신부로서 사목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운동이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이지 뭐.

사목활동은 어디어디서 하셨나요?

1970년 인천교구 답동성당 보좌신부로 처음 일했어요. 1971년부터 73년까지는 교구 사무처장으로 있다가 75년까지 김포성당 주임신부로 갔었죠. 1975년부터 다시 답동성당 주임신부로 와서 1980년까지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는 부교구장직도 겸직했어요. 그제 1987년까지죠. 또 1980년부터 87년까지 교구 관리 처장과 사무총장도 겸직하면서 대건고등학교 교사도 맡기도 했죠.

네, 인천교구에서 주로 사목활동을 하셨는데요. 인천에 교구가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이 언제죠?

인천교구가 설립된 게 1960년대 초반이지 아마?

그때 파리와방전교회에서 미국의 메리놀전교회로 바뀐 건가요?

메리놀전교회는 원래 이북지역을 담당하는 선교회였어요. 여기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파리와방전교회고 저쪽 경상도도 외방전교회였지. 그러다 남북 분단이 되니까 이북을 잃어버린 메리놀전교회에서 우리도 새로운 구역을 달라고 해서 그때 인천교구를 메리놀전교회가 담당하게 되는 거지. 아마 1962년인가 그렇지 아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인가요? 소위 '김병상 신부 구속 사건'이 있어났죠?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나서 1974년 1월부터인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긴급조치를 9호까지 막 발동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잡아 가두고 대통령 맘에 안 들면 똑 하면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으로 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지. 유신헌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만 해도 잡아갔으니까. 영장도 없이 막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젊은 신부들은 그래도 가톨릭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는 자유로웠지. 함부로 잡아가면 교회에서 가만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유신헌법에 대해 전국을 다니면서 미사를 드릴 때나 집회를 하면서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77년? 1977년 여름이었어요. 되게 더웠을 텐데, 답동성당 주임신부로 있을 때지. 지금 가톨릭회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성능스피커를 달면 되게 크게 들려요. 박정희가 김지하다. 누구다 민청학련이다 마구 가두니까 우리 사제들도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가, 인천 답동성당에서 시국미사와 농성을 하면서 가톨릭회관에다가 커다란 고성능스피커를 달고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했지. 그러다가 성당 책임자인 내가 구속된 거야. 그때 인천에서 민주화운동, 유신헌법 철폐를 말하다가 구속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투사로 알려졌다.

그때 신부님들 중에서 구속된 것도 신부님이 처음이었나요?

아네요, 그때 답동성당에서 미사를 한 것도 그 전 해에 함세웅 신부가 구속된 것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3·1명동사건이라고 1976년, 함세웅 신부가 먼저 구속됐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모이면서 함세웅 신부 구속에 항의해 특별기도회를 열었는데, 1977년 여름에 답동성당에서 그 기도회를 하게 된 거지.

그때가 답동성당 주임신부를 맡고 계실 때라고요? 「인천민주화운동사」 기사를 읽어보니까 인천교구 부교구장으로 소개돼 있던데요?

그때 답동성당이 인천교구의 주교좌 성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동성당 주임신부이면서 주교좌성당 주임신부로서 인천교구의 총대리 겸 부교구장을 맡고 있었지.

그럼 그때 교구장은 누가셨죠? 나길모 주교님이죠?

그렇지, 나길모 주교님이지, 그걸 어떻게 아요?

제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대건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종교시간도 있어서 미사도 드렸구요.

대건중학교 나왔어? 나도 대건중고등학교 교장도 했었는데, 그때 교장이 누구였지, 나 아닌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1980년에서 1982년까지인데요, 강희선 신부님이 교장이었어요.

아, 강희선 신부님, 내가 그 뒤로 교장을 했지. 내가 1985년인가 부임했으니까.



목요회 창립 10주년 기념강좌

당시 담동성당에서 열린 특별기도회에는 몇 명의 신자들이 모이셨나요? 전국에서 모인 건가요?

이때 특별기도회는 주보와 특별포스터를 통해 여러 날 전부터 전국으로 알렸죠. 그러니까 인천은 물론 전국 각 교구에서 신

부만 80여 명이 모였고, 신자도 한 2천 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그때 지학순 주교님도 참석하셨나요?

지학순 주교님이 당시 원주교구장이었는데 강론을 맡았지. 미사를 끝내고 2부 순서에 3·1명동사건으로 구속된 함세웅 신부의 상고이유서를 낭독했어요. 내가 가톨릭회관 벽에다 고성능 대형스피커를 설치해서 신포시장과 동인천을 다니는 시민들이 미사 내용을 듣게 했어요. ‘유신헌법 철폐’ ‘언론자유 보장’이라고 적은 현수막도 가톨릭회관 벽에 내걸었지. 그때 왜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이 심했잖아. 함세웅 신부의 상고 이유서 제목이 〈나는 왜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가〉였는데, 그걸 유인물 제작해서 미사 때 배포했어요. 이런 게 다 박정희 정권으로 바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

9월 3일 새벽인가. 날도 밝지 않을 때 나하고 황상근 신부, 황상근 신부가 당시 도화동교회 주임신부였는데, 둘이 연행됐다가 황 신부는 그날 저녁 풀려나왔어요. 나만 계속 가둬두더니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나 뭐라나 그런 걸로 구속했어요.

파장이 더 커졌겠네요?

그렇지 뭐, 정의구현사제단뿐만 아니라 천주교 전체가 그뎐 나섰지. 잡혀간 다음 다음 날이라구 하더라구. 답동성당에서 사제 40여명과 신자 천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나쁜만 아니라 유신독재와 싸우다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 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고 해요. 인천교구에서는 9월 11일부터 내가 석방될 때까지 매일 저녁 6시에 답동성당에서 합동 미사를 거행하기로 하고, 9월 12일에는 특별 미사가 열렸는데, 이날은 나길모 인천교구장님하고 지학순 주교도 다시 오시구 해서, 사제 70명 하고 신자 천 몇백 명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기도회가 끝난 후 나하고 같이 1969년에 사제서품을 받은 동창 사제들 15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가톨릭회관에서 1주일 동안 단식기도에 들어갔어요. 이 단식기도가 아주 파장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도 단식기도를 시작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잡아갔던 검찰에서 17일날 풀어줬어요.

실제로 구속되신 건 얼마 안 되시네요?

그렇지 뭐. (웃음) 그런데 잠깐 동안이라도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유신 폭압을 더 실감하겠더라구. 사상범들은 별도로 가두는데, 그것도 다 등급이 있어요. 나는 아주 특급사상범으로 다루더라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긴급조치 위반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새삼 느끼겠더라구. 감옥에서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아무도 면회를 안 시키고 완전히 고립시키고 감시하니까, 박정희정권이 나를 체제에 도전한 놈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피부로 알게 되더라구.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작 들어와 봐야 했구나, 신자대신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 물론 교회 내에서도 내 행동을 냉소 어린 눈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나를 억압시키다 얼마 안 있어 풀어주는 걸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또 국민들의 힘을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하여간 그 뒤로는 내가 정보기관의 주 사찰 대상이 됐어요. 또 사람들은 내가 구속됐다가 풀려났으니까 갑자기 투사가 된 듯이 보구. 하여간 그 뒤로도 전국 천주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했지.

네, 그렇게 해서 유신시대에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을 중심으로 인천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뒤로 재야 원로들과 함께 서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익환 목사님, 고은 시인이나 김지하 시인,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과도 친분이 있으셨나요?

뭐 할 때는 늘 같이 하고 그랬지. 맨날 얼굴 보고 그랬으니까 다들 알지. 그런데 요새 김지하 시인은 이상하게 변했는데. 그것 참.

인천 시민사회운동의 후견인으로 남고 싶다

네, 또 하나 여쭙볼 것이, 그러면 1970년대에는 신부님과 담동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는데, 그 전에는 인천에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도시산업선교회도 일찍부터 활동하지 않았나요?

아,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더 먼저 그런 일들을 했지. 그 사람 누구야. 조화선 목사님! 그 분이 공장에 들어가서 여공들과 함께 지내면서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했던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거기가 먼저 활동했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던 가톨릭회관이 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건물 중의 하나인데요. 그 건물이 언제 건립된 거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들으니까, 몇 년 내에 가톨릭회관을 헐고 담동성당을 중심으로 성역화사업을 한다구 하던데요?

가톨릭회관? 그것도 내가 주임신부로 있을 때 지은 거예요. 그게 아마 1973년인가 그렇지? 몇 년 된 거야. 한 40년 된 건물이네.

결국 유신헌법으로 철권통치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민주화의 불이 도래했는데요. 80년대 들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80년대에는 뭐 했더라. 응, 동일방직이라고 있지 왜? 만석동 여공들의 해고자

해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랬지. 1976년에 인천교구에다가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도 하고,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도 하구 그랬지 뭐.

네. 신부님께서 몬시뇰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는데, 언제인가요?

응, 그거는 내가 일흔 살이 넘었을 때 받은 거니까 2003년도지 아마. 교황청에서 원로 사제에게 주는 건데, 서임장이 어디 있을 거야. 신부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교황청이 주는 경칭이 ‘몬시뇰’이지.

네, 잘 알겠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운동 대신해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인천 시민운동에서 있어서도 신부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해오셨지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목요회 아닐까 합니까만?

목요회,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목요회가 언제 창립되었지요?

목요회가 만들어진 게 아마 1989년인가 그렇지? 목요일날 만났다는 의미로 ‘목요회’라고 했어요. 인천에서 종교인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 내가 초대 회장을 맡았어요.

이 모임이 만들어진 주요 동기는 뭔가요?

인천이라는 도시가 맨날 서민들이 밥 벌어 먹기 힘든 곳이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다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게 뭐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들이 서로서로 통하면서 인천과 인천 시민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보자 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목요회가 만들어진 거죠.

목요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지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의 성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인학원 시립화도 그렇고요?

목요회가 매달 모여서 인천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안에 대한 의견이 모여주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죠. 선인학원 시립화가 첫 번째 성과였지. 인천의 대표적인 부패 사업제단이었잖아요, 선인학원이. 3년 동안 선인학원 시립화를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결국 1992년 선인학원이 시립화 됐어요. 그때 시립화가 안 됐더라면 지금 인천대학교는 없지. 그 운동에 전 시장이었던 최기선 시장이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외에 또 손꼽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한 것도 큰 시민운동이었죠. 1995년에는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계획에 맞서 범시민적인 운동을 벌여서 백지화됐어요. 근데 요즘도 다시 굴업도가 시끄럽데, 골프장을 만든다나 뭐라나.

네, CJ그룹에서 굴업도 정상부를 샅도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몇 년째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요회뿐만 아니라 신부님께서 인천시민운동의 큰 어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요?

뭐 나이 드니까 예전처럼 앞장서서 활동은 못하고, 후배들이 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은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장을 맡아서 일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외환위기 이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재덕 씨가 맡아서 하고 있지. 인천이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니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본거지. 거기서 취업알선도 해주고 저소득 주민들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도 역임하시고 최근에는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도 맡으셨죠?

그저야 신부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드니까 맡기는 거지 뭐. 뒷배나 봐달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이야. 민족문제연구소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나는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회의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다들 잘 알아서 해요.

인천에서도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그것도 그렇지. 후배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화운동부터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진보운동에 있어서 큰 어른으로 활동해오셨는데요. 최근 시민운동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조금은 위축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위축됐어요. 아무래도 정권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도 시민단체가 원래 가졌던 초심을 잊으면 안 돼요.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얻은 민주화를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후퇴시키는 것을 지켜보고나 거기에 야합해서는 안 되지. 아이구, 이제 그만 하지. 뭐 많이 얘기했네.

네, 죄송합니다. 신부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볼게요. 중학생 시절부터 오가면서 살아오신 인천이라는 도시가 신부님에게는 어떤 도시인가요?

인천이 뭐 평생을 이곳에서 거의 살아왔으니까 내게도 고향 같은 도시지 뭐. 그런데 뭐 그리 정이 가는 도시는 아냐. 아까도 말했지만, 밥 벌어 먹기 힘든 도시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는 소홀했지.

네, 그렇죠. 과거 중구에 시청이 있을 때 도심지가 그리 크지 않았던 도시에서 지금은 외곽으로 확장되고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까지 조성하면서 도시가 굉장히 커져버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수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도시가 커지니까 발전하는 듯해서 좋기는 한

데, 그게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것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천에서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 내실 있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장



김상봉 —

인천 송의동 여우실 경주김씨 문중 출생

인천송의초등학교, 인천중학교,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주간인천, 대한신문, 인천신문, 경기매일신문 등

인천지역 발간 신문 기자로 활동

언론인단체 '타임클럽' 결성, 인천일보 고문을 역임

■ 채 록 자 : 이희환(시민과 대안 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채록일시 : 2012년 10월 18일

■ 채록장소 : 부평 우성아파트 자택

제10장 여우실에서 지켜본 인천의 변천과 언론수난사

인천의 여우실, 명문가에서 출생하다

김상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정명600년을 맞아 새로 『인천광역시사』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의 원로 분들에게 살아오신 이야기와 함께 인천이라는 대도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 말씀을 듣고 이를 『인천광역시사』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긴장이 그리 좋지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구술 작업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의 성장과정에 대해 말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적이 어디신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천 남구 송의동 209번지가 제 본적지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셨을 때 동네 이름이 혹시 '장의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장의리인데, 그게 바로 여우실하고 장사래하고를, 그 두 개를 합해서 장의리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구청 있는데 민원실, 그 민원실 자리가 우리 종갓집 자리에요. 바로 그 남구청이 여우실 경주김씨 종가터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구청 뒷문 쪽, 옛날에 교대부국 뒷문 쪽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면 저희 동네 이름은 여우실이에요. 민원실 자리가 저희 집 자리입니다. 거기가 송의동 209번지 터예요.

선생님이 태어나신 때는 송의동 몇 번지이셨나요?



인터뷰 중인 구술자

태어난 곳이 209번지에
요, 209번지에서 쭉 살다
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세
간 날 때까지는 바로 거기
서 살았습니다. 제가 자부
심을 가졌던 것은 그 당시에
본직지하고 현주소하고
같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본직지하고
현주소가 전부 같이 인천

시 남구 송의동 209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터전을 잡고 산 지가
지금 햇수로 따지면 근 600년 가까워요.

그러면 그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었나요?

그렇죠. 경주김씨 집성촌이고, 옛날에 우리 여우실에는 김씨만 살다가 나중
에 타성 분들이 몇 분 들어와서 사셔서 변했지, 옛날에는 경주김씨 집성촌입니
다. 여우실이라는 데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오늘날의 송의국민학교인
대화국민학교라는 게, 일본사람들이 소위 야마토국민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제
가 송의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에요.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그런 게 남
아 있을 거예요. 인제 《인천일보》가 2005년도일 겁니다. ‘인천의 종가명가’라
고 해가지고 인천의 종갓집 10집을 선정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이 기획기사에
저희 집안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송의동 일대에는 한 집안에
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가 전부 송의국민학교 나온 집들도 있어요. 그
런 집들은 3대가 전부 송의학교 나온 동창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
던 곳이 바로 여우실 그 동네입니다. 국민학교가 거기에 생겼을 적에 우리 아버
지가 종손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화국민학교가 거기에 개교를 하니까 1회
졸업생은 창영학교 오후반에 다니던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1회 졸업생이 되

고, 송의국민학교 자리에서 선발을 해서 졸업생이 나온 것은 저희 2회 때부터 그 자리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송의국민학교가 담당하는 학생이 어디까지냐면 신흥동에서부터 주안까지가 그 당시에 관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우리 부모님 통해서 들은 거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큰형님을 부르서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일어를 일본말을 안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복만 입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예요. 일어를 안 하시면서 우리 큰형님을 불러다가. “야 이제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집안 애들이 전부 저 학교 신세를 지고 살게 됐는데 우리 종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뭐 하나 해줘야 할 테니까, 학교 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뭘 하나 해주자.”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그 당시 대화초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교기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기를 그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큰형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사회 기여를, 요새 말로 나눔이죠, 그거를 잘하셨던 분이예요. 또 대를 이어 가지고 우리 큰 형님이, 개성사범이 인천으로 와가지고 남구청 자리였다가 학교를 시작을 할 적에, 우리 큰형님이 인천시 민선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학교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송의초등학교 왔을 적에 학교에다가 기여를 하신 것을 우리 큰형님이 아시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대가 그 자리에 올 적에 우리 큰형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땅도 우리 땅이 들어가는 거 그냥 회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속국민학교가 생기면서부터 교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안에서 교대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였는데, 일제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광복 직후에 지금 수인역 앞에, 지금은 신평초등학교 자리인가요? 거기 포로수용소 자리입니다. 거기 있던 포로들이 주로 동남아 쪽 싱가폴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군들이 많았지만 그 포로들이 거기 와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송의동, 저희 여우실 동네지요. 거기의 미곡창고주식회사의 말하자면 말 창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곡창고주식회사는 전부 구마차로 운

반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말 사육장이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포로들 데려다가 작업을 하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집안의 딸, 며느리들이, 점심시간 때면 감자 같은 걸 삶아서 포로들한테 철조망 밑에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여우실 문중의 딸하고 며느리들이 참 그렇게 사회공헌을 많이 한 집안이라고, 그것을 그때 얘기했더니 기자가 그 얘기를 신문에다가 쓴 걸로 제가 압니다. 또 저희 사당 자리와 관련해서도요.

옛날에 우리 동네 주변에서 아주 가난한 집이 끼니를 거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앞장서서 전부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주변에는, 제 기억으로는 1946년 그때 우리나라가 흉년이 듭니다. 그래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럴 적에도 저희 아버지가, 많은 건 아니고 저희가 중농 정도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창고를 열어서 동네 굶는 집에 쌀을 내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봤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우실 문중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후에 동네 이웃지간의 나눔, 이런 것은 이웃지간에 잘 하고 살아왔습니다. 여우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성촌이니까,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라는 게 다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이어왔죠. 우리 애들 때까지도 그 정신만은 뭐 많은 공헌은 못하겠지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천의 옛마을과 지명유래

그 당시에 여우실 일대에 민가가 몇 호 정도가 있었나요?

많았죠. 거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여우실이고 그 뒤가 장사래이고, 그리고 그 너머가 평양옥 위는 독갑다리입니다. 독갑다리는 평양옥 근처예요. 거

가서 지금 말하자면 도원역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거기가 황굴고개 넘어서 쇠뿔고개죠, 거기가 우각현이죠, 쇠뿔고개 넘어서는 샛골입니다. 샛골 지나서 대지기가 나와요, 대지기. 지금 박문여고가 있는 데가 대지기라는 데고, 그리로 쪽 가면 거기가 바로 도화동이죠.

아 네, 박문여고 쪽이 장사래였습니까?

아뇨, 박문여고에서 조금 지금의 제물포역 쪽으로 가면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장사래, 지금 남구청, 남구청 뒤쪽이 장사래예요. 여우실, 장사래, 독갑다리,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도원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각현, 혹은 쇠뿔고개라고 했죠, 거기서 더 넘어서면 대지기입니다.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박문여고 아래 길이 그 제물포 가는 길이 대지기예요, 그러니까 대지기 지나서 샛골입니다. 지금은 '쑥골'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샛골이예요, 그게 도화동입니다.

샛골이요?

네 샛골, 그게 대지기에서 지금의 제물포역으로 가는 길 끝에 있어요, 그 두 곳 일대가 전부 도화동인데 거기를 샛골이라 불렀어요, 샛골 넘어서 경인국도 쪽으로 나오면 수봉산에 닿죠, 수봉산은 언제부터 목숨수(壽), 뫼봉(峰)자를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물수(水), 봉우리봉(峰)입니다. 원 수봉산 명칭에 대해 저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얘기는, 거기가 물이 많았다고 그래요, 제물포역 주변이 말하자면 전부 미나리밭과 연못이었대요, 그 쪽이 물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송의동 쪽도 그렇구요, 송의동에서 여우실 지나서 독쟁이를 넘어가죠, 독쟁이를 넘어서 용현동으로 타고 가는 거죠.

인천의 도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더 들어보겠습니다만, 지명에 대해서 좀 더 여쭙볼게요, 대지기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죠?

글쎄 그게 대지기가 말이죠, 그것 참 아리송한 건데,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큰대(大)자, 못지(池)자 그리고 터기(基)자를 써요.

대지기라고도 하고 대기리라고도 했나요?

저희가 쓸 때는 대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기라고 하는 게 한자로 그렇게 해서 쓰는 건지, 여우실도 나중에 한자로 바꿀 적에 여의리라고 썼어요. 갈을 여, 뜻 의자로 그렇게 해서 여우실로 썼는데, 표지석을 남구청에다 만들 적에도 그렇게 적으려는 것을 제가 “꼭 여우실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틀리면 안 됩니다.”고 그렇게 하고 강조를 해서 했어요.

그것이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고유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우실 장사리라는 것도 장사래가 되는데 그것도 한자로 쓰면 긴 장(長)자하고 모래 사(沙)자를 썼어요. 원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변형이 된 거죠. 대지기도 제가 볼 적에 그것은 대지기라고 하는 순우리말로 쓴 건데 저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 하나 하면 대지(大池), 그러니까 큰 못이다 이거죠. 거기가 물이 또 많은 데니까. 그런데 이제 기는, 이름을 부를 적에 뒤에 어미가 하나 생겨서 붙는 게 우리말에 어간, 어미 차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기라고 한 거죠. 지금 한자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것은 그냥 그대로 한글로 대지기라고 하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내가 도화동 말씀을 드렸지만, 도마다리라고 있어요. 도마다리. 도마다리도 순전히 우리말이야. 왜냐? 거기에 ‘도마다리 홍씨’라고 부르는 홍씨 문중이 있었어요. 남양홍씨들인데 거기 사람들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도마다리 홍씨’라고 말했는데, 도마다리도 저희 같으면 그냥 한글로 ‘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자표시는 길도(道)자, 말마(馬자)를 써서 도마다리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죠.

다리는, 실제 다리가 있었던 건가요?

네 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물이 많기 때문에 큰 냇가예요. 도화동부터 주안동까지가 전부 논입니다. 그쪽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거기들 가서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과정 다닐 적에만 해도 인천에서 스케이트는 어디서 타는고 하니, 주안염

전을 중심으로 해서 논 많은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극장 자리 그 앞에, 그 쪽에도 연못같이 큰 그런 말하자면 논이 있었어요. 거기에 열음을 열리고 그래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러곤 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안 일대는 전부 논입니다. 큰 논. 거의가 다 논밭이에요.

이 논 벌판이 나중에 개발되고 확장이 되면서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그 쪽이 전부 농토들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소위 주안지구는 지금도 아마 인천도시계획에 초보적인 것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풍치도시로 만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계획을 잘 세웠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5·16군사혁명 이후에 전부 옛날의 도시계획 세웠던 것들이 변형이 됩니다. 인천 땅의 변화, 옛날에 공원용지라든가 그런 데 대한 변화를 인천시의 토지대장을 가지고 한번 변천과정을 연구하시면 아마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부락을 누가 누구 앞으로 맡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향토사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몇 분한테 권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유념해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의 인천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쇠뿔고개와 황굴고개는 다른 고개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황굴고개는 바로 지금 도원역에서 동인천역으로 가는 큰 도로에 위치한 거기가 황굴고개고, 쇠뿔고개는 지금 동인천세무서가 있는데 있었던 고개죠. 창영국민학교와 영화국민학교에서 옛날의 알렌별장이 있던 인천전도관으로 넘어가는 길을 쇠뿔고개라고 했어요.

같은 고개 아닌가요?

같은 고개지만 옛날에는 전부 연결이 되었지요. 산이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1899년에 철도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가 갈라져서 그렇지요. 옛날에 창영동하고 금곡동 일대를 우각현이라고 했어요. 우각동이라고. 옛날 말로 쇠뿔고개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 놓으니까 우각현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황굴고개 하고 쇠뿔고개는 옆이지만 달라요. 옛날에 인천 관교동에 있던 인천부사청이 중구의

옛날 법원자리, 지금은 거기 한진아파트 자리죠. 그리 와서 인천부사청이 있을 적에 거기서 서울을 가려면 바로 내리, 외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내동이 내리죠. 그러니까 부사청이 있는 안동네라고 해서 내리. 경동 이쪽이 외리입니다. 거기서 서울을 가려면 내리를 출발해서 외리로 해서 말하자면 싸리재 거기를 넘어 가가지고 배다리를 넘어서 바로 창영학교 앞으로 영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우각현 즉 쇠뿔고개를 넘어서, 아까 내가 설명 드린 대로 대지기를 지나서 경인도로 그쪽으로 해서 구월동으로 해서 서울을 왕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서울을 왕래할 적에는 거기를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요새 거기에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

네, 배다리 관통도로요?

네, 배다리, 우각로 역사문화마을만들기인지, 그런 활동이 전개 중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각동, 그러니까 창영동 앞에서 쇠뿔고개로 넘어가는 곳 이죠.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개항 후에 인천문화가 바로 지금 쇠뿔고개 거리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그 앞길이 바로 인천의 문화의 거리의 전신이라고 표현한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인천의 유명한 개화의 길이에요. 저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전 그 길이 개화의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창영국민학교가 생겼을 적에 거기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의 발상지거든요.

바로 그 옆에 영화국민학교가 있죠. 그 영화국민학교가 영화여자국민학교입니다. 내동에 있던 영화국민학교가 배다리 영화실업학교가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울목동에 있었습니다. 울목동이 거기가 어딘고 하니, 배다리에서 울목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에 그 전에 신안과 자리가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그 자리가 영화여자국민학교의 발상지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인제 지금 그 자리로 옮겨가서 바로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가 된 거죠.

지금도 그 안에 여자선교사 건물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지금 인천세무서 자리가 바로 남자선교사 기숙사 자리입니다. 그쪽에 그 만큼 외부 선교사들이 들

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기본적인 터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계명학원이라고, 알렌별장 자리가 바로 거기에 계명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합해서 저는 그 거리가 인천에서는 개화의 거리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쇠뿔고개나 쇠뿔이라고 하는 게 “‘쇠뿔’이다, 쇠뿔, 쇠뿔고개 그 근처에서 쇠(金)가 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송림3동이 되냐? 그러니까 알렌별장 자리 아래 뒷동네죠, 쇠뿔고개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현대로터리가 있는데 그쪽은 다대기간이죠, 다대기간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현대극장 자리, 지금 거기가 뭘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에는 거기가 도살장이 있었죠, 지금 동명초등학교 자리가 아마 그 당시에 도살장 사무실 자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동명국민학교는 박창래 교장이라는 결혼한 여걸이 만들어놓으신 좋은 학교인데, 그렇게 해서 그 밑이 다대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조그만 호수 같은 물가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 얼음이 얼면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했더랬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적에 스케이트를 타러갔다가 신태범 박사가 운동하시러 오셨는데 아이스하키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신태범 박사는 우리 큰형님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양반이 인종을 나온 선배입니다. 인종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은 전부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를 했어요, 우리가 인종 1학년 들어가니까 그때 5학년에 신민택 선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아주 민족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그 양반이 인종 5학년 때 초단이어서 흑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일본사람 이스미라고 하는 선수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유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그냥 인종 들어가면 전부 유도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양반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도를 하다가 쇠뿔이 부러지면 그때는 전부 신외과로 갔어요, 신외과는 신태범 박사가 하는 외과병원이었는데, 인천에서는 한국사람 병원으로는 그러니까 대명사같이 이렇게 유명했던 병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 외과로 서울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오고 그랬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병원입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아이스하키를 가지고 와서 탔을 적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처음 봤어요.

훗날 우현 고유섭 선생의 기념사업을 할 적에 신태범 그 어른을 추진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셨을 적예요. 그 양반 병원으로 찾아가서 당신 서재로 올라가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박사님! 다대기간으로 아이스하키 타러 나오셨던 기억은 나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하키를 가지고 거기를 갔더랬어?”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박사님이 타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이스하키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이스하키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이 있더랬어?” 옛날의 회상에 빠지셨던 그런 일도 있었죠. 런 것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신박사가 『인천 한 세기』라고 하는 글을 <<경인일보>>에 연재를 할 적에, 가끔 저한테 전화를 거세요. 그 양반이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안 부르시고 꼭 김군이라고 부르세요. “김군, 오늘 시간 나나?” “네,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하신 일 있으세요?” “아니 뭐 좀 얘기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따가 제가 찾아뵈게요. 어디로 나오시겠어요?” “자네 어디로 나와?” “그러면 신포동으로 나갈까요?” “그래 그러면 거기서 만나.” 그러고 나오면 이 양반이 『인천 한 세기』를 쓰시면서 다음 계획을 하실 적에 제 의견을 좀 물으시고, 현 지답사 갈 적에 제가 두 번 동행을 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살고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늙고 인천에서 죽을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신 박사님을 따라서 동인천역 그 뒷동네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신 박사께서 거기 취재를 나가시는데 절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긴 말야 아무나 하고 같이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김군 하고 같이 가는 게 짬 좋을 거 같아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이 건 창너촌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예요. 놀랐어요. 인천에도 이런 데가 있나 해서 그때 박사님한테 “아유, 박사님 때문에 제가요, 제가 그래도 인천사람이라고 자부하려면 여기를 진작 와봐야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랬더니 “그럼 내가 잘 데리고 왔네.” 그러셨지. 그러니까 그 어른이 참 인천의 향토사 쪽에는 공헌이 굉장히 크신 분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쇠골은 그러니까 쇠가 나거나 그래서 불렀던 지명은 아니죠?
아니에요, 사잇길. 그러니까 큰 언덕하고 봉우리 사이에 낀 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셋골입니다.

쇠뿔고개는 소의 뿔 모양을 닮아서구요?

네, 그거는 쇠뿔, 한자로 표현하면 우각현이라고 그러는 게 바른 표현이 된 거
예요. 쇠뿔고개입니다.

그러면 여우실은 특별한 어떤 지명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 여우실에 대해서 옛날에 지명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번 여쭙본
일이 있는데, 한글학자로 전에 교대에 계셨던 이강로 교수한테 제가 여쭙본 일
이 있어요. 제가 동네 이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강로 교수가 제게 “그걸 날 좀 빌려줘.” 그래요, “네, 드
리죠.” 하고는 드렸는데, 그 양반이 학생들을 데리고 현지답사를 한번 가신 일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한글학자고 또 한학에도 밝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도 여쭙봤
는데, 확실한 얘기를 못하시더라고요. 인천교대에 김계곤 교수라고 국어학 하
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여쭙보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
요. 그 후에도 지명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좀 알아달라고 했더
니, 그 양반들이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시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우실이 여기 말고도 남한에 두 군데, 충청도 쪽하고 경상도 쪽에 하나씩 있는
데, 거기가 다 물이 많은 고장이라구. 근데 물과 여우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는 참 뜻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이 많았던 고장이라고 그러는 건 옛날
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송의동도 물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수봉산 밑에 거기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물이 많았고, 그런데 확실히 여우실과 물과 어떻게 관계된
뜻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독감다리는 다리가 실제 있었나요?

그게 있어요, 독감다리죠. 그걸 한자로 흔히 독각, 즉 외발이다, 홀로 독(獨)

자 하고 다리 각(脚)자로 독각으로 썼는데, 저는 그것을 잘못된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독갑다리가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송의공설운동장 앞에 전부 백사장입니다. 거기가 전부 모래판이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모래판에는 항아리장수 독장사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송의운동장 앞에서 송의3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 앞에도 물이 많아서 미나리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독갑다리 쪽으로 내를 이루고 모래바닥 사이로 흘렀어요.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거기를 건너다니기 위해 냇가 그 사이에 전부 다리를 놓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관뚜껑으로 많이 다리를 댔어요.

관뚜껑으로 댔대구요?

네, 그랬습니다. 또 독장사들이 많았다는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독갑이 그러니까 독 깨진 거, 항아리독 깨진 것들을 전부 밟고 다니게 그렇게 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독갑다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 촌로도 계셨는데요. 그게 하여튼 한자로 표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향토사 하는 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송의동로터리 이렇게 지나서 지금 뚝니까. 제일제당 쪽으로 꼬부라지는 길이 있죠? 예전에 인천터미널 있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쪽, 그 사이에 지금 거기 창고가 아마 지금은 가구단지가 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뒤 거기까지가 물가입니다. 거기가 바다예요.

거기에 제가 어렸을 적에 거기에 나무선창이 있었어요. 나무선창은 말 그대로 배 타라는 그 선창입니다. 겨울이면 충청도에서 서울로 보낼 장작 싣은 배들이 그리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작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끝나면 겨울나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의동, 주안, 석바위 동네하고 저 남촌동, 고잔동에서까지 그쪽으로 들어 와서 거기서 장작을 사갑니다. 마차를 끌고 와서 가갔죠. 그러니까 거기 나무선창이 그때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것도 향토사 하는 분들한테는 꼭 내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걸 한 번 추적해보면 거기 아마 좋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요. 저도 그걸 한 번 조사해보려고 생각했지

만, 그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 당시에 그걸 아는 촌로들이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우실 경주김씨 6남매의 성장과정

나무선창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여우실 마을과 당시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들었구요, 그러면 이제는 형제분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형제분들 사진이 있는데요,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이 우리 큰누님이구요, 이게 둘째 누님이고, 세 분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육남매의 막내입니다. 우리 큰형님 경하(敬夏) 형님은 1911년생이세요, 그 다음에 중하(重夏) 형님은 1916년생이시고, 은하(殷夏) 형님은 1923년생이시고, 저는 31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초등학교를 대화국민학교 2회로 나오셨는데, 형님들께서는 다 창영학교나 저쪽으로 학교를 다니셨겠네요?

네, 우리 큰 형님은 박문학교를 나오셨고, 우리 둘째, 셋째 형님은 창영학교를 나오셨구요, 우리 작은 누님은 영화국민학교를 나오셨구요, 영화여자국민학교지.

영화여자국민학교가 있던 자리가 경동 초입이라는 것도 처음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내리교회 있던 데 동인천 쪽이 아닌가요?

아니죠, 내리교회 거기에는 영화국민학교, 그거는 영화남자국민학교고, 영화여자국민학교 자리는 옛날에는 거기가 원흥상회라고 있었는데, 바로 원흥상회 뒤, 옛날로 치게 되면 신안과 있던 거기 뒷동네예요. 언젠가 신문에 잠깐 누가 쓴 걸로 보니까, 거기에 지금도 초석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거기 영화여자국민학교 건물이 있던 초석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김은하 국회의원 당선 후 사당 앞에서 4형제(1963)

그 당시에 그러면 여우실 마을에서 저쪽 배다리나 박문학교 쪽 동네를 보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개항장 일대나 내동, 경동 일대의 거리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까?

‘재밀’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서. 그러니까 지금 신포동에 중화루 자리 있죠. 중화루 자리에서 이렇게 인천시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58은행, 18은행, 제1은행 자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지금 거기가 중앙회관인가 큰 건물이 들어선 게 있죠? 옛날에 세창양행이 거기 올라가다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빌딩인가요? 거기 뭐 하도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까지가 육지구요, 그 밑은 바다입니다. 그제 매립을 해서 그리 된 건데. 1883년에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말하자면 일본지계, 청국지계, 만국지계가 생겼을 적에, 중앙동 일대에 7,000평이 일본지계고 5,000평이 청국지계고, 송학동, 송월동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응봉산 일대 14만 평이 그제 만국지계 아닙니까? 청관 뒤 길 아래가 전부 바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7,000평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래서 뒤를 매립을 해서 늘린 거가 그리 늘어진 거죠.

옛날에 불렀던 〈인천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서도 ‘재밀’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천의 말하자면 선착장, 그러니까 항구를 ‘재밀’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안 이쪽 중농 이상의 농사짓는 집들은 전부 소를 다 기르거든요. 소 있는 집은 전부 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차들을 끌고 “재밀로 돈 벌러 간다”고 그랬어요. “재밀로 돈 벌러 간다.” 제물포로 돈 벌러 간다는 걸 “재밀로 돈 벌러 간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재밀’이라고 그러는 용어가 〈인천아리랑〉의 가사 중에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물포를 애

기하는 건데, 제물포는 그 동안에 많이들 애기가 나왔습니다만, 올림포스 호텔 아래 그쪽을 옛날에 제물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성포 쪽도 제물포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관계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앞 8부두까지 그 일대가 제물포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중심지가 그쪽이었죠? 선생님이 여우실에서 자라실 때는 지금의 중구청 쪽 일대가 그 인천의 중심지였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사람들 동네니까 거기가 중심지였죠. 신포동, 중앙동 이쪽에 말하자면 궁정, 빈정, 중앙동, 일본 이름으로 해서 미야마치, 혼마치 뭐 그렇게 불러서 일본 동네들이 형성이 되었을 적에는 그 쪽이 중심이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배다리 그리고 싸리재입니다. 지금의 경동인 싸리재고개 여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상업은행이 있었죠? 거기서 상업은행 앞에서 배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요 점포가 있었고, 내동 쪽으로도 주요 점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 내리, 외리 쪽으로 해서 문화의 중심은 싸리재예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도 휘문당이 인천에서 유명한 문방구를 취급하는 점포입니다. 휘문당 할아버지가 참 어르신이 장사를 잘하세요, 아무리 애들이 와도 꼭 공대합니다. 뭘 사가지고 가든지간에 텀으로 꼭 지우개 고무 하나를 줘 보내세요, 그 양반이 울목동에 사셨는데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싸리재 쪽에 그러한 점포가 많았어요. 경동사거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유명 점포들이 위치했던 문화의 중심지는 싸리재가 아마 중심이었을 거예요.

조선사람들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 앞 그쪽으로는 내리 즉 내동인데 거기도 한국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앞에서는 서부터 신포동 이쪽에는 일본 사람들 상가,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건너편 쪽에는 나중에 중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신포동 쪽도 그렇고, 중국 장사꾼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장사들을 했는데 지금 신한은행 자

리 있죠? 그 앞에 옛날에 화선장 자리, 거기를 닭전지리라고 불렀는데, 그 닭전지리 쪽에도 한국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가 지금 터진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갯벌이 거기까지 들어왔었던 겁니다. 전에 신포동 쪽에 빌딩 들어설 적에 거기를 파면 전부 개흙이예요. 그쪽에다가 매립지를 해가지고 조성한 거니까. 거기까지도 그때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안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제일 큰 형님께서는 박문학교 나오시고 유학을 가셨나요?

아니예요. 우리 큰형님은 한학을 하셨어요. 이 양반이 교육위원이 되신 거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1952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천시의회가 생겼을 적에 인천시 구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을 선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민선으로 교육위원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우리 큰형님이 법원 조정위원을 오래 하셨어요.

둘째 형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우리 둘째 형님은 대동상업을 아마 졸업은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동상업을 다니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본 항공사에 취직을 하셔서 월급생활을 하시다가, 일제강점기 말엽에 송현동에 있는 일본사람 회사에서 거기 근무를 하시다가 해방이 되니까 거기 관리인으로 지명이 되셔가지고 그거를 인수해서 대한영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비철금속 관계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우리 둘째 형님이 선구자입니다.

김은하 선생님께서는 동국대학교를, 옛날의 해화전문을 다니신 거죠?

네, 창영 나오시고 동산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전수학교 시절에 거기를 거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국대학 전문부를 마치시고 동국대학교 학부에 들어가셔서 정치학을 전공하셨죠. 그 후에 이 양반이 해방되던 해에 인천학도옹원단 대장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인천의 학도옹원대는 지금 중소기업은행 자리 2

층에다 사무실을 두고 개설을 했는데, 당시에는 우의 민족진영 단체로는 그게 유일했어요. 대다수 단체들은 좌익계열 쪽의 단체였죠. 거기서 활동하다가 동국대학교 전문부에 들어가서서 학생운동을 하시죠. 그러가지고 전국학련 서울 특별시연맹 위원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인통학생 학우회 회장도 하시고, 이 양반에 대한 건 전부 이 책자에 나오니까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께서 그러면 대화, 지금의 송의초등학교를 나온 후에는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셨습니까?

네, 제가 송의학교를 나오고 인천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인천중학교를 입학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인천중학교는 일본인 학교인데 조선인 학생은 얼마 없었죠?

1943년인가 4년인가? 1944년일 거예요. 제가 2학년 때 해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적에는 두 반을 뽑았어요. 한 반에 60명씩 120명이었는데, 한국 사람은 10%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6명씩 그렇게 배치가 되었죠. 그나마 우리가 들어갈 적에는 한국 사람들 배치를 조금 더 늘려서 10%가 된 거죠.

광복 후에 인천중학교에 길영희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게 되죠?

네, 우리 큰 형님도 그때 애 많이 쓰셨지만 학부형들이 참 애를 많이 썼죠. 우리가 참 불행한 세대인데 1학년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동원이 되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1학년 때 도원산에 고사포진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쓰는 고사포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사포가 여섯 문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님니다만 거기 동원 되어서 작업을, 일본인 학교라고 그래서 인종을 선정을 해서 거기 가서 산 밑에 방공호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흙 나르는 작업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해서 인제 하고 2학년 올라가서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어요. 저희는 조선기계에 동원이 돼서 거의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기계에 나가서 일하다가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니까는 뭐 학교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학교도 개설이 안 되죠. 그리고 있자니까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뭔가 대책들을 세우자, 학부형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만수동에서 길영희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때 길영희 선생님이 만수동에서 농장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길영희 선생님을 모시다가 1945년 11월 27일날 옛날 도립병원, 지금 신흥동에 인천시립병원 자리 있죠? 그 병원 뒤에 일본 사람 살던 집 하나가 있었어요, 터도 넓고 그 집을 인중 학부형들이 교장 사택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합해서 거기서 개교를 했습니다. 길영희 교장선생님이 사택에서

사택에서 개학을 했다고요?

네, 거기서 개교를 했어요, 다다미방 두 군데를 나누어 3~4학년과 1~2학년을 합반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 해가 지나고 나서 1946년에 지금 그 자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중구보건소 자리가 아마 거길 거예요, 옛날에 거기가 인천시립도서관 자리인데, 나중에 해성중학교가 거기 있었죠, 그 자리로 가서 1차 보결생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흥초등학교 뒷교사로 옮겨가서 거기서 2차, 3차 보결생 모집을 하죠.

이때 원래 인천중학교 건물은 미군이 쓰고 있었죠?

네, 나중에 미군한테 교사를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옷터골 그 자리로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광복 후에 좌·우간에 학생들끼리도 갈등이 심하고 그랬었나요?

네, 그럼요, 그 당시에 인종이 참 어느 학교든 다 사정이 복잡했을 건데, 우익단체 학생단체에는 별로 활동이 없었는데 좌익단체의 '민주학련'이라고, 학원내의 활동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중학교가 6년제였죠?

그렇죠, 제가 6년제 3회입니다.

신태범 박사님도 인천중학교 나오셨는데 몇 년 선배이신가요?

아니에요. 신 박사는 인천중학을 나오신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나오셨죠. 그 양반은 저보다 19년 선배세요. 우리 큰 형님보다 한 살 아래시니까, 신태범 박사가 올해 탄생 100주년이에요.

전쟁 직후 인천언론계와 기자의 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중학교 다니시던 중에 전쟁이 난 건가요, 졸업하신 뒤에 전쟁이 난 건가요?

여기 이게 인천언론인클럽에서 낸 〈언론회보〉인데, 저보고 글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대기자』라는 글을 썼어요. 여기에 제 경력이 나오는데 요, 전쟁은 인종 5학년 때 났죠.

전쟁 후 학업은 어떻게 이어가셨나요?

전쟁 발발 이후 인종을 마저 마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게 전문부 마지막 입학이에요. 당시 제가 문학을 지향 쪽이 돼서 그 당시에 동국대학에 양주동 박사를 필두로 해서 이은상, 이병기 교수 등 국문학의 거성들이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부 문과를 가서 졸업을 했죠. 나중에 휴학을 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학부로 진학을 했어요. 학부에 가서는, 제가 전문부 가서 문학을 하려고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제가 도저히 문학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할 거 같아. 제 나름대로는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적에는 ‘반려회’라고 하는 문학 동인회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연극도 하고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말하자면 중학교 다닐 적에는 만능선수였죠.

해방이 되고나서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에 대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글을 배우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한글을 배울

수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방향이 바뀝니다. 일제강점기에 제가 인천중학교 들어갈 적에는 의사가 되자고 목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에 매료되고 그래서 문학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우리 큰형님한테 제가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의사 되라고 했더니 문학한다고 그러냐고, 제가 인중에 들어가는는 응원단장도 맡아서 했습니다. (웃음)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육상부장이나까 육상경기대회가 열리는데, 다른 학교들 공고나 인천상업학교에서는 응원단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인천중학교는 응원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응원단 만드는 것을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1년 위에 홍선배라고 그러는 분이 단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 이 양반이 막상 응원단을 만들어가지고 단장 선임을 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인중에 체육선생으로 김승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야야, 니가 해. 그놈보다는 네가 월등히 나아.” “아니 선생님 저는 육상 선수인데 저보고 응원단장을 하시라고 그러면 …….” “마, 그러면 누가 해. 임마, 니가 필요한테 네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제가 응원단을 맡았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음악활동도 하고 연극활동, 문학활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조금 말하자면 재능이 있다고들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문학을 하려고 동국대 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동국대학교 필동 교사 뒤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런 때에는 교수들이 야외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학에 재주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많은지, 저같이 전통 유교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문학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나는 길을 일찍 판단을 했구나,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발을 빼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동국대에 제랑 같이 갔던 친구 하나에게 상의했더니, “야, 너도 네가 할 일이 있어. 넌 말야, 중학교 때 작품 활동하는 거 보니까 재주가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평론을 해.”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학부 들어갈 때는 정치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때 충

무로에 일본책 파는 서점이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신문학(新聞學) 관계의 책을 제가 사보게 됐어요.

거기에 취미가 생기니까 사회랑 사회심리이론 쪽으로 책을 보게 되고 신문 관계된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내가 갈 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문학파가 있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정치학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게 더 가까울 거 같아요. 그러던 차에 1951년도에 계기가 생겨서 언론에 투신을 해가지고 평생을 언론인으로 지내게 된 거죠.



1950년대 초 인천신보에 견학 온 초등학교 학생들. 대종일보 사옥에서 제호만 바꾸어 발행했다(지금의 중구 중앙동 4가 8번지).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종일보>에 계셨던 김응태 사회부장과의 인연 때문인가요?

아뇨, 김응태 선생은 <인천신보> 사회부장이었어요. 거기서 이 양반의 직함은 사회부장이지만 편집국 차장 역할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인 건데요, 1954년도에 <인천공보>가 간행이 됩니다. 인천시청 기관지인 <인천공보>가 간행이 되는데, 그 편집장을 최성연이 맡으셨어요. 최성연 선생이 <인천공보>를 하실 적에 제가 동양통신에 있었어요.

그때 전국 통신사는 UP인데 동양통신은 그것을 무선으로 통신을 해서 받아가지고 소식을 전했거든요. 당시 동양통신 인천경기지사예 편집장으로는 장세관 선생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 밑에 제가 편집을 하게 된 것이죠. 무선으로 통신을 받다 보면 전파가 장애를 받으면 다 제대로 못 받는 게 많아요. 그것을 전부 채워 넣는 것을 제가 해서 통신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988년 7월15일 창간한 인천신문(현 인천일보)

데요, 신문사에서 해설 같은 것을 가끔 부탁을 해서, 지금 말하면 시사해설을 제가 가끔 썼어요.

그걸 최성연 선생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인천공보》가 54년 1월부터 창간을 하니까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아, 선생님 제가 적임자가 못되는데요.” “아니야, 김선생이 적임자야. 그러니까 나 좀 꼭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유주의자였어요, 인천시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 생리에 안 맞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글들을 써서 내게 보내주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면만 맡아서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과 함께 여러 선배님들도 몇 번씩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장세관 선생님도 권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드려, 그러면 자네도 자네 발전에 앞길에 도움이 돼, 가봐.” 그렇게 해서 《인천공보》에 제가 1면을 맡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양수 씨를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1면을 맡고, 김양수씨가 4면 문화면을 맡고, 그때 3면은 임진수 씨라고 아주 제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양반이 3면을 최선생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임진수 씨는 나중에 《서울신문》 제2편 집급장이 됩니다. 아주 제주가 있는 분이요, 서울서 활동을 잘 하셨죠.

이렇게 최성연 선생님 사람 선정을 잘해가지고 그때 《인천공보》가 아주 멤버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54년 3월에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전국신문기자 아카데미’라는 것을 엽니다. 한 달 코스로 강의

는 서울신문학원에서 했어요. 제가 거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신문기자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주간인천》이 창간이 돼요.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 김응태 선생을 만나서 “제가 신문기자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그 전에 김응태 선생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주간지를 하나 만드니까 여기에 참여를 좀 해줘야겠어.”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고 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가서 교육을 마치고 오니까 《주간인천》이 창간이 되었는데, 이 양반이 저를 정치부 부장으로 발령을 한 거예요. 전 몰랐죠. 교육 다 마치고 나서 《주간인천》이 창간이 되었다고 해서 사무실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아, 잘 왔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나서 편집국장 책상 앞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김양수 씨가 앉아 있더라구요.

문화부장으로, 그리고 그 옆의 빈 책상에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으니까 가야죠.”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이 가기는 어딜 가. 점심 먹고 가.” “점심이요?” “자네 교육 받고 오느라고 애썼는데.” 하시면서 점심을 먹으러 함께 갔습니다. 그 당시 《주간인천》의 주간을 권성오 선생이 맡았는데, 그 양반이 《주간인천》 때문에 재산 있던 거 다 날렸는데 그 양반하고도 제가 잘 알아요. 그 양반도 민족청년단 출신입니다. 그 분도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야야, 어딜 가? 너 와서 점심 먹었으니 점심값 하고 가.” 그러시더니 사진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휴전협정 회담으로 제네바 회담이 열렸는데, 회담 사진을 하나 내놓으시더니 “야, 이거 좀 밑글 하나 써 주고 가.”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글을 썼어요.

그때 《주간인천》 편집실이라는 곳이 인천의 문화사랑방입니다. 그 당시에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이정성 선생이 계셨는데 거기 점심 때 오셔서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 양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선생이 “정치부장 발령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 밑글 하나 써주고 내일 글 하나 써가지고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 숨 쉴 시간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석남 선생이 “이거 봐. 그럴 때가 좋은 거야, 그럴 때가.” 그러시

구서 “아무 소리 말고 내일 글 써가지고 나와서 편집에 참여하고 신문 만들고 함께 해.” 그래가지고 지도 결국 《주간인천》에 3호를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 후 《주간인천》이 1960년 4·19가 난 후에는 8월 15일로 《인천신문》으로 일간지로 전환을 합니다. 김웅태 선생이 《인천신문》 편집국장으로 그대로 부임을 하시니까 이 양반이 저하고 김양수 씨 하고를 그대로 논설위원으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사설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는고 하니 둘째 형님이 하는 회사에 제가 잠깐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보고 전부 쓰라는 거 아냐. 사설은 고일 선생님이 전부 써줄 테니까, 중간중간에 고일 선생이 사정이 계속 적에 그 공백만 좀 메워줘. 그러면 내가 전화할 때 그때마다 사설 한 편씩만을 써서 주면 돼.” 그렇게 말씀 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제가 논설위원을 맡죠.” 그렇게 하고 《인천신문》에 참여를 해요.

제가 《주간인천》에서 있으면서 젊은 기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느껴요. ‘야, 이거 기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뭐하나 만들어야지. 이것 참 인천 큰일 났구나! 기자들 질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는가 하니, 인천에서 제가 50년대에 언론계에서 활동을 할 적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는 언론계에 있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그때 인천의 언론인이 말이죠, 얼마나 질이 낮았는고 하니 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한강 도강증을 끊을 적에 미군 당국에서 도강증을 떼어줬는데 그때 도강증을 끊으려고 인천에서 오는 기자가 1개 사단이 넘었다고, 미군 정문 팍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였어요. ‘인천에도 기자들이 공부하는 서클이 하나 있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것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정신적 여유도 없고 그랬을 적이니깐.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인천신문》에서는 언론 자유 분위기가 많이 보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월달에 ‘타임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만든 게 1960년 9월 말정일 거예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관계는 참고로 『인천언론사』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문화활동 회고

선생님, 아까 언론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 여쭙고요, 아까 사진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빼놓고 지나갔었는데요, 인천중학교 다니실 때 47년도에 월미도에 갔던 사진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임명방 전 교수님이 계시는데, 동창이셨나보죠?

네, 동기입니다. 인중 동기에요, 이게 임명방이에요, 이게 저고.

그때 운동도 잘하시고 응원단장도 하시고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셨죠?

제가 우리 아버님의 생각에 안 맞는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연극할 적에도 그랬어요, 인중 다니던 어느 겨울에 고학생 구제사업으로 연극을 했어요, 서울의 대학생들하고 인천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표 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부평극장에서도 공연하고 그랬는데, 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화장품이 나쁘니까 전부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저는 집에서 막내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꼭 겸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세요, 저는 목이 달아나도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고학생 구제사업을 명분으로 하는 연극이니까 아버지가 고학생 구제사업 때문이라고 하면 양해를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뭘 연극을 해?” “네, 제가 고학생 구제사업을 위해서, 겨울에 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연극 수익금 가지고 고학생을 돕는 겁니다.” “응, 고학생을 도와? 좋은 일 하네.” 아들이 고학생 돕는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가 보다 하고 양해를 하셨어요.

그 뒤에는 제가 육상경기대회에 나가서 경기 하러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중 응원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놈 뛰는 걸 좀 가서 봐야지.’ 생각하시고는 이 양반이 운동장예를 오셨는데, 어디 있나 하고 둘러보시다가 인중 표시가 있는 곳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응원단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 막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저런 걸 할 리가 만무인데 그러고 다시 쳐다보시고 다시 쳐다보시고 하셨데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들은 얘기죠, 우리 셋째 형님(은하), 아버지가 셋째 형님은 참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저건 이 다음에 뭐가 한 가닥 한다고, 아버지가 응원하는 학생을 보니까 틀림없이 막내아들이니까 “허허, 이것 참, 이게 집안 망칠 놈의 새끼 하나 나왔구나! 저거 큰일났구나!” 한탄을 하시고 좀 더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학생들이 명령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도 응원단장 지휘 하에 똑같이 움직이니까 “아, 그래도 저놈이 학교에서 저렇게 지도력은 갖고 있나보지?” 이 양반이 응원단장이라는 말을 처음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에이 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오셨데요.

그날 저녁 때 셋째 아들(은하)을 불러서 “야, 상봉이가 운동장에서 뽀박질을 한다고 그래서 내 구경을 하러 갔더니 이놈이 말이야,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춤을 추고 말이지, 지랄발광을 하는데 큰일 났어, 그놈이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괴상한 짓만 자꾸 하니 어떻게 해야 좋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셋째 형님이 “아버지, 응원단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글쎄, 나도 그런 걸 느꼈는데, 선생님들도 그놈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더라만 …….” 그렇게 셋째 형님이 말씀 해줘서 위기를 모면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집안 쫓겨날 뻔 했죠, 그 뒤로도 제가 학교에서 연극할 적예요, 집안에서는 일체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연극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다소간 감안을 해주신 거는 내가 12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막내가 엄마도 잃고서도 저렇게 잘 자라 주니까 늘 고맙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선생님, 이 사진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학생 구제회 연극은 아니고 개교기념일 기념으로 인천 출신의 극작가 함세덕의 작품을 공연한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배우들이 전부 인중 학생입니다. 인중 강당에서 했습니다. 성덕당이라고 얼마 전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건물이에요.

당시에 함세덕이 좌익 쪽 연극단체에도 가담해서 활동했었는데요?

그랬죠. 아니, 그 양반이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사회주의 쪽으로 활동을 했지만, 말하자면 자유주의자죠. 그 양반 작품을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는 공연을 못했는데, 작품상으로 보면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이 작품을 우리가 하게 된 거는 지금 여기 이게 나옵시다만, 이 친구가 유희봉이라고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인중 연극부장인데 그 친구가 함세덕 선생의 <추석>(일명 <서글픈 재능>)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전부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한 겁니다. 이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과 학생들, 연극했던 멤버들이 복장 그대로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것은 저입니다. 제가 형 역할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도 일을 못하고 있다가 추석에 씨름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해서 황소를 타는 인물이죠.

선생님이 주연이셨던 겁니까?

네. 이 사람은 김영달이라고 저보다 2년 후배인데 엄마 역할을 했어요. 아주 여성적이에요. 음성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게 잘했어요.

인천 출신의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혹시 고유섭 선생님은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유섭 선생님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돌아가신 한참 후에 고유섭 선생님 기념비 세우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고유섭 선생님 동상을 박물관에다가 세우지 않았어요? 새얼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이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김양수 씨하고 상의를 했대요. “고유섭 선생님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김양수 씨가 나하고 박광성 선생하고 이렇게 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정확한 얘기를 들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점심 회식을 해서 만났는

데 지용택 씨가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에서 박광성 교수한테. 그 양반이 충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뒤에 집행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나야 동상 세울 때는 심부름만 했지.

고유섭 선생 동상을 세우게 된 건, 그 해 정월달에 김양수 씨하고 저하고 이경성 교수댁으로 인사를 갔었어요. 그해가, 1973년 8월 말일자로 인천의 신문이 다 없어졌잖아요. 1974년도 정초에 전동 교수댁으로 인사를 갔더니 …….

1974년 1월달이요?

네, 인사를 갔더니 아주 쓸쓸한 표정을 하면서 “오랜만이야. 고유섭 선생 30주기인데 그냥 보내게 생겼어. 이걸 어떡하지?” 그러서서 제가 거기서 받아서 말씀드렸어요. “뭔가 사업을 하시면 되죠. 기념사업을 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누가 해?” “실무는 제가 맡을 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김양수 씨하고 저하고는 박광성 교수와 박세림 씨랑 만나서 상의해서 조직을 만들 테니까 서울 관계는 선생님이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 그거 어려움이 많을 텐데. 걱정이 많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결정만 해주세요.’ 그때 왜 어렵냐 하면 인천에 신문이 없어져가지고 인천이 암흑세계가 됐는데, 사람들도 전부 뿔뿔이 제각각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언론 통폐합으로 <연합신문>으로 끌려가서 <경기일보>하고 <경기매일>이 없어지고 기자들은 거기 가서 밥줄 잡으려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천에서 어떤 일을 알려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별반 없는 그런 세상이 돼서 큰일 났구나 걱정을 하던 찰나인데, 우현선생 서거 30주기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거다. 하자!’ 그렇게 해서 김양수 씨랑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에 동감을 해주어서 그날 나와서 김양수 씨랑 다방에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그 다음날 박광성 교수, 박세림 씨랑 만나기로 했어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이경성 교수 만나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 주에 이경성 선생님 만나러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겠어?” “해야죠. 꼭 하겠습니다.” 박광성 교수, 박세림 씨하고 만나서, 넷이 아주 단단히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고, 이경성 교수에게는 “서울에서만 동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업에 착수했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바다청소도 하고 돈 걷는 일까지 아주 1인 몇 역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죠.

지용택 씨가 그때 일을 알기 위해서 넷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한 사람은 부탁을 하고 두 사람은 나보고 하라고 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말으마 했어요. 그 때 논문집을 내는데 거기 같이 신겠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글 『우현 고유섭 선생 기념비, 우리는 이렇게 세웠다』를 쓴 거예요. 그런데 논문집은 안 나오고 새얼회보에 나왔죠. 저는 몰랐죠.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선배님 아주 좋은 글을 쓰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으로 3부만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새얼회보에 그 기록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념비 세우는 일을 하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먹었지만 박세림 씨가 참 애 많이 썼어요. 이 비석이 한창조라고 하는 석남 이경성 선생님의 제자인데, 이게 그 친구의 작품입니다. 한창조 씨가 군대에 입대할 때에 그 작품을 석남 선생에게 맡기고 갔어요. 비신 얘기가 나오니까 “좋은 거 있어. 내가 가져올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수 씨하고 저하고 교수님 따라가서 서울에 가서 보고 왔어요. 작품이 제격이었어요. 현존하는 작가에 작품에다가, “교수님, 그렇게 써도 괜찮나요?” “씨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놈한테 영광이지. 선생님 기념비에 비신으로 쓰게 됐는데 영광이지. 그건 내가 책임질 게. 걱정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동정 박세림이 글씨를 맡기기로 했어요. 동정한테 그랬죠. “글씨 쓰고 가서 작품 각(刻) 하는 것도 잘 아는 데 맡기시고 감수까지 다 맡아서 책임지고 6월 16일지 만들어서 갖다놓도록 하자.”고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 집행위원 각자가 각 부서 맡은 사람은 자기 맡은 부서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책임지기로 하자구요. 그러니까 이경성 교수가 펄쩍 뛰면서 “자네가 재무를 맡아서 돈을 많이 쓸 텐데?” “제가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모임 있을 때마다 차값이나 그런 거는 제 사비로 충당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

든요, 동정한테도 그랬죠, “동정한테도 미안한데, 이젠 다 책임지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매달려서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을 도왔죠.

이 기념비가 있으니까 후손들이 고유섭 선생을 기억하게 되고, 그 후 동상도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양반 기일이 6월 26일이예요, 우리는 준비는 미리 다 했는데 기념비 건립을 27일에 했습니다. 고유섭 선생의 세 제자가 거기 나와서 인천에 빚을 많이 졌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유섭 선생이 인천분이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처음 예산을 6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교수님한테 “서울에서 30만 원만 만들어주세요, 인천에서 30만원 만들 테니까.” 해서 서울에서 30만 원, 인천에서 30만 원 만들어서 했어요, 조경 비용으로 14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 제자들이 이교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경을 하지 말자고, 조경을 잘못했다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을 하는 기술자도 없고, 고유섭 선생님님이 아주 싫어하는 왜식 조경이 될 테니까, 인천시립박물관 정문 앞에다 세우기로 하고 그 제자분들이 와서 가봤는데, 거기가 한국전통 정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경비로 책정했던 14만 원이 남았어요, 문화원에다 맡겨서 나중에 기념비 관련 비용이 들어갈 때 충당해달라고 했죠, 시립박물관이 옥련동으로 이전하니까 그 광장에다 세웠죠, 명소가 됐어요, 그쪽도 다시 만들어서 리모델링하면서 모셔왔습니다만, 거기 가 볼 때마다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당시 이것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눈총도 많이 받고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보람 있는 일을 했던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천 출신에 문학하는 사람으로 함세덕과 함께 김동석이라는 평론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도 당시에 많이 유명했었나요?

그 양반에 대해서는 김양수 씨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양반도 수재죠, 그 양반도 시대를 잘못 만났죠, 그 양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없고, 함세덕

선생의 작품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반 같은 분은 대단한 인재예요. 결국 시대를 잘 못 만나서 제대로 피지를 못했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큰 비극을 가져 온 거죠. 인천은 박정희 씨한테 큰 피해를 많이 받았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61년 타임클럽 활동을 활발히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못했죠. 타임클럽 활동도 제가 중단해버렸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자유를 철저히 신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하면서 다녔을 때니까. 이것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박정희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광고 탄압을 받았죠. 1974년부터요.

1975년 2월 8일에 동아일보에 가서 만원짜리 광고 하나 내고 《동아일보》 1년치, 《신동아》 잡지 1년치 선납했어요. 이게 바로 그 영수증이고 당시 동아일보가 감사장을 준 거예요. 이것은 손주한테 넘겨주려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제가 받은 메달입니다. 설 전인데, 설 전에 광고를 내고 와야 이번 설에 선대조한테 제사를 지낼 때 떳떳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하고, 설 전에 광고를 게재하고 온 겁니다.

6·25전쟁과 언론인들에 대한 기억들

전쟁 났을 때는 가족들이 다 피난을 가셨나요?

6·25 전에 은하 형님이 일본 갈 일이 생겨서 부산에 먼저 내려갔어요. 부산에 가서 일본 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6·25 동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참 명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여기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 하셨어요. 그 양반은 민족진영 투사 중의 투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아주 죽일 놈으로 낙인을 찍힌 분이니까. 다행히 그분이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 큰 형님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늘 집 금고에 현금을 채워두고 계셨거든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전쟁 나니까 거기 있는 돈



《대중일보》의 제호

을 저하고 큰형님하고 둘째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서 주시면서, “이제 누구 하나 살아야한다. 나는 아버지 모시고 여기를 지킬 테니까, 너희 둘은 은하 있는 부산에 가든지 어디서 하여튼 뽀뽀이 흠어져서, 누가 살아남든지 살아남자.” 그렇게 헤어졌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부산을 향해서 내려가시고 저는 인천에 남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시엄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4학년 은하 형님의 연결로 해서 뗏어진 시엄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그분 댁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양반이 화평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옆에서 지쳐봐드려야지, 그런 마음에 둘째 형님 따라서 부산을 안가고 화평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25가 난 거예요. 거기 가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서 거기서 잘 지냈고, 우리 큰형님은 우리 셋째 형님 때문에 빨치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팔이 그때 부러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심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동

회 인민위원회에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는 중농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인심을 얻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는 분들은 안 계셨지만, 동회에서 데려다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 인민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송의동 살았었어요. 그 양반이 동회에 나와 있는 인민위원회 사람(그 양반이 큰 형님하고 친구세요)한테, “그 어른한테 이상한 것 하면 안 돼.”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고 그러니까 예우 잘 받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 양반이 나오셔서는 화나시니까 혼자말씀으로 ‘저것들이 며칠이나 견디려고 저 짓을 하냐’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문지기가 듣고서 보고를 했대요. 보고를 해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그 어른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 그 양반은 가난한 사람을 평생을 도우면서 사신 분이야. 그 양반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빨치산에 끌려가서 은하 형님 때문에 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 벌써 부산에 내려가서 6·25가 터져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생사를 모른다고 말했는데도 고문당하시다가 팔이 부러지셨죠. 그 당시에 인천여상 밑에 접골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치료 받으셨죠. 저희가 인명에 손실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죠. 저희 아버지하고 큰형님, 고초들을 겪으셨지만, 그런 건 나라가 다 겪는 거니까.

인천상륙작전 때는 포탄이 송의동까지는 안 왔나요?

9·15 수복 되던 날 밤에 송의동 집으로 갈려고 해서 갔던 게 아니라 문학 쪽으로 피난을 간다고 나온 겁니다. 그날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9월 5일날 함포를 하고 9월 10일에도 함포를 하고 11일은 하루 쉬고 12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인천 상공이 비행기로 덮였어요.

야단법석이 나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문학으로 갈려고 송의동 쪽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도중에 만나 사람이 어디로 가냐고 해서 문학으로 간다고 했더니, 문학이 뭐냐고, 미군이 수봉산 쪽으로 질러가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잘됐다고 생각해서 송의동 집으로 간 거예요. 밤새도록 함포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죠. 상륙작전 때 인천은 참 비참했죠. 인천에서 그런 거는 제가 전부 겪었어요.

집이 파손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구요. 안에는 큰 형님 처가 식구들이 와있었어요. 바깥 채하고 아래 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민위원회가 점수를 해서, 인민위원회가 병원 부속 건물로 사용을 했더군요. 포격을 맞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이 성람이 누구신가요?

이보운 씨, 그 양반 가족들은 전부 북으로 갔어요.

결혼은 언제하신 거예요?

결혼은 195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언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중일보》는 많이 보셨나요?

《대중일보》는 그 당시 학생이어서 많이 못 봤어요. 신문이 《대중일보》가 있다는 것은 알고 형님 사무실에 가면 잠깐 보곤 했죠. 그 때는 《대중일보》하고 《인천신문》 2개가 있었는데 《인천신문》은 그 후에 2년 정도 있다가 폐간 했죠. 그 당시에 《인천신문》은 좌익계열, 사회주의 계통이었고 인천사회에서 말썽이 많았죠.

《대중일보》 편집국장도 하고 나중에 《인천신문》으로 갔던 엄홍섭이라는 소설가 겸 편집국장은 모르시나요?

그 양반은 말만 들었지 접촉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신문이 인천에서 《인천신보》가 만들어진 건가요?

《대중일보》가 《인천신보》로 1950년 9월에 이름을 바꿨어요. 부산 내려가서 《인천신보》가 발행이 돼요. 1951년 4월에 다시 올라와서 인천에서 발간이 됩니다. 그 후에 《인천신보》가 《기호일보》로 바뀌었다가 《기호일보》가 《경기매일》로 이름을 바꾸죠. 《경기매일》로 이름을 바꾼 게 1960년대일 거예요.

이 신문들은 송수안 선생님이 발행하신 신문들이죠?

그렇죠. 송수안 사장이 《경기매일》을 했고 《인천신보》 때도 그 양반이 사장이었어요. 《대중일보》 때는 그 양반이 사장은 안 하시고 전무로 활동을 하시다가 《인천신보》 때부터는 아마 사장을 맡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소하는 이종윤 선생이 부사장 겸해서 편집국장을 맡았어요. 그 양반이 인쇄소를 경영하셨다가 《대중일보》가 나올 적에 인쇄소를 했어요. 그 자리가 내리고



《경기매일신문》 1973년 8월 31일자 공간호

회에서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인천여고로 들어가는 길 앞에 2층 벽돌집이 있어요. 선양사라고 이종운 선생의 인쇄소 자리입니다. 《대중일보》가 거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리교회에서 정문 쪽으로 나오다가, 용동 마루터, 거기 가기 전에 내려오다 보면 인천여고로 가다가 10미터 가면 바로 왼쪽에 벽돌건물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이종운 선생이 하던 인쇄소 자리입니다. 이벽 씨의 선친이세요.

전쟁 때 만들어진 《인천일보》는 다른 분이 하신 건가요?

사장이 김병윤 씨였어요. 그 후에 맹헌 씨가 경영을 하다가 《경인일보》로 개제를 해서 《경인일보》가 나오는 거죠.

《주간인천》은 따로 만들어진 겁니까?

《주간인천》은 권성오 씨하고 김응태 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건데, 원 《주간인천》은 인천시청 기관지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6·25 후에 최성연 씨가 편집장을 맡았을 때 《인천공보》로 나왔죠. 그 다음에 《주간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참여하신 <<대한신문>>은요?

서울에 있었던 신문사인데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 수복되기 전에 인천에서 2년인가 간행이 되었어요. 서울 수복되기 전에 이정은 씨하고 이필변 씨 두 분이서 <<대한신문>>을 만들었어요. 김양수 씨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때 문총 활동을 할 때 이경성 교수가 <<대한신문>>에 추천을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계기가 돼서 김양수 씨가 <<대한신문>>에 참여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참여를 하셨습니까?

1951년 말에 <<대한신문>>에서 1면 정치기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두 달인가 협조한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김양수 씨하고 저하고 <<인천공보>>부터 시작해서 <<주간인천>>을 거쳐서 <<대한신문>> 때도 같이 몸을 담고 있었지만, 인천에서 신문이 창간되면 나는 정치면, 김양수 씨는 문화면에서 같이 활동하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깝게 지냈죠.

연배 차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김양수 씨가 나보다 2년 후배예요. 인중은 나보다 3년 후배고, 나이는 2년 차입니다.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는 건 몇 년도입니까?

제가 복학을 늦게 했어요. 복학이 늦어진 거는 신문학 공부를 하려고 일본 상지대학이랑 연결되는 코스가 있어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동양통신에 몸담고 있을 때 동경지사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동양통신에서 동경지사에 자리가 없고 필리핀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해요. 동경에 신문학 공부하려고 가려는 건데 필리핀에는 갈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때 제가 '신문기자 아카데미'에서 4주 코스를 밟고 나서 신문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방향을 확실히 잡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 때 홍익대학교에 신문학과가 있었어요. 최준 교수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이 한국 신문사의 개

척자입니다. 그 양반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문예잡지를 편집하시던 분이네요. 그 양반이 저의 은사이신 이순복 교수님하고 가깝게 지내서, 이순복 교수님이 최준 교수한테 저를 소개하셨어요. 그 당시에 인천의 언론이 통폐합 돼서 신문 하나 없었을 때예요. 여기에 편집위원 명단보세요. 인천에서 지성을 갖췄다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이순복 교수님 함자가 있을 거예요. 중앙대학에 교수로도 계셨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고, 영어를 잘 하시죠. 이 분이 최준 교수한테 내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서울로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신문학과에 교수요원이 전혀 없어요. 그날도 만나서 그 양반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신문학 얘기도 한참 하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에 이순복 교수님을 통해서 신문학에 대해서 아무 글이나 좋으니까 글을 하나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 글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홍익대학에 강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문학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제 개인사정이 생겼어요. 둘째 형님이 삼척에다가 통조림 공장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 해에 인수하셔서 적자를 엄청 보셨대요. 그 다음에 회사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 보고 1년만 관리 좀 해달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냥 앉아서 공부나 하고 일하는 것만 지켜보라고 했어요. 마침 저는 최준 교수가 강사 자리를 마련해줘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전무 편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공장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 좀 도와 달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을 한 가방 가득 지프차에 싣고 갔는데, 바쁜 상황에 책 볼 겨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안에 생사 문제가 걸린 거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순복 교수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최준 교수님한테 말씀 좀 전해달라고. 약속을 1년만 시간을 달라고.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 대학에 강사라는 게 한 시간에 2천 원인가 그랬어요. 거마비 밖에 안 돼요. 책 사 볼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희망》 잡지가 성공해서 《주간희망》이라는 것을 냈어요. 《주간희망》 편집장이, 《경기매일》에 계셨던 김원기 씨가 편집에 재주가 있었는데 그 분이 편

집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주간희망>>에 해설란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이걸 바탕으로 흥대 시간강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째형님이 당신 회사에 협조 안 하면 너한테는 한 푼도 지원 못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판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해가 1958년이예요. 1958년에 제가 무슨 경영을 알아서 잘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보니까 운도 따라주고, 그 해에 통조림 공장이 쫓치 통조림인데, 군납이니까, 그게 순조롭게 그 해에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성적이 좋다 보니까 둘째 형님이 저를 회사에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경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관리를 하다보니까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영공업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런 잡지 활동도 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 유신체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기관지도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송의동에 최시호 박사가 병원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경기문단』이라고 하는 문학잡지를 냈습니다. 인천문인협회 회원이었죠. 이 분이 사업까지 하면서 도저히 끌고 가기 힘들니까 김양수 씨한테 『경기문단』을 반납하고 손을 떼야겠다고 힘들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양수 씨가 저하고 상의를 해서 최박사 만나서 판권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왜 달라고 했냐면, 그 쪽에 정보노 씨라고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후배를 통해서 잡지를 하고 싶은데 돈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런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양수 씨한테 말했어요. 김양수 씨가 판권 달라니까 최박사가 열린 넘겨준 거죠. 그래서 창간호로 못 나가고 5호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서문화(機西文化)』입니다. 여름호가 창간호입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당시에, 박광성 교수와 저는 처음에 참여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최성연 선생님이 개항 특집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어요. ‘개항사의 재정리’라는 특집 제목은 김양수 씨가 정했고, 『개항사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써주세요 그래요. 제가 향토사를 보다보니까 향토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게 없어서 향토사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책, 신문, 잡지를 정리해야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제가 평소에 김양수 씨에게 늘 상의를 해왔던 거예요. 김양수 씨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거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았다

고 하고 나서 『개항사의 현장』이라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박광성 교수랑 최성연 선생이랑 저랑 같이 ‘개항사의 재정리’라는 특집으로 1978년에 6월달에 발간했죠. 이걸 낼 때 김양수 씨가 애를 많이 썼죠. 김양수 씨를 발행인으로 하고, 주로 박광성 교수랑 저랑 셋이 만나서 계획도 하고 판도 짜고 잡지 『기서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오래 지속을 못했어요. 이것을 만들 적에 제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정가 5백 원에 1년치 구독료는 2천원인데, 잡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은 다 찾아갔어요. 1년 구독을 받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꾸러나갈려고 애를 써서 했는데 오래 지속을 못했어요. 저는 2년인가 참여하고 손을 뗐어요. 그래야 김양수 씨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움직이기가 편하실 거 같아서 결국은 그렇게 했던 건데, 신문이 없던 게 한이 났혀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팔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인천일보>>에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 해 1994년 10월 15일이 인천시민의 날로 정해졌어요. 그 전에는 시민의 날이 2월달에도 했다가 6월달에 했다가 직할시가 되면서 7월달에도 했었어요. 10월 15일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을 찾아서 인주가 인천으로 바뀐 게 태종13년 1413년 10월 15일이니까, 그날로 인천시민의 날을 정한 거죠. 그 당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박광성 교수가 맡고 있을 때예요. 그 양반이 주도해서 인천시민의 날로 10월 15일로 만들었죠.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 저한테 이번에는 인천 얘기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10월 15일이 인천 시민의 날로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인천』이라는 제목 하에 이 글을 실었습니다.

내년이 정명 600주년인데, 이 기념행사도 10월 15일 ‘인천’이 처음 사용된 것을 주목해서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잡으면서 기념하게 된 거 같네요.

네, 지금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강덕우 박사하고 강옥엽 박사 두 분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2002년도에 인천시사편찬위원회에 전문직으로 참여하시면서 전념을 다해서 인천에 대한 정리는 두 강 박사님 손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다행스럽습니다. 내년이 정명 600주년인데 책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과 예산이 없으니까 걱정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언론사 통폐합에 따라서 1973년에 다니시던 《경기매일》 신문이 없어졌는데요, 그 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인천신보》에 있다가 《동양통신》으로 갑니다. 《동양통신》에서 《인천공보》 창간 때 참여하고, 《주간인천》 창간 때 참여하고, 1961년 8월 15일에 《인천신문》이 발행이 되면서 참여를 하고, 《인천신문》이 《연합신문》에 팔려가는 게 아마 1968년인가 69년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 《경기매일》 사장이 송영호라고 저하고 인중 동기에요. 전화가 왔어요. 만났으면 좋겠다고 만났더니 …….

그 분이 송수안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네 큰아들입니다. 그 친구가 사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경기매일》이 복잡했어요. 박민규가 주필이었어요. 성격이 까다롭게 직선적인 분이예요. 사장하고 부딪혀서 객원주필 마냥 그렇게 해서 사실을 쓸 적마다 보수 규정을 거론하고 이상하게 됐을 때예요. 송영호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조건이 있다. 박주필 사무실 방을 따로 마련해드려라. 그렇게 하면 참여해서 박주필하고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박주필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 있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언론관계에서 있어서도 박주필이 선배이고, 신문사에서도 박주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제대로 정상화 시켜다오.” 그래서 그 친구가 방향 제시한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주필을 만나서 승낙하시고 활동을 하셔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경기매일》에 가게 됐죠. 《경기매일》 신분증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매일》에 근무하는데 제가 건강이 썩 좋은 편이 못됐어요. 사실을 쓰기 시작했는데 박주필하고 저하고 하루 걸러서 쓰는데, 그제 참 힘들더라구요.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상한 증상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뭘 이렇게 과로를 하냐고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척추에 노화현상이 생겼다고요. 지금 《경기매일》 논설 쓰는 거 당장 손 떼라고 쉬어

아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송영호를 만났죠. 그때 <<경기매일>>에서 논설을 쓰면서 인천시청에 대고 논설로 구체적으로 화살을 쏜된 논설들이 없었어요. 제가 인천시를 비판하는 논설을 썼는데, 왜 그런 논설을 썼냐하면, 동회에서 도민증 용지가 분실이 됐어요. 큰일 날 문제예요. 인천시를 비판하는 화살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경기매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인천시청 출입하는 기자한테 누가 썼냐고 물어봤나 봐요. 거기서는 자꾸 박주필이 쓴 거냐고 하나까 이번 것은 김상봉 씨가 썼다고. 그러니까 인증 후배가 그 당시에 인천시청 총무과장인데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어. 속편은 안 쓸 테니까 이 문제는 관리 잘 해. 이견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의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결산서 평가를 논설로 썼어요. 당시에 <<경기매일>>이 상공회의소 인쇄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설을 쓸 때는 사장을 만나서 “내가 오래 간만에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상공회의소에서 전화가 올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어느 신문이든간에 비판을 할 거야.” 당시에는 <<경기일보>>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돼서 <<경기일보>>가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나하고 대답프로를 만들었어요. 『월간경기』라고 잡지를 낸 게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사람하고 대답하면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지역사회에서 뭔가 건드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죠. 지역사회에서는 협조하고 그러는 게 좋은데 그런데서 언론 생활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그 뜻을 잘 펴지 못했죠.

<<인천일보>>가 인천 출신들이 1987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에 신문사가 탄생을 해서 <<인천신문>>으로 나왔다가 <<인천일보>>로 개제해서 나왔습니다. <<인천일보>> 만들 적에 기쁨이라는 게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쫓불 없는 곳에 햇불이 생겼으니, 그렇게 기쁨 수가 없었어요. 저는 통폐합된 다음에 <<연합신문>> 불매운동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인천이 박정희 씨한테 피해가 많은 고장이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인천일보>>

가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인천신문》도 자진 휴간을 했다고 하고, 《인천일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잘들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두 강박사가 자리를 잘 붙들고 계해주셔서 역사자료관도 자리를 잡고,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상설이 되어야 되는데, 상설이 안 되면 강덕우 박사나 강옥엽 박사, 이 두 소중한 인재를 인천이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을 고대함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천에 집성촌이었던 여우실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광복과 전쟁, 산업화 시대를 겪으시면서 지내오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인천이 조그만 제물포라는 어촌 지역이 나중에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인천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회가 드십니까? 인천의 변화과정을 꼭 지켜보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광역화 되고 여러 가지로 크게 발전되는 거 같아서 좋은 한데, 송도 신도시 문제, 외국인 투자, 기업 활동, 인천이 큰 공업지대인데도 인천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많습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 지금 인천시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시민의 미래에 대한가치 체계가 서 있지 않아 보여요. 제멋대로예요, 인천광역시라고 하는게 강화 쪽도 그렇고 옹진군도 그렇고, 인천이 발전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자원도 많은 곳인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문화적인 쪽에 비중을 두어 커졌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인천에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이나 있지만, 전 이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인천에 예술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윤학원이라는 지휘자가 인천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인천시립합창단을 세계적인 수준의 합창단으로 만들었어요, 인천시립교향악단도 처음에 임원식 씨가 오셔서 재편성을 잘 해주셨는데,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지금 인천시립교향악단 멤버들이 인천 출신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게 인천에서 인제 양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키워서 자긍심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첫째로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인천 시장이 주체적으로 인천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인천시의원들이 정책을 가다듬어서 인천시에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인천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자긍심을 폭넓게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1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게임 예산 문제 하나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참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지금 인천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인천시민들이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시켜야지만 미래가 밝죠, 그런 쪽으로 저는 언론계 쪽에서 주마가편하셔서, 정치권, 행정권, 이런 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서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봉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장



이성구 _____

인천 화평동 출생

인천송림초등학교, 동산중·고등학교, 인천사범학교 졸업

신현초등학교 교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초대 상임공동대표

한국교육대상 수상, 한국청소년연맹 대훈장 수상

저서: 『개화의 선구지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사랑운동』

■ 채 록 자 : 남동걸(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채록일시 : 2012년 6월 22일, 7월 6일, 7월 24일

■ 채록장소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제11장 교육자의 한길로

추억 속의 옛 생활 터전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선생님의 출생지와 성장한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출생한 곳은 현 동구 화평동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충청도가 고향이었는데 청년 시절부터 인천에 정착하셨으니 우리 가족은 제 자식을 거쳐 손자 때까지 4대째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화평동에서 태어나 계속 거기서 사신건가요?

아닙니다. 화평동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살았고 그 후에는 화수동, 금곡동 등 여러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사신 동네 그 모습이 궁금하군요. 현재의 모습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동네는 화평동, 화수동을 중심으로 송현동, 송림동, 금곡동 지역이었는데, 옛날을 돌아보면 너무나 크게 변했지요. 제가 살던 집은 외철문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150m 정도가 되고, 배다리 야시장 입구까지는 500여 미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옛 추억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중인 구술자

외철문이나 야시장이 어
떤 곳인지 궁금하군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경인철로가 도시 한
복판을 남북으로 갈라놓았
기 때문에 불편해진 교통망
을 살리기 위해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배다리
쌍철문이 서쪽에는 화평동
외철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외철문다
리 풍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고 오늘날 재래시장임구처럼 노점상들
이 길가를 점령하고 있어서 늘 복잡했지요. 주로 먹을거리 장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시루떡, 쑥떡, 동굴레, 무릇 장사들이 많았고 각종
나물, 엿장수의 가위 치는 소리, 오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사람들,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로 떠들썩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후 이런 길거리 좌판 노점상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송현동시장 다리 입구까지
변창해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야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들던 인기 있던 곳이 바로 배다리 야시
장이었던 같아요. 특히 여름철 야시장은 정말 인기가 좋았지요. 인천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처럼 늘 북적대고 요란했거든요. 야시장이 섰던 장소는 현 자유시
장 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수문통 갯골이 남쪽 외철문 쪽으로 올라오다가 90
도 꺾어서 배다리까지 직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갯골바람이 시원했고, 갯골
꼭 주변이 공지가 많아서 자연발생적으로 야시장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시 야시장 풍경은 저희들 어린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직선으로 꼭 뻗은
갯골 뚝에 수백 개의 남포등 불이 휘황찬란하게 밤하늘을 밝히고 입구에는 만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장구치고 춤추는 무리, 나팔소리, “싸구려! 싸구려!” 하고 외치는 장사치의 고함 소리 속에 텅달아 밀려다니던 동심이 그림기기도 합니다.

야시장은 대개 해가 진 어둑어둑한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식구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야시장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야시장은 갯바람이 시원해서 더위를 시키는 데는 그만이었지요. 정말 볼 것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 더욱 유명해지고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인천의 명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문통 갯골이란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문통 갯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미 만석동 팽이부리서부터 송현동 해안에 이르는 긴 해안선이 매립되어 공장지대로 되어가던 시기였지요. 해안을 매립하면서 이 지역 수로 입구에 수문통이 생겼어요. 이 수문통에서 시작된 갯골이 직선으로 곧게 화평동 외철문 쪽으로 올라가 다시 90°로 꺾여 창영동 앞 쌍철문에 이르는 긴 수로가 되었는데, 이 수로는 석축으로 아주 튼튼하게 쌓은 멋진 수로였지요. 이 수로에는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수문통에서부터 세 번째 다리가 화평동 사거리까지 이어진 구간을 수문통 갯골이라 불렀고, 네 번째 다리에서 배다리까지의 수로를 배다리 수로라고 부른 것 같아요.

수문통 갯골은 그 입구가 좀 넓었지요. 썰물 시간이 되면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갯벌이 넓게 드러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갯벌을 뒤지면서 갯지렁이를 잡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동네아이들은 축대를 타고 내려가 작은 검정 방개를 잡는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지요. 이 수로에 물이 가득 들어올 때면 어른들이 넓은 뜨개 그물을 물속에 담갔다 올렸다 하면서 그물에 걸린 멸치처럼 생긴 작은 고기들을 작은 바가지로 훑어내는 그런 고기 잡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금곡동의 아저씨 댁에 가느라 이 배다리 수로 길을 걷다 보면 작은 쪽배들이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 걸쳐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배들이 들물에 생긴

이나 새우젓 등을 싣고 들어와 짐을 풀다보면 썰물 시간이 되어 다시 나가지 못하고 다음 밀물 때까지 저렇게 갯벌에 배를 대고 기다리는 배들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의 그 설명 속에 배다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 속의 학창시절

선생님께서는 인천에서 초·중·고를 모두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셨는지요.

인천 송림초등학교, 동산중·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광복, 6·25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던 세대입니다. 이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다니신 학교생활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제의 잘못된 교육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말씀 좀 들려주시지요.

너무 오래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세대들은 1학년 때부터 일본 교과서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일본말만을 쓰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쓰다 들키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호안댕’이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

‘호안댕’이요?

네 ‘호안댕’,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그 ‘호안댕’이라는 신전에 손뼉을 치고 절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감시받는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유공원 큰길 옆에 신사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날 때 절을 안 하면 감시원이 소리치며 절을 강요하는 바

람에 사람들이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대동아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43년~44년경에는 총동원령이 내려 학교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밭을 일구어 고구마를 심고, 가마니에 흙을 담아 가마니 틈 사이에 고구마 순을 심고 책임자 이름표를 붙여 놓고 매일 물을 주게 하던 일, 매주 쇠붙이나 낫쇠, 주발, 수저, 현 냄비 등을 가져오게 강요하면서 학급별 목표량이 모자란다고 학생들을 쥐어짜던 일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디, 도시 한복판에서 구할 길이 없는 소나무 관솔을 따오라는 것입니다. 이 관솔로 기름을 만들어 군대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요했지만 관솔 수집이 잘 안되니까 수업을 전폐하고 당시 소나무 숲이 많던 주안지역까지 전교생을 동원하였어요. 현 주안학교와 석바위 솔밭을 뒤지면서 하루 종일 관솔을 따던 생각, 소나무에 톱질을 하다가 벌에 쏘여 울던 애들의 울음소리, 음악시간이면 앞으로 B-29와 같은 폭격기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기소리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풍금소리를 식별하는 교육도 받았어요. 애들이 이 청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매일 청소 당번을 시키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소개령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소개령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대대적인 폭격을 하거나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에 방해가 되는 아녀자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소개령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만 인천에 남고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충남에 있는 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광복을 맞았지요.

그러면 인천에는 언제 다시 오셨나요.

해방된 그해 12월경에 올라 왔지요.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인천에 도착했다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서 갑판 위에 올라가보니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배들이 인천 앞바다에 꽂 찼더군요. 그리고 배 앞머리가 물 위에 반쯤 뜬 채 물거품을 내뿜으면서 달리는 무척 빠른 작은 배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에 정신을 잃었지요.

그런 배가 우리 탄 배 옆을 지나가면 우리가 탄 배는 금방 뒤집힐 것 같이 출렁거려 무서웠습니다. 그 배에 미군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일본 선생님들이 미국사람들은 우리들과 달라 노랑머리에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같은 놈들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본 미군들이 키도 크고 옷도 멋지고 잘생긴 모습에 감탄했지요. 그 순간 일제 때 학교에서 보여준 영화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말 탄 불쌍한 흑인들을 마구 총으로 “탕탕” 쏘 죽이면서 술을 마시는 잔인한 장면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송림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동산중학교로 진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중학교의 진학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일본교과서를 공부하며 일본말을 강요받다가 갑자기 광복이 되니 처음 보는 우리나라 한글 글자를 익히며 한편으로 한글 교과서도 없이 공부하다가 다음해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일제 때 3월 학기가 광복 후 9월 학기로 갑자기 변경되는 등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우리 세대는 제대로 기초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보니 서울에서 국대안 반대운동이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상급 학생들이 좌, 우로 갈라져 싸우며 등교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서울대 국립대학안 반대운동이 일어난 때군요.

네, 그때 좌파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고 말을 안 듣는다고 폭력을 쓰니 갓 입학년이 된 우리 세대 학생들은 정말 어려웠지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겨우 안정을 찾아 공부를 할 만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5학년이 되면서 또다시 비극적인 6.25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5학년? 아. 당시 중학교가 6년제였군요.

그렇죠.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6년제였지요.

6.25 때 학교나 학생을 어떻게 되었나요?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학업이 중단되었지요.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군요.

인민군이 인천을 점령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외지로 탈출하고 오갈 데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살 수밖에 없었지요. 인민군 세상이 되면서 좌익계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학생들을 소집했으나 학교에 나간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세대들의 나이가 17~18세 포래들이었는데, 인민군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인민군에 끌려간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1·4 후퇴 때는 학도 의용대나, 제2국민병 소집으로 국군으로 참전한 사람들이 많았고 전투 중 전사한 사람, 상이군인이 된 사람,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세대는 정말 불행한 학창시절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를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터널 속에 갇힌 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학은 언제 하셨습니까?

1951년 여름 즈음 되었는데,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를 만났더니 “너 잘 만났다. 학교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따라 갔더니 이상하게 신흥학교로 안내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더니 우리가 다니던 모교는 미군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신흥학교를 빌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흥학교에는 우리학교 뿐 아니라 인천중학교도 이웃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지요. 저는 다른 친구보다 한 두어 달 늦게였지만, 그나마 친구 덕분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 복학한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되었지요?

내가 복학할 때에는 30여명이 되었는데, 중간에 계속 복학생이 늘어서 졸업

때는 43명이 되었어요.

원래 전쟁 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전쟁 전에는 우리들이 3학급 150여명이었는데 겨우 43명만 졸업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만 살아있다는 안타까움에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었지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때는 서울지역 대학들이 부산으로 피난해 전시 종합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하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하고도 못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 동기생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서울대학에 10명이나 합격했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피난 온 학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개성사범학교와 송도중학교입니다. 개성사범학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1952년 4월 1일 인천으로 올라왔지요. 그 해 이 학교는 ‘국립개성사범학교’라는 간판에서 ‘국립인천사범학교’로 바꾸고 인천에 정착했어요. 그 후 이 학교는 인천교육대학교로 그리고 현재 경인교육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혼란기 학창시대 이야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좀 색다른 질문입니다만 옛날 입학시험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송림학교에 들어갈 때도 입학시험이란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입학 시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는 시험이 무엇인지 왜 시험을 봐야하는지 모르는 채 어머니와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 밖에 줄을 세워 놓고 한사람씩 이름을 부르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차례가 되어 들어가 보니 “이름이 무엇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함을 묻고 나무 가지를 가지고 “세모를 만들어봐라”, “네모를

만들어보라”, “나무상자 안에 세모와 네모난 것들을 잘 넣어 보아라”, 뭐 이런 것들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게 초등학교 입학시험이었군요.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때도 입학시험이 있었을 텐데 어땠나요?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세대들은 중학교 진학시험은 경험했으나 1952년 학제 개편으로 고등학교제도가 생기면서 재학 중인 6학년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생활도 못 해 보고 시험과정도 없이 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6학년 때 학제가 변경되었군요. 그러면 당시 개편된 학제에 대해 좀 말씀 해 주시지요.

이 제도는 1951년 우리나라 교육법이 개정되어 초·중·고·대학의 학제가 6·3·3·4제로 개정되는 바람에 갑자기 교육계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지요.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상업학교가 갑자기 인천고등학교로 변하면서 인천중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인천고등학교로 통합시키고, 인천상업학교 1, 2, 3학년생들을 인천중학교로 통합하는 큰 변화를 겪었지요. 이 두 학교를 제외한 모든 6년제 중학교들은 그 학교 내에서 일제히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분할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고등학교가 없던 인천중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동산중학교로 입학하셔서 6학년 때 학제 분할로 인해 동산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제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졸업하시고 사범학교를 가신 거고요.

네.

사범학교를 입학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고교를 졸업했으나 가정형편상 대학도 못가고 뚜렷한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만하고 있었는데 개성에서 피난 온 국립개성사범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알아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 후 현직교사로 발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시했습니다.

모집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나요? 경쟁도 심했겠네요.

구체적인 인원수는 잘 알 수 없지만 본과 1개반, 연수와 2개 반을 뽑은 것 같습니다. 응시생들은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본과와 연수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본과는 사범학교 병설중학을 거쳐서 사범 본과로 올라가는 코스고, 연수과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뽑는 1년제 속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고 동등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니 연수과를 가셨겠네요?

그렇죠, 연수과로 가서 1년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교생실습이 있었습니까? 교생실습은 어느 학교에서 받았습니까?

모교인 송림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4학년 담임선생님께 교과별 학습지도안을 쓰는 방법이나, 학생 출석부 통계처리법, 어린이회의 진행법 등 학급 경영에 필요한 실무경험을 배우고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적인 수업 경험을 익혔습니다.

교육현장의 보람

졸업을 하신 후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은 어느 학교였습니까?

오류초등학교였지요. 그때는 행정적으로 인천이 경기도에 속했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관계로 한강 이북의 미 수복지를 제외한 한강 이남 전 지역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다행히 집에서 통근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발령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시 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은 소감이 궁금합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학교도 철도역에서 7, 8분 거리고, 선배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동기생과 함께 부임을 하고 보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전 직원이 18명이나 되는데 제 출근부 서열이 여섯 번째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으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일제시대부터 사범학교 졸업자를 우대했던 관행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 때문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초임에 11호봉이나 되는 높은 호봉을 받게 되었어요.

최종하지만 그 시절 봉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래 되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충 230원~24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봉급을 갖고는 생활이 어려웠지요. 다행히 봉급 이외에 쌀 배급이 있어서 어려운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쌀 배급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누어 주면 학교에서는 전 직원의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쌀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독신 교사들에게는 좀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쌀 배급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생들에게도 분유를 배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요?

맞습니다. 유니세프란 유엔기관에서 점심을 못 먹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 학

생들에게 분유를 배급했습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애들이 분유를 배급받아 가정에서 끓여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유를 배급하기 위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분유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 분유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직접 끓여 먹이라는 새로운 행정지침에 의해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로 분유를 끓여 먹이는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학교 청부 아저씨들이 아침 일찍 분유를 끓여 놓으면 11시 반 경부터 학급 담임이 해당 학생들을 인솔해서 우유를 먹도록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당시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책임의식은 오늘날의 교육현장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열정은 참으로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일과 시작이 9시라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30분 전에 출근해 학생들의 아침자습을 돌보거나 청소당번 학생들과 실외구역 청소를 지도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1주일씩 돌아가며 주변활동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주변 교사는 한 주간 학교관리나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해 주변학생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점심시간에는 주변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사고 예방, 학생들 간의 싸움, 폭력, 외부인 단속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퇴근 후에도 집에서 학생들의 평가문제나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가리방을 굵어(철필로 미농지를 가리방 위에 펴놓고 쓰는 작업)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등사판으로 시험지를 한장 한장씩 밀어내는 작업을 거의 매일같이 했으니, 그것도 아무 보수도 없이 상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으니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선생님들도 교육에 대한 열정,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어떠했지요?

그때 사회분위기는 '제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 학교에서 하는 일에 매우 협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에 새교육 바람이 불었다는데 어떤 교육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교육이란 일제시대의 낡은 교육을 청산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우리식으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내용면에서는 국어·산수·사회·자연과 같은 교과중심 교육에 특별 활동이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학습 방법면에서는 생활중심의 통합된 단원학습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지요.

특별활동이란 어떤 건가요?

특별활동내용은 글짓기, 축구, 주산부와 같은 여러 부서를 만들어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주는 학습 활동을 말해요. 그런데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경험부족으로 시간 운영방법, 교실배정 문제, 지도교사 문제 등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지요. 특히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생활태도를 익히기 위한 학급단위 자치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인천 교육현장에서 경험하신 변화의 모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초창기 새교육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창영학교 조석기 교장선생님께서 이 교육에 앞장서 연구해 주시고, 인천관내 교사들의 연수 지도는 물론, 공개 수업을 통해 특별활동분야 운영방법의 일반화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창영학교는 자체 인쇄소를 설치해 학급문집이나 어린이신문을 발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별활동 운영의 실제모습을 보고 배우려는 전국적인 시

찰단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은 창영학교를 중심으로 새교육의 선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림학교는 선생님의 모교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네, 1960년도에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학교에 계시다 오셨지요?

소사북, 대부초등학교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송림학교에는 어느 정도 계셨나요?

한 10여년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 오래 계셨는데 계시면서 하신 일도 많으시고 추억거리도 많았을 것 같은 데 좀 말씀해주시지요.

송림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는 제 나이가 30 전이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송림학교는 신흥, 창영, 축현과 더불어 인천에서 손꼽히는 4대 학교에 속했습니다. 학급 수도 75학급이나 되는 큰 학교였지요.

75학급이면 한 학년에 12~3학급이나 되었겠군요. 상당히 큰 규모의 학교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학급담임보다 주로 연구 활동이나 교무 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돕는 중간관리 역할을 많이 했지요.

추억거리라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도 지정 국어과 3년차 연구보고회를 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편지를 통해 교과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전 직원이 그 방법을 연구했지요. 선생님들이 пам훤린 보람이 있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기업, 단체, 기관, 공장 등에서 수집한 교과별 단위별 자료들이 2천여 점이나 되었고, 학생들이 개별적

으로 그 기관과 친해지고 계속 편지 왕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연구 내용을 경기도 관내에 보급했던 일이 지금도 그때 함께 일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면 큰 추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송림학교에 두 번씩이나 겹치는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선생님께서 계시던 때죠?

그렇습니다. 오래되어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64~65년 경 여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던 것 같았는데, 화재는 오후 2시경 대낮에 일어났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불길을 보면서 학교로 달려갔지요. 시민들도 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본관과 연결된 후관 2층 교실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화물질인 책·걸상을 빨리 치워버려야 한다며 책·걸상 등 인화물질을 창문 밖으로 마구 던지는 모습, 줄을 서서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 강당에서 피아노를 끌어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방화용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본관불이 후관 교실로 번지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관 1, 2층만 전소했지요. 이 때문에 5, 6학년만 제외하고 4학년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오전·오후 2부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제2차 화재는 본관 철거 작업 중 한밤중에 후관 교실을 모두 잿터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송림학교 학생들은 송현, 서림, 창영 등 이웃 학교에 교실을 빌려 피난 학교생활을 하게 됐지만, 1, 2차 화재를 겪으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돼요. 화재당시 불속에 뛰어들어 학적부와 주요문서들을 끌어내신 심, 조, 두 선생님의 일화는 5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에서도 근무하셨던군요.

그렇습니다. 송림학교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가 이웃학교인 서흥학교로 발령을 받았지요.

서흥학교 규모나 주변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경기도 교육연구원시절

1978년 경기도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며 교육자료전 심사를 하는
구술자(맨 뒤 첫 번째).

서흥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50학급 정도의 비교적 큰 신설학교였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은 갯골이 지나가는 저지대 매립지에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운동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서흥학교에서 하신 일이나 추억거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서흥학교는 제가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다가 나이 40에 교감으로 승진한 인연이 깊은 학교지요. 이 학교도 시청각 분야의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는 시범학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계에서는 시청각 교육방법에서 교육공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연구가 활발할 때였습니다.

우리 서흥학교에서는 ‘프로차트’ 기법을 도입해 슬라이드나, TP 자료, 사진이나 신문자료들을 수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실제 수업을 통해 경기도 관내 모든 연구학교를 초청해 공개했지요. 회원들은 이 구동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프로차트’를 적용한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이 매우 성공이었다고 극찬했지요. 이 연구는 시청각신문 취재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한때 프로차트 기법이 현장교육에서 큰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학교장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50대 초반에 김포에서 교장을 하다가 두 번째로 인천신현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신현학교에서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글쎄요,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좀 과장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학교 규모는 50여 학급이었고 제가 3대 교장으로 갔을 때는 학교시설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갓 나온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았지요.

첫째, 고운 마음 심기 운동을 폈습니다. 고운 마음 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고운 마음을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했지요.

둘째, 창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우수 학생들에게 창의성 발상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아이디어 창출토의, 교내 창안품 전시 등을 개최했습니다.

셋째, 개별 성취목표 달성 소그룹 평가제를 체육분야에 적용해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넷째, 방송실을 만들어 무비카메라 두 대를 사주고 학생 PD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학생들의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녹화하여 방영하게 시켰더니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학교장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같이 걱정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16군사 정부 때 인천교육이 겪었던 변화의 물결도 컸을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무척 충격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혁명정부 초기 갑자기 모든 교사들에게 혁명공약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 직원을 직원실에 모아놓고 단시간 내에 외우게 시켰지요. 당시는 몹시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했지만 행정적인 지시를 어길 수는 없으니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장학진이 학교에 나와서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2학년 1반

선생님 일어나시오, 혁명공약을 외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확인하는가 하면, 전 직원을 불러놓고 백지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혁명공약을 그 자리에서 외어 쓰는 평가 방법을 동원하는 등 공직자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혁명공약의 내용을 다 잊었지만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 뭐 이런 구호들은 당시 우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큰 기대감을 갖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마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대대적인 인사교류 태풍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인천에서 12년간 장기근속을 한 교사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경기도 일원의 시골, 벽지, 도서지역으로 발령 내 버린 것입니다. 줄지에 교사들은 안정된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시골 벽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일부교사들은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현장은 갑자기 경험이 많은 중견교사를 잃은 채 안정을 되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런 인사태풍은 교사만 겪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급수가 10학급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교감들을 일제히 강등시킨 일도 있었고, 또 병역 미필자들을 조사해서 모두 사표를 수리하고 군대에 입영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강등된 교감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병역미필자 중 그 사유가 합법적인 교사들은 2년 후 모두 복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사태풍과 관련해 더 말씀 하실 것 있으신지요?

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천교육회가 주동이 되어 인천에서 근무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할 때 인천교육회 전 회원들이 1년에 몇 천 원씩 추납하여 전별금을 주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백 명이나 되는 인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전별금을 인천에 남아있던 교사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규약대로 일시금을 주자니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회원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니 말이 많았지요. 결국 여러 달을 거쳐 분납하기로 했으나 그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교육회가 큰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방일

2001년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과 일본 후쿠오카시를 방문,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논의하고 한일간 교육현안을 상호비교 협의하고 있는 구술자(왼쪽 두 번째)

군사정부 이후 제3공화국 정부가 한 일 중에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문을 기안하는 방법을 군대식으로 통일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공문이 일제강점기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기 때문에 매우 비능률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문을 작성하려면 얇은 민용지 두 장 사이에 목지를 끼워 넣고 첩필로 글씨를 써서 공문을 작성하면 두 장이 한꺼번에 복사가 되는데 한 장은 결재용이고 다른 한 장은 발송 공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용어도 일제시대에 쓰던 그대로 머리말을 '수제지건에 대하여 이리러했음을 보고 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한자를 섞어 썼던 것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과감히 개혁하여 모든 공문을 한글로 통일하고 군대식 기안용지를 도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평가됩니다.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현장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70년대 초반부터 처우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60년대 후반까지 제 봉급이 14,000원~15,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결혼식 축의금이 보통, 2~3천 원 정도였으니 박봉에 시달리던 교사들에게는 축의금 내기도 무척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봉급이 4만원 정도가 되었고 생전 처음 ‘보너스’라는 것을 받아 보니 정말 꿈같은 일이 현실화 된 것 같았습니다.

제3공화국정부에서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밀어 붙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요?

제일 큰 개혁조치는 초등학교생들을 중학교 입시교육에서 해방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입시 교육에 매달려서 놀 줄도 모르고 잠도 못자면서 과외공부의 노예가 된 어린이들을 해방시켜준 일,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조치로 초등학교이 살아나고, 치맛바람, 일류병을 잠재우며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평준화시책을 시도한 일입니다. 각 시도의 명문 중학을 모두 폐교해서, 인천의 명문교인 인천중학교도 72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무시험진학 추천제가 실시되면서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 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교육적인 병폐를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평준화 시책은 결국 옛날 초·중교의 입시 경쟁 교육이 고등학교로 옮겨간 셈이 되었습니다. 학원교육 문제, 과외교육 문제 등 사교육비 부담 과열로 입시 교육의 병폐는 악화된 감이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준화 교육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이 교육, 즉 평등교육은 날이 갈수록 불평등 교육을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현장을 들여다 보면 학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공부를 한 학생들과 아무런 사교육 혜택이 없는 학생들의 학력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평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포장할 수 없는 불평등 교육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평준화 시책을 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시책을 펴오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교육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의 길

남부교육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교육행정의 길로 들어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계시다 부임하셨습니까?

신현학교에 있다가 왔습니다.

교육행정은 이때가 처음이신 거죠.

그렇지요. 그러나 전에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관 경험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장학담당 장학관을 해본 전력이 좀 있었지요.

당시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나 학생 수 같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교육장을 할 때는 인천에는 남부와 북부 두 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남부교육청은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5개 행정구역의 넓은 지역에 88개의 초·중학교가 있었고 학생수는 약 15만 명, 유치원이



인천광역시 시기 교육교재

120개소와 학원수 1,1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펴시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일하셨지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일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교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고운 마음심기 운동을 펼치자’와 같은 과제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운 마음 심기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운 마음 심기란 인간이 타고난 착하고 바른 아름다운 심성을 학교와 가정이 함께 가꾸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미 제가 신현학교에서 경험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학교에 확산시켜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천 방법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펼쳐 주셨습니까?

간략하게 간추려 말씀드리보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화분이나, 새, 애완동물 등을 함께 기르면서 대화 나누기’, ‘시골 농촌 초가집에서 가족이 함께 자보기, 농사 가꾸는 일손 돕기, 체험하기’, ‘가족끼리 각자 한 가지 착한 일을 정하고 실천하며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기’, ‘가정에서 부모님이 명언·명시 50편을 선정 자녀와 함께 외우기’, ‘가족이 함께 잔돈을 모아 양로원을 방문하여 애들이 직접 기증하기’ 등과 같은 내용을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실천하도

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천하면서 담임교사와 학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활동내용을 상담하는 왕복 통신카드도 활용해 보았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까?

이 운동은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운동을 받아들이는 학교도 많았으며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푸른기장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대회 특상을 수상하는 교원에게 수여하는 증서)을 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각 시도에서 배워가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이것도 학교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교육경력이 많은 분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지만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학생을 다루는 기법이나, 학급관리, 수업기법 등, 젊은 교사들이 갖지 못한 좋은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직원 연수시간에 노(老)교사들에게 그 비법을 소개하게 했더니 젊은 교사들의 반응이 컸고, 그 비법을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 남부관내에 이 방법을 도입했지요. 선생님들의 수업비법을 수집하여 이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녹화해서 관내 학교에 나누어 주었더니 선생님들의 호응도 좋았고 해당 교사들도 큰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런 영상자료가 그 어떤 강의식 연수보다도 선생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요. 이제 돌아보면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지만, 아마 학원의 인·허가문제, 학교 신·증축문제, 각종 비리 처리문제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천의 뿌리 찾기 애향교육을 인천교육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인천은 옛날 경기도 시절부터 ‘애항심이 없는 도시다’, ‘주인이 없는 도시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라나는 청소년들마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긍지가 없다면 정말 인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애항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 저는 인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김천홍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애항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맡겨주신 게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혼자서 힘으로는 해결하기 벅찬 일인데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요?

어떤 일도 혼자서 힘만으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인하대 사학과 박광성 교수, 신태범, 이훈익, 한상익, 김양수 님과 같은 향토사학자들을 자문위원님으로 모시고 이 일을 시작했지요.

학생들에게 인천사람이란 긍지를 심어 주자면 무엇보다 먼저 인천향토사를 분석해서 각 시대별로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그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재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 공문화하는 일이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찾아낸 인천 향토사의 정신적 뿌리가 바로 ‘개척정신’ 이었고, 이 사업이 ‘인천의 얼’ 교육이란 이름으로 그 뿌리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셨는지요?

제일 먼저 개발한 것이 ‘자랑스러운 내 고장 인천’ 이란 15분짜리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적사진, 향토사 이야기 자료를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향토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지요.

이런 과정에서 인천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지요. 당시 윤영 내무국장이 ‘자랑스러운 내 고장 인천’ 슬라이드를 비디오테이프 복사해서 인천 관내 산하기관은 물론 여러 기관에 배포 해주시고 인천의 노래 테이프도 만들어 택시 기사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등

여러모로 협조가 많았습니다.

‘인천의 얼’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깨우치고 긍지를 심어주는 교육이었지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지도지침서를 발간 제공하고, 매월 15일은 ‘애향의 날’로 정해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 화단길 가꾸기와 같은 봉사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내 고장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글짓기, ‘내 고장 탐구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인천사랑시민협의회도 창시하셨더군요. 인천사랑운동은 어떻게 발족된 것인가요?

인천이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 동북아의 국제적인 ‘허브도시’로 부상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미다운 품격 있는 시민문화가 필요했어요.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제가 인천을 사랑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인천 시청과 협력해서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인천사랑시민협의회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셨지요?

‘인천을 바로알자’, ‘주인의식을 갖자’, ‘품격 있는 시민이 되자’는 운동을 했지요.

어떤 단체들이 함께 했나요?

인천YMCA, YWCA, JC, 여성연합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등 100여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천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을 끝으로 정년을 하셨지요? 교육과학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원래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연구원과 과학관이란 두 개 사업기관을 갖고 있었는데, 인천은 발족 당시부터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에 따라 두 기관을 합친 교육과학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자료개발, 조사연구, 학생 진로 상담 지도, 학생들의 과학실험, 교사 연수활동 등을 연구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학교에 일진회가 있었고 청소년가출 등 탈선, 폭력,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의 방향도 지식위주의 IQ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EQ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주력하게 되었지요.

인성교육이란 어떤 교육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마음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깨우치는 교육, 인간의 성격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본원 진로부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서 심성수련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심성수련교재를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담당교사들을 양성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담당교사들의 심성개발 연수, 그리고 생활지도에 경험이 있는 전직교사들을 교육시켜 봉사자로 양성하여 지도 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직접 학생들의 심성수련교육을 하는 등의 일을 펼쳤지요.

인성개발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인지요?

인성교육지도자들이 결성한 자발적인 연구모임입니다. 인성교육 봉사자가 된

현직 교장, 교감과 전문직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비로 MBTI 자격을 따기도 하고 전문교수를 모셔서 새로운 심성교육기법을 전수받는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단체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발족한 지 벌써 한 15, 6년째 됩니다. 인천 인성개발연수원이란 법인체를 만들어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가출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돕고 있지요. 이 단체를 이끌어 오신 김정자 교장선생님은 자기집을 ‘오라의 집’이란 이름으로 청소년지도, 심성수련 지도장으로 제공해주셨고 지금도 인성개발연구원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의 인성교육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성개발연구원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좀 더 소개해 주시지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심성수련 교육 활동으로 침체된 학교를 일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과 함께 근무하던 Y부장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P여중에 교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고 보니 벽찬 감격과 더불어 기대감도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기 준비가 걱정되어서 궁금도 하고 학교 위치도 확인할 겸 초임교를 방문해 보았더니 학교 환경이 어수선하며 어둡고 교사들도 대거 전출되어 학교 분위기가 너무도 침체된 것 같아 실망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Y교장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인천인성개발교육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전 직원과 전교생에게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투입해 학교 분위기를 한번 일신시켜보자는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교에 새롭게 발령된 교사는 물론 모든 교사들을 소집시킬 것을 교장선생님께 명하고 다음날 전 직원들과 함께 교감선생님으로부터 학교 현황을 듣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자유토론을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교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새신책으로 ‘전교생의 심성수련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학교장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이 함께 심성수련을 먼저 받아보자고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께 체험한 심성수련이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련하셨는지요?

장소는 학교 교실을 이용했고, 교장, 교감 및 전 직원이 함께 심성수련에 참여하고 강사진은 인천인성개발연구원들의 자원봉사자들이 협조해 주셨으며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8명씩 그룹을 만들어 식사도 함께 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하여 친교 활동도 하면서 하루 종일 진지하게 연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옛날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애들처럼 서로 별명도 지어주고, 돌아가며 자기소개도 해보고, 학창시절의 꿈, 실수한 이야기, 슬펐던 일 등과 같은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 시간을 통해서, 허물없이 인간적으로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입교사들은 학교 분위기를 잘 몰라서 매우 서먹서먹했는데 심성수련을 마치고 보니 갑자기 십년지기 친구가 된 기분이라고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제시한 전교생 수련교육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수련 후 선생님들은 반성회 시간에서 학생들의 심성수련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학교장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심성수련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날부터 앞으로 3일 동안 학교 재량시간으로 매일 한

학년씩 심성수련을 한다고 선포하고, 학교장의 부임 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로 잡아주는 심성수련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인성개발연구원 강사진들을 대거 투입하여 한 학급 학생들을 10명씩 조를 짜서 전교의 모든 교실에 1조씩 배치해주고 담당 강사진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교사들과 함께한 심성 수련 결과 반성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학생들은 생전 처음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았다’, ‘친구들과 부끄러움 없이 고민거리, 평소 불만스러웠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이 새로 시작된 것 같다’, ‘선생님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나눌 수 있어서 선생님과 단절된 벽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심성수련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Y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학부모님들은 ‘심성수련이 무엇인지 잘 알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처음 보았다’, ‘이제 학교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거친 행동, 왕따 같은 행동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거친 말씨가 고와졌으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성 학교에 대한 애교심 등이 살아 난 것 같고, 특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려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으며,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반갑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성개발연구팀은 지금도 인천의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교육에 대한 전망

인천 교육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방 후 6.25를 거쳐 80년대에 인천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까지의 시기, 어떻게 보면 고교진학제도가 학구제로 도입되기 전까지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지요?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고, 정치·경제·항만·문화·교육과 같은 모든 면에서 인천이 경기도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인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았으며, 특히 인중, 제고와 같은 명문고가 있어서 경기도 내 수재들이 인천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경기도 내 우수 교사들이 인천에 집중적으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성 또한 높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수 교사, 우수 인재, 우수한 교육환경이라는 3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인천 교육의 전성기로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를 단순히 입시교육의 성과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모든 병폐는 입시준비교육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식만이라는 부모님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고액 과외, 입시학원, 위장전입, 부정입학문제와 같은 교육의 비리현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출세지향적인 자녀교육관이 하루속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위주의 IQ 교육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EQ 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는 인간의 지적능력은 IQ나 EQ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다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우리 인천사회가 언제까지나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교육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자녀교육의 방향은 학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소질이나 재능을 일찍 찾아내고, 그들이 꼭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학들은 다지능 교육시대에서는, 지적인 능력 못지않게 소설이나 시를 잘 쓰는 지능, 그림을 잘 그리는 지능, 음악이나 체육을 잘 하는 지능, 대인관계를 잘 하는 능력을 지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교육은 지금 학생들이 타고난 개인의 능력을 잘 길러주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류가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손연재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탄생은 다지능 교육의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EQ교육이 가지는 교육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졸업생들을 중·장년이 되기 까지 오랫동안 추적연구를 해보았더니 재학 시 공부를 잘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자식 두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학교 다닐 때 우등생들보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토박이 인천교육의 산 증인의 한사람으로서 인천교육의 한계성이나 가능성을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군요.

먼저 인천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계성이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해결할 수 없는 인천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나?’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제가 보기로는 무엇보다 대학진학 성적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신문제가 인천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한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신 문제를 가장 큰 한계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 지역의 우수인재들의 유입 현상이 단절되고 인천의 어린 인재들이 조기 유출되는 역류 현상을 교육계에서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교육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천교육의 가능성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천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적인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외국 명문대학의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립대학이 이미 개강을 했고, 미 조지아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의 켄트대 등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개교한다면 이러한 대학유치 계획 한 가지만 보아도 전국적으로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인천 인재들의 유출현상도 크게 줄어 들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에서, 인천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

성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뜻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천 토박이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인천교육을 위해 일 할 수 있었고 한평생을 교육의 길어오게 된 것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그동안 인천 교육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성원해주신 여러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애항심이 없고 주인 의식이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해야 할 시민교육 과제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인천의 알’ 애항 교육을 처음 창안한 일, 그리고 이 교육이 인천시민교육인 인천사랑운동으로 이어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를 발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지역사회가 저에게 준 큰 행운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람된 일은 제가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유능하신 연구직 여러분들과 인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지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강사진들이 자생적으로 발족한 인천 인성교육연구원 회원님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이미 15, 6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지도에 헌신하고 계신 노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천에는 능력 있는 우수한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슈퍼리더를 맞이해 인천교육이 날로 새롭게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2장



김양수 _____

인천 출생

‘현대문학’에 ‘랭보론’ 추천으로 문단 등단(1955년)

문협 경기인천지부장(1964년)

문학평론가협회 회장(1985년)

문협 부이사장(1986년)

예총 사무총장, 기획실장(1988년)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현재)

■ 채 록 자 : 조우성(인천일보 주필)

■ 채록일시 : 2012년 9월 13일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12장 ‘현대문학’ 평론가 1세대

선생님, 오늘은 살아오신 발자취와 함께 인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변천과 정 등을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선생님 당대의 삶을 여실히 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황, 혹은 그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뵈기 며칠 전에 1950년대 문충구국대의 문서를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입대원서를 내셨더라고요. 본적이 인현동 1번지, 주소가 용동 179번지 그렇게 돼 있어요.

호적상 태어난 곳은 인현동 1번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쪽으로 가는 길, 원예협동조합 못미처에 낮은 점포들이 주욱 있었죠. 거기에 흥성목재소라고 하는 제목점이 있었는데, 왜 ‘흥성’이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함자가 김흥준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김성봉이시거든. 그래서 흥준의 흥하고, 성봉의 성을 따서 흥성제목점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인천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근원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님은 원래 한국군 참령 그러니까 구한국 장교였는데 이 양반이 집에다가 장교로서 윗사람의 청을 받은 건지 어떤지 도망 다니는 불란서 신부를—그 때만 해도 아직 외국 종교가 용인되지 않을 때예요, 외국신부가 다니면 체포를 당하게 돼 있었대요. 그랬을 때, 그 신부님을 맡아가지고 우리 증조할아버지 댁 다락방에다가 먹고 자게하고 대소변 보는 그거까지 다 들여다 주고, 그랬는데 낮에는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니까, 불란서 신부가 다락방 속에서 좀 답답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낮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서 뒷마당에서 돌아다니던 모양이야. 이웃집 사람이 담장 너머로 보니까 웬 서양 놈이 하나 그 집에서 다니거든.

그래 고발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신부를 감춰줬다는 걸로 체포돼 가서 장 150대를 맞고 돌아오셔서 앓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증조할머니는 강원도 강릉 친척집으로 도망가셨다가 1, 2년 후에 풀려져가지고, 명동성당도 생기고 인천성당도 생기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명동성당의 불란서 신부한테 맡겨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90에 돌아가실 때까지 폭 식빵을 사다 빠다를 발라 잡셨거든. 불란서 신부가 먹는 거만 그대로 받아서 잡수셨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당신 큰형님이 불란서 신부하고 평양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인천 부둣가-지금의 신포동시장이 모두 터진개라고 해서 거기 바다였거든-거기서 하역하는 사람들의 십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그 형님을 찾아 10살 때 명동성당에서 도망 나왔대요.

걸어서 남대문시장 앞에 오니까 하도 배가 고파 떡장수 할머니 옆에 가앉아 있으니까 떡장수가 지켜보더니,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떡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래서 잡수면서 이 양반이 주머니에서 불란서 신부가 준 칼,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이프 그걸 내놔더니. 그거 우리나라에서 귀한 거니까. “야, 이런 서양 칼을 주냐.” 그러고는 “가져가라. 이다음에 너 커서 돈 벌면 갚아라.” 그래서 칼을 다시 받아 넣으셨대요. 그걸 내가 지금도 그 칼을 보관해 가지고 있어요.

그 떡을 먹고, 거기서 밤새 걸어서 인천으로 와 인천 답동성당 앞에서 하역노동자 십장이 누구냐니까 저기 키 큰 사람이라고 그래 그 사람보고 “형님” 하니까 그 할아버지 형님이 “아유, 너, 웬일이냐?”며 서로 붙들고 형제가 대낮에 같이 울었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가지고 명동성당에 있을 때도, 불란서 신부 밑에 있을 때도, 백마를 탄 한 장군이 와서 “너, 아무개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유, 우리집안이 이렇게 쫓막 망했구나. 나도 아라사로 간다. 지금, 너 제발 양반의 집안이니까 자라서 장사꾼은 하지마라.” 그러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 때 보면 로서아에 무슨 한국인 명단이 나온 중에 그분 이름이 나온대요.

집안이 서울서 사셨는데, 구한말에 정세에 따라 한 분은 아라사로 가시게 되

고, 또 한 분은 인천으로
이주해 오시게 됐다는 말
씀이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1883
년생인데, 10살 때 오셨으
니까 1893년이네요. 10살
때 오셨는데, 형님은 하역
노동자 심장이고, 이 양반
은 10살짜리라 뭐합니까.
근데 마침 인천 답동성당
이 조그맣게 서 있었는데,



인터뷰 중인 구술자

그 성당에 맡겨져서 19살까지 계셨어요. 그러다가 전 신부라는 불란서 신부가
오서가지고, 그분이 불란서 귀족 부자의 자손이랍니다. 돈을 은근히 많이 가져
와서 인천 주변도 그렇지만 서울을 비롯해 충청도 당진 이쪽에 논밭을 엄청나
게 많이 샀어요. 그 전 신부님이 땅을 사서 당진 합덕리에 있는 전 복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관리를 맡겼고, 인천서도 같았어요. 우리 큰할아버지가 총회장, 교
인회장이 돼 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때 뭐냐 그러면 큰 할아버지의 큰아들하고 장면 씨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
요. 그러다가 우리 큰할아버지는 답동성당 전 신부님의 백으로 외부 성직자가
재산관리를 못하니까 이 양반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엄전이고 뭐고 천주교 땅은
전부 당산이 관리하면서 갑자기 충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도해지
서 가지고 아들 관리를 잘못해서 아들 삼형제가 다 못쓸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
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전 신부님이 준 돈을 가지고 쌀장사를 했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 황해도나 충청도에 가서 배로 쌀을 실어다가 인천 갔다가 파는
거. 그거를 해서 황해도에서 실어온 쌀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큰 할아버지는 뭐 교인 관리에 천주교 재산 관리에 총 두목이었고, 오히
려 장면 씨 아버지 장기빈 씨는 같은 또래면서도 그 세력 밑에서 꼼짝 못했는데
도 아들들은 장면 씨 같은 굉장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큰할아버지 아들들

은 다 못되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인 우리 할아버지가 쌀장사로 한때 굉장한 부자가 되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 뭐가 있었냐 하면 서울에 쌀을 팔러갔다가 남대문시장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일본 군인들이 소가죽을 무더기로 사려고 애쓰더라고요. 소가죽 파는 사람 없냐고, 소가죽이 남대문시장에서 금값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그걸로 저희들 장하나 군화 이런 거 만들려 하니까. 한국 소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저기 울산 쪽으로 가셨다가 그 고장의 쌀을 싣고 배로 오곤 했는데 대구 밑에 경산 쪽에 가보니까 그쪽이 이상하게 소가죽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모두 실어가지고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무렵 인천의 유명한 미두쟁이들이 미두장에서 벼락부자 되는 걸 보고 그냥 쌀이나 사 두실 거지 또 거기서 더 벼락부자가 되려고 미두를 하셔 가지고 다 날리신 거예요. 다 날리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인천상업학교를 나오시고는 19살 때 하루아침에 집안이 쫘팍 망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자살하신다고 월미도 다리 근처까지 가서 바닷물을 들여다보니까 달빛이 비치는데 영 들어가 지지가 없어서 돌아오셨대요. 그 후 우리 아버님은 특이한 머리를 쓴 거라. 거기서 서울 올라가서 서대문에 있는 일본의 대판 재벌이 만든 엄청난 목재소를 찾아갔대요. 19살짜리 인천상업학교 나온 청년이 찾아가서 그 시오스 사장을 만나자니까 모든 직원들이 미친놈이 하나 왔다고 그러는데, 안에서 그 사장이 이렇게 보고는 “야, 들어보내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인천상업학교 복장 그대로 서서 있으니까, “너, 어디 사냐.” “인천 삽니다.” “인천 어디냐.” 그러니까 인현동을 댜 거라.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부모님 다 계시냐.” “계시지요.” “내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네 원이 뭐냐.” “저, 나무장사 하고 싶습니다. 나무 좀 우선 대 주십시오. 밑천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내려가 있어라.” 그래서 그 후 축현파출소 일본경찰들이 찾아와서 “아무게 있냐.” “잡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냐?” 그러고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걸 보고 간 거라. 일주일 뒤인데 다시 그 경찰관이 와 가지고 “지금 시오스 목재점에서 나무가 내려왔다.”고 했대요.

말 한 마디에 나무를 보냈다는 게 뭐 이례적인데, 어디에다 부렸답니까?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 인근) 뒤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 원예협동조합 있는 쪽 못미처이죠. 나 어렸을 때 거기 연못이 큰 게 있었는데, 그 앞으로 나무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화차 한 차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들여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쌓아놓고 정말 판자촌 같이 기둥 세우고 도랑으로 지붕을 해서 씌우고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들여 보내 놓고 목재소를 연 거지. 사무실 하나 꾸며놓고, 조그만 살림집이 그 뒤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태어난 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낱기는 배다리 싸리재, 철로 문 넘어 지금 시계방이 있는 거기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는 싸전 가게였어요.

배다리에 시장이 생긴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요?

배에다 모든 걸 실어서 거기까지 와요. 작은 배에다 실어서 수문통 거쳐서 오는 거죠. 뽕이부리에서 수문통 거쳐서 중앙시장 거쳐서 배다리 철로 문 앞까지. 외할아버지가 싸전가게를 하실 때 쌀을 실어 거기까지 오는 걸 내 어렸을 때 그 길 봤거든. 그게 30년대 중반인데 그때 내가 가서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길 봤어요. 쌀 부리는 길. 배에 실어가지고 와서 부리는 걸 봤어요.

‘배다리’란 이름을 오늘날의 40, 50대들도 전혀 연관을 못 짓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들 듣고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나는 호적과는 달리 거기 배다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낳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는 처음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너댓 살까지 거기서 자랐는데 그곳, 그 전 목재소 기억이 나요. 1살 때 기억인데, 한 살.

개항 50주년 때, 축현역에서 풍물놀이도 해

한 살 때를 기억하세요?

한 살 때 기억인데, 우리 할머니 등에 업혀 지금 동인천역 앞예를 가니까, 기

관차 앞에서 뺨과리치고 춤들 추는 사람들을 봤거든. 풍물패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후에 우리 할머니한테 했더니,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래, 내가 업었을 때 본 것인데, 그게 인천 개항 50주년, 그 50주년 기념행사인 거야. 그거를 본 거야. 한 살 때.”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출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소년 시절을 거의 다 기억하셨겠어요.

네, 많이 기억나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본 건데, 역 앞에 또 여관들이 죽 있었는데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그 여관 여주인들과 친구가 되어 늘 거기를 올라 다니시던 기억이 있고, 동인천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맨 모퉁이 집이 자전 거포, 그 다음이 오랭집, 우동집, 뭐 그런 것들이 죽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빵 이름이 뭐더라, 그 아주 맛있는 팔빕인데 그거를 할머니가 한 번 사 준 후로는 자꾸 그걸 사 달라고 그래서 업고 가시면서 보지 못하게 포대기를 머리에 씌었어요. 그러면 고 앞을 지나갈 때면 영락없이 손을 뻗쳤대요. 하하하. 그 우동집도 어떻게 유명하나 하면 일본의 씨름꾼들이 단골로 오랭 먹고 우동 먹고 하는 집이에요.

유년 시절, ‘인천’ 이라면 축현역을 가운데 둔 지금의 중구와 동구를 가리켰지요?

그렇죠. 왜냐면,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지금은 중구 지역. 그게 이제 개항 후에는 전체 인천이니까, 중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인천이니까. 다른 건 다 저기 뭐야 부천 아니예요, 부천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인천이 늘어나 36년도에 와서 또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부천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 일본놈들이 중심이, 일본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 발전한 거고 한국인 촌은 저기 화평동쪽에 한 덩어리 있었고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어디서 발전했냐고 하면 경인철도가 생기면서 왼쪽은 홍예문 밑에서부터 지금 제고 있는 그 앞에서부터 있는 건 다 일본인 촌이고, 한국인 촌은 내동, 용동, 울목동, 경동 그렇게 나중에 늘어난 거예요.

옛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 부근) 일대에 여관들이 많았는데, 기억나세요?

여관촌이에요. 거기가 역 앞이니까. 거기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보고 용돈 벌이는 되니까, 그 목재소 해 돈이 있을 텐데 어디다가 여관 하나 정하라. 거기 심심풀이로 용돈은 생긴다. 그래 처음에는 인영극장 하던 자리 그 바로 옆에 수원여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사서 여관을 하는 바람에 내가 다섯 살 정도에는 거기 잠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는 좀 뭐하다 해서 조금 큰 크게 용동 마루턱에서 술집동네 들어가는 초입에 건물 하나를 사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큰 대 자, 흥할 흥 자, 대흥여관이라고 할머니가 그걸 개업했어요.

나는 목재소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쪽 수원여관 쪽으로 이동해 갔다가 30대 중반까지는 그 대흥여관, 해방 후에는 인천 인자, 어질 인자를 써서 인흥여관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골목상회 입구에 건물을 하나 사서 독학으로 공부해 산파가 된 우리 고모님이 조산원을 했어요. 그때는 조산원 되는 게 어려웠어요. 매우, 쟁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여서 김마리아 산파라고 했는데, 날렸어요. 난 그 집에 내 방을 가지고 있었고, 내 밑에 여동생이 넷이나 되고,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만 끼고 도니까 모두 큰 손자만 위한다고 해서 동생이나 우리 어머님은 날 미워해 나는 할머니하고 그 윗집에서 살았어요.

그러시면 유소년 시절 송림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어느 쪽으로 다니셨어요?

박문유치원을 다닐 때, 고모님 집인데 내가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 뒷골목으로 해서 애관극장 골목으로 나가서 유치원으로 간 거예요. 큰 길로 갈 필요도 없이. 송림학교 다닐 때는 용동에서 술집 골목으로, 술집 동네 그 골목으로 해서 경동네거리, 싸리재 네거리로 나가서 죽 경동을 거쳐서 배다리로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돌아갈 때는 배다리 철문으로 와서 우리 목재소가 있는 쪽으로, 원예협동조합이 있는 쪽으로 해서 용동 큰 우물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고 했지요.

애관극장 다니며 문학의 싹을 틔워

그 시절의 애관극장 기억나세요?

애관극장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니깐, 서울의 ‘협률사’ 보다 7년 앞서 만들어 진 거 아니에요. 애관극장을 내가 제일 많이 가게 된 거나 내가 문학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 할머니가 신소설 책을 늘 머리맡에 놓고 읽고 계셨던 것에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그러고는 연극, 영화 특히 연극이 들어오면 애관극장 가실 때 날 꼭 데려갔거든. 송림초등학교 다닐 때, 원래는 일본놈들도 초등학생은 극장엘 못 가게 해요. 일본놈 교장이 애관극장에서 보란 듯 일본 옷 입고 나와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잡아냈거든. 난 할머니 옆에 앉아서 교장한테 잡히나보다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할머니 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깐 저건 어른이랑 같이 왔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혼자 오거나 자기네들끼리 온 놈들은 다 잡혀 나갔어요.

애관극장에서 활동사진, 악극단 구경도 많이 하셨겠어요?

악극단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라미라극단, 조선악극단 그리고 우리 여관하고 우리 근방에 용동여관 등이 여럿 있었는데, 악극단 배우들이 머물곤 했어요. 그때 유명한 배우들을 아주 많이 봤다고, 실물들을 많이 봤어요. 소위 김일성한테 명배우 칭호 받은 그 유명한 배우 황철이, 그 사람 실물로 봤으니깐. 가서 공연도 물론 봤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하는 유명한 연극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그 시절에 돈이 있으니깐 그 당시 축음기 일본에서 최고로 좋은 걸 사다가 레코드판에 들어가 있는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늘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 36년인가, 37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만주사변 일어난 후부터 공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재미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대동아전쟁이 일어나니깐 일체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꼭 일본말로만 사용했고, 집에 와서만 식구들하고 우리말을 썼어요. 거리에서도 우리말로 하면 혼나고 그러니깐.

그 무렵에 애관극장
말고 어디 다니셨나요?

외환은행 자린가? 표관. 동방극장 거기. 극장은 하나, 둘, 세 개지. 그리고 인영극장. 인영극장이 생길 때, 그때 그걸 지으면서 낙성식 하던 날, 내가 학교 끝내고 와서 집으로 가다가 그 건물 낙성식할 땐



시립박물관 앞에서 이경성, 지용택 제씨와 함께

데, 모찌떡 던져 주는 거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거든요. 해방 후에는 인영극장을 누가 인수했냐면 우리나라 그 당시 5대 갑부의 하나인 이흥선 씨예요. 이흥선 씨 큰 따님이 고유섭 선생의 부인이거든. 그분이 우리 고모님하고 박문학교 동기예요. 우리 고모님은 진명여고를 나왔고, 그 양반은 숙명여고를 나왔는데 박문국민학교 동기니깐 늘 우리 고모님한테 오시는 바람에 내 방 바로 옆방이 우리 고모님하고 할머니하고 계신 방이니깐. 그리고 후에 우리 고모님이 약사 면허를 따가지고 약국까지 차려 났어요. 김마리아 약국이라고, 우리 고모님 약국 사무실 방이 있고 안이 고모님 방인데 거기 할머니 계시니까 내가 그 방에 늘 놀러 가있으면 고 선생 부인이 하루가 멀다고 늘 와 계셨거든. 그 양반이 앉아서 매일 황수영이가 어땡고, 진홍섭이가 어찌고 최순우가 어찌고 하는 말씀을 그때 이미 들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국립박물관장 성함이 다 등장하는 군요.

고유섭 선생의 3대 제자. 나는 그때 듣기로는 그 양반들이 아마 인영집 아줌마가 옆에 거느리고 있는 젊은인가 보다. 실제로는 그 후에 황수영 씨나 진홍섭 씨는 서울서 문단 관계를 하면서 모임이 있으면 같이 참가를 하고 그랬어요. 최순우 씨는 처음에 국립박물관 학예관으로 있다가 학예연구실장이 되었다가 부

관장, 관장이 되었는데, 이정성 씨 하고 같이 가서 늘 만나 봤단 말이에요. 최순우가 그 최순우인지 몰랐지. 나중에 보니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극장 말씀이 나와 여쭙는데, 애관, 동방, 인영극장 이런 극장들이 그 시절 활동사진 개봉관인데, 인천서 50년대에 만든 영화들을 보셨는지요?

〈수우〉, 〈심판자〉, 〈무형의 악마〉, 〈사랑의 교실〉 이런 인천 영화들을 봤어요. 내가 아주 영화에 미쳐가지고 그냥 영화를 뭐 빼놓지 않고 가서 다 봤지. 그래서 그 조수일 선생님이 만드신 〈사랑의 교실〉이란 영화도 봤고, 영화배우 최불암 씨 아버지가 최철 감독인데 영화 하나 만들고 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영화하는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던 게 아니고, 돈 되는 사람 끌어다가 돈 벌면 갚는다고 하고 쓰는 식이었으니 좀 어려웠겠어요? 더구나 6·25가 터지고 나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서곶 부자였던 김옥돈 선생이 제작한 〈사랑〉이라는 영화도 중학 때인가 봤어요. 이화참고에 세트장 만들어 놓고 촬영했다니 그 열기가 지금 봐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입니다.

영화 〈사랑〉의 포스터를 보면, 김진규, 허장강, 주중녀 같은 당대의 명배우들이 다 출연하더라고요. 인천의 산부인과에서도 촬영을 했구요.

그 산부인과가 가만있어 보자. 아유,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유명한 산부인과 아닌가? 허, 허... 허봉조산부인과네요. 허봉조산부인과. 6·25 이후 인천 최고의 산부인과였는데 영화에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최고로 많았지. 그런데 그때 시인 한상익 선생이 집이 없어져 가지고 그 집 한 채를 빌려 살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서예가 박세림 씨가 만날 그걸 빈정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허봉조 씨가 그 때 그 〈사랑〉 찍는 걸 보고, 경기도 경찰국 경찰관으로 있었던 전호인이란 사람에게 ‘우리도 영화 하나 만들자’고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 영화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허봉조산부인과가 날아갔어요. 허봉조 씨가 행방 불명이 된 거야. 그런 영화 관련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화제를 바꿔 소시 적에 서울 창신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야기들 좀 해 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송림초등학교 졸업생 명단엔 내 이름이 없어요. 왜 없냐? 6학년에 막 올라가자마자 전쟁 때니까 목재소도 안 되고, 일본놈들이 소개하라니까 목재소 문을 닫고 충청도 당진군 합덕면 합덕리 거기 또 천주교 성당이 있는 곳으로 소개를 간 거예요. 거기서 소개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 신부라고 하는 불란서 신부가 계셨고, 나도 어렸을 때 천주교 세례는 받은데다가 우리 고모님이 생과부니까 그냥 가톨릭에 열심이고, 우리 아버님도 거기에 논밭을 꽤 사놓으셨던 거예요. 거기 사방 십리 벌에 큰 방죽이 있어요. 연꽃 그 연호거든요. 그래 거기 학교가 연호국민학교야. 그리로 옮겨 간 거야.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8·15해방이 되었어. 해방이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시 서울 가서 그 염진목재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깐 그 사장이 당신이 이거 말아라.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큰 목재소를 맡았어요. 그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를 데리고 거기 가 가지고, 인천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우리들만 서울로 갔는데, 친구 중에 일제 때부터 대부도 출신으로 인천 인상을 나온 골수 좌파 이승엽 씨가 우리 목재소 옆 싸전가게의 서기를 했거든. 그래 우리 아버님이 그 연호 옆에 땅 200평 사둔 것을 일본 놈한테 강제로 뺏긴 것을 이승엽 씨가 찾아가서 따져가지고 찾아주었거든. 이승엽 씨가 관계한 좌익 간부들이, 박헌영이만 빼놓고는 다 인천으로 내려왔고, 내려오면 우리 목재소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만나곤 했어요. 그때 임 모씨가 용동 술집 가서 대접하곤 했지만 그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님이 대신 술값을 내 그런 인연으로 공산당 간부 중 중요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만 장사꾼이어서 공산당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천엔 1948년도에 다시 오시게 되죠?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연호국민학교에서 곧장 인천으로 온 게 아니고, 서울 가서 그 염진목재소를 아버지가 맡았는데 여운형, 안재홍 씨가 모두 사무실이 없어 아쉬워하다가 목재소 건물을 “우리 다오.” 하는 바람에 그걸 건국준비위원회에다가 양보를 하고, 시오스 조카가 하던 ‘하라다 목재소’ 라고 하는 게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어서 그리 이사 가서 사는 바람에, 창신동 창신

학교 졸업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중학교를 어디로 갔냐. 맞바로 인중으로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서울 사니까, 장면 박사가 총리되기 전에 교장 하던 천주교 학교에 동성중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교장 할 때 내가 그 학교에 입학했어요. 2학년 올라갈 때, 또 '하라다 목재소'를 처분하고 인천으로 내려오시는 바람에 인중으로 옮긴 거예요. 오니깐 시험 보라는데 동성학교 2학년 성적으론 인천중학교 2학년 성적을 못 따라가 할 수 없이 한 학년 낮춰서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인중’에서 조병화 선생의 제자가 돼

그 때가 5년제였던가요?

그렇지. 그 때 학교를 다니실 때도 역시 용동서 내리교회 있는 그 뒷길로 해서 홍예문 쪽으로 오는, 그 쪽으로 다녔어요. 오늘 그 길을 걸어요면서 60년 전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맨날 이 길로 인중을 다녔지. 가끔은 길 교장 선생하고 마주쳐요. 그 양반은 송의동 신흥동 네거리 있는 거기였는데, 한복 저고리 차림이셨지. 나하고 마주치면 같이 가고 그랬는데, 걸음이 훨씬 빨라서 내가 늘 뒤쳐져서 따라가고 그랬지. 근데 인중서도 서울 동성학교처럼 돌아가면서 반마다 대표로 누가 나와서 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책보다도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모두 날 지명해서 나보고 나가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때 열심히 읽었던 게 도산 안창호전기여서 도산 선생에 대한 것을 나가서 발표하기도 했어요.

시인 조병화 선생을 뵈 게 그 무렵이었겠군요?

내가 막 1학년 들어가니까 담임이 조병화 선생이었어요. 조병화 선생은 기하 선생이셨어요. 어떻게 기하를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르치는데 한 시간이 채 안 걸려서 당신 수업이 끝나요. 끝나면 대개 한 10~15분은

남거든. 그러면 그 때 벌써 시집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인데, 칠판에다 당신의 시를 적어놓는 거예요. 야, 필기 다 한 애들은 이거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게 읽곤 했어요.

럭비도 가르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인증 럭비부가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고 한 게 다 조병화 선생 때 문이예요. 그 양반이 그때 럭비협회 이사거든. 동경고등사범학교 시절부터 럭비 선수로서도 빼어났다고 해요. 원래 물리 전공인데, 물리를 하려니가 수학을 하고 기하 쪽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때 문교부에서 선생들 교습시키는 모습을 시찰 왔더라 거예요. 유명한 원로 교육자 선생들을 모두 앞세워 와서 했는데, 조병화 선생이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강습 방법 1등급이라고 점수를 매겨줬다고 해요. 하여튼 나는 산수를 아주 싫어하고 안 맞고 그랬거든, 그런데 기하만은 그렇게 재밌게 배웠어요.

그 시절 문학에 대한 꿈은 아무래도 조병화 선생님 만나서 불을 지피시게 된 게 아니신가 싶네요.

조병화 선생님 쪽보다도 오히려 누가 저 국어선생으로 왔냐고 하면,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하고 논설위원하고 했던 선우휘 선생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선우휘 선생 그 양반은 일제 때 조병화 선생하고 서울사범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같이 서울사범학교를 나왔는데, 조병화 선생은 우등급 성적을 받고 졸업했고, 선우휘 선생은 책 읽고 탄 것만 하는 바람에 낙제점 겨우 면한 맨 꼴찌였어요. 당신이 그래요. 나는 졸업을 맨 꼴등 점수를 받고 졸업했어,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 양반이 해방 후 조선일보 기자를 다시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인천 와서 밀수선을 타다가 쫓겨나가지고, 밤에 혼자 알거지가 돼 가지고 혼자 해매고 있는데 밤중에 술 먹고 집에 가던 조병화 선생하고 마주친 거예요. 거, 향동 그 부둣가 근방에서예요. 아, 웬일이냐며 서로서로 반갑다고 그랬다죠. 이민 가려다가 배 밀창에서 끌려 내려와 가지고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야! 서울사범도 나왔고 학교 선생 할 자격이 있는데, 가만있어 봐라. 그리고는 그날



백일장 시상 후 기념사진

당신 집에서 재우고 이튿날
길 교장 선생한테 데려갔대
요. 길 교장 선생이 전공이
뭐냐 물으니깐 윤리 도덕하
고, 문학 국어하고 두 가지
중 하나하면 된다고 해 “그
럼 국어를 말아라.”고 그
자리에서 했대요.

그래서 인중 국어교사가
되신 거군요.

이 양반이 국어시간에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식이나 하면, 교과서는 학생 한
명을 딱 지목해 가지고 한 번 쪽 읽게 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그거에
관한 중요한 제목 하나, 단어 하나 찾아 칠판에 적어놓고 그걸로 연극이야기,
영화이야기, 소설이야기로 한 시간을 때우니.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게 더 재밌어 했거든. 그래서 다들 “선우휘 선생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 시절, 선우휘 선생께 많은 감화를 받으셨겠네요?

한번은 작문을 하라고 하셔요. 지금은 다 없어진 무슨 섬 있죠? 저쪽에, 응,
낙섬. 그 낙섬을 친구하고 들어서 가 달밤에 파도치는 소리를 듣고 오곤 했거
든. 그거를 작문시간에 썼어요. 그랬더니 선우휘 선생이 다음 시간에 와서 너희
들이 써 놓은 작품 중 아주 좋은 작품이어서 내가 직접 읽어줄게 하고 읽는
거야. 내가 쓴 글이었어. 그러는 바람에 시 낭송에다가 제목을 주고는 계속 써
와라. 늘 작문은 양수가 최고지 뭐. 그러셨어요. 강당에서 반 대표로 나가서 발
표회를 했을 때 길 교장선생이 꼭 강평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양반이 딱 올라
가더니 안도산 선생에 대한 오늘 김 군의 발표는 내용이 바로 그대로다. 안도산
선생에 대한 것을 참 자세하게 잘 했던 말이야. 책을 읽고 한 모양인데, 그 책을
아주 똑바로 읽은 거다 하며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문학의 길로 들어

서는 데 힘이 됐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길 교장 선생이 안도산 선생 돌아가실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일본 경찰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임종을 지킨 사람이 길 교장 선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앞에서 논어를 한 격이었지요.

문단은 어떻게 등단하셨는지요?

‘문예(文藝·모운숙 발행) 12월호에 내가 ‘유치환론’을 썼는데, 인천에 사셨던 조병화 선생도 몰랐어요. “야, 너 언제 평론을 써서 거기다가 발표를 했냐? 조연현 선생을 만났더니 인천에 김양수라는 친구를 아냐고 물어, 내 제자라고 하니까, 그 친구 평론이 이번에 나간다고 해서 그 책을 쥐서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완료 추천을 할 때는 내가 원고를 가져갈 게.” 해서 “알겠습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문학 3월호의 ‘랭보론’은 조병화 선생이 가져다 신게 했어요. 3월호에 첫 번째 평론 신인작품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정식 평론가 제1호가 되는 셈이에요. 내 뒤에 윤병로가 나왔고, 이어령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실렸지. 김우중 이런 친구들이 다 내 뒤에 나온 친구들이지요.

조병화 선생을 스승으로 뵈고, 선생님은 문단에 등단하시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같이 활동하면서 시집 『인간고도』를 편집해 드리지요?

조병화 선생이 이사 안 가고 인천에 계실 동안에 『인간고도』가 왜 나왔냐면 세 번째 『패각의 침실』은 부산서 낸 거고, 네 번째 시집을 내고 싶다고 그 양반이 그러길래, 내가 대한신문사 그 문화부 기사를 했잖아.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청탁’과 ‘유토피아’

전시판, 대한일보 말씀이죠?

그렇지, 전시판이지. 인천에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내가 문충구극대에서 문

화예술언론 담당을 했어요. 이정성 선생이 부대장이고, 대한신문에는 편집국장 하는 이정훈이라는 분이었는데 지금 어디냐면 저 중구청 뒤 2층 집이 신문사예요. 미국 공보원 하던 자리인데 불타서 없어졌지만 안중근 선생 조카인 안원생 씨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2층 이쪽이 문청구국 대고 저쪽이 대한신문이었어요. 대한신문에 있는 동안 인쇄소를 왔다 갔다 하니깐 그 인쇄소 주인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시집 하나 출판할 수 있냐니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난 당연히 조 선생이 출판비를 내줬거니 했는데, 시집이 나온 뒤에도 출판비가 안 나와 애를 먹었어요. 먼저 정음사에서 시집을 내줬는데, 큰 출판사니까 조 선생에게 원고료는 없이 양복 한 벌 해줬대요. 그 생각만 하고 시집을 공짜로 하는 건가 보다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문화예술인들이 유토피아와 청담다방을 잘 찾았는지요?

인천의 문화인들이 거의가 그 두 군데서 모였었어요. 유토피아의 터줏대감이 이인석 씨고, 신문사에서 시간 날 때마다 오신 게 조수일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고봉인 씨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이가 이인석 씨의 참모 역할을 했어요. 동산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연극도 했대요. 연극 대본도 썼고, 시도 쓴다고 해서 문충구국대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활동할 때는 이정성 씨가 부산에서 돌아와서 그 자릴 맡고, 회장은 시장인 표양문 씨가 했지요. 조병화 선생은 좀 자유주의자니까, 이인석 씨처럼 극우로 나가는 그런 건 싫으니까 유토피아엔 어쩌다 가고 주로 청담다방엘 나갔어요. 이정성 씨하고 나하고 셋이서. 조병화 선생의 시 『인간고도』에 바로 청담다방이 나올 거예요. 낮에 지금의 제물포구락부 자리에 있던 시립박물관 관장실에 모였다가, 저녁때가 되면 청담다방으로 갔지. 그러니까 유토피아 아니면 청담 두 군데로 갈라져 있었는데, 술 먹을 시간이 되면 또 담동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애관극장에서 유치진 씨의 작품 ‘나도 인간이 되련다’라는 연극을 실험극단이 하는데 그 간판이 걸린 걸 봤어요. 근데 조병화 선생이 아침 일찍 러닝셔츠 바람으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야, 양수야~” 하시길래 나가보니 “그 말야, 오늘 이따가 애관에 실험 오는 거 알지?” “명동극장에서 봤는데 그

걸 또 인천에서 하는군요.”
 “그래, 애관에서 하기 때문에 유치진 씨가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술 한 잔 사야지, 우리 병원으로 이경성 관장 모시고 내려와. 그럼 그 사람들 그 배우들이 다 올 테니까 답동관 가서 한 잔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에 올라가서 이경성 관장한테 그



백암장 심사에 참석하고

말을 했더니 “그래? 그럼, 가야지.” 그래가지고 조병화 선생 댁 병원으로 갔어요. 이해람과 저번에 죽은 장민호 등 신헌 패들이 쭉 들어왔어요. 답동관 가서, 통금시간이 될 때까지 거나하게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 조병화 선생은 서울고등학교 선생 하면서 월급으로 쌀 두 가마를 받았거든. 쌀 두 가마를 받으면 급사 보고, 야, 그거 팔아와 해서 돈을 마련해도 명동 술값 갚는데도 모자랐던 호주가였어요.

6·25전쟁 때의 말씀을 안 여쭙 수가 없는데,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6·25 사변 날 때만 하더라도 나는 문학에 투신을 안 한 학생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우리 집 재목점의 일꾼 일곱 명 가운데 두 사람이 집이 북한쪽이라고 해서 평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식구들과 저녁식사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오게 해서 상을 놓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꼭 그 두 사람은 밥 먹을 때 밥그릇을 상 위에 놓고 먹질 않고 밑에 내려놓고 퍼먹더라고요. 좀 거북해요? 반찬은 위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다가 아니 그걸 왜 상 밑에 놓고 먹냐며 보기 싫다고 하고 올려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올려놓고 먹어라 왜 거기다 놓고 먹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

람들 얘기가 뭐냐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 꼭 일꾼들은 상 밑에다가 밥을 놓고 먹는데요, 근데 이 집에서만 손주님이 동등하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6·25사변이 딱 나서 서울이 함락하기 직전인데, 중구청(옛 인천시청) 앞에 인공기가 걸렸어요. 왜냐면 여기 인천에 있던 경찰들이 다 수원으로 집결했기 때문에 시청 국기 게양대에 인민공화국기가 걸리고, 거기에 빨갱이가 다 물려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수원 경찰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다시 와 인천시청을 포위하고 막 총을 쏘고 하는 바람에 그때 인천에 좌경이었던 사람들이 월미도에서 처형당해 죽었거든. 경찰하고 해군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인천 교육계에 김표성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도리없이 끌려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육감을 한 황광수 씨도 같이 묶여 월미도 쪽으로 끌려갔는데, 밤이 어두웠거든. 처형하는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지했어요. 황광수 씨를 동료들 보는 앞에서 처지게 해 맨 뒤에 끌려가게 했다가 발길로 황광수 씨 배를 걷어 차 그 언덕바지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해 이 양반만 살아남은 거야.

근데 그런 난국 속에 우리 집의 두 일꾼들도 그때 그 시청 모임에 간 거예요. 갔다가 키가 작은 친구는 뽕뽕하게 돌아와 골목길로 도망갔는데, 이 모라는 자는 경찰이 쏜 총탄이 불기짝에 박혀 허둥지둥 달려 왔어요. 경찰이 뒤쫓아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어디에 갔다 온 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고 들어오니까 숨겨 줬어요. 곧 경찰 네 명이 들이닥쳐 “여기 빨갱이 새끼 어딴냐”고 그레요 “그런 사람 들어온 일 없습니다.”고 했지요. 그레 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숨겨놓은 곳을 벽인 줄 알고 안 뒤져보고 “분명히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다”며 돌아갔어요. 간 후에 문 열고 나오라고 해서 약을 발라주었어요. 난 또 밤새도록 앙드레 지드가 쓴 소련기행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공산주의 동경하다가 갔다 와 보고는 실망하고는 그렇게 썼다고 그랬더니 꼬떡꼬떡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인민군 탱크가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용동마루턱에 인민군 탱크가 탁 서있더라고요. 어휴,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 얼마 후 저쪽에서 일꾼 두 사람이 팔에다 붉은 걸 두르고 소총을 맨 채 밀짚모자 차림으로 나한테 손짓을 하면서 와요. 가까이 보니 그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아, 이제 우리세상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북쪽에서 미리 파견시킨 공작대원이래요. 그러면서 다행히 날보고 김일성 장군 노래 배우러 가라고는 해도 강요는 안 해요. 내가 자기들 사람 대접했다고 그러는 거 같았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여기선 아무래도 집집이 밤에 인민군 의용군 뿔으러 젊은 아이들 잡아가니까, 소래 미산리 거기 성당 앞 먼 친척 되는 사람네 거기 가서 숨자.”고 그러세요. 우리 밑에 집들에선 다 잡혀갔지만 난 용케 변소칸 뒤에 숨는 바람에 모면했거든.

그래서 어둑어둑한 새벽에 우리 가족만 몰래 석바위로 해서 소래 미산리로 간 거예요. 내가 머물 방에 작은 문이 하나 달렸는데 닫으면 벽처럼 보여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집 밖에는 발이 있었고, 그 너머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 동네 자체가 성당을 중심으로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의 아들과 마루에 나와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쓱 들어오더니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눈짓을 하고 가더라구. 난 왜 그러나 했는데 조금 이따가 이 놈이 밥 먹다가 말고 나가 버리더라구요. 이상한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일부러 뒷마당으로 가서 옆집을 보니까 의용군을 뿔아가려고 인민군 장교 군인들이 집들을 살살이 뒤지더라구. 내가 거기 있으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 막 대문으로 뛰어 나가는데 성당 쪽에서 지키는 놈들이 있었어. “야! 저기 어떤 놈 도망간다!”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구. 그냥 냅다 언덕을 넘어가니까 밀밭이 주욱 있는데 그 밀밭에 그 집 아들놈이 요렇게 쪼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언덕으로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그놈은 저 있는 데로 오래.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니까 옥수수 밭이죠. 그게 평야같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짝 있는데 옥수수 밭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느 중간쯤 가서 목침 같은 돌이 하나 있어서 그걸 베고 누웠어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작품 속에 뭐가 있냐하면 한 주인공이 세상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밭에 가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아! 하늘이 푸르구나. 아! 흰 구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똑같은 길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있었구나 싶어 다시 살그머니 기어 나와서 보니까 석양 무

럽인데 동네가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살살 내려가 보니까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조용해요, 그래서 나는 괜히 산에 가 있었나, 괜히 밭에 가 있었나 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집 아들이 잡혀갔다. 의용군 뽀는데 삼밭에 가서 있다가 들켜서 잡혀갔더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놈이 날 따라왔으면 안 잡혀 갔을 텐데, 괜히 오히려 나보다 먼저 피한다고 거기 가서 숨는 바람에 나 도망가는 거 보고 뛰어와서 껌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놈도 나중에 애기를 들어보니까 나랑 동갑인데 안됐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인천상륙작전 끝나고 나서 그 집 아들 없어져서 참 우리가 신세였는데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껌뽀한 밤중에 끌려가다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느 움푹 들어간 데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느님이 살려주셨구나. 나는 거기 미산리를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길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셔츠 이쪽을 찢어서 늘리고, 바지를 한쪽을 접어놓고 한쪽은 그 노란 키니네 있죠? 시골에 가면 모기에 물리니까 학질 예방도 되지만은 그걸 아침저녁으로 세 알씩 먹었으니 얼굴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노래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병 환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보리밥에다가 그냥 이상한 거 먹고 맨날 속이 차지 않고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병자같이 마른데다가 얼굴도 노래지지요, 그리고 아가씨 루즈 같은 걸 묻혀 늘 코피가 나는 식으로 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니까 인민군 장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젊은 놈이 지나가니까 쭈 돌아봐요, 얼굴은 노랗고 빨갛지, 옷은 형편없지 그래도 한참 가면서 돌아다봐요, “아, 저 자가 나를 부르면 나는 끝장나는구나.”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가더라구요.

그렇게 석바위 수도사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으려니까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군함들이 눈앞에 모인 것처럼 와 있더라구. 군함이 저렇게 많이 몰려와 있으면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겠구나 싶었죠, 상륙작전 하는 전날,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야, 여긴 아무래도 함포사격하면 쑥대밭이 된다는데, 우린 늙은이들이니까 집 지키고 너희는 거기 미산리에 다시 가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함포 쏘는 날, 바로 열두시 경에 석바위 언덕에

막 갔어요. 시계를 보니까 열두시 정각이 됐는데 땀 하고 제일 큰 포탄이 하나 터지더라구. 그런데 저번에 고은 시인이 인천에 와서 인천 시내가 함포사격으로 쏘대밭이 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 안 사는 해변가, 저쪽 만석동에서도 사람 안 사는 월미도 근처 해변가, 그쪽으로부터 큰 포탄이 떨어지고 중포탄이 시내를, 작은 폭탄은 비행기에서 쏘는 거였지.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초토화는 안 시켰어요. 그건 내 눈으로 직접 그걸 지켜봐서 아는 일이에요. 한 시간 쏘는 것을 보고 미산리에 갔다가 상륙작전을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거든.

그 때 먹는 문제가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였겠는데, 어찌셨어요?

우리 집은 다행히 그래도 석 달 먹을 양을 사다 놔졌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극성맞게 전에 용동에 은행 있죠. 한일은행, 그 자리가 창고였어요. 창고에 쌀도 있었고 밀, 보리도 있었는데 난리가 나니까 동네사람들이 그냥 전부 몰려가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기왕 가져오 시려면 먼저 가져오시던지 하지. 남들이 하는 걸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맨 꼬래비로 가서 그걸 한 반 말 정도를 들고 오셨는데 그게 그 사람들 경찰, 군인 눈에 띄어가지고 그놈들이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 총 대놓고 공포를 쏜 거예요. 큰 공포를 쏘는데 할아버지는 맞으신 줄 알고 기절하고 누우셨지.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셨을 때 찬물을 드리고 약방을 하니깐 진정제를 잡숫게 했지요.

집에 쌀이 없는 것도 아는데 왜 그걸 가져왔느냐고 하니깐, 모두 가져 가길래 난 괜찮은 줄 알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일꾼이었던 그 인민군 공작대원 두 놈은 아침, 저녁으로 귀한 페니실린, 마이신 같은 걸 이만큼 싸 가지고 와요. 미항만사령부 창고와 장교용 창고에 주인이 없으니까, 이들이 관리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 고모님한테 사 달라고 하는 거야. 약국 하는 우리 고모님은 구할 수 없는 굉장한 약이니깐 올 때마다 돈 챙겨서 주었고, 그놈은 그걸로 갖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에 무슨 이득을 봤냐 하면, 미산리에 갔을 때에도, 아이들 부스럼 등 병이 그것만 쓰면 금방 낫는 거야. 테라마이신, 다이아친 등을 얻으려고 그 시골 일대에서 우리 집으로 몰려들

었으니까.

그런데 현금이 없으니까 쌀, 보리를 말로 가지고 와서 약값 대신, 치료비 대신 그걸 받아놓아 여유 있게 지냈지. 그런데 거기 미산리에서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몸쓸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내가 숨어있는 방에서 논을 내다보려니까 빨간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가서 낱알을 세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넓은 곳의 벼 낱알을 일일이 세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밤중에 노인들이 모여서 화투를 쳐는데, 거기서 영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이야기를 들으니 낱알을 세어서 논에서 벼가 몇 가마, 몇 말이 나오나 이런 걸 계산을 한대요. 그걸 후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농사지은 걸 다 거둬놓으면 복으로 가져가서 배급으로 준다고 하더라구.

6·25전쟁 중 ‘문충 시대’의 회상

6·25전쟁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와중에 문충시대를 지내시게 되는데 그 때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9월에 조병화 선생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갔더니 사모님이 문충구국대 사무실에 나가 계신다고 해요. 거기가 어딴니까 물으니 경기매일신문사 2층이 사무실이에요. 당시 1층은 인천신보인데, 김응태 씨가 앉아 계시더라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정성, 조병화, 이민, 유희강, 박세림, 박운섭 씨 등이 앉아있어요. 조병화 선생님께 인사 드렸더니, 너 의용군 안 끌려가고 용케 잘 버텼다며 여기와 일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김영달이, 또 그의 친구 김용배 등과 같이 문충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장은 표양문 시장, 부대장은 신태범, 이정성, 그리고 총무국장이 조병화, 선전국장이 이인석, 선전국 차장이 유희강, 동원국장이 이민, 동원국 차장이 박운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세림 씨가 총무차장, 장인식 씨가 그 밑이었었는데 우린 뭘 하나 했더니, 멸공문화의 쫓기대회 뭐 그런 걸 동방극장에서 한다고 해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 박운섭 인솔하에 김

용배, 김영달, 나 그렇게 셋
이서 그거 직접 풀칠해서
벽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중공군 개입으
로 1·4후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충도 해체해서
난 1월 4일 날 우리 아버님
이 빌린 진남포에서 왔다는
배를 세를 내 가지고 부산
에 가려던 것을 안 가고 옛
날 땅이 있던 충청도 당진



문인들과 함께

군 우광면이라고 하는 해변가의 논만 있는 동네에 가서 두 달인가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1951년 가을에 왔으니까……. 중공군이 다 밀려나고
나서 제일 먼저 돌아왔죠. 그렇게 왔더니 그 다음에 이경성 선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조병화 선생이 돌아오고, 그래 가지고는 이경성 선생, 조병화 선생과
맨날 그 문화원 자리 박물관에서 낮에 만나 문화예술과 시국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때면 유포피아, 청담 두 다방에 들렀다가 답동관에 가서 술 먹는 거, 그
게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지내오신 역정을 보면 문협 인천지부장, 한국평론가협회장, 예총 사
무총장 등을 역임하시고 후에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셔서 인천
과 중앙의 문화계 발자취를 어느 분보다 소상히 알고 계신데, 오늘날 인천 문화
예술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천은 개항 직후부터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 고장으로서는 뭔가 불모지 같
은, 뭔가 들어온 것은 전부 초기에 들어왔으면서도 다 서울로 빼앗기는, 다 서울
로 가는 그런 형국이었지요. 왜냐하면 서울에 모든 문화예술 시설이나 큰 신문
사, 출판사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표한다 해도 지방지
가 약했던 데다가, 웬만한 뉴스 보도는 중앙지가 새벽에 오면 거기 다 실려 버리

고 마는 식이었지요. 이런 인천의 불리한 점, 서울이 너무 가까운데서 오는 불리함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생겨 일제강점기 때부터 서울로 유학했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인천에서 신문 경영이 안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앙지가 모두 독점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지방지들 안 보고 다 중앙지 지방판을 보고, 또 그에 의탁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또 인천에서 좀 일어섰다고 싶으면 죄다 우르르 중앙에 몰려가고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거는 여전하지요.

이런 것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 문화를 양성을 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게 누구나가 다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문제들인데, 그렇지가 못한 형편입니다. 저만 해도 1955년도에 현대문학에 딱 등단하니까 모든 잡지나 기타 관계가 서울에 있어 뭐 인천에서 굳이 문학 활동을 할 필요 있나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예요. 그래서 인천서의 활동은 전쟁 직후에 벽시전 같은 걸 함께하던 문단 등단 이전이었지 정식으로 등단하고 나서 원고 청탁이 다 서울에서 오니까, 서울을 수시로 오가곤 했지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란 인식 절실해

결과적으로 선생님만큼 지방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약한 분도 또 안 계시다 싶는데요.

서울에 한국문인협회가 있고, 김동리 선생이 이사장, 그 부이사장이 5명이 있었는데 동리 선생이 지금 우리 나이 또래가 되니까 당신은 장관급 이상 사람이 모이는 데만 나타나지 일체 모든 관계, 외부 관계를 안 하세요. 안하니까 부이사장 가운데 가령 서정범 교수, 황명 선생, 구인환 교수, 전부 이게 같은 부이사장인데 서정범 씨는 경희대 교수지, 황명 씨는 저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거든.

구인환 씨는 서울사대 교수, 그러니까 다들 시간을 못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상임 부이사장 격이 돼 가지고, 각급 단체의 회의가 있으면 한국문인협회를 대표해서 내가 나갔고, 그러다 보니 관계 단체나 특히 문화단체의 일에는 내가 당연히 들어가는 길로 되어 있어서 늘 한국문인협회 대표로 참석한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면 어디 주제 발표, 토론회, 지방행사에 내가 다 대표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학영 씨가 예총 사무총장 당시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누가 사무총장을 하냐 그러다가 문협 출신이 불의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문협 사람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인협회 부이사장하고 있는 김양수가 있지 않냐, 김양수 시키라는 의견이 대두돼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사무총장 좀 맡아서 해 줄 수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글썽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라시니 “하죠” 그랬어요, 사실 부이사장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무총장도 그렇게 돼서 서울에서 줄곧 활동하게 되었었지요.

그 후에는 인천 지역사회 문화예술계에 참여하시면서 지역의 원로로서 많은 영향을 후학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인천의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보니까 이젠 서울도 서울의 중심이 없어졌어요,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이 발전하고 컴퓨터, 인터넷이 방송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유독 서울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겁니다. 중앙을 내세우던 시대는 없어졌으니까, 문제는 이제 인천의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려서 인천 지역이 한국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런 노력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인천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제대로 가꾸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인천지역의 특색을 보이는 것, 특색을 보여서 키우는 것, 발전시키는 것, 이것만이 앞으로의 인천 문화예술계에 부과된 큰 과제고 이것이 하나에도 둘에도, 셋에도, 열에도 인천이 문화의 중앙이다, 중심이다, 이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방향으로 뭉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

니다. 그 같은 시대적 추세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서울 쪽에만 눈과 머리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우리 인천의 특성은 원래 1883년 개항했을 때만 해도 모든 신문화가 들어온 출입구이자 근대화의 선구지였는데 그 같은 역사적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관례적으로 인천이 '서울의 관문'이라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에만 갇혀 있어가고는 문화예술이든, 인문학이든 되는 게 없을 거예요.

학자들조차도 과거에는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연구보다는 관련 학계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주제에 집착했던 것이 지난 날의 모습입니다. 괜히 중앙이다 해 가지고 온 그런 시대가 한 역사로 지났지만 이제는 소위 중앙이 없는 시대가 됐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앙의 일부를 떼서 저 '세종시'라는 데로 옮겼다는 발상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인천 문화예술은 인천의 특색을 살려서 여기서 인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인천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야를 인류사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이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 여기서 만약에 노벨문학상을 타는 사람도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예술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 인천이 세계예술의 중심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각오로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지역의 문화가 곧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이고, 그것이 세계의 문화입니다. 제가 말한 세계적인 것이 결국은 지역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고 인류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려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자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3장



곽재영 _____

인천 송의동 출생

인천기계공업학교 재학 시 “제1회 3·1절기념마라톤대회” 우승(1947년)

동국대학교 국문과 졸업(1956년)

인천개발공사 대표이사(1971년)

경기연맹 회장, 인천체육회 부회장,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등 역임
(1981년~2012년)

현재 인천육상경기연맹 명예회장,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

■ 채 록 자 : 임학성(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 채록일시 : 2013년 1월 17일

■ 채록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제13장 인천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안녕하하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린 임학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1947년 제1회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

그럼 먼저, 선생님께서 최근까지 회장으로 계셨던 인천육상경기연맹과 마라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육상경기연맹 회장과 인천체육회 부회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1981년 인천육상경기연맹회장, 1년 6개월 후에 인천체육회 부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육상경기연맹 회장직과 인천체육회 부회장직을 겸직했어요. 원래 부회장으로 있던 분이 관두게 되면서 내가 겸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분이 바로 인하대학교 교수를 하던 분이었어요.

최세진 교수라고, 최세진 교수가 나하고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인천중학교와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왔지요. 그런데 당시 인천체육회 내에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안하는 게 좋고, 하여튼 인천시장이 날 더러 부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나온거야. 그래도 계속 조르기에 내가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부회장 판공비를 안 쓰겠다. 그러면 내가 간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좋다고 해서 맡게 된 것이죠. 사실 시 입장에서는 더 좋지요. 판공비 안 쓰니까.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47년 제1회 3·1절 기념마라톤대회 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 대회가 단축 마라톤대회였는데 그렇다면 거리가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마라톤 거리는 42km인데 그 대회는 40km였어요. 당시 코스가 2km가 부족한 바람에 단축으로 한 것이죠. 여하튼 그 대회에서 내가 우승했고 상으로 시계를 받았어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지금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됐지만 당시는 인천기계공업학교라고 불렀어요. 그 때 상으로 받은 시계는 박태련 교장이라고 계셨는데 그분께 드렸어요. 왜냐면 인천기계공업학교에 육상부가 있기는 했지만 매우 약했거든 …….,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고 육상부의 발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 시계를 드렸지요.

그리고 보면 선생님이 제1회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계기가 되어 학교 육상부가 발전했고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어허, 그런 셈이죠. 그 후에 전국체전이나 전국육상대회에 가도 인천기계공업 학교하면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기계공고에 육상부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저의 학창시절에는 인천기계공고하면 럭비부가 전국적으로 유명했거로 기억합니다만 …….

지금은 육상부가 없어졌어요. 대신 럭비부가 만들어졌죠.

그럼, 앞에서 잠시 언급한 1947년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 얘기를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그때는 해방 직후라 여러모로 형편이 좋지 않았을 텐데요 ……., 인천의 교통이나 도로 사정은 어땠나요?

지금과 비교하면 그 때는 모든 게 나빴어요. 예를 들어 기차만 해도 뭐가 있었느냐하면 ……, 그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 짐 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화물차에다 의자를 놓고 다녔어요. 나무의자를 양쪽에 길게 놓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요.



인천공설운동장

저도 1970년대 말에 송도역에서 타 본 적이 있는 수인선 협궤열차와 같았겠군요. 그러면 그때 뛰었던 마라톤 코스는 어디였나요?

인천시청, 지금은 중구청이죠. 그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서구청으로 쭉 가다가 부평 경찰전문학교를 돌아오는 것이었죠.

인천시청에서 부평 경찰전문학교까지 왕복하면 40km가 됐나보죠?

예.

인천시청에서 부평 경찰전문학교까지 이렇게 달리실 때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건물 시설 같은 것들은 어땠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때는 차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니 도로 포장도 안 되어있고 그저 논밭뿐이었어요.

그러면 마라톤 코스를 달리실 때 차량으로 인한 공기오염이 없어 좋았겠네요. (웃음)

비 때문에 고생한 1964년 인천 최초의 전국체육대회

그럼, 이제 인천의 체육시설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예전에는 지금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인 윗터골에 넓은 평지를 조성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인천 프로축구팀인 유나이티드가 전용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송의동 공설운동장을 1934년에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윗터골운동장, 거기가 응봉산인데 분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윗터골운동장은 내가 그 때 어려서 별 기억은 없습니다. 꽤 넓어 축구나 야구 등 경기가 있을 때면 인천 시민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번소가 별로 없어서 근처에다 불일을 보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의동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한 것은 1934년이 맞습니다. 당시 인천 인구가 30만 명 정도였을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운동장에 미군이 들어와서 운동장을 못 썼어요.

운동장을 미군에게 빼앗겼다면 운동은 어디서 하셨나요?

우리 육상하는 사람들은 인중, 그 때는 제고가 인중이었어요. 인중 운동장이 넓어서 거기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땐 해방이 되고 길영희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

그럼, 다시 송의동 공설운동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송의동 공설운동장이 규모가 커진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송의동 공설운동장은 1950년대까지 별 불일 없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았고 …… . 그러다가 1964년인가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종합경기장 규모로 확장공사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 . 제45회 전국체전이더라구요? 1964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송의동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15개 보조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히! 준비를 잘 해 오셨네. 원래 전국체전은 10월에 열리는데 그 때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10월에 열리는 바람에 한 달 먼저 전국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운동장에 물이 고여서 스펀지처럼 물을 짜가지고 갔다 버리기도 하고 참 고생 많았지 …….

야구, 테니스 결승전은 폭우로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없어 공동우승으로 하기도 했어요.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역사상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대회였겠군요. (웃음).

예, 그랬어요. 그래도 최초로 ‘민박체전’으로 치른 모범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민박으로 치를 만큼 당시 인천의 숙박시설이 부족했나 보네요?

당시 인천 인구가 60만 정도였으니, 여관 등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했죠. 그렇다고 당시 인천시 형편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도 없었고 …….

그래서 타지 선수들을 인천 시민들의 집에서 민박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1천 가구가 이상이 민박을 제공했죠. 아마?

대단하네요! 요즘 분위기나 정서로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

‘봉봉남매’가 점화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제 육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육상만은 조금 많이 압니다. 내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도 오래했어요, 이사도 했고 …… 현재에도 내가 고문이에요.

지금도 평소에 마라톤을 하시나요?

아, 못해요. 내가 2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아주 몸이 나빠요. 지금도 날이 춥고 그러면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면 어디 따뜻한 데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육상경기연맹 회장도 작년 12월 10일 날짜로 관뒀어요.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아시아육상연맹하고는 절대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2005년도에 처음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아시아육상대회가 열렸어요.

예,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저 대구에서 아니 부산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이 처음 독자적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를 하는 건데 그때 북한선수도 왔죠. 또 응원단도 오고했죠.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웃음)

(웃음) 예. 지금 김정은 부인이 된 이설주가 당시 응원단으로 왔었다고 해서 최근 뉴스거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그때는 인천시장이 안상수씨인데 그 분이 이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천시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야.

정부지원 뭐 이런 건 받지 않으셨어요?

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해 올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17대 15로 우리가 2표차로 이겼어요. 그때 우리랑 붙은 나라가 인도였는데 …….

선생님, 인도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쟁지였는데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바레인과 경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맞아요. (웃음) 내가 나이가 먹어 간혹 헛갈리는 게 있어요.

(웃음) 하여튼 인천에서 처음 치른 국제 스포츠 대회였는데요, 그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수단 성적은 좋았나요?

아, 성적이요? 우리는 육상이 좀 약하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애들이 켜지. 그동안 우리야 세계적으로 마라톤만 유명했지.

(웃음) 예. 선수단의 성적보다는 대회의 성과라던가 의미, 이런 걸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나는 대회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선 규모만 해도 아시아 45개국 선수와 임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죠. 그리고 그래도 무엇보다 북한이 참석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평화의 무대로 만들었다는 점만으로도 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내가 마라톤을 했던 사람이라서 남북의 남녀 마라톤 영웅 이봉주와 함봉실이 나란히 성화 점화를 한 것도 큰 감명이었죠.

예, 언론에서 그들을 ‘봉봉남매’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성화 점화는 내가 뛰기로 한 거예요. 인천 육상계의 원로이기도 했고, 또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 그런데 북한 선수가 이봉주하고 같이 뛰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무궁무진해요. 공개하지 못할 것도 많고 …… 그래도 성과가 좋았으니 됐지.

거기에 북한 예술단이 응원단으로 참가하면서 관중도 많았고, 또 많은 호응을 얻었던 점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엿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아무래도 육상경기 부문을 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 이변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외국 나가면 국제 육상계에서 미스터 콕을 찾아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도 안 시장하고 쪽 다녔어요, 세계육상대회를 대구에서 할 때도 내가 유치위원을 해서 국제적으로 좀 많이 내가 알려졌지, 4년 전에 중국에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지요.

거기 가셔도 초청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받고 경기장 시설도 둘러보고 했어요, 그런데 운동장 양쪽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아니 이렇게 왜 크게 짓느냐? 그랬더니 이걸 세 주면 유지비가 다 나온다고 그 얘기야, 또 마라톤 코스도 봤는데, 코스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환경도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인 게 ……., 내가 작년까지 대한육상연맹하고 한 12번 다녔지만 마라톤 코스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육상연맹에서 인천대교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인천대교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천대교를 아느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인천대교를 개통할 때 마라톤대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참가자도 많았고, 바다 위 다리에서 해서 그런지 관심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몇 번을 와가지고 배타고 가보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다니기도 했죠, 그때는 봄이라 춥거든 ……., 바람이 세요, 그래서 아시아연맹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래 내가 “아니다! 여기가 기가 막히다 10월이면 바람도 세지 않고 마라톤하기에 좋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인천대교에

서 하기로 했는데, 안
시장이 안전을 문제 삼
았어요. 만일에 일반
참가자들이 뛰다가 바
다로 빠지면 어떻게 하
냐? 그래서 내가 그걸
해봤어요. 그런데 넘어
가질 못해 …… . 내가
그것까지 실험하고, 설
명해서 …… . 거 몇 번
을 회의 열고 해서 하
게 됐지요.



인천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

당시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마라톤 일반 참가자는 2만 4천명으로 스톱을 시켰어요. 왜 스톱을 시켰냐하
면 다리는 넓은데, 다리를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기에 인원수를 제한했지요. 그랬더니 왜 참가 신청을 안 받느냐고 시
장실로 빗발치게 항의 전화하고 난리가 났죠. 대신 마라톤 말고 걷기 운동하는
거로 한 3만 명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좁아서 난리가 났잖아. 그게 전부 다 노
하우거든 경험 없으면 …… . 하여튼 그때 4억 5천이 흑자가 났어요. 그 돈을 시
에다 다 주고 …… .

예. 하긴 인천대교 개통 기념행사로 마라톤대회를 한 것이니 그게 딱 한 번이
잖아요. 앞으로 거의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뭐 걷지도 못하잖
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모리스 니콜라스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그거 제일이다, 히트 칠거다 했지요.

모리스 사무총장은 3년 전에 인천에 오셨던 거로 아는데, 선생님하고 친분이 두터운 분 아닌가요?

아주 가깝죠. 싱가포르 사람인데, 나이가 나하고 같고 인천일보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국제대회로 개최되는데 금년이 13회예요. 그 분이 인천 대회는 꼭 왔어요. 동아일보니 뭐 이런 대회는 안가도 좋으니 인천만은 꼭 와야 된다고 내가 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에 암이 발견돼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 양반이 80이예요 한국 나이로는 81. 아시아육상연맹 사무총장을 40년이나 하고 있어요.

40년이면 참 오랜 세월이네요.

그 양반 아주 일생을 그 길로 마친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세상 떠나는 것도 못 봤어요.

대학은 체육과가 아닌 국문과를 나왔어

예, 그럼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인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창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는 어딜 나오셨는지요?

송의국민학교를 다녔죠. 국민학교 6년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인천기계공업학교, 6년제라서 거길 다녔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은 운동 때문에 동국대학을 입학할 해가지고 졸업을 맞고 그렇게 됐지요.

그럼 대학은 체육과를 다니셨겠네요?

(웃음) 국문과를 나왔어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동국대 다니실 때는 국문과가 유명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 최고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국문과에서는 양주동 교수라고 있었어요, 거 유명한 분이지.

그러면 대학 졸업하신 다음 전공을 살려 취직하셨나요?

못 살렸어요, 운동부하는 바람에 …….

그럼 인천기계공업학교는 언제 졸업을 하셨나요?

가만있자, 어 내가 졸업한 게 …….

해방 이후가 되겠네요?

아, 이후죠, 6·25 나던 그 해니깐 1950년이네요.

예, 그렇다면 대학 1학년 때 6·25 전쟁을 겪으셨겠네요?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25를 겪었어요.

그러면 대학은 조금 늦게 가셨나요?

조금 늦었죠, 그때는 대학이 부산에 있을 때예요.

예, 부산 피난시절, 그때는 대학들도 다 부산에 내려가 있었죠.

예, 부산 있을 때예요, 1952년에 부산에서 동국대에 진학했어요, 그 때는 혼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사실 인천의 원로로 계시던 김은하(金殷夏) 선생이 운동 특기생으로 추천해서 연세대로 가기로 됐는데, 어찌다가 동국대 가게 됐어요.

그 당시 김은하 선생이 국회의원으로 계셨었나요?

아니, 국회의원은 그 후에 하셨죠.

예, 그럼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취직은 어느 쪽으로 하셨나요?

아, 취직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당시에 김정렬(金正烈) 씨란 분이 계세요, 인천 시장하기 전에 법원장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인천체육회 회장을 하셨죠, 그 양반이 거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 뭐라 해 가지고 같이 다녔죠, 자유당 시절에도 부정을 안 한 분이예요.

그러니깐 최인규(崔仁圭)라고 있어요, 옛날 내무부 장관하던 그 양반이 김정렬씨가 인천시장할 때 시청으로 찾아와서 “늬은이 배매기에 철판 깔았나” 고 할 정도였죠, 그땐 자유당 시대니깐, 그 걸 안 한 사람이예요, 그러니깐 인천 시장 끝나자마자 심계원(審計院) 차장에 선임되어 서울로 갔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소신을 지킨 훌륭한 분인데, 나중에 국회의원 딱 한 번하고 더 이상 안 하셨죠, 그 분은 여야 전부 다 나쁘다, 거짓말꾼이라고 싫어하셨지요,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예요.

인천의 분노는 마차로 실어 날랐어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다니신 직장은 어디였나요?

아, 처음 시작한 거는 제일생명이라고 있어요, 거기 인천지점장으로 발령 받았어요, 지금도 제일생명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는 보험회사 중에 제일생명이 제일 컸어요, 거기 한 2년 다니다가 나와서 개인사업을 시작했어요, 대진산업이라고 분노를 처리하는 회사였죠.

대학 졸업하시고 2년 후 정도니 1950년대 말 쯤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때는 위생 환경도 나빴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환경 수준이 아주 열악했죠, 그때는 거 팔팔이 있죠? 마차 조 그만 거 , 말을 때리면서 끌고 가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예, 저도 어릴 적에 인천에서 마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거였는데 …….(웃음)

그래, 그 당시에는 마차 손구루마 이걸로 시작했어요.

마차에다 통 같은 거를 얹어서 …….

예, 그땐 뭐 말도 못할 때죠. 그러니까 뭐 인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안이 모두 논밭이야 그게. 그래 거기다가 분노를 실어다 쏟곤 했지.

그러다 몇 년 후에 내가 일본에 가서 위생 처리하는 차를 들여오려고 하나만 안 된다고 해요. 수입은 못 한다 그 얘기가. 그래서 위생처리 차를 수입하는 것은 포기하고 나중에 트럭을 개조해서 움직였어요.

상당한 발전이네요. 마차에서 트럭으로 변했으니 …….

예, 그렇게 쭉 하다가 인천위생공사로 상호를 바꿨죠.

지금도 인천위생공사 대표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몸도 아프고 해서 …….

연안부두 어시장을 만들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보니 인천에서의 선생님의 역정(歷程)이 인천의 도시 개발과 적잖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허. 임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할 이야기가 많게 됐네요. 사실 내가 인천의 매립사업과 관련이 많습니다. 1970년도에 인천개발공사에 들어가면서 인천의 대규모 매립사업을 추진했지요. 그 당시 인천개발공사는 공기업이었는데, 내가 상무로 들어갔다가 197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됐지요.

선생님께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계셨나 보네요?

인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45%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각 기관, 회사 이런데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병택(兪炳澤)이란 분이 인천시장으로 오셨는데, 나를 불러 인천개발공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때 투자한 게 1억 2천만 원이었죠.

와! 그때 돈으로요?

예, 전액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땅도 많이 샀는데, 인천 송도 유료도로 있잖습니까? 원래 그걸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도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차관을 들여와야 된다고 해서 흐지부지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시장 있잖아요, 연안부두에 그걸 내가 지었어요. 대표이사 할 때, 근데 거 원래 어시장이 어디에 있었나면, 하인천 아시죠?

예. 어선들이 많이 정박해 있던 걸 어릴 적에 본 기억이 있는데, 어시장이 있었는데는 몰랐습니다.

예,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연안부두로 옮기게 된 거죠. 그 땅이 2천 400평으로 동양에서 제일 큰 어시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인천시에서 땅을 천 평 기증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시장을 일반상인들에게 분양했는데 그 당시 450명의 상인이 1,400평만 산거야. 그것도 경기은행에서 적금 대출로 용자를 받아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상인 450명이 새로 조성된 어시장에 입주했다면 첫 분양 치고도 꽤 많은 셈이었겠군요.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연안부두 어시장이 현재의 규모로 커 나갔네요. 그럼, 어시장 말고 이밖에도 인천개발공사 대표 시절에 추진하셨던 사업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사실 난 대표이사를 오래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사정도 안됐어요. 그때는 내

가 인천위생공사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라 개발공사 일만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개발공사 대표이사를 관두고 내 사업을 하려 하면, 또 시장이 개발공사가 좀 시원치 않을 땐 나를 끌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참 난처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도 있는데 인천 일까지 계속 맡아 달라고 하니 …….

그때 내가 시장님께 뭐라 그랬다면, “아 이거 내 사업도 해야 하는데 자꾸 거기로 오라하면 어떻습니까?”했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그러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된다”고 졸라서 그래서 또 개발공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거예요.

유병택 시장님이신가요?

예. 그러다가 그 양반 관두고 그 다음 다른 시장이 나와서 또 해달라고 …… 그래서 네 번을 했어요 내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네 번 대표이사하신 게 잘하신 거지만, 개인적으로 는 손해도 많이 보셨겠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할 땐 다른 사업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 네 번의 기간 동안 추진하신 다른 사업은?

거, 어시장도 만들고 다음엔 검단면 있어요 김포!

예, 지금 서구에 속해 있는 검단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공원묘지도 만들고 …… 하여간 인천 지역적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 어답니까 로타리 앞에 산 있는 길 깎아서 주택도 만들고 …… 개발공사할 땐 참 많이 일했죠.

로타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터뷰 중인 구술자

연안부두에 가 있는 땅
있죠? 그땐 거기가 허허벌
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거 면데 보냈다고 어
시장 상인들이 수도 해 달
라, 도로에 아스팔트 해 달
라, 거 우리집에 와서 놀
기까지 했어요. 안 해준다
고…….

(웃음) 사실 지금 말씀하
신 얘기들이 참 재밌고 소중한 것입니다만, 만약 연안부두사를 만든다면 꼭 선
생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구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실 시간도 됐고 해서
…… 오늘 구술한 내용은 제가 정리한 다음에 감수도 받고, 부족한 것 추가 질
문도 드리고 …… 다음에 연락드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귀한 시
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같이 식사하시죠. 요 근처에 가끔 가는 집이
있는데, 소머리국밥 잘 하는 …….

예. 그러시죠.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부위원장	조명우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김병욱 인천대 명예교수(국문학)
당연직 위원	신동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전)나금환, 조동암, 전상주 국장
위촉위원	김병욱 인천대 명예교수(국문학) 정요일 서강대 명예교수(한문학) 조우성 인천일보 주필(향토사가) 이명숙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윤식 향토사가(국문학/ 시인) 이원섭 가천대 교수(신문방송) 서영대 인하대 교수(사학) 김영환 한겨레신문 기자(신문방송) 이영호 인하대 교수(사학) 이윤희 인천대 교수(사회학) 박도화 문화재청 감정위원(미술사) 박은경 인하대 교수(사학) 윤승준 인하대 교수(서양사) 이민우 부개여고 교사(역사) 장인우 인천대 교수(복식사) 강석화 경인교대 교수(사학) 노영돈 인천대 교수(법학)

이동후 인천대 교수(신문방송)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백승국 인하대 교수(문화콘텐츠)
 장정아 인천대 교수(문화인류학)

간사 류치현 문화재과장 / 전)김남윤 과장

서기 왕진모 문화재정책팀장 / 전)김동훈, 김명성 팀장

전문위원 강덕우(사학/ 문학박사)
 강옥엽(사학/ 문학박사)

집필위원

제1권 『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

서설 시사편찬위원회
 총설 서영대(인하대 교수)

제1부 전근대 인천

제1장 미추홀에서 인천으로 박은경(인하대 교수)
 제2장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인천의 섬과 포구
 강봉룡(목포대 교수)
 김경옥(목포대 HK연구교수)
 제3장 사상과 신앙의 선도지 강석화(경인교대 교수)
 제4장 관방의 보루, 보장처 인천 배성수(시립박물관 학예관)
 제5장 지리지와 읍지를 통해 본 인천지역의 읍호 변천
 남달우(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제2부 근현대 인천

- 제1장 제물포 개항장의 공간구조 이영호(인하대 교수)
제2장 근대문화의 수용 한철호(동국대 교수)
제3장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조선인 사회의 자각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
제4장 식민지 수탈의 현장 하원호(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부원장)
제5장 근대 이행기 인천의 도시경관 변화
전종한(경인교대 교수)

제2권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 서설 인천의 현재와 미래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제1장 정치 및 행정체제의 변화로 보는 인천
정일섭(인하대 교수)
이준한(인천대 교수)
제2장 인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김홍전(전 인천일보 논설실장)
김재식(상공회의소)
제3장 노동운동으로 보는 인천 이갑영(인천대 교수)
제4장 교육과 복지로 보는 인천 강경석(인하대 교수)
권정호(인천대 교수)
제5장 문화로 보는 인천의 생활사 이현식(근대문화관 관장)
제6장 시민사회운동으로 보는 인천 송정로(인천인 대표)
김송원(경실련 사무처장)
제7장 도시계획의 변화로 보는 인천 김용하(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종국(인천대 교수)

3권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 서설 및 해제 김병욱(인천대 명예교수)
제1장 강화도가 육지라면 김경준(전 덕신고 교감/향토사가)

제2장 인천체육과 도시발전	김윤식(시사편찬위원)
제3장 화교사회와 한국사회의 소통 매신저	문상범(제물포고 교사)
제4장 인천의 경제계와 정치계를 한 손에 쥐다	문상범(제물포고 교사)
제5장 인천 언론사의 증인	이영태(인하대 강사)
제6장 코리아 슈베르트의 끝나지 않은 여정	이영태(인하대 강사)
제7장 지난날 인천 교육은 최고였어	이원규(동국대 겸임교수)
제8장 옛날 인천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했지	이원규(동국대 겸임교수)
제9장 정의 구현을 위해 인천에서 사제로서 걸어온 한평생	이희환(시민과 대안 연구소 연구기획 실장)
제10장 여우실에서 지켜본 인천의 변천과 언론수난사	이희환(시민과 대안 연구소 연구기획 실장)
제11장 교육자의 한 길로	남동걸(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제12장 현대문학 평론가 1세대	조우성(시사편찬위원)
제13장 인천대학교에서 마라톤대회를	임학성(인하대 교수)

교정·교열위원

이연세(인하대 강사)
 안정현(인하대 강사)
 오정운(서구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신인호(방송대 강사)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㉓

인천인의 삶 도시의 변화

발 행 일 2013년 10월

발 행 인천광역시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송학동 1가 2-2번지)

032)440-8382~8383

ISBN 978-89-93590-76-0

인 쇄 동양인쇄사
